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2

- 비금면 편 -

---

2003. 1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신안군의 의뢰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가 2003년 5월부터 2003년 12월에 걸쳐 수행한 『島嶼 文化遺蹟 地表調査 및 資源化 學術用役 -압해, 비금, 흑산면편-』의 최종 성과품 중 비금면 편이다.

신안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전남 도서지방의 민속 분야를 조사한 『한국민속종합보고서(전남편)』(1969), 고고학 관련 유적·유물의 분포상을 정리한 『도서지(島嶼誌)』(내무부, 1973) 등을 통해 부분적인 사정이 파악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87년에 비로소 종합적인 지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는 {新安郡의 文化遺蹟}(목포대학 박물관·신안군)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신안군의 유·무형 문화재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책이 발간된 지 벌써 15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이미 낡은 조사가 되어버렸다.

---

이번에 우리 연구소에서 실시한 이 작업은 단순히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의 지표 조사는 아니었다. 물론 지표조사의 본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전제였다. 그 위에 덧붙여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지표조사의 성과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특히 '문화재'를 뛰어 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문화에 주목한 까닭은 문화재는 자연의 공공재들과 함께 권역과 '자연-인간'의 총체성, 즉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존·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고유의 삶과 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거나 사라졌다. 그리고 지역개발의 논리에 밀려 문화자원 역시 마구잡이로 훼손되어 버렸다. 심지어는 무엇이 의미 있는 문화자원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리기도 하였다. 더 이상 이런 방관과 포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선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수집·보존하는 일이 시급하다. 또 아울러 이를 지역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자원의 보존을 쉽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투자의 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지표조사에서는 문화자원을 “보존하며 동시에 활용하고”,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하는”, 이른바 <보존과 활용>의 상승효과를 올리는데 주목하였다. 이는 대립 개념인 ‘보존과 개발’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해 넘으로써 신차원의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섬만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해양의 시대에 각광 받는 섬 문화관광지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풍부한 섬의 문화자원이 있다 해도 그저 흩어져 있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작업은 그런 점에서 흩어져 있는 구슬들의 존재를 파악해서 이를 가장 아름답게 꿰어 그 상품가치를 최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작업은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해 주는 일이었다.

지표조사는 먼저 자연자원, 선사유적, 역사유적, 주거문화자원, 민속문화자원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주요 자원을 선별하고 각 분야 나름의 특성을 반영한 활용방향을 제안하였다. 다음 이런 지표조사의 결과 및 제언을 수용하여 문화유적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특히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이번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이번 작업은 주로 인문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시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하는 자원화 기본 구상은 지금까지의 어떤 구상과도 다른 문화 창조성을 지닌다는 점을 자부하고 싶다.

이번 작업은 비금면과 함께 압해면, 흑산면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 섬들의 문화적 차이와 특징을 뚜렷이 비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더욱 독창적인 자원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제 신안군 1읍 13개면 중 겨우 3개 면에 대한 작업이 끝났다. 이 작업을 토대로 신안군 전체의 문화관광 계획이 새롭게 마련된다면 이는 획기적인 계획으로 주목받을 것이 틀림없고, 신안군 관광의 신기원을 이루기에 충분한 성과가 되리라 믿는다. 따라서 나머지 읍·면에 대한 조사도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란다.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번 작업의 성과로 신안군은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준비를 이제 막 시작하였다. 머지 않아 다도해 프로젝트의 찬란한 햇살이 신안군 전체를 밝게 비추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과업에 같이 참여하여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헌신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런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안군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 12.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장 고 석 규

---



# 목 차

책을 내면서 ————— 3

연구 개요 ————— 11

I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활용방향 ————— 19

I. 자연자원 ..... 21

1. 자연자원 목록 ————— 21

2. 자연자원 현황 ————— 22

1) 지리적 위치 ————— 22

2) 비금도의 크기 ————— 22

3) 쾌적한 해양성기후 ————— 23

4) 게르마늄도양 ————— 23

5) 청정해저환경 ————— 24

6) 고막팽나무 ————— 24

7) 원평 사구 식물군락지 ————— 25

8) 칠발도 해조류번식지 ————— 26

9) 용방죽(용소) ————— 27

10) 미네랄해수 ————— 28

11) 비금도 지질구조 ————— 28

12) 간척의 섬 ————— 29

13) 명산 ————— 30

14) 전설 서린 거대 암석들 ————— 30

15) 원평리사구 ————— 31

16) 특산물 ————— 32

17) 포구경관 ————— 33

18) 서남문대교 ————— 34

19) 바람막이돌담(우실) ————— 35

20) 비금도 생업경관 ————— 35

21) 수립리 염전 ————— 36

22) 원평 명사십리 해수욕장 ————— 36

23) 하누넵 해수욕장 ————— 37

24) 가는목 해수욕장 ————— 37

25)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 37

3. 자연자원 활용방향 ————— 39

1) 지표조사의 기본방향과 성과 ————— 39

2) 자연자원의 활용방향 ————— 40

II. 선사유적 ..... 44

- 1. 선사유적 목록 ..... 44
  - 1) 유물산포지 ..... 44
- 2. 선사유적 현황 ..... 44
  - 1) 용소리 I 유물산포지 ..... 44
  - 2) 용소리 II 유물산포지 ..... 45
  - 3) 용소리 III 유물산포지 ..... 45
  - 4) 가산리 나배 유물산포지 ..... 45
  - 5) 광대리 고분 ..... 45
  - 6) 광대리 고분군 ..... 45
  - 7) 도고리 유적 ..... 46
- 3. 선사유적 활용방향 ..... 46

III. 역사유적 ..... 50

- 1. 역사유적 목록 ..... 50
  - 1) 고대·고려시기의 유적목록 ..... 50
  -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목록 ..... 50
- 2. 역사유적 현황 ..... 51
  - 1) 고대·고려시기의 유적현황 ..... 51
  -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현황 ..... 55
- 3. 역사유적 활용방향 ..... 73
  - 1) 고대·고려시기 유적 활용방향 ..... 73
  -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 활용방향 ..... 78
- 4. 역사유적 활용방향 ..... 80
  - 1) 석조건축물을 통한 도서지역의 유교문화체험-내월리·죽림리문화권- ..... 80
  - 2) 비금도 염전과 소금만들기, 도구문화 전시프로그램 개발 ..... 81

□ 분포지도 ..... 84

IV. 민속문화자원 .....	105
1. 민속문화자원 목록 .....	105
2. 민속문화자원 현황 .....	107
1) 당제·갯제 .....	107
2) 굿과 연희 .....	115
3) 장승·우실 .....	122
4) 어로문화자원 .....	124
5) 설화 .....	136
6) 민요자원 .....	145
3. 민속문화자원 활용방향 .....	152
1) 지표조사의 기본방향과 성과 .....	152
2) 활용방향 .....	153
V. 주거문화자원 .....	159
1. 주거문화자원 목록 .....	159
1) 주거개념 .....	159
2) 전통주거 조사 .....	160
2. 주거문화자원 현황 .....	161
1) 19세기경 주거 .....	161
2) 20세기 초~중 주거 .....	169
3. 주거문화자원 활용방향 .....	182
1) 주거모델 개발 .....	182
2) 관광자원화 .....	190
□ 문화유적 종합목록 .....	193
□ 문화유적 분포지도(종합) .....	195

2부 문화유적 자원화 방안 ————— 199

1. 머리말 ————— 201
  2. 자원의 특성과 의미 ————— 206
  3. 자원화의 기본방향 ————— 206
  4. 자원화 계획 ————— 207
    - 1) 핵심복합사업 ————— 207
    - 2) 개별사업 ————— 212
  5. 관광기념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 ————— 216
    - 1) 관광기념품 ————— 217
    - 2) 문화콘텐츠 ————— 217
- 
- 비금도 명사십리 자원현황도 ————— 219
  - 비금도 명사십리 기본계획도 ————— 221
  - 비금도 하누넝 자원현황도 ————— 223
  - 비금도 하누넝 기본계획도 ————— 225

## 연구개요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각종 유·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문화유적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리하여 디지털 자료화한다.

#### ○ 도서 문화유적의 자원화

총체적으로 파악된 유·무형 문화재에 대한 장단기 전송·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문화자원화하여 장단기 관광자원 및 상품화 계획을 수립한다.

### 2. 연구의 기본방향

#### ○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문헌조사, 현지방문조사를 심도 있게 추진하고 파악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자연문화유산들을 초기에 면밀하게 문헌, 지표, 그리고 현장을 조사하여 이것들이 철저히 체계적으로 전송·보존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의 집중화를 기한다.

○ 조사한 유·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송·보존 및 관광상품화를 통해 신안군의 문화관광사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학술적 방안을 모색한다.

○ 21세기 바다의 시대,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연구 대상지역은 압해면, 비금면, 흑산면 3개면으로 한다.

### 3. 연구의 내용과 범위

○ 유·무형문화재 관련 문헌 및 도서(읍면) 현장방문 지표조사

○ 유·무형문화재 구전기록 및 현장 영상기록(사진, 영상 디지털화) 보전 병행

○ 조사된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송·보존 계획 수립

- 조사가 완료된 읍면의 유산 중 학술적 가치나 전송 및 보전이 필요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국가, 도, 향토사료로 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자료 확보
- 자연 및 문화유산에 대한 유형별 분류 및 장단기 전송·보존 계획 수립
- 관련 자료의 매뉴얼화 및 CD-ROM, 스크랩 제작
- 유적지, 고문서, 고문헌, 구비전승, 굿, 당제, 민속자료, 고인돌, 독살, 해조류 번식지, 어구어법 등의 모든 자료를 원형대로 디지털 자료화
- 문화관광지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된 자연문화유산의 산포지가 표기된 지도 작성

○ 조사된 문화자원의 장단기 관광상품화 계획 수립

- 도서(섬)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 국민 스스로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테마별로 기획 상품화
- 문화관광 상품 및 자원을 대외에 홍보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나 학술토론 등을 개최

#### 4. 연구의 의의

○ 문화유적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지표조사의 성과들은 그대로 미래산업, 즉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 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행하던 지표조사의 결과를 사회과학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문화적 창조성을 지닌 자원화 기본구상 제안

○ 지표조사의 집중화·체계화·디지털화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사로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성과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디지털 자료화 구축

## 5. 기대효과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
- 문화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 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 마련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써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 마련

## 6. 연구진 구성

- 책임연구원 고석규(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교수, 도서문화연구소장)  
이중화(목포대 정경학부 도시및지역개발학전공 교수, 임해지역개발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김지민(목포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강봉룡(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교수)  
 이현중(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교수)  
 홍석준(목포대 역사문화학부 문화인류학전공 교수)  
 이덕안(초당대 관광학과 교수)  
 문병채(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GIS전공)  
 이경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민속학전공)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전공)

- 연구보조원 이병삼(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역사학전공, 압해중고 교사)  
 최용덕(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년, 문화인류학)  
 박선형(목포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4년, 건축학)  
 이승윤(목포대 역사문화학부 4년, 고고학)  
 이은정(전남대 대학원 석사과정, 사학)  
 이홍선(목포대 정경학부 3년, 도시및지역개발학)  
 이윤선(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  
 엄수경(목포대 대학원 석사수료, 민속학)  
 송기태(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강평년(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지적도시정책협동과정)  
 박정일(목포대 임해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 도시계획)  
 최은정(목포대 역사문화학부 3년, 역사학)  
 김재정(목포대 역사문화학부 3년, 역사학)

## 7. 작업일지

- 1차 회의 : 2003년 6월 4일
  - 과업내용 설명과 업무 분담
  - 지표조사팀과 자원화팀 구분
  - 면별 책임자 선정
- 2차 회의 : 2003년 7월 10일

- [신안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워크숍] 개최

일시 : 2003년 7월 10일(목) 오후 3시

장소 : 교수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

1) 워크숍 주제 발표

제1주제 : 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문화연구 - 문병채

제2주제 : 신안군 문화·자연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 이덕안

2) 진행 상황 보고 및 토의

○ 3차 회의 : 2003년 7월 30일

- [도서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안 연구 용역 2차 워크숍] 개최

일시 : 2003년 7월 30일(수) 오후 4시

장소 : 교수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

1) 워크숍 주제 발표

제1주제 : DB의 작성 및 운영, 기술(안) - 문병채

제2주제 : 역사문화자원의 DB화 방안 - 고석규

2) 진행 상황 보고 및 토의

○ 4차 회의 : 2003년 8월 26일

- [도서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중간보고를 위한 예비발표회] 실시

일시 : 2003년 8월 26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1) 지표조사 및 자원화 방안 중간보고를 위한 예비발표회

발표자: 연구자 전원

2) 중간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준비

○ 5차 회의 : 2003년 9월 29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중간보고 관련 2차 회의] 실시

일시 : 2003년 9월 29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대회의실

내용 :

1) 지표조사 관련 각 분야 점검 사항

① 문헌조사 결과 : 관련 문헌 및 문헌 소재의 문화재 내역 정리

② 현지 방문조사 : 현지 방문 일지, 면담자 일람, 면담 결과 정리

③ 조사대상 문화자원의 데이터베이스용 원고 작성 :

항목은 [명칭/소재지/조사(예정) 일시/조사결과물/자원 소개/전승·보존 계획/추후 계획]

등으로 구성하되, 자원의 특성에 따라 다소 변경 가능, 문화자원의 소재지를 지도에 표기

④ 문화유적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화 및 활용에 유용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가능한 활용방안과 함께 제시

2) 자원화 분야 점검 사항

① 자원화 방안에 대한 일반안 제시

② 타 시군의 자원화 사례 검토

③ 현 신안군 자원화의 현황 및 장단점 파악

④ 자원화 방안 사례 발표

○ 6차 회의 : 2003년 11월 18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3년 11월 18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과제 수행 진행 상황 보고 및 토의

○ 7차 회의 : 2003년 12월 17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3년 12월 17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과제 수행 진행 상황 보고 및 자원화팀 현장조사 일정 논의

○ 8차 회의 : 2003년 12월 29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3년 12월 29일

장소 : 도서문화연구소

내용 : 자원화팀 흑산도 · 비금도 · 압해도 현장조사 준비 상황 점검

○ 9차 회의 : 2004년 1월 14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4년 1월 7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자원화팀 현장조사 내용 보고 및 토의

---

○ 10차 회의 : 2004년 1월 27일 모임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4년 1월 27일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최종보고서 작성 관련 점검 회의

○ 11차 회의 : 2004년 2월 6일

-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 회의]

일시 : 2004년 2월 6일(금) 오후 3시

장소 : 교수회관 2층 세미나실

내용 :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종 점검 회의



1부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활용방향

新安



# I. 자연자원

## 1. 자연자원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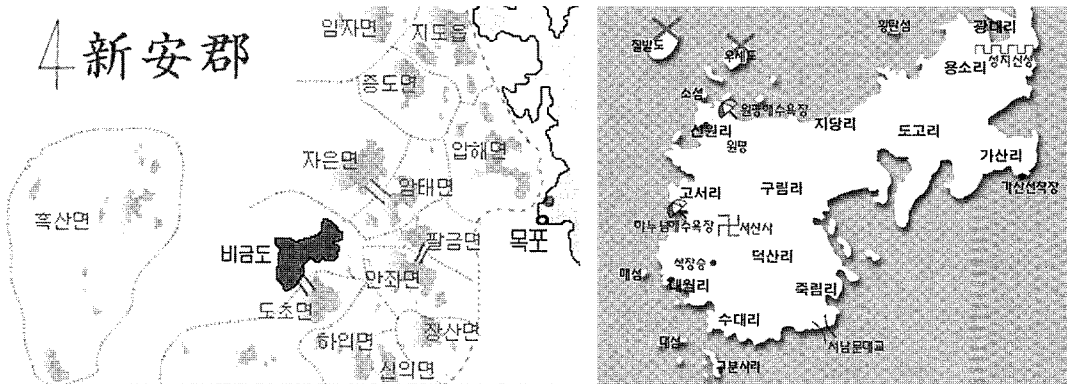
구 분		번호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1.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1	지리적 위치	신안군 비금면 일원	125° 45' E, N34° 45'
	모양과 형태	2	비금도 형태	신안군 비금면 일원	면적51.53km <sup>2</sup> , 해안선133km
2. 기후와 풍토	기후	3	쾌적한 해양기후	신안군 비금면 일원	
	토질과 풍토	4	게르마늄토양	신안군 비금면 일원	
	해수환경	5	청정해저환경	신안군 비금면 일원	
3. 숲과 동·식물	숲과 나무	6	고막쟁나무	고서리 고막부락	표고30여m, 수령700여년
		7	지당리 곶솔	지당리 지동마을	수고10m 둘레2m
	풀과 약초	8	원평사구식물군락	지당리 뒤쪽 해안사구	길이 4km, 폭 50m
	새	9	칠발도해조류번식지	비금면 칠발도(무인도)	3만 6993m <sup>2</sup>
4. 물과 바다	습지 및 섬	10	용수(용방축)	용소리의 천연못	약 9,118평, 깊이 3m
	해수	11	미네랄해수	비금도 인근 바다물	
5. 지형과 지질	지질과 지형	12	비금도 지질	비금면 일원	
		13	간척의 섬	비금면 일원	면적 51.53km <sup>2</sup>
	산과 들	14	명산	성치산, 떡매산, 서낭산 첼봉산	성치산(144.4), 떡매산(74) 서낭산(225), 첼봉산(60)
6. 지역 산물	암석	15	기암괴석	범아제비바위, 용혈 바둑판바위 등	
	해안지형	16	지당리사구	지당리 뒤쪽 해변 언덕	길이 6km, 폭 100m
7. 인문 경관	특산물	17	비금섬초	비금도 일원	재배면적 650ha
		18	천일염	비금도 일원	연간 60000 M/T
8. 공원과 관광지	포구경관	19	포구경관자원	송치항, 가산항, 원평항,	
	다리와 길	20	서남문대교	도초동 ~ 비금도	812m, 폭 8.2m
	생활경관	21	바람막이돌담(우실)	내월리 내촌마을 뒤쪽	길이40m, 높이3m, 폭1.5m
	생업경관	22	시금치경작지	내월리 일원	
8. 공원과 관광지	천연기념물	23	칠발도해조류번식지		제322호
	근대문화유산	24	수림리염전		한국 제1호 염전
	뉴시터	25	원평뉴시터	원평리 해안	숭어, 도미
		26	칠발도뉴시터	비금면 칠발도 일대	숭어, 도미
	해수욕장	27	명사십리해수욕장	원평리 해안	길이 4.0km, 폭150m
		28	하누넵해수욕장	내월리 내촌마을 해안	길이 1.0km, 폭 50m
		29	가는목해수욕장	내월리 내포마을 해안	길이 1.5km, 폭 50m
국립공원	3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금도 서부 해안지역		

## 2. 자연자원 현황

### 1) 지리적 위치

#### ▶ 내해의 마지막 섬

비금도는 동경 125도 45", 북위 34도 45"지점에 있으며, 목포와의 거리는 45.1km이고, 한국 서남단에 위치해 있다. 신안 사람들은 예로부터 비금도를 벗어나면 먼 바다로 여긴다.



### 2) 비금도의 크기

#### ▶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은 섬

도서 및 해안선의 길이는 82개(유인3, 무인79)의 섬을 포함하여 132.64km에 이르고 있다. 인구는 약 5천명 정도되며, 법정리 13, 운영리 35, 반 103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산업구조는 농수산업 93%, 상업 기타 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수지 12개소(239.6천M/T) 농조소관 1개소(광대) 750천M/T이 건설되어 있다. 그리고 면적은 51.53km<sup>2</sup>(신안군의 8.20%)이며, 타 도서에 비해 담과 염전이 많은 편이다. 그라코 비금도의 북서해안가의 해수욕장은 경관적으로 운치가 있어 관광지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 도는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다도해의 일부로서 동서가 길고 남북이 짧으며 동으로는 성치산맥이 뻗어있으며 중간에 마산이 크고 작게 고지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선왕산맥이 높고 낮게 이루어져 우람하며 그 사이에 평야가 형성하여 있으며, 북으로는 황해바다에서 밀려온 모래로 형성된 명사십리 백사장이 있어 여름철 가족동반의 휴가 피서지로 최적지를 자랑하고 있다. 동남해안 일대로

는 20여km 방조제를 축조하여 농토 1600여ha와 천일염전 720여ha를 형성하여 보호하고 있어 민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

### 3) 쾌적한 해양성 기후

#### ▶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갖는 지수가 83임에 비해 비금도 지역은 72 정도이고, 체감온도를 나타내 주는 윈드칠지수(windchill index)가 내륙지역에 비해 10 정도 높고, 쾌청지수 역시 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해안의 섬들 중에서도 기후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자연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낮기 때문에 육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곳이다. 또한, 여름에는 비교적 서늘하며 겨울에는 온화하여 쾌청한 날씨가 유지되는 날이 많고(최난월 26.5℃이고 최한월 2.3℃임), 해수온도 역시 겨울철 난류(쿠로시오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평균 수온이 12℃로 유지되고 있어 인간에 적합한 기후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4) 게르마늄토양

#### ▶ 신비의 광물질인 게르마늄의 다량 함유

비금도 전역은 토양에 다량의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다. 게르마늄은 인체의 산소공급 및 두뇌활동 촉진 등의 효과는 물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증진에 따른 성인병 예방, 암치료 등에 타월한 효과가 있는 신비의 광물질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게르마늄 농·축산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게르마늄 농법은 게르마늄을 유기화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농법이다. 게르마늄에는 동식물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 및 신진대사 촉진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할 경우 뿌리 활착력이 3배 이상 높고 줄기나 이파리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뿌리 활착이 좋아짐에 따라 토양 중에 있는 양분을 고루 흡수해 질이 좋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증수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토양 속에 잔존해 있는 독성과 중금속 등을 해독시켜 무공해 농산물로 건강증진에도 이점을 준다. 가축에게 이를 섭취시킬 경우는 불포화 지방이 분해되고 분뇨에서도 탄산이나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적어져 폐사율이 줄어든다.

## 5) 청정해저환경

### ▶ 적조가 없는 해역

바다 밑에는 비옥한 점토 혹은 사질토가 두껍게 쌓여있어 갯것과 해초의 농장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얕은 바다에는 김 등의 해초류 양식장이 널려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지금껏 적조가 발생한 일이 없고 아니 앞으로도 발생하지 못할 것이다. 해안에는 평균 3m 이상의 큰 조차는 해수 해수를 수직적으로 섞고, 빠른 조류흐름(들물은 시계방향, 썰물은 시계반대방향, 사리 때에는 2~3노트의 속력을 보이고 연안과 섬사이 유속은 6~6노트 되는 곳이 많음)은 해수를 수평적으로 섞어버리는 활발한 해수순환 운동은 적조 발생의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활발한 수직적 해수순환은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냉수에 적합한 어종의 생태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 조류가 활발한 지면과 접하는 해역은 먹이사슬의 기본적인 요소를 구비하게 하여 건전한 생태계를 갖게 하고 있다. 해안에는 부유성 식물이 많고, 어족이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게 한다.

## 6) 고막팽나무

### ▶ 소원성취의 신목

고막팽나무는 비금면 고서리 고막부락에 위치한 것으로 약700여년 된 높이가 약30m 정도, 둘레 약 7m정도 된다. 그 유래는 옛날 늙은 부부가 무남독녀의 외동딸을 기르면서 사이 좋게 살았는데, 딸이 7살 되던 어느날, 병명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몇일 후 숨을 거두어 버렸다. 이에 딸의 시신을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었는데 5년이 지나자 딸의 무덤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고 한다. 그래서 불임증을 다스리는 신통한 나무로 여인들로부터 신앙이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300여년된 팽나무는 아들이 없거나 어린애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나무에 공을 드리면 숙원을 이룩한다고 전해져 지금도 치성드리는 것을 목격한다. 이 같은 전설을 뒷받침하듯 나무 중간쯤에는 오목하게 패인 구멍이 있고 이 구멍에 고인 물은 부인병에 특효약이라 해서 물을 찾는 여인이 있는데 효험을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나무에 얽힌 전설이 있다. 옛날 마을에 늙은 부부가 무남독녀인 외동딸을 기르면서 사이 좋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귀여운 딸이 7살 되던 어느날 병명을 알 수 없는 괴질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며칠 후 숨을 거두었다. 노부부의 슬슬픔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을 두고 통곡했지만 딸은 소생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딸의 시신을 마을 뒷산 양지바른 곳에

물었다. 그런 뒤에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찌된 영문인지 딸의 무덤 옆에서 팽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부부는 딸의 넋이 나무로 환생하여 그곳에 자라난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을 쏟아 가꾸었다고 한다. 부부가 죽은 뒤 팽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났고 언제부터인가 아이 없는 여인이나 아들 없는 부인들의 치성을 들이며 그 뜻이 이루어져왔다고 한다.

## 7) 원평 사구 식물군락지

### ▶ 사구식물의 보고

비금도에는 사구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사구식물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군락을 이루는 것만도 갯그렁, 줌보리사초, 모래지치, 갯메꽃, 통보리사초, 순비기나무, 갯방풍, 솔장다리, 갯눈쟁이 등 헤아리기 힘들다. 특히, 원형향이 있는 명사십리해수욕장 위쪽에는 사구가 발달되어 있어 특히 많은 종이 발견되고 있으며, 그 중 갯그렁 군락이 3천㎡와 순비기 군락이 4만5천㎡에 이르고 있고, 하누섬 해수욕장 지역에도 순비기 군락이 1천㎡에 달하고 있다.

또한, 비금도 동남부 해안에는 갯벌이 발달되어 있어 폐염전 지대를 중심으로 함초인 통통마디는 물론 해홍나물, 나문재, 칠면초까지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어 이를 자원화할 경우 경제성과 관광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부가가치가 기대되고 있다.

사구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나 자갈로 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생으로 대표적으로 초본으로 줄기가 약해서 支持를 위해 옆으로 퍼져 자라는 수송나물, 수송나물보다 줄기가 보다 굵고 단단한 관계로 위로 크는 솔장다리, 염생습지식물 중 유일한 목본식물(높이 50cm)인 순비기나무, 모래땅에 서식한 초본이기는 하나 뿌리가 알아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 관계로 배후습지에 군락을 잘 이루고 있으며



해당화

이삭이 보리와 같이 생긴 통보리사초, 벼과에 속하며 보통 높이가 88cm에 이르며 뿌리길리와 줄기 길이가 비슷할 정도로 뿌리가 매우 깊게 발달되어 있어 사구의 경사진 곳이나 언덕을 이루는 곳에 군락을 잘 형성한 갯그렁, 뿌리가 매우 깊고 잎이 많고 넓으며 거칠고 뿌리가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풍 예방) 갯방풍, 뿌리가 매우 깊고 줄기에 가시가 있으며 붉은 색의 꽃이 매우 아름답고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해

당화 등을 들 수 있다.

사구지형은 변화가 심하다. 언덕과 웅덩이가 계속 옮겨 다니는 현상이 목격된다. 식생 또한 지질(모래, 자갈)이 불안정하여 주로 다년생초가 자라며, 뿌리가 깊고 위로 뻗는 것보다 옆으로 자라는 것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고도차 보다 뿌리의 강약이 분포패턴에 영향을 준다.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다음과 같은 분포패턴을 보인다. (해수)→통보리(좁보리)사초→갯그령→순비기나무→중성식물(해송, 아카시아) 순이 그것이다. 그리고 통(좁)보리사초, 갯메골, 모래쥐치(할미꽃과), 백년풀 등의 분포지는 비슷한데, 누가 먼저 점유했냐에 따라 우생종 군락을 나타낸 것이 보통이다.

## 8) 칠발도 해조류번식지

### ▶ 천혜의 조류서식 환경

칠발도는 행정구역으로 보면 飛禽面 古西里에 속해있으며 목포에서 43마일 떨어져 있는 서남해상에 외롭게 떠있는 총면적 0.3km<sup>2</sup>의 작은 섬이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는 뱃길을 밝혀주는 유인등대가 홀로 서있을 뿐 1년 내내 바람소리와 파도소리만이 고도의 정적을 가를 따름이다. 나무 한 그루 없이 1년초인 잡초만이 우거진 인적 없는 이 섬은 사람의 발길이 없어 새들이 안전하다. 특히, 이 섬은 암반으로 이루어진 섬(해발 105m)으로 암반사이에는 빈공간이 많고 섬의 상층부에는 사질토와 잡초가 번성하고 조류의 번식지로 최적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토속새인 바다쇠오리, 습새, 바다제비, 칼새등 희귀한 조류가 무려 26종이나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1982년 11월 4일에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었다.

바다제비와 습새는 이섬의 북쪽 사초과의 풀밭사이 바위틈새에서 번식한다. 칼새는 이 섬에서 잠깐 밤을 보내고 손살같이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먹이 사냥을 하고있는 모습만을 볼수 있다. 바다제비는 무리 지어 해마다 찾아와 번식하고 있다. 물갈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칠발도는 이동 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날개 짓을 멈추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새들은 이동 중에 아예 이곳에 등지를 틀기도 한다. 백로, 휘파람새, 때까치, 바다직박구리 등을 직접 목격했다. 새들이 날아와 섬을 하얗게 덮고 울음소리를 내면 이 장관에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탄성을 연발케 한다. 1938년 일본인 조류학자 小林, 石燈 두 사람에 의해 조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섬에는 바다쇠오리, 바다제비, 습새, 칼새가 서식하는데 칼새는 암벽 틈바구니에서 살고 돌과

들사이, 그리고 풀나무 밑에 접시모양의 둥우리를 짓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새집은 사초과에 딸린 모락을 입으로 뜯어다가 타액으로 풀과 풀을 연결해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조류연구가 이정우도 칠발도에는 바다쇠오리만 줄잡아 5,000천마리 이상이나 서식하며 알을 까는 장면도 목격했으나 부화즉시 날아가 버리고 알도 2개 이상 부화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바다제비는 5~6월에 산란하며 칼새는 4~5월에 둥우리를 짓고 교미에 들어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목포여객선 터미널에서 흑산도를 오가는 쾌속선으로 50여분만에 신안 비금도 수대리항에 도착하며 이곳에서 사선으로 또 50여분간 서해로 나아가야 만이 이 섬을 볼 수 있다. 하얀 등대시설을 머리에 이고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이 섬은 가파른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도와 서도가 본섬을 호위하는 형국이다. 역사가 오래된 이등대는 망망대해의 외로움을 이겨내고 이곳을 지나는 각종 선박들의 길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표지관리사들의 막사와 빗물을 정수 하는 저수조 그리고 태양열 집전판 등이 이곳을 안식처로 잠시 쉬었다가는 바다새들의 배설물로 하얗게 얼룩져 있다.

## 9) 용방죽(용소)

### ▶ 자연사의 타임캡슐 龍沼

용소리 마을의 바로 앞에는 天然池인 용방죽이 발달되어 있다. 면적 9,118평, 깊이 3m 규모인 이 연못에는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또한 내려오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이곳에서 용이 살다가 승천하면서 꼬리질을 한데서 연유된 곳에 지금도 물이 그치지 않고 치솟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습지를 이루고 있는 용소의 바닥에는 수 천년 동안 채 썩지 않은 식물들이 쌓인 泥炭層이 스펀지처럼 두껍게 층을 이루어 빗물을 담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층 속에는 썩지 않고 남아 있는 식물줄기, 꽃가루 따위가 들어 있다. 역시 이들을 분석하면 이 습지의 생성연대 뿐만 아니라 복잡한 자연 환경을 가진 비금도의 수천 년에 걸친 기후 변화와 식물의 변천과정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비금도의 타임캡슐인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다양한



용방죽

식물과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연꽃이 가득차라 있어 연꽃이 필 무렵이면 주위의 풍광과 어울려 장관을 이룬다.

## 10) 미네랄해수

### ▶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해수

해수는 마음과 몸의 치유효과가 있다. 압해도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이다. 그리고 조류흐름이 바르고 천해를 이루고 있어 해수순환이 잘 되는 해수여건으로 게르마늄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다. 바다는 생물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해수에는 미네랄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사람 몸의 구성성분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수분과 염분의 비율이 같은 것이 것이며, 인간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미네랄이 그것이다. 따라서 해수가 갖는 건강보양의 효과는 크다. 해수욕하면 샤워효과, 갯바람을 쏘이면 에어로졸 효과, 섬 경관을 바라보면 리럭스효과, 해수를 만지면 스트레스해소 효과, 해조를 몸에 붙이면 해저토백효과, 해염공기를 마시면 미네랄 흡수 효과 등이 그것이다. 신안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자원을 마음과 몸의 치유에 도입하는 개념으로 하는 관광전략이 요구된다.

## 11) 비금도 지질구조

### ▶ 원래 육지였던 지질환경

신안 해역은 지질시대에는 중국대륙과 붙어있는 육지였으며, 곳곳에 크고 작은 호수들이 산재해 있었다. 지금 수심이 깊은 해역은 당시에는 모두 호수였다. 그리고 호수 주위에는 울창한 수목과 함께 각종 동식물의 서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생대 쥐라기 때는 곳곳에 널려있는 호수의 수림이 우거진 곳에 공룡들이 어슬렁거리며 노닐고 있었다. 이곳 저곳에서 발견된 규화목과 식물화석들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압해도 또한 마찬가지로 육지와 붙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부터 15,000년전(마지막 빙하기로 추정)부터 신안 해역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약 2,000년 전에는 거의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섬과 해안선이 형성된 것은 거의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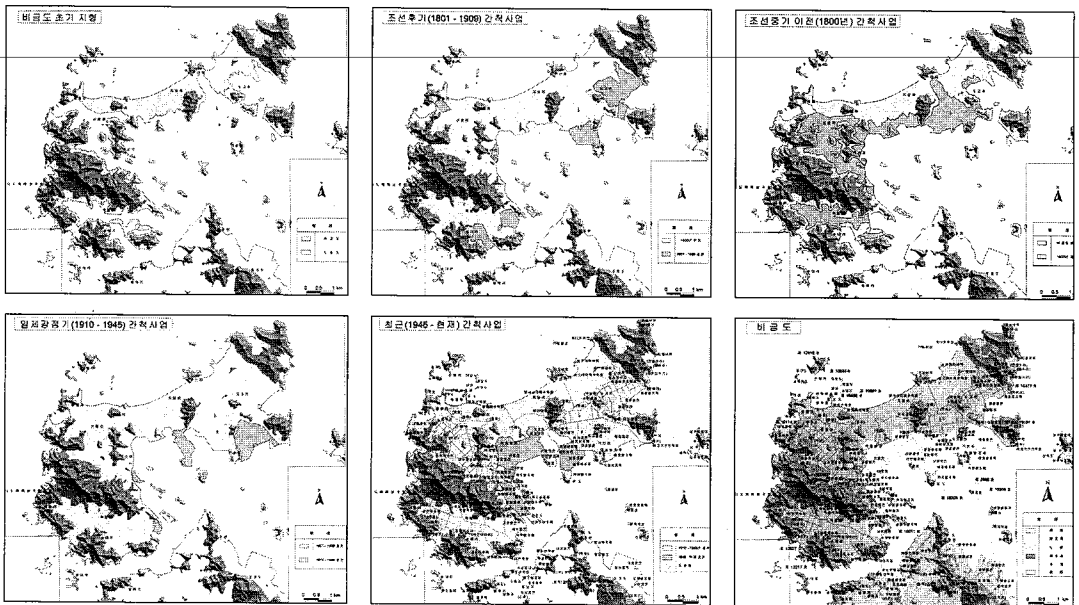
한반도에 구석기문화가 형성된 것이 BC 10세기경임을 볼 때, 아주 오래 전에 살았던 신안의 선조들은 중국과 연결된 대륙에서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살았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그 때

는 황해중앙에 놓인 비옥한 대한강의 지류(황하와 한강이 만나는 해역)가 선사문화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다. 이는 실제로 현재 선사시대의 많은 유물 유적들이 신안의 여러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것이나, 발해문화권 분포권역이 황해를 둘러싸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12) 간척의 섬

### ▶ 십여 개 섬이 하나로 된 섬

마을형성은 이미 삼한시대 유랑하던 유족이 당도에 최초 입도하여 생활근거지로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후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유배 및 유랑민들이 정착하여 다양한 씨족이 분포하게 되었다. 당초 1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고, 배가 드나들던 구지(곶) 11개소가 있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부터 주민들이 방조제를 계속적으로 막아 갯벌을 토지화 하면서 1980년대 이후 면적 51.53km<sup>2</sup>의 현재와 같은 하나의 섬으로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마다 생활문화 차이가 다른 섬보다 크다.



### 13) 명산

#### ▶ 성치산

비금도 광대리에 있으며, 여기엔 하나의 전설이 깃들여 있는데, 다음과 같다. 용혈이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용방죽에 살던 용이 어린이들의 똥를 빨게 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멀리 보이는 성치산 용혈 절벽을 뚫고 승천했다고 한다.

#### ▶ 떡메산

비금면 도고리에 있는 바위로 된 산이다. 이 산은 비금면 용소리에 앉으려는 것인데 용소리에 채 이르기도 전인 도고리와 가산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이 난 여인이 피묻은 속옷을 빨고 있다가 이것을 보고 “떠온다, 떠온다 떡메산” 하고 소리쳤더니 공중에 떠있는 산이 지금의 도고마을로 내려앉음. 이산에는 장군이 두던 바둑판이 바위에 새겨져 있고 우산처럼 생긴 우산바위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

### 14) 전설 서린 거대 암석들

#### ▶ 떡메산의 바둑판바위와 우산바위

이 섬은 약 20억년 전후의 암석들로부터 현세의 충적층까지 다양한 암석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약 8, 9천만년 전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화산암 및 화산쇄설암(특히, 응회암)이고, 그리고 곳곳에 이들을 뚫고 관입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노출된 곳에는 장관을 이루고 있다.<sup>1)</sup>



떡메산의 화강암덩어리

이들은 신기한 모양이나 색상을 띄고 있어 여러 전설과 함께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치산의 龍血, 떡메산의 바둑판

1) 화강암은 지구 지각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올라오면서 냉각 고결된 암석으로 석영, 장석, 운모들로 구성된 아주 단단한 암석인데, 화산활동이 거의 끝나 가는 말기에 관입되었다.

바위와 우산바위 등이다.

▶ 성치산 용혈

성치산 용혈은 용방죽에 살던 용이 어린이들의 똥을 빨게 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멀리 보이는 이 곳(용혈) 절벽을 뚫고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으며, 떡메산은 멀리서 떠 내려와 비금면 용소리에 앉으려는 것인데 용소리에 채 이르기 전 마침 아이 난 여인이 피묻은 속옷을 빨고 있다가 이것을 보고 “떠온다, 떠온다 떡메산” 하고 소리쳤더니 공중에 떠있는 산이 지금의 도고마을에 내려앉아 형성되었다는 전설과 함께 이산에는 장군이 두던 바둑판이 바위에 새겨져 있고 우산처럼 생긴 우산바위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고 전해져 오고 있다.

▶ 괴기스런 범아제비 바위

내월리로 가는 길에 오른쪽 선완산 쪽을 쳐다 보면 괴이한 봉우리 하나가 무섭게 내려다보고 있음에 끔찍 놀란다. 여우처럼 생긴 삼각형의 얼굴, 좌우로 잘 돌릴 수 있는 머리, 긴 목처럼 보이는 앞가슴, 가시가 많이 난 앞다리와 함께 영낙없는 범아제비 형상이다. 세찬 기운을 품고 악마와 같은 무서운 용모로 적이 나타나거나 또는 건들면 앞발을 높이 들고 날개를 펼치어 대들 듯이 딱 하니 버티고 있다. 사뭇 위협적이다. 특히, 월포마을에서 보는 승애봉은 공포감마저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승애봉의 괴기한 무서운 형상에 짓눌려 살아왔다. 그러나 언제까지 자연의 험상궂은 모습에 두려운 존재로 살수만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다. 궁리 끝에 눈 꼬리를 치켜 뜬 무시무시한 얼굴 형상을 지닌 마을수호신을 만들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괴기스런 승애봉에 대항할 석장승을 다듬고 무섭고 세찬 기운을 불어넣은 후 승애봉이 범아제비 바위가 잘 보이는 들판에 마주보게 세워 그 기운을 막게 하였고, 이 후로는 마을에 안녕과 평안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에겐 수호신으로서의 가치와 의미가 함복 부여된 장승이 월포리 가는 길목에 지금도 놓여 있다.

오늘날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호랑이에 못지 않은 위용을 떨치는 산으로 신안 섬들에 있는 산들 중에서 범이란 뜻으로 좋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여운이 남는 석장승이다.

15) 원평리사구

▶ 신안에도 '사막' 이?

「모래나 자갈로 뒤덮이고 식물과 물이 거의 없는 벌판」. 사막에 대한 국어 사전적 정의다. 그렇다면 여기도 사막이라 할 수 있을까. 물은 없고 식물도 거의 없다. 비금도 북쪽 명사심리해수욕장 뒤쪽 飛禽沙場이 있다. 이곳은 언덕 너머에 숨어 있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이다.

해수욕장 뒤쪽으로 올라서면 해안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엄청나게 넓은 모래언덕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사하라나 고비 사막 같은 매마른 사막은 아니다. 토양이 연약한 모래인데다 바람이 거세 웬만한 나무는 애초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대신 「삐비」라 부르는 들풀, 해당화 등 속칭 사구 식물이 가득 자라 모래밭(사장) 표면을 덮고 있다. 뜨거운 햇살에 바삭 마른 들풀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들의 적은 바람이다. 풀들은 사방에서 불어대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린다. 줄기들이 뿌리에 엮매인 채 바람에 떠밀리며 쓰러지면서 그려 놓은 무수한 동심원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곳은 풀 한포기 자라지 않는 유연한 곡선의 언덕이 햇빛을 받고 있다. 모래 위에는 지난밤 작은 동물이 남기고 간 발자국이 찍혀 있다. 언덕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가 뭔가에 화들짝 놀라 잭싸게 달아나는 그 놈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국적 풍경에 사진작가들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곳이 한국의 또 다른 사막 비금사장인 것이다.

## 16) 특산물

▶ 삶아도 시들지 않는 시금치

비금도는 토양에 다량의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다. 게르마늄은 인체의 산소공급 및 두뇌활동 촉진 등의 효과는 물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증진에 따른 성인병 예방, 암치료 등에 타월한 효과가 있는 신비의 광물질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게르마늄 농·축산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게르마늄 농법은 게르마늄을 유기화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농법이다. 게르마늄에는 동식물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 및 신진대사 촉진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할 경우 뿌리 활착력이 3배 이상 높고 줄기나 이파리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뿌리 활착이 좋아짐에 따라 토양 중에 있는 양분을 고루 흡수해 질이 좋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증수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토양 속에 잔존해 있는 독성과 중금속 등을 해독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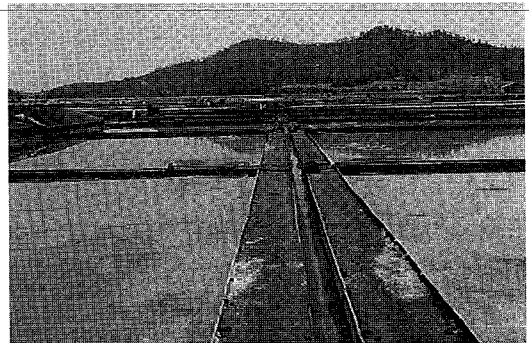
무공해 농산물로 건강증진에도 이점을 준다. 가축에게 이를 섭취시킬 경우는 불포화 지방이 분해되고 분뇨에서도 탄산이나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적어져 폐사율이 줄어든다.

이들 게르마늄을 다량 함유한 토양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것으로 시금치를 들 수 있다. 이는 “비금섬초”라 하여 자체 브랜드를 만든 후 고유상표로 출원등록(출원번호 95-002174)되어 있다. 비금 시금치는 다량의 게르마늄 토질과 강한 해풍을 받는 관계로 위로 자라기 보다는 옆으로 퍼져 자라고 잎이 두꺼우며 적은 섬유질과 당도가 높고 비타민과 철분 및 칼슘 함량이 많아 타 지역의 시금치(하우스 재배나 육지 시금치)에 비해 효능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삶았을 때도 싱싱한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만큼 잘 시들지 않아 20%~30%가 높은 가격에 최고의 것으로 판매되고 있다.

비금도에서는 현재 650ha(년평균)의 면적에 노지재배 형태로 가을과중 하여 12월 상순경~다음해 2월말(약100일)에 걸쳐 수확하고 있다. 타지 농촌에서의 겨울철은 보통 농한기로 한해동안의 농사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계절이나 이곳 비금도는 그와는 반대로 겨울철이 오히려 제일 바쁜 시기이다. 마을 농가마다 울력으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시금치를 캐느라 여념이 없으며 이러한 작업상황이 농민들간에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가 하면 서로간의 일손을 도움으로써 우대감 형성은 물론 협동심 공동심을 엮을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느낌까지 풍기게 한다.

#### ▶ 게르마늄 천일염

비금도의 염전은 남한 최초로 천일제염을 행했던 지역으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도 넓은 간척지를 기반으로 하여 광대한 영역에 걸쳐 행하고 있으며, 연간 60000 M/T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비금도 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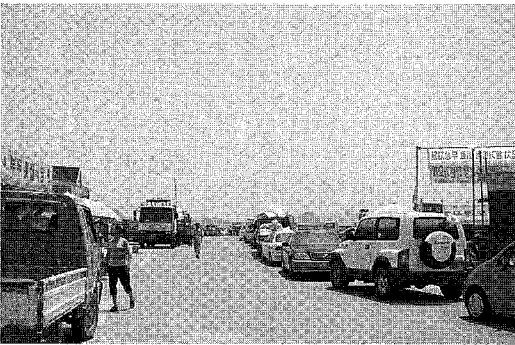
### 17) 포구경관

#### ▶ 기능별로 분화된 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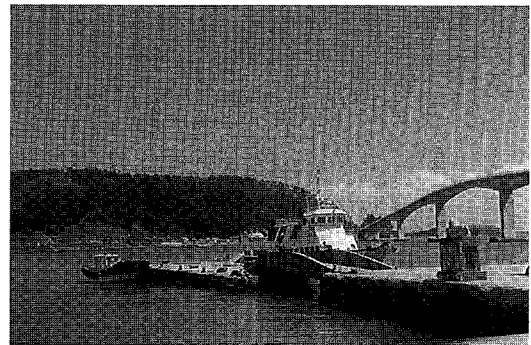
삼한시대 유랑하던 유족이 당두에 최초 입도 생활근거지로 정착한 이 곳은 아주 긴 거주 역사를 지니고 있다. 당초 10여 개의 섬으로 형성되었으나 사람이 정착하면서 인력으로 방조제를 막아 현

개의 마을을 형성하였으며 당시 배가 드나들던 구지(곶)이 11개소가 현재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어 그 역사를 말해준다. 이들 11곳이나 되는 구지들은 그동안 끊임없는 간척사업결과 지형이 변하면서 그 역할을 뚜렷이 하는 세 유형의 항구로 합해졌다. 송치, 가산, 원평항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이 지역의 주요 출구이다. 송치가 여객이 주라면 가산은 화물이 주고, 원평항은 지금은 많이 쇠퇴했지만 어항으로 이름난 곳이다.

송치는 목포와 흑산도(홍도)를 잇는 중간기착지에 위치해 있어, 가장 빈번하고 큰 여객선이 접하는 곳이다. 따라서 옛날부터 교통의 중요한 요지였다. 현재는 인근 도초도와 연도교(서남문대교)가 이곳에 건설된 후 또 다른 관광자원 역할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으며 낙시터로 그리고 도서간 교통 정착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대의 물류수송항 가산



서남문 대교

70년대 이후 간척사업으로 본섬과 이어지면서 새로운 교통기지로 부각된 후, 현재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 시금치의 최대 출구가 되고 있다. 여름에는 항상 소금가마들이 산처럼 쌓여 있으며, 겨울에는 시금치 다발이 역시 쪽 늘어서 있고 차들이 매우 번잡하게 왕래한다.

섬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원평항은 북서쪽으로 광대한 외해에 접하고 있어 옛날부터 서남해 최대의 어항으로 손꼽혀왔다. 현재도 제3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난 20여년 간에 총공사비 85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480m, 방조제 400m, 파제제 75m, 물량장 360m, 호안도로 500m 등의 현대적 시설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인근에는 다수의 좋은 낙시터 들이 자리잡고 있어 지금도 겨울철에는 낙시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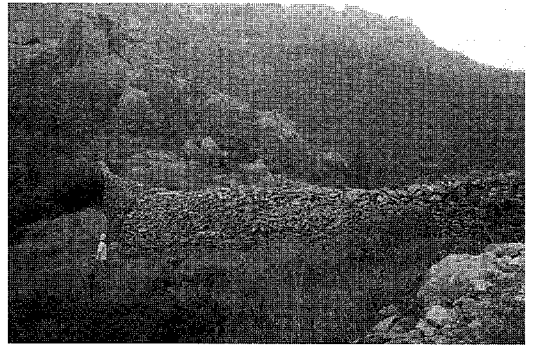
## 18) 서남문대교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도초면 화도리에 위치하며, 총 사업비 195억원이 소요되어 연장 973m, 본교량 812m, 폭 8.2m이르는 큰 교각을 세웠다.그 결과 도서간 교통소통 원활, 관광 및 지역개발 촉진, 도서주민의 생활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 19) 바람막이돌담(우실)

### ▶ 산 속에 쌓은 돌담

비금도에는 “우실”로 불리어 오고 있는 산 속에 쌓은 돌담이 있다. 이는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지혜와 함께 재앙을 막기 위해 담을 쌓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어 신앙성도 지니고 있다. 이곳 섬사람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다. 우실 중 하누넬해수욕장 가는 길목의 내월리 내촌마을 뒤 편 고개 위에 쌓은 것이 가장 볼만하다. 길이 40m, 높이 3m, 폭 1.5m에 이르고 있고 원형이 아주 잘 남아 있다.



하누넬해수욕장 길목의 “우실”

## 20) 비금도 생업경관

### ▶ 다양한 생업이 병존하고 있는 섬

초기 도서민들은 이곳 섬의 지형이 대부분 산지나 백사장 이루어진 조건 때문에 어업이 생업활동의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차츰 주민수의 증가와 경제력 확대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간척사업으로 이어져 마을 앞의 낮은 해안지대를 매립해 나갔고 확보된 농지를 바탕으로 생업의 무대를 내륙으로 옮겨갔다. 즉, 어업에서 농경으로 바꾸어갔던 것이다. 과거에는 조성된 간척지에서 논농사가 행해졌으나, 금세기에 들어 경제작물인 시금치, 마늘 등으로 다각화되어 갔다. 일제시대 이후 보급된 천일염 기술은 이들을 소금생산지로 바꾸어 갔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 중국산 소금의 도입과 함께 가격이 하락하여 경쟁력이 낮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해산물 수요 증대와 양식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폐염전을 전환하여 새우(대하) 양식업이 성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온상승으로 인한 심한 폐사현상(흰점바이러스)과 타지역 새우와의 차별화가 안되어 지역특산

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광어 양식장 등으로 교체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금도 사람들은 바다(어업)→농경(1950년이전)→천일염(1950~1990)→새우양식(1990~1997)→광어양식(1997년이후)”순으로 주 생산이 변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곳 섬에 논경지, 시금치 농장, 염전, 양식장 등 다양한 생업공간을 한 곳에 특색 있게 병존시킬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생업체험관광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는 시금치, 천일염, 새우젓 등이 지역특산물로 자리잡게 하고 있다.

## 21) 수림리 염전

### ▶ 한국최초의 천일염산지 수림리염전

신안군은 2003년 국내 최초 염전으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수림리 제1호 염전(시조염전)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시조염전은 평안도 주율염전으로 징용 갔던 박삼만씨가 해방 이후 1946년 3월 고향 갯벌을 막아 염전을 개척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염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이 된 셈이어서 비금의 염전은 그 역사가 깊다.

비금도 남동쪽은 복잡한 해안선으로 파랑작용이 잔잔하고 수심이 얕아 조류작용이 활발하여 넓은 갯벌(간석지)을 발달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갯벌에는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20여km가 넘는 긴 방조제를 축조하였고, 약 1600여ha의 농지와, 720여ha의 염전을 가꾸어 주민의 생명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값싼 중국 소금이 수입되면서 갈수록 폐염전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주요 염전으로는 가산염전, 대동염전, 남일염전, 비아염전, 구림염전, 덕산염전, 망동염전, 상암염전, 수대염전, 서부염전, 중앙염전 등이다.

소금은 현재 침체 일로에 있지만 생각 외로 엄청난 부가가치 생산이 기대되는 산물이기도 하다. 특히 갯벌 천일염은 성인병 치유에 효과적이란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화염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김치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2) 원평 명사십리 해수욕장

### ▶ 천연 비행장

원평해수욕장은 길이 4km, 폭 150m(간조시)에 펼쳐져 있으며, 황해바다에서 밀려오는 모래로 형성되었으며 간조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각종 체육행사를 할 수 있다. 원평 해수욕장이 있는 명

사십리는 붉은 해당화를 품고 하얀 모래가 십리를 두고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원평 해수욕장의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의 낙조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지는 해를 보고 바다 속으로 빨려 가는 황홀감에 묻혀버린다고 한다. 특히, 이곳은 바닷물이 맑고 해수욕장으로써 갖가지 여건들이 고루 갖추어져 여름철이면 피서객이 찾아든다. 명사십리 주변 모래밭에는 해당화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 꽃철이며 해당화가 만발하고 꽃내음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향춘의 정취를 마음껏 느끼게 한다. 해수욕장 옆으로 잇대어 있는 바다에서는 돛, 농어, 장어 등이 잡히는 낚시터까지 있어 사철 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매년 봄이나 가을철이나 되면 각급학교 학생들과 면내 남녀노소들이 소풍나와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감상하고 해당화에 심취하기도 한다.

### 23) 하누넝 해수욕장

#### ▶ 이국적인 경관

하누넝해수욕장은 비금면 내월리에 위치하며, 길이 1km, 폭 50m(간조시)에 이른다. 다도해의 절경으로 이루어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로 및 교통이 불편하여 지금까지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96년도에 약 5km의 임도개설로 인하여 피서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누넝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천연기념물 332호인 칠발도와 함께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이다.

### 24) 가는목 해수욕장

#### ▶ 선상관광에 좋은 해수욕장

가는목해수욕장은 비금면 내월리 내포에 소재하며, 길이 1.5km, 폭 50m(간조시)에 이른다. 흑산 홍도간 항로권의 일부에 속하며 주변에는 죽도, 구분사리, 매설등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선상관광이 용이하고, 어느 곳에서나 낚시를 즐길 수 있다.

### 25)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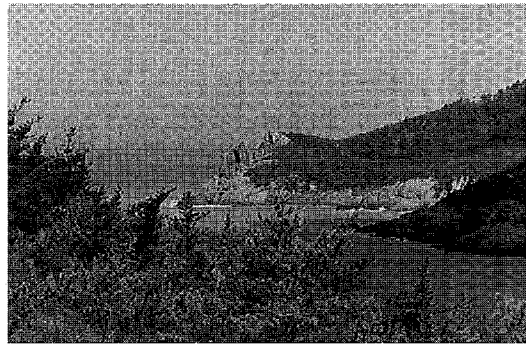
#### ▶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해상국립공원

비금도 서쪽 해역은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비금도초지구에 해당된다. 이곳은 약 20억년 전

에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20억년 전후의 것부터 신생대 4기 및 현세의 토양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암석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랜 지질시대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변동과 변화를 겪어 왔었다. 1억년 전 중생대 백악기 후반에 수회 내지는 수십 회의 화산활동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이들 암석(화산암과 응회암<sup>2)</sup>)이 인근 변성퇴적암들과의 접촉으로 변화된 편마암도 나타나고 있다. 즉, 응회암 등의 화산암과 변성암, 화강암 등이 함께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러한 암석에 따른 구성성분과 형성시기의 차이는 절리모양이나 암석색상을 달리하게 해 아름다움을 연출하게 하고 있다. 규암<sup>3)</sup>이 섞인 곳은 그 물리적 성질로 인해 붉으스름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며, 변성암이 분포한 곳은 갖가지 모양으로 쪼개지고 금이 가 있어 신비감을 더해 주고 있다. 또한 화강암이 관입한 곳은 커다란 바위덩이가 괴기한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풍화·침식·퇴적·융기·침강작용의 결과 중생대 백악기의 경상계에 속하는 암류 지역은 해안절벽과 해식동굴, 화강암과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 지역은 모래가 가득 쌓인 사빈(해수욕장) 평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해변도로(하누님 가는 길)



잘 발달된 해식애와 시스템

또한 이 해역은 50m에 이르는 깊은 수심과 북서풍에 의한 파도작용이 활발하여 들출된 곳에는 웅장한 벼랑바위(해식애)와 동굴(해식동) 너덜바위(파식대) 등이 기암괴석으로 발달되어 있고, 들어간 곳에는 모래해변(사빈)이 잘 발달되어 있어 피서지로서의 천혜의 환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모래해변은 가늘고 두꺼운 모래가 완만(1~2도)하게 형성되어 있어 천연 활주로 혹은 차량통행 도로로 이용될 수 있을 만큼 단단하여 이곳에서는 각종 체육행사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폭

2) 응회암은 화산이 분출할 때 배출되는 화산회 및 화산재들의 성분들이 집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대개 회갈색을 띠나 부분적으로 암갈색을 띠기도 하는 암석이다.

3) 차돌과 마찬가지로 사암이 변성되어 더욱 단단히 굳어진 것으로 석영 성분이 95%이상인 암석이다. 또, 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견고해 어떤 암석보다 물리적인 풍화, 침식에는 강함

이 150m에 달하고 길이가 4km에 이르는 원평해수욕장이 알려져 있으나, 낙조가 특히 아름다운 하누섬해수욕장은 이국적인 경관으로 뛰어난다. 그리고 주변에는 죽도, 구분사리, 매설 등 크고 작은 섬들이 많아 선상관광이 용이하고 낚시터를 지니고 있는 가는목해수욕장 또한 경관이 아름답다.

또한, 이곳 해안은 산세가 험하여 인적이 드물고 조류의 먹이가 풍부해 습새, 바다제비 칼새 등의 海鳥類 집단서식지가 되고 있어 큰 경관자원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칠발도는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해발 105m), 암반사이에는 빈 공간이 많으며 섬의 상층부에 사질토와 잡초가 번성하여 조류의 번식지로 최적지를 이루고 있어 현재 국가 제322호<sup>4)</sup>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서남해 최대의 경관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 3. 자연자원의 활용방향

#### 1) 지표조사의 기본방향과 성과

본 자연자원의 지표조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방식을 떠나 새로운 각도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자원목록화를 새로이 연구했다. 즉, 자원목록을 정보화·데이터베이스화 시대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새로운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분류방식에 의해 조사자료는 물론 기존자료를 재정리해 넘으로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에 활용도를 높였다.

둘째,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정리하였다. 즉, 자연환경적 특성연구에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들을 실제적 활용도면에서 분석 즉, 스트레스나 쾌적도 등을 계산함으로써 인간에 얼마나 적합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는가 등에 관심을 갖고 임했으며, 해류, 조류, 파랑활동 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바다환경의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연구를 통해, 예를 들면 적조가 발생이 억제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는가, 빨 고기가 왜 맛있는가,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 공급을 활발하게 하여 냉수에 적합한 어종의 생태환경을 제공(먹이요소의 건전한 생태계)를 밝히는 기여가 되도록 하였다.

셋째, 자연자원의 경제성과 관광자원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초령목의 대만, 일본에서의 활용도나 우리가 배울점, 향철마무나 후박나무 등 한약재의 생산량과 화폐가치, 습지(흑산도 장도습지, 비금도 용소습지)의 가치인식 부여(자연의 고문서, 자연사의 타임캡슐), 마음과 몸을 치유

4) 1982년 11월 4일 지정됨.

하는 건강보양에 도입하는 개념에서 바다환경을 재해석(몸과 마음의 치유효과) 등이 그것이다.

넷째, 상품성이 있는 특산물을 찾고자 노력했으며, 활용방안으로 상품화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면, 낚시터, 해수욕장 등 실제 이용도가 높은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정리했다던가, 관광자원화를 염두에 두어 기존의 관광자원일지라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자원 중심의 목록을 만들도록 했다.

다섯째, 기존의 자연자원을 재해석했다. 외국의 유명관광지 혹은 영상화된 유명이미지와 연계된 의미 부여(한국의 알카트라즈 등)한 경우가 그렇고, 단순한 경관보다는 복합경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발굴한 것이 그랬으며, 기존 자원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새롭게 인식(예, '모세의 기적' 현상을 '물아래 다리'로 표현함으로써 흥미를 줌)하게 한 것이 그 사례이다.

여섯째, 영상물제작이나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을 염두에 둔 조사·정리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흥미와 오락성이 가미되도록 했다. 흥어를 '거서기가 들인 고기'로 부각시킨 것 등이 그 사례이다. 뿐만 아니라 내용구성에 있어서도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주제를 부여하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적 즐거리를 갖도록 구성되도록 하였다.

## 2) 자연자원의 활용방향

본 조사는 비금도를 대상으로 한 자연자원의 지표조사를 통해서 총 30여개 목록이 얻어졌는데, 이 중 기존에 연구부족 혹은 미 발굴로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들 중 활용 가치가 큰 것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활용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첫째, 비금도는 다른 섬에 비해 매우 쾌적한 기후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는 북서풍과 남동풍을 적절히 조절해 낼 수 있는 지형지세, 경·위도의 위치와 내해와 외해의 연결된 위치, 천해와 심해를 한 곳에 가지고 있는 위치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에 기반하여 실제로 인간활동에 영향을 주는 각종 환경 지수를 계산해 봐도 역시 다른 곳과는 차별된다. 불쾌지수가 72 정도에 머물고 있고(85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체감온도를 보여주는 윈드칠지수(windchill index)가 내륙지역에 비해 10 정도 높고, 쾌청지수 역시 5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연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 육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보양의 섬으로 가꾸고 홍보함이 요구된다.

둘째, 신비의 광물질인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점을 보다 넓은 영역에 활용하고 상품 가치를 높

일 필요가 있다. 비금도 전역이 타 섬은 물론이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다량의 게르마늄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과 게르마늄이 인체의 산소공급 및 두뇌활동 촉진 등의 효과는 물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증진에 따른 성인병 예방, 암치료 등에 타월한 효과가 있는 신비의 광물질로 알려져 있어 게르마늄 농·축산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비금섬초로 불리는 시금치와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천일염 등은 물론이고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여러 특산물에 대한 상품화 및 새로운 시각의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적조가 없는 청정해역에 맛있는 홍어·낙지 등의 빨에서 자라는 고기가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비금도 주변 바다 밑에는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비옥한 점토 혹은 사질토와 활발한 조류 활동과 파랑작용 등으로 활발한 수직·수평적 해수순환에 의한 저층의 풍부한 영양염류 공급을 활발하게 하는 해양환경의 영향에 기인한 적조가 없는 청정 해산물 생산과 고기의 맛이 좋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평 부근에 발달되어 있는 사구지형과 염생식물의 관광자원화를 고려해볼만 하다. 비금도의 명사심리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는 안쪽 사구로 된 구릉지에 사구식물의 보고라 할 만큼 염생식물이 집단적으로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약제로 쓰이는 해당화 등 경제적 가치가 큰 염생식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뿌리발육정도의 차이에 따라 혹은 염분도에 따라, 그리고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염생식물 군락이 매우 재미있게 나타나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 염생식물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특히 이곳 원평 사구는 마치 사막에 온 착각이 들 정도로 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 사막에 온 기분이 든다. 「모래나 자갈로 뒤덮이고 식물과 물이 거의 없는 벌판」. 사막에 대한 국어 사전적 정의다. 비금도 북쪽 명사심리해수욕장 뒤쪽 飛禽沙場이 그러하다. 해수욕장 뒤쪽으로 올라서면 해안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는 엄청나게 넓은 모래언덕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사하라나 고비 사막 같은 메마른 사막은 아니다. 토양이 연약한 모래인데다 바람이 거세 웬만한 나무는 애초부터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대신「삐비」라 부르는 들풀, 해당화 등 속칭 사구식물이 가득 자라 모래밭(사장) 표면을 덮고 있다. 뜨거운 햇살에 바삭 마른 들풀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은 언덕 너머에 숨어 있어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여지껏 잘 안 알려져 있는 지역이었으나 이를 활용하여 신안에서 사막을 볼 수 있다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홍보만 이루어진다면 이국적 풍경에 사진작가들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곳이 한국의 또 다른 사막이 될 것이다.

넷째, 칠발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천혜의 조류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어(암반으로 이루어져 암반사이에는 빈공간이 많고 섬의 상층부에는 사질토와 잡초가 번성하고 조류의 번식지로 최적지), 우리나라 토속새인 바다쇠오리, 습새, 바다제비, 칼새등 희귀한 조류가 무려 26종이나 서식하고 있는 점을 관광자원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모색 또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유람선 운항에 의한 선상관람 등은 서식지를 보호하면서도 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섯째, 용방죽(용소)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활용해야 한다. 비금도에는 섬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天然池의 하나인 용소가 있다. 그 가치를 재설정하여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습지는 다양한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이곳 서남해역의 지질변화 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자연사를 담고 있는 자연의 고문서인 동시에 타임캡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학습공간화 할 경우 그 가치가 매우 크다.

여섯째, 게르마늄 등 신비의 광물질이 다량 함유된 미네랄해수를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건강보양에 도입하는 개념에서 바다환경을 재해석하여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해수가 사람 몸의 구성성분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해수가 갖는 건강보양의 효과는 크다는 이미지가 설정이 그것이다. 즉, 해수욕하면 샤워효과, 갯바람을 쏘이면 에어로졸 효과, 섬 경관을 바라보면 리럭스효과, 해수를 만지면 스트레스해소 효과, 해조를 몸에 붙이면 해저토백효과, 해염공기를 마시면 미네랄 흡수효과 등이다.

일곱째, 간척의 섬이란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비금도는 수십개의 방조제 사업을 통한 간척으로 원래 십여 개 섬이 지금과 같은 형상의 섬으로 된 점이 매우 흥미를 준다. 즉, 자연환경의 변화가 훌륭한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금도는 공식적인 기록에 의한 것만 하더라도 80여회의 간척에 의해서 지금의 섬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역사 시기별로 압해도의 모습을 그려보면 재미가 있을 수 있다. 그에 따라 포구들이 성쇠를 겪었으며 생활권이 변해왔다.

여덟째, 비금도에는 화강암 관입이 활발했던 지질사적 특징으로 곳곳에 거대 암석들이 노출된 관계로 기암괴석이 많아 이들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괴석들은 각기 재미있는 전설들이 서려 있어 이들과 적절히 포장하여 의미를 설정할 경우 관광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주요 활용 가능한 기암괴석으로는 떡메산의 바둑판바위와 우산바위, 성치산 용혈, 선완산의 범아제비 바위 등이 상품가치가 큰 것들이다.

아홉째, 비금도 생업변화도 관광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비금도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테마 설정과 함께 다양한 생업이 병존하고 있는 섬으로서의 이미지화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비금도 사람들은 바다(어업)→농경(1950년이전)→천일염(1950~1990)→새우양식(1990~1997)→광어양식(1997년이후)”순으로 주 생산이 변해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곳 섬에 논경지, 시금치 농장, 염전, 양식장 등 다양한 생업공간을 한 곳에 특색 있게 병존시킬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생업체험관광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 결과는 시금치, 천일염, 새우젓 등이 지역특산물로 자리잡게 하고 있다는 이해와 더불어 상품화에 의미를 더욱 크게 갖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변화과정에서 역사관에 담아야 할 내용으로 한 때 성시를 이루었던 파시나 한국최초의 천일염산지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킨 수림리염전 등은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된다.

열 번째, 이국적인 경관을 갖고 있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있는 하누넬해수욕장은 좋은 관광 자원이다. 다도해의 절경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96년도에 약 5km의 임도개설로 인하여 피서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누넬 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천연기념물 332호인 칠발도와 함께 어우러져 그야말로 장관이다. 특히, 이곳은 20억년 전후의 것부터 신생대 4기 및 현세의 토양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암석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고, 파도에 의해 웅장한 벼랑바위(해식애)와 동굴(해식동) 너털바위(파식대) 등의 기암괴석이 많으며, 부분적으로 관입한 화강암이 갖가지 모양의 절리를 발달시키고 색상을 달리하게 하고 있어 아름다움이 연출되고 있다. 다만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접근로와 해변일주도로 확·포장 및 바다 낚시의 활성화, 일출·일몰을 위한 포토존 설치 등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II. 선사유적

### 1. 선사유적 목록

#### 1) 유물산포지

번호	유적명	위치
1	① 용소리 I 유물 산포지	비금면 용소리 비금동초등학교 남쪽 밭 일대
	② 용소리 II 유물 산포지	비금면 용소리 동부교회 주변 일대
	③ 용소리 III 유물산포지	비금면 용소리 사자 석상이 있는 묘지 주변
2	가산리나배 유물산포지	비금면 가산리 나배마을
3	④ 광대리 고분	비금면 광대리 광대마을
	⑤ 광대리 고분군	비금면 광대리 광두
4	도고리 유적	비금면 도고리 북 마을

### 2. 선사유적 현황

비금도에서 고고학적으로 의미 있는 발견은 용소리에서 이루어졌다. 용소리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토양이 비옥하고 다른 곳에 비해 농업용수가 풍부하여 선사시대 이래 역사시대의 주민들이 비금도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 용소리와 가깝게는 광대리가 있으며 이 곳에 성치산성과 고분군이 확인되어 알려지고 있다. 비금면 용소리 비금동초등학교 남쪽 밭 일대에 위치한 용소리 I 유적에서는 격자문 경질토기편, 귀얄문 분청사기편, 조선시대 자기편 등을 수습하였는데 특히 양질의 분청사지의 경우 공민왕 이후 공도정치 이후 이루어진 문헌 뒤에 가려진 물질자료로 평가된다. 용소리II유적은 비금면 용소리 동부교회 주변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에서는 갈돌과 파수 2점, 경질토기편, 호, 연화문 분청사기, 청자편 등이 있다. 용소리III유적은 비금면 용소리 사자 석상이 있는 묘지 주변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다섯 점의 경질토기편 중 구연부로 추정되는 것 세 점, 부위를 알 수 없는 갈색 점열문 편과 검은색 승문편 등이 수습되었다(이헌중 2001).

#### (1) 용소리 I 유물산포지(사진 1·2)

위치 : 비금면 용소리 비금동초등학교 남쪽 밭 일대

위 유물산포지는 비금동초등학교 정문에서 남쪽으로 약 50m 지점의 논밭지대이다. 가산리 나배

마을에서 광대리로 가는 길목 중간에 위치한 옥도상회 좌측 일대이다. 이곳에서는 격자문 경질토기편, 귀얄문 분청사기편, 조선시대 자기편 등을 수습하였다.

(2) 용소리Ⅱ 유물산포지(사진 3·4)

위치 : 비금면 용소리 동부교회 주변 일대

이 유물산포지는 동부교회를 중심으로 약 서쪽으로 100m, 동쪽으로 200m의 논밭일대의 구릉일대이다. 용소리Ⅱ에서 수습된 유물로는 갈돌과 파수2점, 경질토기편, 호(구연부), 연화문 분청사기, 청자편등이 있다. 이 유물로 보아 용소리에서는 다양한 시기에 걸쳐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의 분포가 확인되었다.

(3) 용소리Ⅲ 유물산포지(사진 5·6)

위치 : 비금면 용소리 사자 석상이 있는 묘지 주변

이 곳의 위치는 마을을 벗어난 구릉일대에서 동부교회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소로에 이르기까지 Ⅱ지구이며 이 길을 중심으로 왼쪽 150m 지역에 위치한 사자석상이 있는 묘지까지에 이른다. 여기에서는 다섯 점의 경질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 구연부로 추정되는 것이 세 점, 부위를 알 수 없는 갈색 점열문 편과 검은색 승문편,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보이는 자기편들이 수습되었다.

(4) 가산리 나배 유물산포지(사진 7·8)

위치 : 비금면 가산리 나배마을

유물산포지는 가산리에서 서쪽으로 약 50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자문 경질토기, 인화국화문 분청사기의 저부,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5) 광대리 고분

위치 : 비금면 광대리 광대마을

광대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20m 정도의 야산 남서쪽 김씨 소유의 밭으로 밭갈이 도중에 돌이 걸려 이를 제거하면서 노출된 석곽분으로 현재는 파괴되어 찾아볼 수 없다. 출토유물로는 주구토기호를 비롯하여 토기 2점이 함께 반출되었다고 하나 분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 (6) 광대리 고분군

위치 : 비금면 광대리 광두

작은 당머리 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양성이씨의 선산에 고분이 있다. 이곳은 30~40m 정도의 구릉상인데 안쪽으로 만입되어 있고 바다와 근접되어 팔금, 암태, 상수치도가 보이며 뒤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곳에 위치한다. 백제 석실분을 비롯하여 석곽분, 적석분 등 수기의 고분이 군집하고 있었으며 일제시대 때 모두 도굴되었고 지금은 파괴되어 남아 있지 않다.

### (7) 도고리 유적(사진 9·10)

위치 : 비금면 도고리 북 마을

도고리 북마을로 넘어가는 길목에 김윤희씨 집의 바로 앞 논에 위치한다. 1987~89년쯤 논으로 개간하기 위해 사구를 정리하는 도중 백제 토기 3점이 출토되었다. 모래가 섞인 황토 속에서 출토되었으며 2점은 유실되었다. 대형 옹관묘나 석실분에 흔히 부장되는 유물로 보인다.

## 3. 선사유적의 활용방향

비금면에는 그다지 두드러진 매장문화재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비금도는 자연자원과 식용자원이 풍부한 곳으로서 그것만으로도 소수 매니아들에게 충분한 만족을 줄 만하다. 고고학의 지표조사 결과 이곳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원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철기시대의 산포지와 성치산성 및 고분군을 엮는 문화 맥락적 관점에서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비금도까지 주민이 이주하여 살았다는 이주의 사건이다. 둘째는 해금정치 이후 비어있어야 할 섬에서 활성화된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 점이며 그들이 남겨놓은 양질의 분청사기를 볼 때 평범한 주민의 산물이 아니라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구가하는 집단들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고고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자료는 현재 있는 자료를 압해도의 사례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철저한 관리와 보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두 번째 고고학적 역사적 자료는 매우 상품가치가 높은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해금정치 이후 비금도에 살았던 주민들이 어떤 계층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로 통일신라시대 이후 지속되어온 해상세력의 일 분파가 살았을 가능성과 내륙 중심의 사고에서 본다면 서남해안 바다를 휘어잡던 '해적'의 일 분파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린이들에게 상상의 꿈을 펼쳐 볼 수 있도록 많은 상상의 작업을 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고고학사전』, 학연문화사.
- 김재원 1957, 『한국서해도서』, 국립박물관.
- 김원룡·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김희태·조용·김경철 1998,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향지사.
- 목포대박물관·신안군 2003, 『신안군 흑산면 소사지구 지방상수도시설 사업지역 내 문화유적 지표 조사보고』
- 신안군 2000, 『신안군지』.
- 이기길 2000, 「전남지방 구석기시대 유적의 보존과 활용」, 『한국구석기학보』2, 한국구석기학회.
- 이영문 1982, 「신안 압해도의 선사문화」, 『향토문화』7, 향토문화연구회.
- 이영문 1999, 「지석묘의 보존과 활용방안」,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 학연문화사.
- 이영문·강진표·호용수 2003, 『영암의 고인돌』, 목포대학교박물관.
- 이영문·김경철·조근우 1996, 「신안 북룡리출토 석기류」, 『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이현종 1997, 「영산강유역 신발견 구석기유적군」, 『호남고고학보』5집, 호남고고학회.
- 이현종 2000, 「압해도선사유적의 신발견」, 『도서문화』 제18집, 목포대도서문화연구소.
- 
- 이현종 2003, 「신안군 신발견 고고유적 분포와 문화적 성격」, 『다도해 사람들-역사와 공간-』, 경인문화사.
- 이현종·한창균·黃慰文.A.P.Derevianko 2003,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자갈돌석기전통에 대한 연구』, 학연문화사.
- 최성락 1987, 「서남해도서지방의 선사문화」, 『도서문화』7, 도서문화연구소.
- 최성락 1987, 「신안군의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1988, 「흑산도지역의 선사유적」, 『도서문화』6, 도서문화연구소.
- 최성락 1999, 「문화유산의 보존대책과 활용방안」, 『호남의 문화유산, 그 보존과 활용방안』, 학연문화사.
- 최성락 2000, 「전남지방 고대유적의 보존과 활용방안」, 『전남의 고대유적 보존 및 활용방안』, 전라남도.
- 최성락 2003, 「신안지역의 선사문화」, 『다도해 사람들-역사와 공간-』, 경인문화사.
- 최성락·이현종·강인욱 1998, 「시베리아 천년의 파노라마」, 『한국상고사학보』28, 한국상고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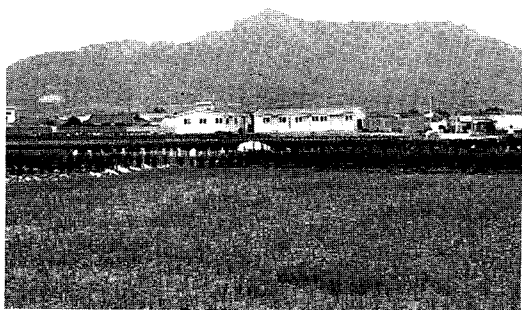


사진 1. 용소리 I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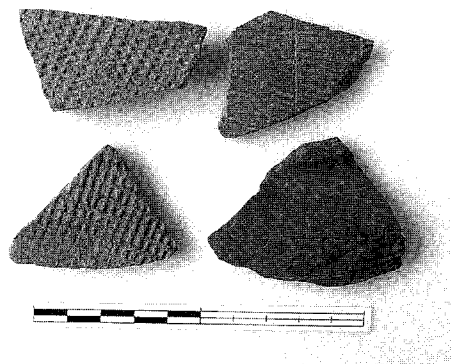


사진 2. 용소리 I 유적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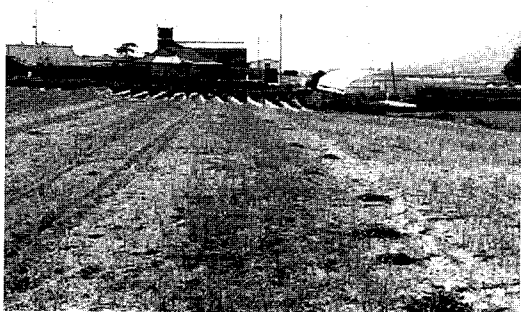


사진 3. 용소리 II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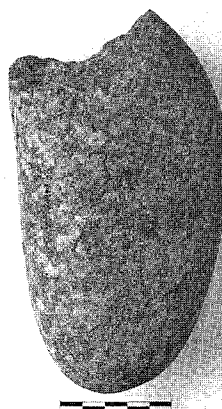


사진 4. 용소리 II 유적 수습석기



사진 5. 용소리 III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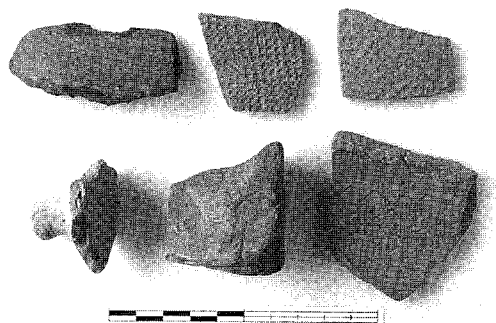


사진 6. 용소리 III 유적 수습 토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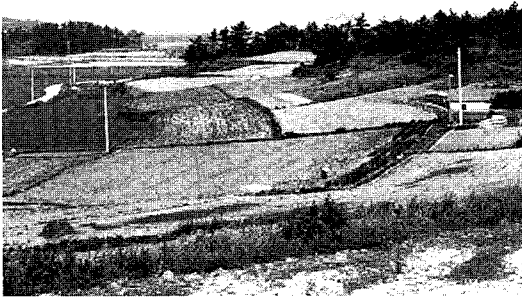


사진 7. 가산리 나배유적 전경



사진 8. 가산리 나배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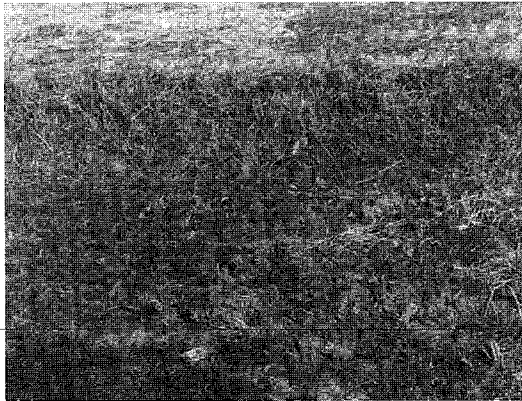


사진 9. 도고리 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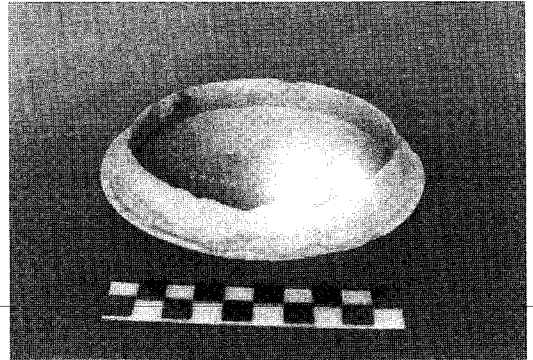


사진 10. 도고리 유적 출토유물

### Ⅲ. 역사유적

#### 1. 역사유적 목록

##### 1) 고대 · 고려시기의 유적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구분	년대	비고
1	광대리 고분군	광대리	고분	고대	
2	광대리 城峙山城	광대리 성치산	산성	고대 (추정)	향토자료 11호 (2000.1.31)
3	최치원 선생 샘(일명 孤雲井)	수대리 송치	우물	〃	
4	용소리 및 가산리 나배마을 출토자기	용소리, 가산리	자기편	고려말~ 조선초	

#####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구분	년대
1	김우중송덕비	수대리 송치	송덕비	1994
2	江陵劉氏紀行碑	수대리 대두	기행비	1949
3	姜周範孝子閣	내월리 월포	효자각	1887 命旌, 1924 建立
4	姜進秀紀念碑閣	내월리 월포	비 각	1947
5	黃成基記行碑	내월리 월포	기행비	1947
6	慶州鄭氏追慕碑	내월리 내촌	추모비	1994
7	鄭基周孝子碑	내월리 내촌	효자비	丙申
8	姜明鉉紀念碑	내월리 내촌	기념비	1984
9	劉孝子記蹟碑	내월리 내촌	기적비	조선
10	金玉光·金啓得·金達仁 孝子閣	내월리 내촌	효자각	甲申
11	松坡先生記行碑	내월리 외촌	기행비	1932
12	一樵先生紀蹟碑	죽림리 죽치	기적비	庚辰
13	南坡先生紀念碑	죽림리 죽치	기념비	1971
14	竹軒先生紀行碑	죽림리 죽치	기행비	1937

번호	유적명	위 치	구분	년대
15	崔門勝紀蹟碑	죽림리 죽치	기적비	1940
16	完山李氏烈女閣	죽림리 임리	열녀각	1934
17	坡平尹氏齋閣	죽림리 임리	재 각	근대
18	密陽朴氏烈女閣	죽림리 상암	열녀각	丙戌
19	晉州姜氏烈行碑	죽림리 상암	열행비	乙酉
20	全州李氏烈行碑	죽림리 상암	열행비	
21	姜千秀孝行碑	덕산리 망동	효행비	1948
22	姜萬秀紀行碑	덕산리 망동	기행비	1948
23	光山盧氏紀蹟碑	덕산리 망동	기적비	1941
24	菊坡先生記行碑	고서리 서산	기행비	1946
25	西岡先師紀行碑	고서리 서산	기행비	1928
26	黃丞憲孝行碑	고서리 서산	효행비	병술
27	邑洞 碑石群	덕산리 읍동	碑 群	
28	光山蘆氏碑閣	구림리 구기	碑 閣	
29	玄基奉紀念碑	구림리 구기	기념비	
30	小塢先生記行碑	구림리 구기	기행비	
31	竹坡先生記行碑	구림리 옹호	기행비	1946
32	沙隱先生紀行碑	구림리 수림	기행비	1941
33	新塢先生記行碑	신원리 자항	기행비	庚戌
34	竹岡先生紀蹟碑	신원리 자항	기적비	1949
35	東岡先生記行碑	신원리 자항	기행비	
36	池洞 碑石群	지당리 지동	碑群	
37	密陽崔氏烈女閣	용소리 용소	열녀각	1860
38	藕泉先生紀蹟碑閣	용소리 용소	비 각	
39	慶州鄭氏烈女閣	용소리 용소	열녀각	1943

## 2. 역사유적 현황

### 1) 고대 · 고려시기의 유적현황

#### (1) 광대리 고분군(사진 1~3)

- 조사 내용

일제시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금도에 직경 3.6~5.4m 정도 크기의 고분 40여기가 있는데 대부분 파괴되고 곳곳에 석곽이 노출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sup>5)</sup> 그런데 1987년의 보고 자료에

5)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1942, p.170.

의하면 광대리 성치산 서남쪽 해발 20m 지점과 당두 마을 북쪽의 30~40m 정도의 구릉 등지에서 백제 석실분을 비롯하여 석곽분·적석분 등 수기의 고분이 확인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sup>6)</sup> 현재 고분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나, 급속히 파괴되어가고 있다.

#### - 조사자 의견

광대리의 당두마을은 비금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전승은 이 일대에 고분이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되는 바이다. 또한 고분은 광대리 뒷산인 성치산에 남아 있는 성치산성과 쌍을 이루며, 이 일대가 백제의 주요 편제지였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급히 요청된다.

### (2) 광대리 城峙山城(사진 4~8)

#### - 조사 내용

성치산성은 비금도 동북방 끄트머리에 위치한 光大里 소재 해발 164m의 성치산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축조된 石城이다. 광대 마을 뒤편의 저수지로 가는 산등성이에서 능선을 따라 정상으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20여분 오르다 보면 산 정상부에 석축된 테피식 성치산성의 성벽이 눈에 들어온다. 능선을 따라 山城에 이르기 직전 약 20m 정도 전방에는 자연 암반이 산줄기의 능선에 따라 내려오다가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로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용구멍’이라 부른다. 그 구멍은 길이 8m, 높이는 3m, 깊이 5m의 상당히 큰 규모이다. 아마 인접한 龍沼 마을에 전하는 ‘용전설’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즉 용소에 살던 용이 성치산의 바위를 뚫고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산성의 성벽은 주로 동북쪽으로 이어진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는데, 성벽의 길이는 약 200m 정도이다. 南壁은 자연암벽으로 된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곳곳에 治石한 석재를 쌓아 축조하였다. 西壁은 약 60~70m 길이로 축조되었는데, 자연암벽에 맞댄 부분은 대부분 붕괴되었다. 성벽 바깥쪽의 기저부는 130×25cm 정도의 장방형 판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그 위에 가로 50~60cm, 세로 15~20cm 내외로 잘 다듬어진 방형 석재를 25단 정도 물려쌓기 방식으로 쌓았다. 또한 성벽의 안쪽은 암반에 의지하여, 바깥 성벽과 암반 사이에 할석을 채워넣는 방식의 내탁법으로 축조

6) 崔盛洛, 『新安地方의 先史遺蹟·古墳』 『新安郡의 文化遺蹟』, 목포대 박물관, 1987, p.115.

되었다. 성치산 암반의 곳곳에 돌을 떼어낸 흔적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들은 바위산인 성치산에서 자체 조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의 동북쪽에는 돌출된 방향의 석축부가 있는데, 이는 將臺나 雉로 이용된 구조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엇갈려 불룩하게 쌓은 성벽이 있는데, 甕城과 같은 기능을 한 구조물로 여겨졌다. 방향 석축부의 높이는 4m 정도이고, 이것과 東壁이 만나는 곳에는 門址로 추정되는 부분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웅성 시설로 추정되는 구조물에서 산성 정상부로 가는 길에는 움푹 패인 웅덩이도 있었는데, 수풀에 쌓여 있어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우물지 혹은 저수장으로 추정해 보았다. 그리고 그 동편 아래 쪽에는 도드라진 장방형의 평탄지가 있는데, 아마 바다를 조망하기 위한 용도의 건물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외의 다른 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건물지와 우물지로 추정되는 지점의 둘레에는 특이하게도 정상적인 성벽 외에, 높이 1m 가량, 둘레가 60m 가량 되는 석축이 감싸고 있어 2중의 성벽을 구성하는 內城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의심되기도 했다. 그리고 성치산의 정상 부분에는 봉수대로 추정되는 곳도 확인되었다.

#### - 조사자 의견

성치산성의 축조 시기에 대해서 엄밀히 고증된 바는 아직 없다. 다만 『木浦鎮誌』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조선총독부, 1942) 등에서는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文化遺蹟總覽』(전라남도, 1986)이나 『내고장 자랑』(내고장전통가꾸기 신안군편찬위원회, 1982) 등에서는 고려시대에 축조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이다.<sup>7)</sup>

이번 조사에서 산성 안에서 유물을 수습하지는 못했지만, 그 축성 양식이나 주변 일대의 유적 분포상으로 볼 때, 백제시기에 축조된 고대 산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다. 그 근거를 몇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성치산 기슭에 백제 석실분을 비롯하여 석곽분·적석분 등의 고분군이 분포하고 있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들 수 있다. 산성과 백제고분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 사례는 장산도의 大城山城과 백제 석실분을 들 수 있다.<sup>8)</sup> 그런데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성산성은 잘 다듬은 방향의 석재를 물려쌓기의 내탁법으로 쌓은 소규모의 석축산성으로서 축성양식에서 비금도의 성치산성과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성산성 내외에서 백제토기편을 수습한 바 있다. 또한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

7) 裴鍾茂, 「新安地方의 歷史遺蹟」 『新安郡의 文化遺蹟』, 목포대 박물관, p.167.

8) 崔盛洛, 1985, 「長山島·荷衣島의 遺蹟·遺物」 『島嶼文化』3, pp.27~30.

하면 해남 현산면 읍호리 소재의 고다산성과 백방산성도 성치산성이나 대성산성과 동일한 양식의 소규모 석축산성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고다산성과 백방산성지에서도 백제토기편을 수습한 바 있다.<sup>9)</sup>

또한 성치산 남쪽 2km 정도 떨어진 도고리 동편 해발 55m의 小峰에 테괴식 석심토축성이 확인되었고,<sup>10)</sup>(사진 9·10) 그 주변 일대에서 백제토기편이 수습되었음을<sup>11)</sup>(사진 11)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토성은 장산도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장산도와 비금도는 '산성-백제석실분-토성'의 조합상에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필자가 답사한 바 있는 해남의 신월리토성, 죽산성 등지에서도 이런 양식의 土心石築式 산성이 확인된 바 있고, 그 주위에서 고대 토기편들이 다수 수습된 바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앞으로 정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성치산성을 백제시대 初築된 고대 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성치산성은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한 정비작업이 시급하며, 정밀조사 역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최치원 선생 샘 (일명 孤雲井)(사진 12~17)

#### - 조사 내용

비금도의 성치산성과 더불어 우리에게 역사적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으로는 비금도 최남단의 송치마을 뒷산(해발 95m)에 孤雲井이라 전해져 오는 우물과 이에 얽혀 전하는 설화를 들 수 있다. 지금 그 산의 8부 능선 정도에 예의 그 우물이 있다. 마을에 전해오는 설화에 의하면 고운 최치원이 이곳을 지나다가 배에 물이 떨어지자 섬에 내려서 이 산에 우물을 파고 샘물을 취했다고 한다. 혹은 원래 있던 이 우물에서 최치원이 물을 길어 마시고 쉬었다고도 전한다. 또한 이곳에 들른 최치원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仙王山 산정에서 기우제를 지내 비를 내리게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하기도 한다.

#### - 조사자 의견

본래 이곳은 '官廳島'라는 조그만 섬으로 떨어져 있었으나, 인근의 제방 축조로 본섬과 연결됨

9) 강봉룡·장선영, 「남창-삼간간 국도 확·포장 공사지역의 역사유적」 『남창-삼간간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목포대 박물관, pp.52~55.

10) 裴鍾茂, 1987, 앞 논문, p.166.

11) 崔盛洛, 1987, 앞 논문, p.105.

로써 지금은 관청동이라 불리고 있다. 관청도나 관청동이라는 지명은 최치원이 이곳에 관청이 들어설 곳이라 예언하면서 붙여진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최치원은 9세기 후반에 渡唐 유학을 다녀온 인물로서, 비금도에 전하는 고운정의 설화야말로 당시 최치원이 황해를 횡단하여 당에 건너갔던 항로의 경유지였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4) 용소리 및 가산리 나배마을 출토 자기(사진 18~20)

##### - 조사 내용

용소리 동부교회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100여m, 동쪽으로 200여m의 논밭 일대의 구릉일대에서 연화문 분청사기, 청자편이 수습되었으며, 가산리에서 서쪽으로 약 500m정도 떨어진 나배마을에서 인화국화문 분청사기의 저부와 자기편이 수습되었다.<sup>12)</sup>

##### - 조사자 의견

인화국화문과 귀얄문 분청사기는 여말선초에 사용된 특징적인 생활용구인데, 비금도에서 수습된 인화국화문 자기는 특히 양질의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이는 고려말 조선초에 상당한 세력을 유지한 사람들이 비금도에 살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이는 고려말 이후에 空島政策(국가적으로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 정책)을 실시했던 사실과<sup>14)</sup>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금도에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한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역사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통제망에서 벗어난 해상세력, 예컨대 해적과 같은 무리가 이곳에 살았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현황

### (1) 김우중송덕비(사진 23)

- 소 재 지 : 비금면 수대리 송치마을 대우병원 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비금도와 도초도를 연결하는 서남문대교 아래에 위치한 대우병원 마당

12) 이현중, 「비금도 주민 정착에 대한 시고」 『도서문화』19, 2001, pp.8~12.

13) 이현중, 뒷 논문, p.15.

14) 강봉룡, 「한국 해양사의 전환: '海洋의 시대'에서 '海禁의 시대'로」 『도서문화』20, pp.37~41.

에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김우중이다. 1978년 3월에 대우문화복지재단에서는 50억 원을 들여 落島 주민을 위한 의료 및 보건시설을 기획하였다. 그 일환으로 비금도에 대우병원이 설치되었다. 1979년 2월의 일이다. 이로 인해 비금도를 비롯한 인근 섬주민들의 의료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병원 설립을 추진한 김우중의 송덕비를 1994년에 건립하였다. 비문에 따르면, “하늘과 땅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펼치는 이 곳에 일찍이 대우그룹의 김우중회장께서 손수 일군 기업의 이익을 내놓아 아담한 병원을 세워 대를 이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을 지키는 파수대로 삼으셨다. 이제 15개 성상을 지나도록 그 병원이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음에 우리 주민들은 설립자의 후의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삼가 이 작은 빗돌을 세운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으나 가슴만은 늘 따뜻하고 소박한 외딴바다 섬마을 사람들이 세운 이 송덕비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화려한 훈장이나 상금도 따라 올 수 없는 훈훈한 인정을 담아 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1cm, 너비 91.5cm, 두께 22.4cm이다. 비석은 병원 정문에서 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계단 우측 화단에 있다. 2003년 현재 비금도 대우병원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 (2) 江陵劉氏紀行碑(사진 24)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대두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수대리 대두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멀리 서남문대교가 바라다 보인다.

유씨부인의 본관은 江陵이며, 僊庵 劉敞의 24세손이다. 通政大夫 劉東煥의 딸로 태어나 성장하여서 田祿生의 21세손인 田佰春과 혼인하였다. 비문에 따르면, 유씨부인은 배움은 많지 않으나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며, 그 행실을 결코 잊을 수 없을 만큼 기이하다. 수대리에 사는 유씨부인은 천성이 착하고 순하여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친척들과 화목하여 인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결혼 후 남편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자, 유씨부인은 묵묵히 궁색한 살림을 도맡았다. 유씨부인이 고생하는 것을 본 주위 사람들은 부인에게 재가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유씨부인은 유학간 남편을 대신하여 병든 시부모님을 10여년을 봉양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이러한 유씨부인의 행실을 알리기 위해 1949년에 전씨문중에서 부인의 기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49cm, 너비 20cm, 두께 30cm이고, 15행 28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유씨부인과 남편 전백춘의 선대와 부인의 열행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비문은 李炳觀이 撰하고, 黃亨來가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와 비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수부분은 목조양식에 꽃장식이 새겨져 있다. 비석 주위에는 한쪽이 허물어진 담장이 둘러져 있다.

### (3) 姜周範孝子閣(사진 25)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월포마을

· 유적현황 : 월포마을 초입에 한 울타리 안에 2개의 비각이 있다. 하나는 강주범의 효자각이고, 다른 하나는 강진수의 기념비각이다. 강주범의 효자각은 석축건물이며, 건물 안에 <孝子晉州姜周範紀行碑>가 서 있다.

강주범의 효행 사실은 비석 앞면에 “山雉入幕 江鱸出水 實行卓異 王祥是憑 孝是出天 東方高名 孰能紀行 有侄褒揚”이라 새겨져 있다. 즉 “산에 있는 꿩을 구하고 얼어있는 강에서 잉어를 잡아다가 부모님을 봉양하니 그 행실이 특별하다. 왕이 효행사실을 듣고 하늘이 내린 효자라 하였다. 누가 이 효자의 행실을 능히 기록할 수 있겠는가. 효자라 정여를 포상한다.” 라고 칭하고 있다. 강주범의 본관은 진주이며, 어려서부터 부친을 극진히 봉양하였다. 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887년에 효자정여로 포상되었으며, 효자각은 1924년에 건립되었다.

효자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석조건물이며, 규모는 높이 180cm, 너비 50cm, 두께 30cm이다. 석축 벽면에 신선도가 그려져 있다. 석축 안에서 서 있는 비석은 높이 121cm, 너비 44cm, 두께 17cm이다. 비석 뒷면에 “大正 12년 甲子”라 새겨져 있어 1924년에 건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비석 위에는 목조건축 양식을 모방한 이수가 올려져 있다.

### (4) 姜進秀紀念碑閣(사진 26)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월포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월포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월포마을로 접어드는 농로 끝에 2개의 비각이 있다. 하나는 강진수의 기념비각이고, 다른 하나는 강주범의 효자각이다. 비각 주변에 담장이 둘러져 있다.

姜進秀의 號는 竹軒, 字는 德武이다. 비문에 따르면, 효자 강주범이 공의 堂叔이다. 강진수는 堂叔인 강주범의 효행사실을 薦狀에 기록하여 널리 알리고, 마침내 효자각을 건립하게 되었다. 강진수는 어머니가 96세에 이를 때까지 극진히 봉양하여 향촌민들이 공의 효심에 감탄하였다. 이에

1947년에 기념비를 세우고 비각을 건립하였다.

비각은 목조건물 양식을 모방한 석조이며,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비각 안에 〈竹軒姜公孝行紀念碑〉가 서 있다. 비석 앞면 여백에 공을 추모하는 4언 절구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2cm, 너비 46cm, 두께 20cm이고, 15행 22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李炳觀이 撰하였다. 비석은 구름문양이 새겨진 이수가 올려져 있다. 이 비각 우측에 〈孝子晉州姜周範紀行碑閣〉이 있다.

(5) 黃成基記行碑(사진 27)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월포마을

· 유적현황 : 월포마을 입구에 위치한 강주범 효자각과 강진수 기념비각 앞을 지나 오른쪽으로 접어들면 월포마을 중앙으로 연결된다. 황성기의 비석은 마을길로 접어드는 왼쪽편에 서 있다.

黃成基의 字는 亨來, 호는 逸圃이고, 本貫은 昌原이다. 嘉善大夫 黃京律의 후예로, 경인년(1890년으로 추정)에 태어났다. 공은 성장하여서 문장에 능하여 문하에서 수학하는 유생들이 많았다. 훗날 비금도에서 향약을 시행하여 미풍양속을 교육하였다. 이에 多士가 선생을 흠모하는 비석을 1947년에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4cm, 너비 53cm, 두께 22cm이며, 16행 30자의 碑文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金正鉉이 撰하였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수는 목조건축 양식을 모방하고 있다. 비석 주위에 낮은 시멘트 담장이 둘러져 있다.

(6) 慶州鄭氏追慕碑(사진 28)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내촌마을 입구에 있는 仙王亭에서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정씨부인의 본관은 경주이고, 1930년에 비금면 내촌에서 출생하였다. 17세에 진주정씨 姜永碩과 결혼하여 남매를 낳았다. 그런데 정씨부인이 23세 되던 해에 전쟁에 나갔던 남편이 사망하였다. 이후 정씨부인은 남매를 키우면서 온갖 고난과 유혹을 뿌리치고 정절을 지키다 1973년에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정씨부인의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 1994년에 추모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 〈貞節婦人慶州鄭氏愛月追慕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6cm, 너비

54cm, 두께 24cm이다. 24행 46자의 비문이 國文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은 鄭基汝이 撰하고, 金淑鉉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와 비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7) 鄭基周孝子碑(사진 29)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내월리 외촌마을에서 내촌마을로 가는 도로변에서 월포마을과 만나는 길목에 위치한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鄭基周이다. 공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丙申年 3월에 건립되었다. 그러나 碑文이 없어 자세한 효행 사실은 알 수가 없다. 비석의 앞면에는 〈孝子慶州鄭公基周之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79cm, 너비 33cm, 두께 15cm 이다. 비석은 이수, 비신, 비좌로 이루어져 있고, 비석 주위에 시멘트 담장이 둘러져 있다.

(8) 姜明鉉紀念碑(사진 30)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내월리 외촌마을에서 내촌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비석 바로 옆에 〈劉孝子記蹟碑〉가 서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前面長 姜明鉉이다. 강명현은 4년 6개월 동안 면장직을 역임하였다. 면장으로 재임시 학교를 육성하고, 堤堰를 막아 水利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古蹟 보존에 힘쓴 결과 서산마을에 古刹을 증축하는 등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84년에 비금면 명륜회에서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前面長姜明鉉功績紀念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3cm, 너비 54.2cm, 두께 22cm이다. 비문은 4언 절구로 10행 16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撰·書者는 없고, 비석의 형태는 이수, 비신, 비좌를 갖추고 있다. 비석 주위에 시멘트 담장이 둘러져 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9) 劉孝子記蹟碑(사진 31)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내월리 외촌마을에서 내촌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비석 바로 옆

에 <前面長姜明鉉功績紀念碑>가 서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劉護鍾이다. 본관은 강릉이며, 文僖公 劉敞의 후예이며, 顯祖는 參判 劉芳喆, 參議 劉聖益 등이 있다. 劉公은 어머니 봉양에 정성을 다하여 향리에서 소문난 효자였다. 이러한 공의 효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 <劉孝子記蹟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과 측면에 효행사실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14행 35자이며, 李炳觀이 撰하고, 姜明鉉이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84cm, 너비 39cm, 두께 39cm이다. 비석 주위에 작은 기둥이 四面에 서 있고, 그 주변에 키 작은 나무가 심어있다.

(10) 金玉光·金啓得·金達仁 孝子閣(사진 32)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 유적현황 : 효자각은 내월리 외촌마을에서 내촌마을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효자각 바로 앞에 <前面長姜明鉉功績紀念碑>와 <劉孝子記蹟碑>가 서 있다. 효자각은 2기의 비석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발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孝子閣의 주인공은 3대에 이르는 김옥광·김민득·김달인 등이다. 효자 김옥광은 집안이 가난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나물을 캐고 물고기를 잡아 병든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또 아버지가 중환으로 자리에 눕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고,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시묘생활을 하였다. 효자 김민득은 김옥광의 아들이다. 김민득은 부친의 효행을 본받아 아버지가 중환으로 자리에 눕자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또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겨울 바다에 나가 하늘에 정성을 다하였다. 하늘이 효자의 정성에 답하였는지, 잉어 한 쌍을 잡아서 부모님을 봉양하였다고 한다. 이를 지켜본 후세 사람들은 한 집안에서 대를 이은 효자가 나왔다고 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다. 효자 김달인 역시 부친의 가르침을 본받아 효성이 지극하였다. 이 효자들의 효행을 널리 기리기 위해 甲申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효자각은 석조건축이며, 비각 안에 3개의 비석이 서 있다. 비석의 명칭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童蒙敎官朝奉大夫金玉光 配令人密陽孫氏>(높이 120cm, 너비 40cm, 두께 20cm, 9행 22자), ② <童蒙敎官朝奉大夫金啓得 配令人懷德宋氏>(높이 120cm, 너비 40cm, 두께 20cm, 9행 22자), ③ <童蒙敎官朝奉大夫金達仁 配令人密陽朴氏>(높이 120cm, 너비 40cm, 두께 32cm, 10행 22자).

관련유적으로 효자각 바로 앞에 <通政大夫金斗熙親族紀念碑>(1929년 건립, 높이 63cm, 너비 25cm, 두께 8cm)가 있다.

(11) 朴斗植記行碑閣(사진 33)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외촌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외촌마을로 향하는 도로변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공의 이름은 朴斗植, 字는 子律이고, 號는 松坡이다. 본관은 密陽이며, 糾正公 朴鉉의 후예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經典에 밝았다. 그리하여 冠婚喪祭의 禮를 주관하는 등 향리의 師表가 되었다. 고종 때 五衛將에 증직되었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스승을 추모하는 제자 崔佑洪 외 90인이 1932년에 비각을 건립하였다. 비각은 목조건축 양식을 모방한 석조건축이며, 지붕에 막새기와를 새겨 놓았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그 안에 비석이 서 있다. 비석의 앞면에 <松坡朴斗植先生記行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 10행 28자의 비문이 있다. 이 비문은 光州 盧道基가 識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4cm, 너비 45cm, 두께 18cm이다. 비석 앞에는 석축으로 된 외삼문이 있고, 그 주위에 담장이 연결되어 있다.

(12) 一樵先生紀蹟碑(사진 34)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죽치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죽치마을 입구 우측에 위치한다. 비석 바로 옆에 <南坡張先生紀念碑>가 서 있다.

一樵先生의 이름은 張碩疇이다. 선생의 字는 洛衡, 諱는 碩疇이다. 一樵는 선생의 號이다. 선생의 本貫은 仁同이다. 증조부는 張漢泰이고, 부친은 張仁默이다. 선생의 성품은 온순하고 부모를 섬김에 정성으로 다하였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고, 經書의 뜻을 깊이 통달하였다. 선비들과 교류함에 信義를 돈독히 하였고, 일을 추진함에 기개가 높았다. 또 선생이 유학하려 길을 떠날 때 따르는 문인들이 수 백인이었다고 한다. 향리사람들이 공을 一樵先生이라 칭하였다. 이에 제자 60여 명이 선생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庚辰年에 기적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 <一樵先生仁同張公紀蹟碑>이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13행 23자의 비문이 있다. 이 비문은 李炳觀이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6cm, 너비 53cm, 두께 23cm이며, 비석은 이수, 비신, 비좌를 갖추고 있다. 비석 주변에 돌담이 둘러져 있다.

(13) 南坡先生紀念碑(사진 35)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죽치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죽치마을 입구 우측에 위치한다. 이 비석 바로 옆에 <一樵先生仁同張公紀蹟碑>가 함께 서 있다.

南坡先生の 이름은 張哲弘이며, 字는 弘在이다. 선생은 1897년에 태어나 1961년에卒하였다. 이 비석은 선생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971년에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 <南坡張先生紀念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 20행 33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외형은 직사각형이며, 규모는 높이가 122cm, 너비 83cm이다. 비석 주위에 낮은 시멘트 담이 둘러져 있다.

#### (14) 竹軒崔先生紀行碑(사진 36)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죽치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죽치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이 비석에서 약 2m 떨어진 곳에 <前監察崔公紀蹟碑>가 함께 서 있다.

崔先生の 이름은 碩斗이고, 字는 佑洪이며, 號가 竹軒이다. 본관은 경주이며, 崔攄의 후예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였다. 經傳子集을 두루 익혀 鄉黨의 師表로 추앙되었다. 선생이 유학을 떠날 때 따르는 무리가 많았다. 선생은 평생동안 德을 말함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또 후진을 가르켜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 밝게 해 주었다. 제자 朴時豊 외 72명이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37년 기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2cm, 너비 42cm, 두께 5.5cm이다. 비문은 15행 23자이며, 鄭再産이書하였다. 비석은 이수와 碑身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수는 목조건축양식을 모방한 지붕형태이다.

#### (15) 崔門勝紀蹟碑閣(사진 37)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죽치마을

· 유적현황 : 이 碑閣은 죽치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이 비각의 주인공은 前監察 崔門勝이다. 공의 본관은 경주이고, 문숙공 최선의 후예이다. 顯祖는 通政大夫 崔濟伯, 嘉善大夫 崔世德, 士人 崔完壽 등이 있다. 비각은 석축으로 되어 있으며,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외삼문 역시 석조로 되어있고, 이 외삼문과 돌담이 연결되어 있다. 돌담위에 담쟁이덩굴이 무성하다. 비각 안에 비석이 서 있다. 이 비석은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40년에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는 <前監察崔公紀蹟碑>라 새겨져 있고, 앞면 여백에 4언 절구가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30cm, 너비 48cm, 두께 20cm이다. 비석 뒷면에 10행 30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李炳觀이 撰하고, 姜

明鉉이 흠한 것이다.

(16) 完山李氏孝烈閣(사진 38)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임리마을
- 유적현황 : 이 효열각은 임리마을 중앙에 위치한다. 효열각 안에 완산이씨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 1기가 있다.

이씨부인의 본관은 完山이고, 士人 李若鳳의 딸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漢陽 趙俊龍과 결혼하였다. 이씨부인은 어려서부터 孝友가 돈독하였고, 가족과 화목하였다. 그런데 혼인한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기이한 병에 걸렸다. 이씨부인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약을 구하려 다녔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씨부인은 남편의 뒤를 이어 자살을 결심했으나,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혼신이 노력을 다하였다. 이에 이씨부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934년에 효열각이 건립되었다.

효열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석조건물이며, 四面이 뚫려있다. 비각의 지붕은 목조건축 양식을 모방한 지붕이 올려져 있는데, 지붕 처마에 귀꽃이 새겨져 있고, 지붕 위에는 막새기와가 조각되어 있다. 비각 안에 비석이 서 있는데, 앞면에 <完山李氏婦人孝烈之閭>라 새겨있고, 비석 뒷면에 慕聖 會長 李炳觀이 撰한 비문 11행 28자가 새겨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3cm, 너비 49cm, 두께 18.5cm이다. 비각 앞에는 석조로 축조된 외삼문이 있고, 외삼문과 돌담이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각보다 외삼문의 규모가 높고 크다.

(17) 파평윤씨재각(사진 39)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임리마을
- 유적현황 : 이 재각은 임리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산자락 아래에 있다. 이 재각은 비금도 파평윤씨의 문중재각이다. 파평윤씨문중에서는 음력 10월 15일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2003년 현재 음력 10월 9일에 모셨다고 한다. 시제에 드는 비용은 문중 전담 4마지기 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마련된다. 시제에 참여하는 후손들은 주로 서울과 목포, 그리고 도초도 등지에서 약 20명 정도된다. 문중재각은 정면 3칸 규모에 팔작지붕을 갖춘 현대식 건립이다. 재실 앞에는 외삼문이 있다.

(18) 密陽朴氏烈女閣(사진 40)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상암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수대리에서 읍동으로 향하는 도로변에 죽림리 상암마을로 들어가는 두 갈래 길이 있다. 이 비석은 첫 번째 도로로 진입하면 마을로 연결된다. 마을중앙에 위치한 공터에 위치한다.

밀양박씨는 金容律의 妻이다. 비석 앞면에 새겨진 4언 절구를 살펴보면, “박씨부인은 三從之禮와 四德을 겸비한 인물이다. 자녀교육은 물론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이러한 박씨부인의 열행을 이 비석에 모두 기록할 수 없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비석 뒷면에 박씨부인의 열행을 기록한 비문 13행 23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丙戌年에 金正鉉이 撰하고, 金圭喆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 비신, 비좌를 갖추고 있다. 비석 주변에 돌담이 둘러져 있고, 외삼문은 철제로 만든 창살문이다.

#### (19) 晋州姜氏烈行碑(사진 41)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상암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죽림리 상암마을의 공터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2기의 비석이 있다. 비석 바로 뒤편에 야산이 있고, 앞에는 밭이 있다. 비석 하나는 <진주강씨열행비>이고, 다른 하나는 <全州李氏烈行碑>이다.

강씨부인은 진주강씨 姜德武의 딸로 태어났다. 성장하여 김해김씨문중으로 출가하였다. 비문 첫 머리에 “옛날 사람들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한 사람의 지아비만을 섬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열녀가 비금도 죽림리에서 탄생하였으니 강씨부인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강씨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과 사별하였다. 이에 강씨부인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이후 강씨부인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문을 지켰다. 이러한 강씨부인의 열행사실을 기리기 위해 乙酉年에 열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7cm, 너비 52cm, 두께 22.7cm이고, 비문은 14행 29자이다. 이 비문은 金正鉉이 撰하고, 姜明鉉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비석 앞면에는 <晋州姜氏烈行碑>라는 푸른색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4언 절구가 써 있다.

#### (20) 全州李氏烈行碑(사진 41)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상암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읍동에서 수대리로 향하는 도로변에 '삼암마을'이라 새겨진 표지석이 있고, 이 표지석에서 마을 안으로 약 150여m 들어가면 마을 공터 끝자락에 위치한다. 이 비석의 왼쪽에 <晋州姜氏烈行碑>가 서 있다.

이씨부인은 李權律의 딸로 태어나 성장하여서 金玉篤와 혼인하였다. 이씨부인은 남편이 병으로 자리에 눕게되자, 밤마다 하늘에 축원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소생하지 못하고 사경을 헤메자,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수혈하는 등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후 이씨부인은 수절하면서 문중을 수호하였다. 이러한 이씨부인의 烈행을 기리기 위해 열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0.3cm, 너비 53cm, 두께 21.3cm이고, 비문은 14행 30자이다. 비석 앞면에 푸른색으로 <全州李氏烈行碑>라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이씨부인을 추모하는 4언절구가 새겨져 있다.

#### (21) 姜千秀孝行碑(사진 42)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망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덕산리 망동마을에 위치한다. 비석 오른쪽에 <參奉晋州姜公萬秀紀行碑>가 있다. 이 비석 앞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3~4가구의 주택과 창고가 있다. 이 창고 앞에 강천수의 효행비가 서 있다.

姜千秀의 字는 千封, 號는 梅隱이다. 강천수는 어머니가 병에 걸려 호흡이 수개월 동안 자리에 누워있었다. 어머니의 생명이 위독할 때마다 강천수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에게 수혈하는 등 효성이 지극하였다. 강천수는 병든 어머니를 10년이 넘도록 병간호를 하여 마침내 회복하도록 봉양하였다. 이에 인근 사람들이 효자라 칭송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2cm, 너비 41cm, 두께 15.2cm이다. 비석 앞면에 <梅隱晋州姜公千秀孝行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과 측면에 <梅隱晋州姜公孝行碑文>이 19행 23자로 서술되어 있다. 이 비문은 1948년에 李炳觀이 撰하고, 李肯馥이 書하였다.

#### (22) 姜萬秀紀行碑(사진 43)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망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망동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姜萬秀의 字는 正安이고, 號는 菊史이다. 梅隱 姜千秀의 兄이다. 공은 文良公 姜希孟의 후예이다. 공의 顯祖는 參判 姜隆朝, 嘉善大夫 姜在悅,

通訓大夫 姜智會, 敎官 姜永洪 등이 있다. 강만수는 부모님을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고, 어려서부터 孝友가 두터웠다. 마을에서는 선행을 다 하였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러한 강만수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48년에 기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2cm, 너비 42.6cm, 두께 18cm이다. 비석 앞면에 〈參奉晉州姜公萬秀紀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12행 26자의 비문이 기술되어 있다. 이 비문은 李載現이 撰하고, 李肯馥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 비신, 비좌를 갖추고 있다.

#### (23) 光山盧氏紀蹟碑(사진 44)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망동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덕산리 망동에서 한산마을로 넘어가는 도로변에서 좌측으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비석 앞쪽에 저수지가 있다.

광산노씨는 盧瑞弘의 딸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監役 金在國과 혼인하였다. 노씨부인은 시집온 이후 동서들과 우애가 두터웠고, 宗戚들간에도 화목하게 지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노씨부인은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斷指하여 수혈하는 등 남편을 간호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노씨부인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절하면서 가문을 수호하였다. 부인의 나이 70세에 세상을 떠나니, 인근에서 열녀라 칭송하였다. 이에 노씨부인의 열행사실을 기리기 위해 1941년에 기적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 〈烈婦光山盧氏紀蹟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0.5cm, 너비 55cm, 두께 22cm이고, 비문은 19행 31자이다. 이 비문은 李炳觀이 撰하고, 姜明鉉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와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 (24) 菊坡先生記行碑(사진 45)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서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서산마을의 끝자락에 3기의 비석이 있다. 하나는 국파선생의 비석이고, 그 옆에 〈西岡先師玄風郭公台鍊紀行碑〉, 〈西隱黃公孝行紀蹟碑〉가 나란히 서 있다.

국파선생의 이름은 黃敬熙이다. 字는 英敏이고, 號는 菊坡이며, 본관은 昌原이다. 선생은 黃炯仁의 아들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西岡 郭台鍊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공의 행적은 비석 뒷면에 쓰여져 있지만, 비석 표면이 마모되어 자세히 확인할 수 없다. 공의 행적은 비석 앞면에 새겨져 있는

4언 절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의 마음 씀씀이가 봄과 같고 四禮를 실천하며, 3번 반성하여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고, 화내지 아니하고 덕행을 실천하니 百世의 귀감이라”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국파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1946년에 기행비가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 <菊坡黃先生記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金正鉉이 撰한 비문 10행 30자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2cm, 너비 49cm, 두께 19cm이며, 이수, 비신, 비좌가 있다.

(25) 西岡先師紀行碑(사진 46)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서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서산마을 끝자락 산록에 위치한다. 이 비석 바로 옆에 <菊坡黃先生記行碑> <西隱黃公孝行紀積碑>등이 나란히 서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郭台鍊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고, 성장하여서는 菊坡 黃敬熙 등 문하생을 훈육하였다. 이 비석은 1928년에 郭台鍊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행비이다. 선생의 행적은 비석 앞면에 4언 절구로 쓰여져 있지만 비석의 마모로 인해 해독하기 어렵다. 비석 앞면에 <西岡先師玄風郭公台鍊紀行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3cm, 너비 50cm, 두께 16cm이다. 비문은 盧道基가 撰하였고, 그의 문생 金奉燮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 비신,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26) 黃丞憲孝行碑(사진 47)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서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서산마을 끝자락 산록에 위치한다. 비석 바로 옆에 <菊坡黃先生記行碑>와 <西岡先師玄風郭公台鍊紀行碑>가 함께 있다.

黃丞憲의 호는 西隱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공손하고 총명하였으며, 西岡 郭台鍊에게서 수학하였다. 또한 아버지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친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밤마다 부친의 쾌유를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묘역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 또한 공은 4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우애가 돈독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명석한 판단으로 일을 해결하는 등 마을내에서 추앙받는 인물이었다. 이에 공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丙戌年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西隱黃公孝行紀積碑>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공의 행적을 기리는 4언 절구가 써 있다. 이에 따르면, “月浦의 옛 땅에 진실된 효자가 탄생하였으니, 부친

을 지극한 정성으로 봉양하더라. 천년동안 밝고 따뜻함이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가 160cm, 너비 54cm, 두께 23cm이며, 비문은 15행 27자로 되어 있다. 이 비문은 李炳觀이 撰하고, 金正鉉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27) 邑洞碑石群(사진 48-1~4)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읍동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비금도 선착장에서 면소재지를 향하는 도로변에 위치한다. 비석 앞으로 두갈래 길이 열려 있다. 하나는 수대리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고, 다른 하나는 면사무소로 연결된다. 이 비석군은 좌측의 수대길로 연결되는 갈림길에 있다. 총 4基의 비석이 있는데, 2기는 前面長의 記念碑이고, 나머지 2基는 明南喆과 趙大亨의 기념비이다. 이 비석의 주인공들은 모두 향촌 발전에 功을 세운 사람들이다. 다음 <표 1>은 읍동 비석군에 대한 유적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읍동 비석군

번호	碑石銘	건립 년대	碑石規模(cm)			碑文		비고
			高	幅	厚	行	字	
1	南波明南喆先生功德記念碑	1974년	124	45	19			교통시설, 마을봉사활동
2	英陵參奉趙大亨慈善記念碑	1939년	154	52	21		24	善行을 행함
3	前面長金赫聲慈善記念碑	1947년	131	44	17.5	7		농업용수 시설물 설치
4	前面長李鳳來功績記念碑	1939년	147	51	21			소작인을 위한 교각건설

(28) 光山蘆氏碑閣(사진 49)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구기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비금 중·고등학교로 향하는 도로 우측에 산록에 위치한다. 맨 안쪽에 시멘트 담장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고, 건물안에 <南塢居士盧道基紀行碑>가 서 있다. 碑閣 앞에 외삼문이 있다. 외삼문은 붉은 기와를 올려놓은 담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외삼문 밖에는 2기의 비석이 서 있는데, 왼편에 <成均生員玄基奉璘德記念碑>이고, 오른편에 <小塢金先生貞鉉記行碑>가 서 있다. 이 비각은 광산노씨 盧道基의 행적을 기리는 곳이다. 마을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과거에 이곳에 노도기선생의 영당이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비각안에 있는 비석은 선생의 유허지에 기행비를 건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비각은 후손들의 부재로 출입할 수 없다.

(29) 玄基奉紀念碑(사진 50)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구기마을 광산노씨 비각 앞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광산 노도기 선생의 비각 앞에 위치한다. 뒤편에 노도기 비각이 위치하고, 비석의 오른쪽에 <小鳩金先生貞鉉記行碑>가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玄基奉이다. 공은 南海 서쪽에 위치한 神助山 아래에서 세거하였다. 공은 承旨 玄以斗의 후예로, 1879년(고종 16)에 태어났다. 비석 앞면에 <成均生員玄基奉璘德紀念碑>라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현기봉의 행적을 기록한 4언 절구가 써 있다. 이 비석은 현기봉이 배운 德을 기리기 위해 1915년에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4cm, 너비 54cm, 두께 18cm이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30) 小鳩先生記行碑(사진 51)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구기마을 광산노씨 비각 앞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구기마을 광산노씨 비각 앞에 위치한다. 왼편에 <成均生員玄基奉璘德紀念碑>가 있고, 비석 뒤편에 光山 盧道基의 비각이 있다.

小鳩先生의 이름은 金貞鉉이며, 본관은 김해이다. 1879년에 출생하였다. 성장하여서 南鳩盧道基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비석 앞면에 <小鳩金先生貞鉉記行碑>라 써 있고, 그 여백에 선생을 추모하는 4언 절구가 기록되어 있다. 4언 절구를 살펴보면, 公은 德化로써 사람을 교화하니, 그 따스함이 봄별과 같다. 뜻을 세우고 3번 반성하여 守身하였다.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니 文理가 진실하다. 公의 행실을 비석에 새기니 영원토록 귀감이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비석은 공의 문하생인 趙尙淑·黃玄珍·朴玉三·黃召柱 등이 스승을 추모하면서 1949년에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cm, 너비 51cm, 두께 20cm이다. 비문은 19행 30자이며, 朴珠淳이 撰하고 黃亨來가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31) 竹坡先生記行碑(사진 52)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용호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구기마을에서 용호마을로 넘어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한다.

文包旭의 字는 謹昊이고, 竹坡는 號이다. 본관은 남평이며, 江城君 文益漸의 후손이다. 죽파선생은 어려서부터 슬기롭고 총명하였다. 성장하여서 학문을 수학하면서 經典에 통달하였다. 공은 孝友

가 두터웠고, 어르신들을 공경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선생을 經師라 칭송하였다. 공은 향리에서 후진을 양성하다가, 73세에 세상을 떠났다. 비석 앞면에 새겨진 4언 절구에 따르면, “公은 너그럽고 후덕함이 봄별과 같고, 사람들에게 善을 행하고, 仁을 실천하였으니, 세월이 흘러도 선생을 잊을 수 없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은 竹坡先生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46년에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5cm, 너비 51.5cm, 두께 20cm이고, 비문은 13행 26자이며, 門人 盧昌彬 등이 書하였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32) 沙隱先生紀行碑(사진 53)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구림리 수림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용호마을에서 수림마을로 향하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劉泰鉉의 字는 性源이고, 號는 沙隱이며, 본관은 江陵이다. 劉敞의 후손이며, 劉尙曄의 아들로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경전을 두루 섭렵하였다. 또 향리에서 덕을 베푸니 선생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선생의 후손들과 門人들이 1941년에 기행비를 건립하였다. 碑銘은 〈沙隱先生劉泰鉉紀行碑〉라 써 있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129cm, 너비 44cm, 두께 20cm이다. 비문은 10행 26자이며, 李炳觀이 撰하였다. 비석은 이수, 비신, 비좌로 이루어져 있고, 낮은 대리석 담장이 둘러져 있다.

(33) 新塢先生記行碑(사진 54)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자항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신촌에서 자항마을로 가는 도로변 좌측에 위치한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黃京喆이다. 비석 앞면에 〈新塢黃京喆先生記行碑〉라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선생의 행적을 노래한 4언 절구가 기록되어 있다. 선생은 평생을 眞義를 생활신조로 삼았다. 항상 바른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니, 가르침을 받으려는 문인들이 많았다. 이러한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庚戌年에 기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뒷면에 선생의 문하생 154명이 기재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2cm 너비 60cm 두께 26cm이며, 비문은 14행 30자이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34) 竹岡先生紀蹟碑(사진 55)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자항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신촌에서 자항마을로 가는 도로변 좌측에 있다. 바로 옆에 <東岡劉先生記行碑>가 함께 서 있다.

竹岡先生의 字는 鶴來, 諱는 忠熙이고, 본관은 창원이다. 선생의 행적은 비석 앞면에 4언 절구로 기록되어 있다. 죽강선생은 학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일을 추진함에 義로써 행하였다. 또 交友함에 仁을 실천하니, 제자들로부터 尊崇되었다. 이러한 선생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의 제자 20여명이 1949년에 기적비를 건립하였다. 비명은 <竹岡黃先生紀蹟碑>이고, 비석 측면에 제자 劉子彥 외 33명의 門人錄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4.5cm, 너비 59.5cm, 두께 16.5cm이다. 비문은 11행 31자이며, 金正鉉이 撰하였다. 비석은 이수, 碑身, 비좌로 이루어져 있다.

(35) 東岡先生記行碑(사진 56)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신원리 자항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신촌에서 자항마을 가는 도로변 좌측에 있다. 이 비석 바로 옆에 <竹岡黃先生紀蹟碑>가 위치하고 있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劉春烈이다. 선생의 字는 忠集이며, 劉敞의 후손이다. 선생은 성장하여서 黃靖齋와 姜湖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碑銘은 <東岡劉先生記行碑>이다. 유춘열의 행적은 비석 앞면 4언 절구의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공은 향리의 선생이었다. 어리석음을 바로 잡아 밝게 하고, 행실에 있어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언행을 바르게 하고 행동은 아홉 번을 생각하여 실천에 옮겼다. 이러한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기행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8cm, 너비 52cm, 두께 22cm이다. 비문은 13행 24자이며, 이수, 비신, 비좌를 갖추고 있다.

(36) 지동 碑石群(사진 57)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지당리 지동마을

· 유적현황 : 비금도 선착장에서 면소재지로 향하는 도로변에 지동마을로 들어가는 표지가 서 있다. 이 도로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4基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다. 이 비석군은 晉州姜氏門

中에서 건립하였다. 이 가운데 2기는 강씨문중의 효자와 효열부의 효행사실을 기록한 효열비이고, 나머지 2기는 海隱先生과 松史先生의 비석들로 후진양성에 대한 기념비이다. 다음의 <표 2>는 지동 비석군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지동 비석군

번호	碑銘	年代	碑石規模(cm)			碑文		비고
			高	幅	厚	行	字	
1	海隱先生姜公序會興學碑	辛巳年	167	53	22	15	26	후진 양성의 공로비
2	孝子姜公永式紀實碑	庚辰年	162	52	23	15	29	효자비
3	孝烈婦密陽朴氏紀實碑	戊寅年	156	51	21	15	25	朴成午의 女, 姜大興 妻,
4	松史先生姜公師賢紀念碑	1990년	147	54	23	17	41	후진 양성의 기념비

(37) 密陽崔氏烈女閣(사진 58)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용소마을

· 유적현황 : 이 열녀각은 용소마을의 비금동초등학교 우측 발자락에 위치한다. 열녀각 맞은 편에 <藕泉李先生紀蹟碑閣>이 있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석조건축이며, 외삼문과 담장으로 둘러져 있다. 비각 안에는 1기의 비석이 서 있는데, 碑銘은 <烈女金道成妻崔氏之閣>이다. 비석 앞면 여백에는 최씨부인을 추모하는 4언 절구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從容殉節 風聲百代 行貫三綱 不顯其光”이라 기록되어 있다. 즉 최씨부인의 열행사실을 자손만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 비석을 세운다. 삼강행실의 아름다움은 이 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최씨부인의 열행 사실은 비각 벽면에 「烈女密陽崔氏旌閭重修記」(丁亥年, 李炳觀 撰)에 기재되어 있다. 최씨부인은 崔吉烈의 딸로 태어나, 金道成에게 시집왔다. 그러나 남편이 명을 얻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의 장례를 치른 후 9일만에 최씨부인의 남편의 무덤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러한 최씨부인을 마을 사람들을 열부라 칭송하였다. 崔氏夫人의 열행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1860년에 열녀각을 건립하였다.

(38) 藕泉先生紀蹟碑閣(사진 59)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용소마을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용소마을에 위치한 비금동초등학교 우측에 있다. 비각 맞은편에 <烈女金道成妻崔氏之閣>가 있다.

李載珪의 字는 元旭이고, 號는 藕泉이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聖賢의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여 학문이 높았다. 훗날 經傳에 통달하여 향리에서 추앙받았다. 선생은 항상 책을 읽으면서 溫故知新의 마음으로 힘썼다. 또한 성품이 올바르고 진실하여 명예와 이익의 得失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조용한 곳에서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며 일을 추진하였다. 또 집안을 다스림에 반드시 도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또 사람을 사귀어 항상 신뢰를 중시하였다. 학문이 높아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문도들이 날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에 제자들이 스승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비각을 건립하였다.

비각은 석조건물이며,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1cm, 너비 46.5cm, 두께 17cm이며, 비문은 17행 30자이다.

### (39) 慶州鄭氏烈女閣(사진 60)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용소리 용소마을

· 유적현황 : 이 열녀각은 용소마을에 위치한 비금동초등학교 뒤편에 있다. 열녀각 안에는 1基의 비석이 있는데, 碑銘이 <烈婦慶州鄭氏紀行碑>라 새겨져 있다.

慶州鄭氏는 士人 金挺洙의 부인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정씨부인은 주야로 통곡하며 슬퍼하였다고 한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정씨를 열부로 칭하였다. 이러한 열행사실을 후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玄孫들이 1943년에 열녀각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cm, 너비 46cm, 두께 15cm이며, 비문은 13행 30자이다. 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이며, 지붕에 목조건축 양식을 모방한 막새기와가 새겨져 있다. 그 주위에 돌담이 둘러져 있고, 돌담 중앙에 철문으로 된 외삼문이 있다.

## 3. 역사유적의 활용방향

### 1) 고대·고려시기 유적의 활용방향

#### (1) 성치산성의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의 만남

앞에서 살폈듯이 성치산성은 백제시대에 始築된 고대 산성일 가능성이 크다. 성치산에 고대 산성

이 축조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그것은 바닷길을 감시하기 위한 필요에서였을 것이다. 이를 잠시 부연 설명하기로 하자.

고대 시대엔 육로보다 바다와 강을 이용하는 수로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육로의 미개적으로 인해 문화교류의 통로로 강과 바다가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대의 항해기술은 황해를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하지는 못했으므로, 원해 항해보다는 연안육지와 섬을 옆에 끼고서 진행하는 연안 및 근해 항해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견지에서 신안군 일대의 고대 연안 및 근해 해로를 추정해보면 크게 다음의 세 개의 노선을 들 수 있겠다. ① 무안반도와 '압해도-고이도-지도' 사이의 좁은 해협, ② '임자도-증도-압해도-화원반도'와 '자은도-안좌도-장산도' 사이의 해로, 그리고 ③ '자은도-안좌도-장산도'와 '비금도-도초도-하의도-신의도' 사이의 해로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①의 항로는 왕건이 서남해지방으로 향진해 올 때 택했을 것으로 보이며,<sup>15)</sup> 또한 고려·조선시대 조운로로도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백제시대에는 ②와 ③의 항로가 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③의 항로가 중시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금도 동북방 끄트머리에 위치한 성치산성이 바로 ③의 항로 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항로 상의 주요 백제시기 유적을 보면, 비금도의 성치산성과 백제석실분 이외에도 장산도의 백제석실분과 대성산성, 안좌도의 백제석실분, 하의도의 백제 석실분 등이 있다.

성치산 동쪽 기슭의 바닷가에는 堂頭마을이 있는데, 비금도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당두리는 마을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이곳에서는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백제고분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성치산의 북서쪽으로 산줄기가 양 날개로 뻗어내린 사이에는 원래 바닷물이 깊숙이 만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 입구를 막아 저수지(광대저수지)로 만들었으며 서남쪽에는 간척된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당두 마을이나 현 광대저수지의 자리는 백제시대 ③ 항로 상의 주요 중간 경유·기착 항구였다고 하겠다. 성치산성은 이러한 고대 항로 및 중간 기착 항구를 감시·보호하기 위해서 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의 관리를 위해서 중앙에서 유력한 관리들이 이곳에 파견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중앙에서 유행하던 석실분을 조성하여 죽은 후에 이에 안장되었을 것이다. 성치산성 인근에 수십기의 고분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15) 姜鳳龍, 「押海島の 변영과 석퇴」 『島嶼文化』18, 2000, 42~43.

성치산성에 오르면, 동으로는 「자은도-암태-팔금도-안좌도」의 섬들이 에워싸여 있지만 서쪽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경관이 아름다우며, 서쪽 수평선으로 빨려들어가는 일몰이 일품이다. 더욱이 자연 암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이른바 '용구멍'은 용의 설화와 함께 자연의 신비를 느끼게 해준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치산성과 고분이 만들어내는 고대 역사문화와 해양 자연경관의 만남이라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 고운정 : '최치원의 바닷길'의 길목(사진 21·22)

'최치원 선생 샘', 즉 고운정이 있는 수도 마을 뒷산은 도초도가 마주보이는 것이다. 이 산의 8부 능선에 고운정이 있는데, 이곳에서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의 해협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이 해협을 지나 西進하면 다도해가 끝나고 「우이도-흑산도-홍도」로 이어지는 큰 바다의 징검다리가 연결된다. 오늘날에도 우이도, 흑산도, 홍도에 가는 많은 배들이 이 해협을 지난다.

고운 최치원은 868년(경문왕 8) 12세의 나이로 중국 당나라에 유학을 떠나 7년만인 874년에 빈 공과에 합격하여 관계에 진출하고 문명을 날렸으며 885년에 29세의 나이로 신라에 돌아왔다. 최치원 역시 비금-도초 해협과 우이도, 흑산도, 홍도를 경유하는 바닷길을 이용했을 것이며, 그 도중에 비금도에 상륙하여 비금-도초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수도 마을 뒷산의 샘에서 생수를 보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최치원 관련 설화는 비금도에만 전해오는 것이 아니다. 비금도를 지나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우이도 진리 상산봉에도 다음과 같은 최치원 설화가 전해온다.

「신라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제주도에서 중국으로 유람가던 중에 우이도 진리의 上山에 도착했다. 때 마침 우이도에는 가뭄이 극심하였는데 고운 선생을 본 주민들은 가뭄을 물리치고 비를 내려주도록 간청했다. 고운은 즉시 북해 용왕을 불러서 가뭄을 해결하라고 했으나 옥황상제의 명령이 아니면 용왕의 마음대로 비를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용왕의 말을 듣고 고운은 화를 벌컥 내면서 속히 비를 내리라고 호령했다. 기가 꺾인 용왕은 하는 수 없이 고운의 명령대로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했다.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얼굴에 경련이 일도록 화를 내면서 용왕을 잡아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고운은 용왕을 도마뱀으로 만들어 선생의 무릎 밑에 숨겨주어 죽음을 면하게 했다. 그 후 고운 선생은 중국으로 떠났는데 선생이 머물면서 상산봉 제2봉에 있는 바위에다 바둑판을 만들어 바둑을 두면서 즐겼다는 전설이 있으며 과연 바둑판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또한 고운은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鐵馬와 은접시를 유

물로 놓아두고 갔다.」<sup>16)</sup>

상산봉에서 우이도 주민들을 위해서 가뭄을 해결해주었다는 최치원의 행적은 비금도의 그것과 꼭 닮아 있다. 일제시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산봉의 정상에 사지가 떨어져 나갔고 몸통의 일부만 겨우 남아 있는 높이 4寸, 길이 6촌의 철마가 있는데, 최치원이 銅佛과 함께 이것을 남겨놓았다고 하는 마을 사람의 전언을 소개하고 있다.<sup>17)</sup>

최치원이 남겼다는 철마는 제를 지내는 대상인 神體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철마는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고인이 된 주민 문모씨가 대장간에 가지고 가서 늘리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이후로 철마마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최근까지 전해지고 있었던 듯하다. 최근까지 전해왔다는 철마를 최치원이 놓고 갔을 가능성은 적겠지만, 최치원이란 인물을 그것에 결부시켰다는 것 자체는 흥미로운 바가 있다.

철마는 흔히 바닷가 당제에서 신체로 모셔져 왔다. 최근에 흑산도 상라봉 제사터에서 철마 3점이 수습된 바 있고,<sup>18)</sup> 월출산 천황봉 제사터에서도 철마 3점과 土馬 11점이 출토되었다.<sup>19)</sup> 또한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지에서 토마의 몸체 5점과 머리 1점, 그리고 다리 2점이 수습되기도 했으며,<sup>20)</sup>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완도군 금일도, 진도 철마산성, 여천군 화정면 개도리 화산마을, 여천군 남면 당제, 고흥군 나로도 등지에서 당제에 철마, 석마, 사기마 등을 신체로 모시고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sup>21)</sup> 이중에서 우이도에서 일직선상의 먼 바다에 위치한 흑산도의 제사터에서 철마가 확인된 것은 우이도의 최치원 철마와 관련하여 최치원의 도당 항로를 추적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데 최치원의 도당과 관련된 설화는 화원반도에도 전하고 있다. 해남군 화원면 금평리의 雲居山 기슭에 있는 瑞洞寺를 최치원이 세웠다고 하는 설화가 그것이다. 최치원의 호가 '외로운 구름'이라는 뜻의 孤雲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구름이 머무는 산'이라는 뜻의 운거산이라는 이름이 우선 심상치 않다.

이중환의 『택지지』를 보면 최치원이 영암 구림에서 떠났다고 적고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16) 신안군, 1998 『우리고장의 문화유적』 참조.

17) 朝鮮總督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1942, p.171.

1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흑산도 상라산성 연구』, 2000, pp.114.

19) 목포대학교 박물관, 『靈巖 月出山 祭祀遺蹟』, pp.34~38.

20) 전주국립박물관, 1994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참조.

21) 표인주, 「말의 象徴的인 意味와 模造品 馬類의 信仰의 用途」 『영암 월출산 제사유적』, 목포대 박물관.

같다.

「나주의 서남쪽이 영암군이고 월출산 밑에 위치하였다. 월출산은 한껏 깨끗하고 수려하여 火星이 하늘에 오르는 산세이다. 산 남쪽은 월남촌이고 서쪽은 구림촌이다. 아울러 신라 때 이름난 마을로서 지역이 서해와 남해가 맞닿는 곳에 위치하였다. 신라에서 당나라로 조공갈 때 모두 이 고을 바닷가에서 배로 떠났다. 바닷길을 하루 가면 흑산도에 이르고, 흑산도에서 또 하루 가면 紅衣島에 이른다. 다시 하루를 가면 可佳島에 이르며, 艮方 바람을 만나면 3일이면 台州 寧波府 定海縣에 도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순풍을 만나기만 하면 하루만에 도착할 수도 있다. 남송이 고려와 통행할 때 정해현 바닷가에서 배를 출발시켜 7일만에 고려 경계에 이르고 물에 올랐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 당나라 때 신라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에 들어간 것이 지금 通津 建隸목에 배가 잇닿아 있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 최치원, 김가기, 최승우는 장삿배를 편승하고 당나라에 들어가 당나라 과거에 합격하였다.」<sup>22)</sup>

이중환은 신라시대에 바닷길로 중국에 가는 주요 항로로서 ‘영암 구림촌→흑산도→홍의도(홍도)→가가도(가거도)→중국 영파’를 들면서, 이곳을 통해서 왕래하던 배들이 통진 건널목에<sup>23)</sup> 배가 잇닿아 있는 형세와 비슷할 정도로 성황을 누렸음을 특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가기, 최승우와 함께 최치원도 이곳에서 장삿배에 편승하여 당에 건너갔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암 구림에는 왕안이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상대포라는 포구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화원반도의 끝자락 바닷가에 ‘唐浦’라는 지명이 있는 것도 예사스럽지 않다. 당포는 ‘당으로 떠나는 포구’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화원반도 주변에는 장보고 이래 조성된 대규모 도자기 요지군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원래 당포란 이곳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무역선에 실어 당에 수출하던 항구가 아니었을까 의심이 가기도 하는 것이다. 당포의 앞 바다엔 연안항로시대 이래 항로의 요지로 활용되던 장산도가 눈앞에 바라다 보이고 있어, 당포를 떠난 무역선은 장산도를 위시로 하여 비금도, 우이도 등을 경유하여 흑산도에 이르고, 여기에서 다시 중국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비금도의 孤雲井 설화는 단순한 설화를 넘어서, 비금도가 황해 횡단항로 상의 주요 경유지로 활용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요컨대 ‘최치원의 바닷길’은 ‘영암 구림리 상대포-(해남 화원면의 서동사와 당포)-비금도 고운

22)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篇.

23) 통진 건널목이란 김포의 통진에서 강화도로 왕래하던 나루터를 지칭하는 듯 하다.

정-우이도 상산봉-(흑산도-홍도-가거도)-중국 영파'로 정리할 수 있겠으며, 고운정은 그 길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3) 용소리의 '해적촌' 구상

고려말~조선전기는 국가적으로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空島政策이 강력하게 시행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섬 주민들의 역사는 조선 후기에 入島한 조상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용소리와 가산리 나배마을 일대에서 수습된 良質의 인화국화문과 귀얄문 분청사기는 공도정책이 실시되던 고려말 조선초에 사용되던 것이다. 이는 섬에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 空島의 시기에 비금도에서만 유력한 해상세력이 등지를 틀고 살았을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아마도 해적의 무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작은 파편의 자기 조각으로 해적의 존재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역사체험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위대한 장보고의 마지막 후예', '서남해안을 호령하던 한 반도의 선장 잭 스페로우(케리비안의 해적)', '비경의 보물섬-비금도', '작은 파편의 숨은 추억'과 같은 동화의 세계를 펼칠 수 있는 '해적촌'을 용소리 일대에 꾸며보면 어떨까 한다.

더욱이 용소리의 籠沼는 '용이 살던 연못'이라는 의미를 가진 신비로움의 표상이다. 또한 이웃한 광대리의 성치산 능선에 솟아 있는 바위에는 용소에 살던 용이 승천하면서 뚫고 갔다는 설화를 간직한 이른바 '용구멍' (길이 8m, 높이는 3m, 너비 5m)이 나 있다. 광대리의 '고분-성치산성-용구멍'과 용소리의 '용소-자기편(해적의 표상)'을 연결하여 경이로움을 자아낼 수 있는 운치있는 문화벨트를 조성함이 어떨까.

## 2) 조선~근현대기의 유적 활용방향

### (1) 지표조사의 기본 방향과 성과

비금도의 조선~근현대분야 역사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는 현지 답사에 앞서 해당 섬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기초자료를 정리하였다. 기초자료는 신안군과 신안문화원 관련 조사보고서, 목포대 박물관과 도서문화연구소의 연구성과, 그리고 역대 중앙정부의 관찬자료 등이다. 그 결과 확인된 유적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기존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유적

번호	유적명	소재지	년대	참고자료
1	姜周範孝子閣	내월리 월포	1887년 命旌 1924년 建立	『신안군지』(신안군, 2000, p842)
2	김옥광·김민득· 김달인 효자비각	내월리 내촌	甲申年	『신안군지』(신안군, 2000, pp.842~843)

위의 2건의 기초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한 결과, 37건의 새로운 유적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다음 〈표 4〉는 이번 지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유적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표 4〉 2003년 지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유적

유형	齋閣	孝子閣	烈女閣	孝烈閣	碑石										합계
					紀念碑	紀蹟碑	紀行碑	碑閣	碑石群	頌德碑	烈行碑	追慕碑	孝子碑	孝行碑	
유적수	1	2	3	1	3	6	12	3	2	1	2	1	1	1	37

위의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비금도에서 확인된 역사유적은 재각·효자각·열녀각·효열각·비석 등이다. 유적의 종류는 다양하지 않다. 주로 효자와 열녀 관련 유적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효자각·열녀각·효열각·열행비·효행비·효자비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碑石에 분류되어 있는 紀行碑의 비문을 살펴보면 명칭은 기행비이지만, 실제 수록된 내용은 孝烈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나머지는 제자가 스승을 위해 건립한 추모비와 행적비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비금도에 분포하고 있는 조선~근현대기의 유적은 儒學을 숭상했던 시대적 배경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자원이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비금도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지표조사였다. 따라서 유적의 건립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유적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기존의 학술조사가 갑오개혁이나 19세기로 제한을 둔 결과 유적에 대한 기초조사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았고, 또 년대가 근현대기에 속하는 유적이라고 해서 유적이 갖는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 지역에 분포하고 유적은 그 땅에서 살아왔던 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문화자원들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地名, 그리고 그 땅에서 생활하였던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든 유형·무형의 역사유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

지표조사결과 조선~근현대기의 유적 가운데 19세기 이전에 건립된 유적은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19세기말엽에 건립된 유적은 내월리 월포마을에 위치한 <강주범효자각>과 용소리 용소마을에 있는 <밀양최씨열녀각> 등 2건 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유적은 대부분 20세기에 건립된 것이었다. 특히 20세기에 건립된 유적 가운데 1940대에 건립된 유적이 14건(36%)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된 결과라 생각된다.

#### 4. 역사유적 활용방향

##### 1) 석조건축물을 통한 도서지역의 유교문화체험-내월리·죽림리문화권-

비금도는 인근 도서와 비교해 볼 때 유교문화자원이 많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죽림리에서 내월리에 이르는 도로 양 옆에 마을(임리·죽치·외촌·내촌·월포)들이 제각각 터를 잡고 있다. 이 마을의 초입과 중앙에 효열각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비석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의 효열각은 목재건축을 모방한 석조건축이 대부분이다. 이는 海風에 쉽게 소실되는 목조보다는 돌을 깎아서 만든 석조건축이 제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조건축 양식을 그대로 돌위에 새겨 놓았다. 예를 들면 비석은 맨 밑에 비석의 받침돌인 碑座가 있고, 비좌 위에는 碑身을 올려 놓으며, 비신 위에 螭首를 올려 놓는다. 이러한 비석의 구성은 돌에 꽃문양을 새기기도 하고, 숫막새와 암막새를 새겨 지붕형태로 조각되기도 하며, 비석의 주인공의 행적을 비석의 앞면과 측면, 그리고 뒷면에 빼꼭이 새겨 놓는다. 이것을 碑文이라 한다. 이러한 석조물은 비석에만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다. 효자와 열녀를 추앙하는 석조물인 효자각과 열녀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을 올린 석조건물로 조성된다. 돌을 깎아서 집을 지은 셈이다. 물론 외삼문이라 불리우는 출입구도 석축으로 조성한다. 이렇듯 섬문화, 섬 속의 유교문화, 그리고 석조건축양식을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내월리에서 죽림리에 이르는 마을 길에서 가능하다. 비금도 <내월리-죽림리문화권>에 현전하고 있는 유적은 다음 <표 5>와 같다.

다음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내월리-죽림리문화권에 분포하고 있는 유교문화자원은 총 18건에 이른다. 이는 비금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유적이 총 39건과 비교해 볼 때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비석의 경우, 학생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탁본 실습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표 5〉 내월리-죽림리 문화권의 유교문화자원

번호	유적명	소재지	비고
1	姜周範孝子閣	내월리 월포	1887 命旌, 1924 建立
2	姜進秀紀念碑閣	내월리 월포	1947
3	黃成基記行碑	내월리 월포	1947
4	慶州鄭氏追慕碑	내월리 내촌	1994
5	鄭基周孝子碑	내월리 내촌	丙申
6	姜明鉉紀念碑	내월리 내촌	1984
7	劉孝子記蹟碑	내월리 내촌	조선
8	金玉光·金啓得·金達仁 孝子閣	내월리 내촌	甲申
9	松坡先生記行碑	내월리 외촌	1932
10	一樵先生紀蹟碑	죽림리 죽치	庚辰
11	南坡先生紀念碑	죽림리 죽치	1971
12	竹軒先生紀行碑	죽림리 죽치	1937
13	崔門勝紀蹟碑	죽림리 죽치	1940
14	完山李氏烈女閣	죽림리 임리	1934
15	과평윤씨재각	죽림리 임리	근대
16	密陽朴氏烈女閣	죽림리 상암	丙戌
17	晋州姜氏烈行碑	죽림리 상암	乙酉

소재라고 생각한다. 비석은 어떤 사람의 행적만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이의 생애사가 되고, 역사자료서의 금석문의 가치를 느낄 수 있으며, 건축양식의 한 단면을 엿 볼 수도 있다.

〈내월리-죽림리문화권〉은 유교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민속생활문화와 자연환경자원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다. 즉 내월리 월포마을 뒷산에 〈산신각〉이 위치하고 있고, 내월리 내촌마을 뒷산에는 〈우실〉이 현전하고 있어 섬마을의 입지구조와 연계하여 바다와 산, 들녘과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섬주민들의 경제생활, 생활의례, 유교문화 등을 관찰할 수 있는 답사코스로 적합하다. 최근 내륙지역 학생들의 소풍이나 현장학습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1일 답사 일정(선박운항 시간 제한), 혹은 폐교를 활용하여 숙박지로 활용할 경우 여름캠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 2) 비금도 염전과 소금만들기, 도구문화 전시프로그램 개발

비금도 가산리, 지당리, 구림리, 덕산리, 죽림리 앞 갯벌에 염전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비금도는 신안군 도서 가운데 소금 생산을 가장 먼저 시도하였던 “시조염전”이라 부르고 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소금생산량이 많은 곳이다. 비금도 염전은 자연학습장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소금 생산에 필요한 도구를 수집하여 그 명칭과 용도를 전시하는 소규모의 소금전시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염전에 대한 문헌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진다. 조선 세종 때 국가 주도로 煮鹽 생산을 실험한 내용이 확인된다. 15세기 중엽 전국 5도에 동일한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투입하여 소금 생산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동해에서는 쇠술에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고, 서해에서는 흙술에서 소금을 만들었다. 실험결과 동해보다 서해의 소금이 노동량에 비해 수확량이 많았다.

오늘날 생산되는 소금은 천일염이다. 바닷물과 햇볕이 소금을 만들어낸다. 이 역시 작업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소금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였고, 그 다음으로 바닷물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었다. 바닷물은 “염수물” “간수물”이라 불렀다. 소금생산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바닷물을 가둬두는 단계인데, 이것을 “난치”라 한다. 바닷물은 수문을 이용하여 저수지에 저장되었다가, 작업이 시작되면 저수지에서 “난치”로 옮겨진다. 이 때 난치의 바닷물은 넘실대도록 가득 담아둔다. 난치의 바닷물 온도는 약 7~8도를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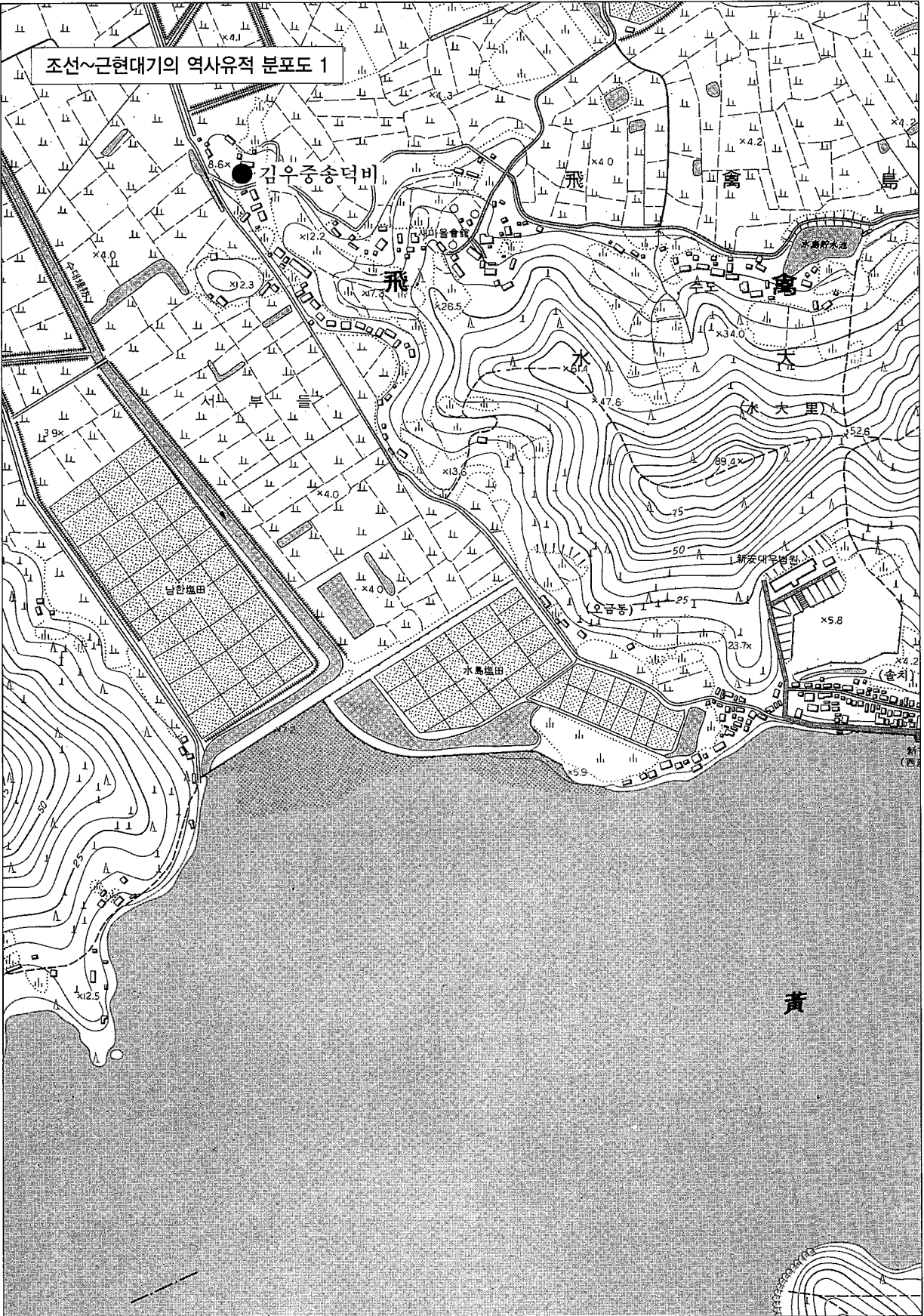
2단계는 난치의 바닷물을 “누태”로 옮긴다. 누태에서 바닷물의 온도는 약 15~16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3단계는 “결정지”라 부른다. 즉 2단계 “누태”에서 햇빛을 받은 바닷물의 온도가 적정 수준에 올라가면, 곧바로 바닷물을 “결정지”로 이동시킨다. 결정지에서 바닷물이 약 25도 정도 되었을 때, 비로소 소금이 생산된다. 염부들은 이것을 “소금이 뜬다.”라고 표현한다. 수면위로 떠오른 소금의 알갱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진다. 여기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급기야 수증기를 만들어낸다. 수증기가 많아지면 소금의 입자는 더욱 커진다. 알갱이가 큰 소금은 상품으로 인정하였다. 즉 소금의 결정체가 크다는 것은 기후 조건이 가장 적당할 때 생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갱이가 큰 소금은 가격을 많이 받았다. 대체로 여름에 생산되는 소금이 이에 해당되었다. 가을로 접어들수록 일조량이 떨어지면서 소금의 알갱이는 작아진다. 만약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가 나오면 즉시 염부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바닷물을 저수지로 이동시켰다. 이 때 이미 형성된 소금의 알갱이 또한 바닷물에 녹여서 저수지로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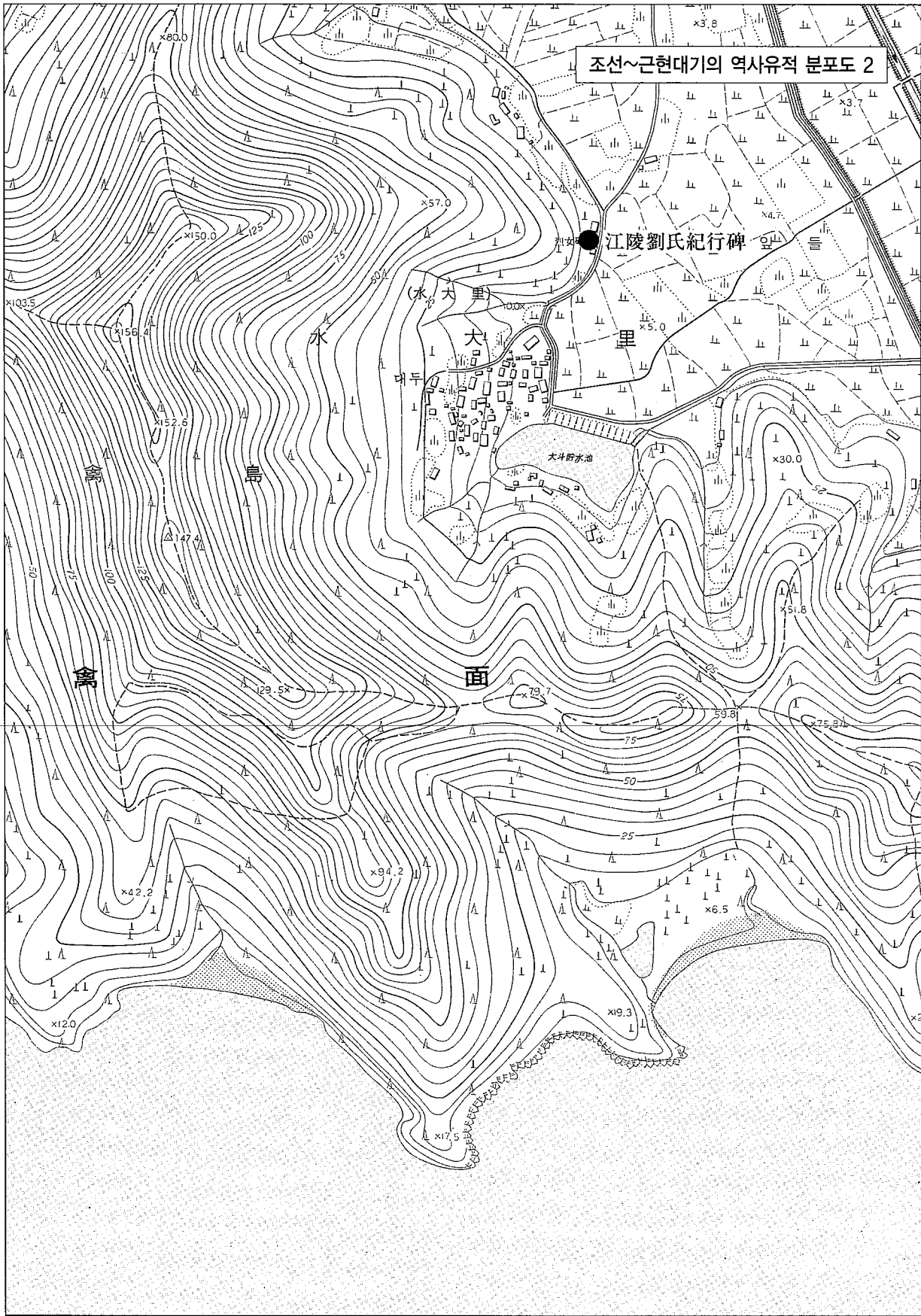
소금을 생산할 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다. 수리차, 감고, 물꼬마치, 뽕메 등이 그것이다. 먼저 수리차는 바닷물을 저수지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다. 대체로 물레방아 모양을 하여 사람이 직접 수레 위에 올라가서 발로 수레바퀴를 움직여서 바닷물을 저수지로 이동시킨다. 다음 감고는 소

금을 옮기는 지게이다. 물지게처럼 생겼는데, 양쪽에 소금을 담은 바구니가 각각 1개씩 매달려 있다. 물꼬마치는 남치에서 누태와 결정지 등으로 바닷물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바가지이다. 뽕메는 바닷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이다. 이러한 소금 생산 도구를 소규모 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시하거나, 아니면 마을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일정 공간에 전시관을 마련하여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의 명칭과 사용방법을 게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마을 노인회에서 방문객에게 직접 도구사용에 대해 구술을 해도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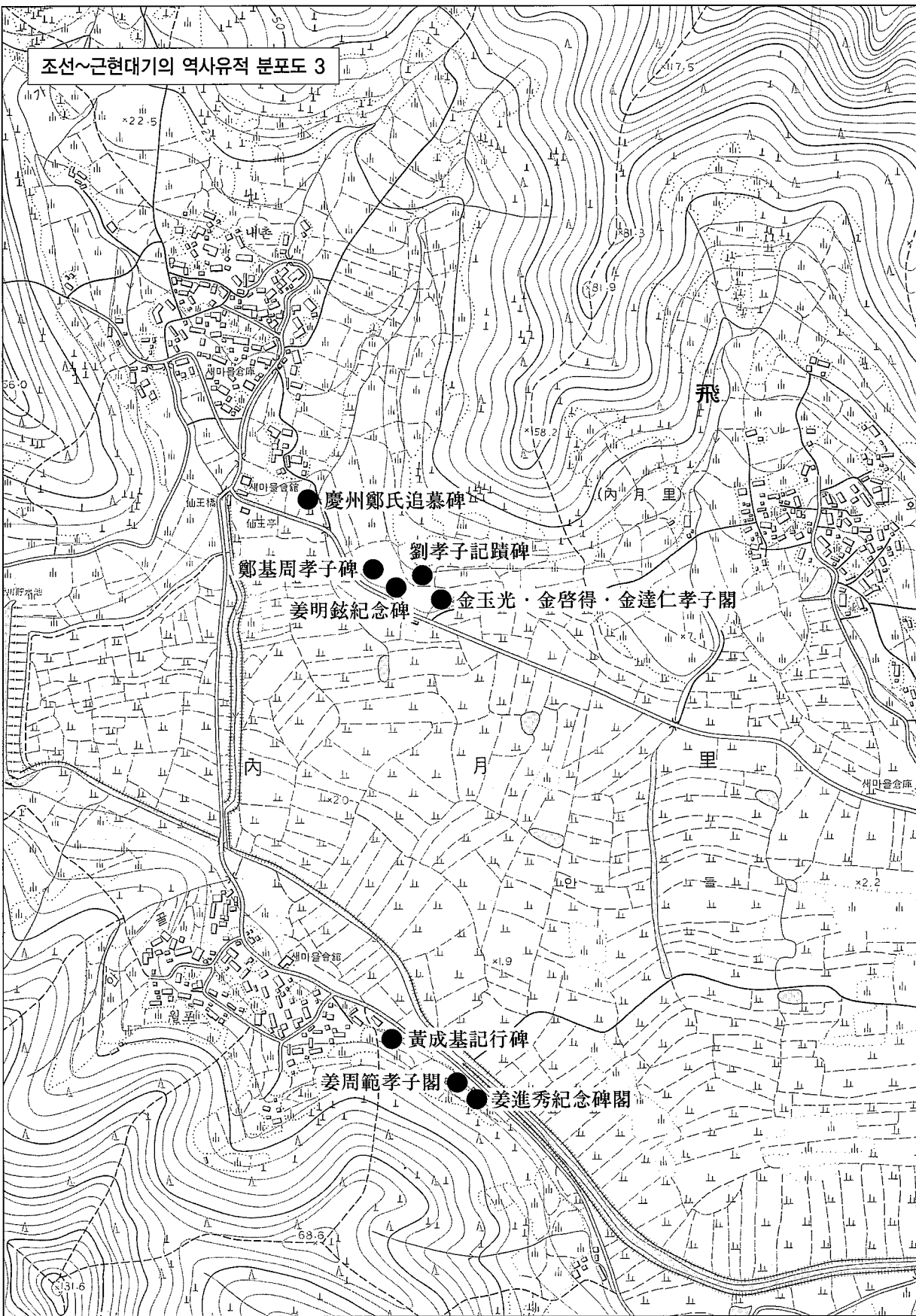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1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2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3



● 慶州鄭氏追慕碑

● 劉孝子記蹟碑

● 鄭基周孝子碑

● 姜明鉉紀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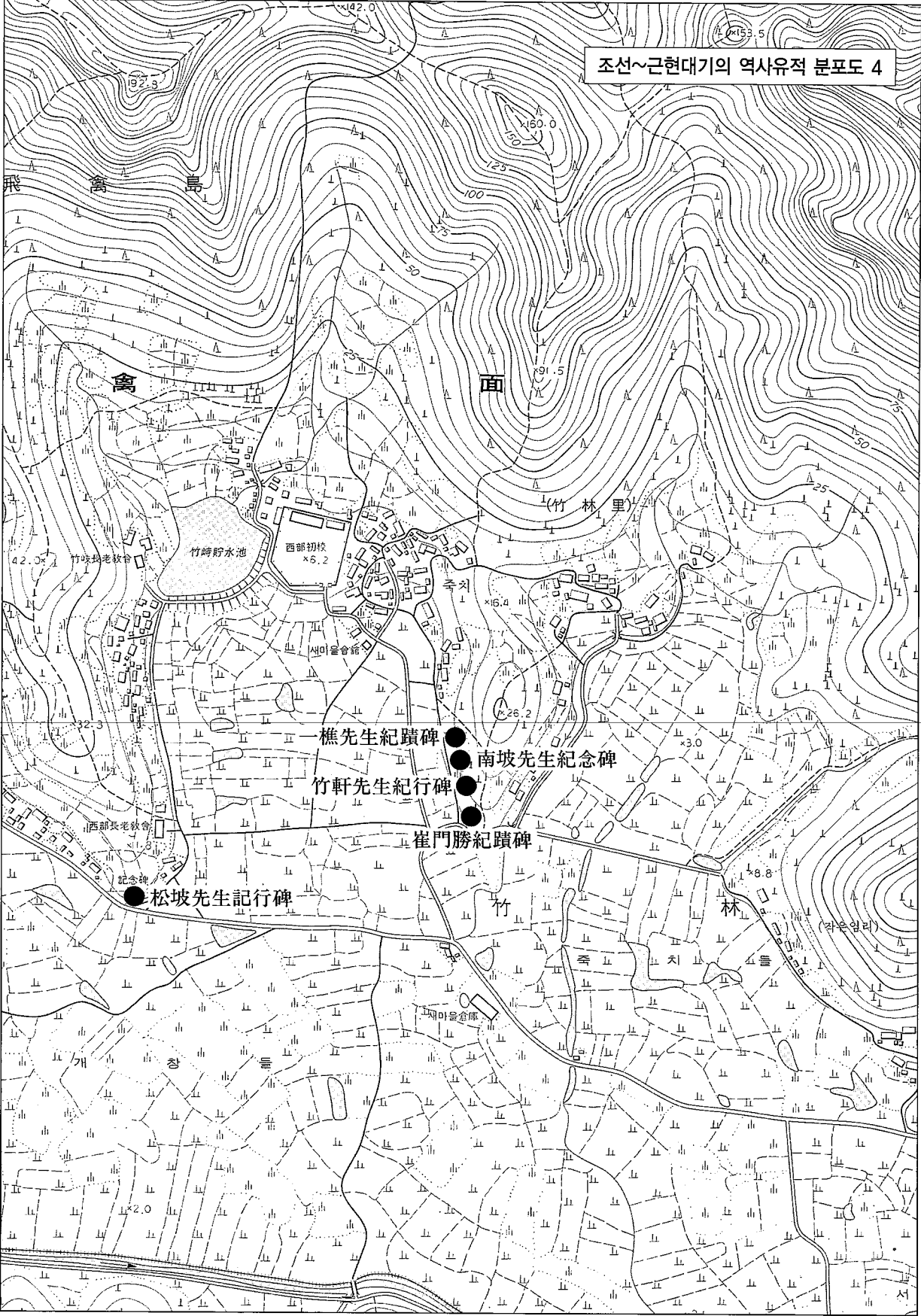
● 金玉光·金啓得·金達仁孝子閣

● 黃成基記行碑

● 姜周範孝子閣

● 姜進秀紀念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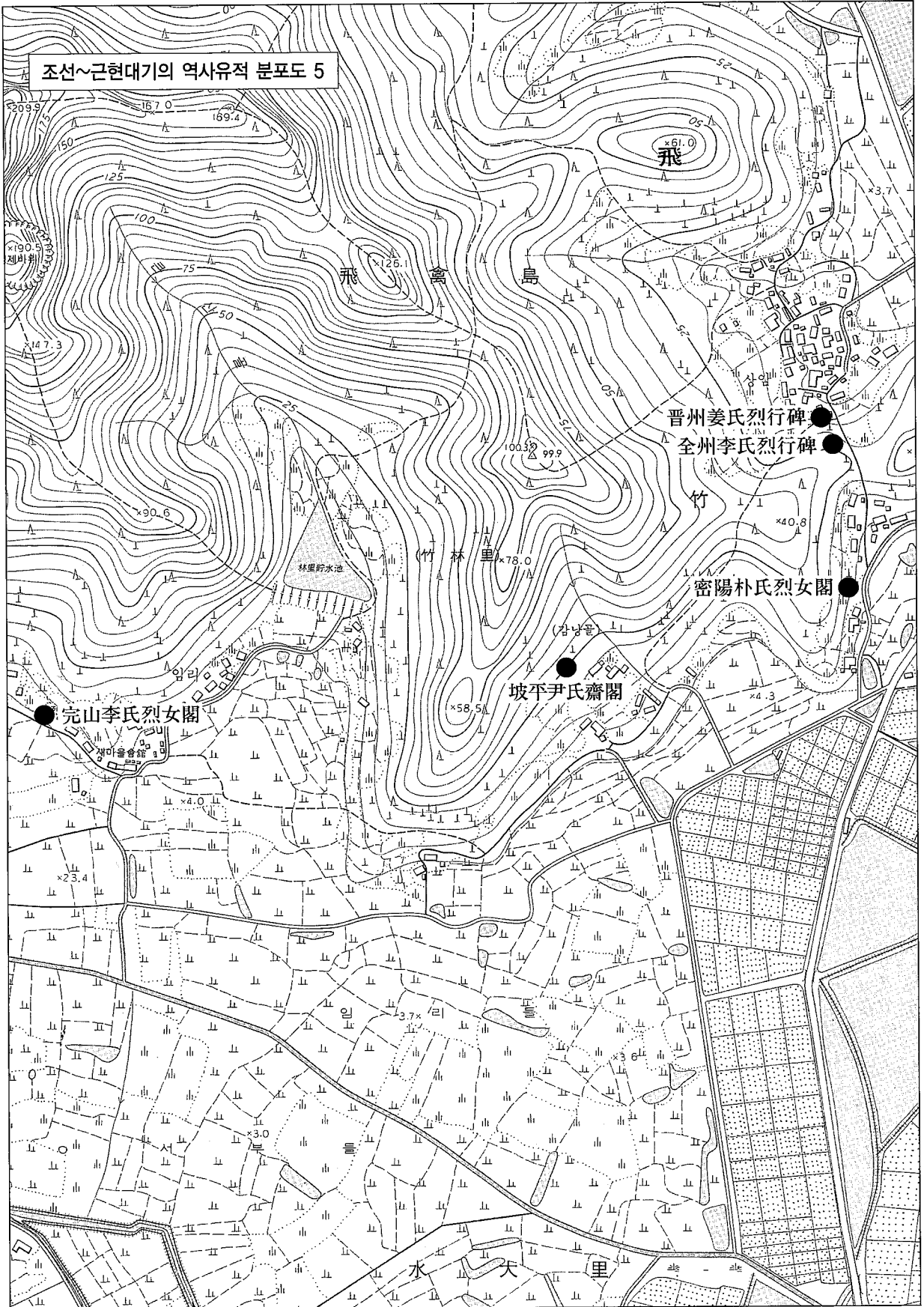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4



- 樵先生紀蹟碑
- 南坡先生紀念碑
- 竹軒先生紀行碑
- 崔門勝紀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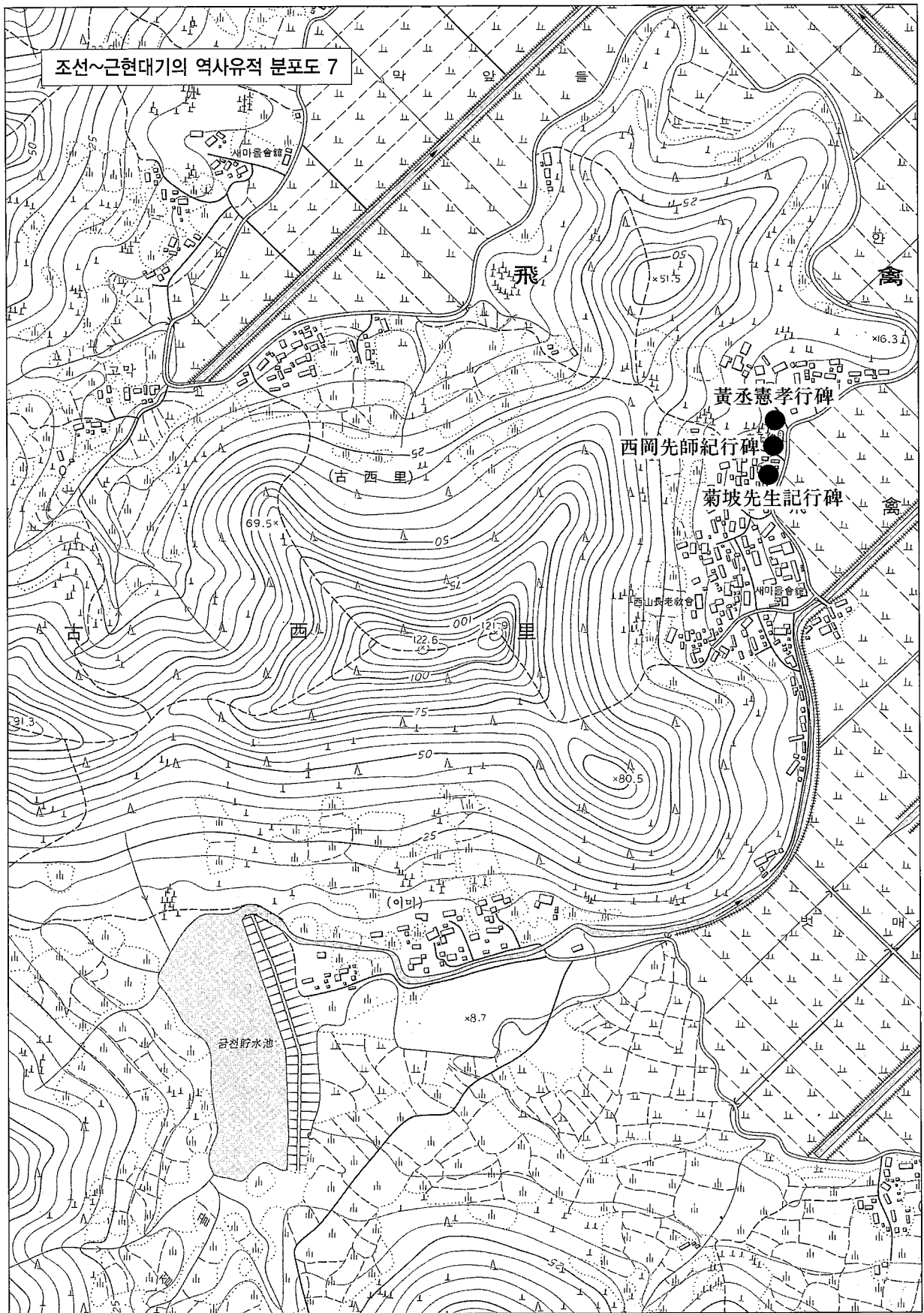
● 松坡先生記行碑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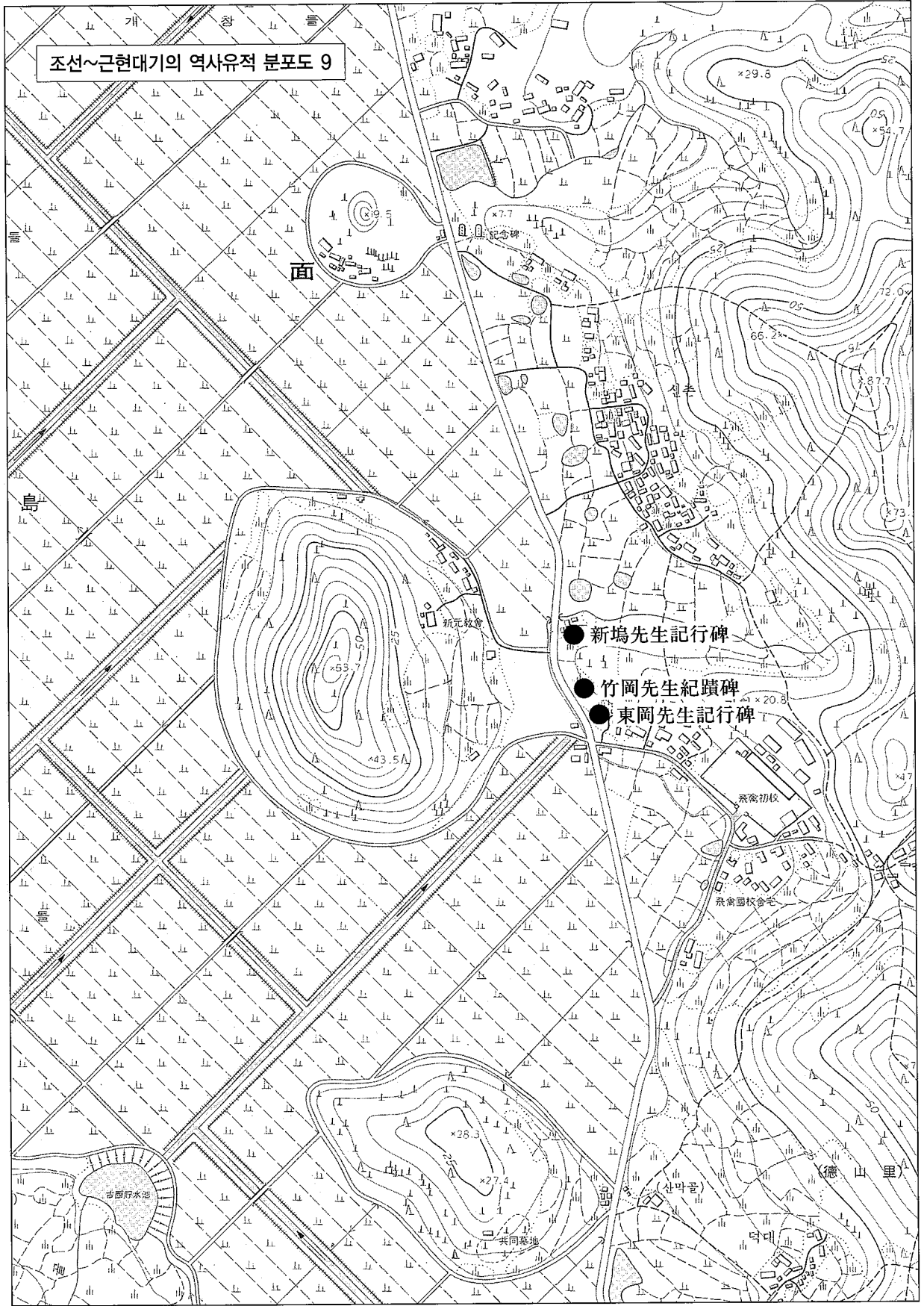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7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8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9



● 신塢先生記行碑

● 竹岡先生紀蹟碑

● 東岡先生記行碑

新元教堂

飛禽初校

飛禽國校舍宅

右副府水池

共同墓地

산마골

(德山里)

조선~근현대기의 역사유적 분포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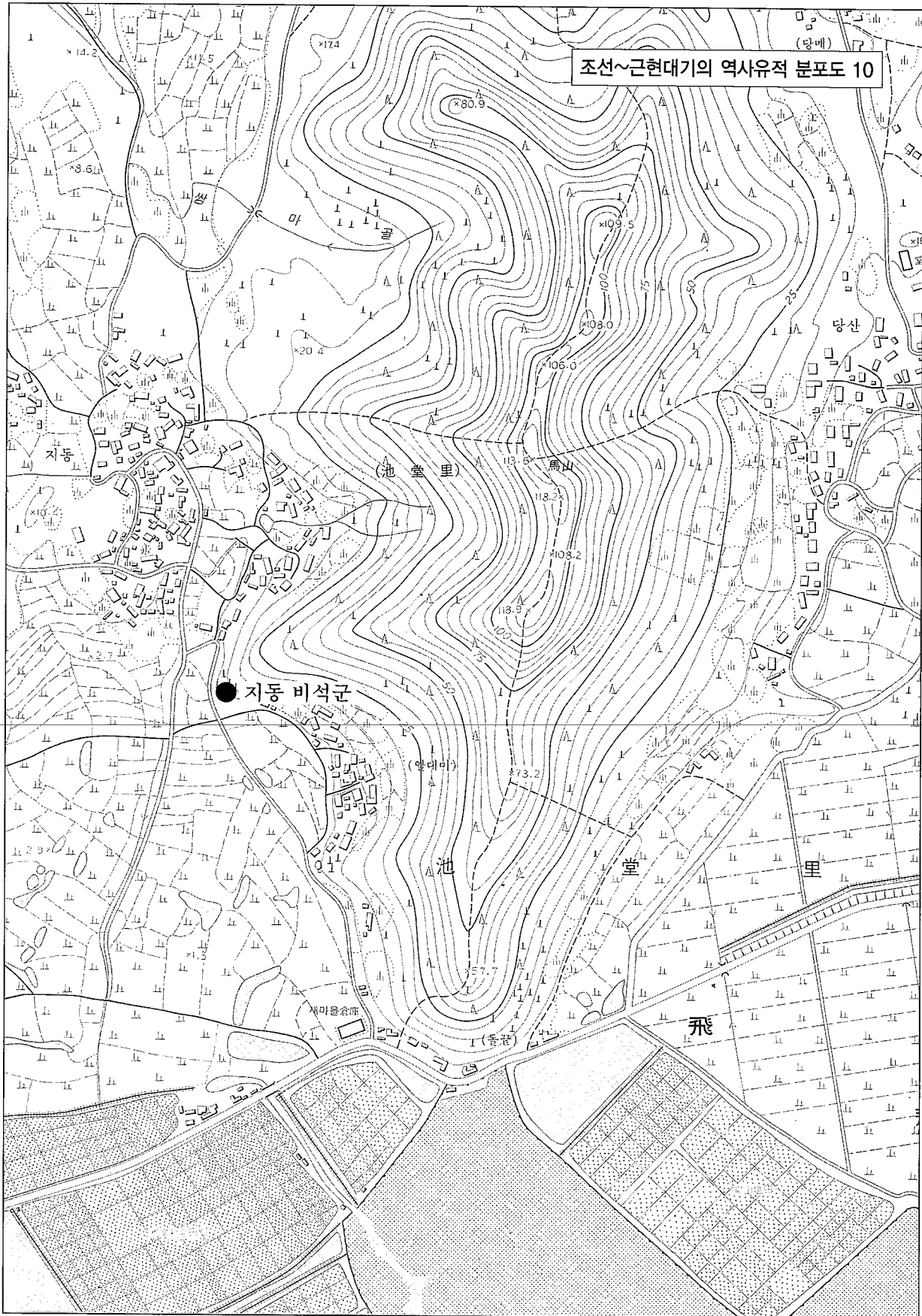






사진 1. 광대리 고분(입구)



사진 2. 광대리 고분2(내부 모습)



사진 3. 광대리 고분3(입구)



사진 4. 성치산성 원경



사진 5. 성치산성 근경



사진 6. 성치산성 성벽



사진 7. 성치산성 북벽



사진 8. 성치산성 서벽



사진 9. 도고리 산성지(외성)



사진 10. 도고리 산성지(내성)



사진 11. 도고리 유물산포지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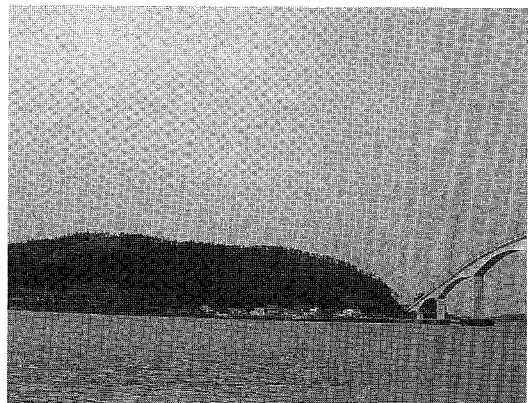


사진 12. 고운정이 있는 송치마을 뒷산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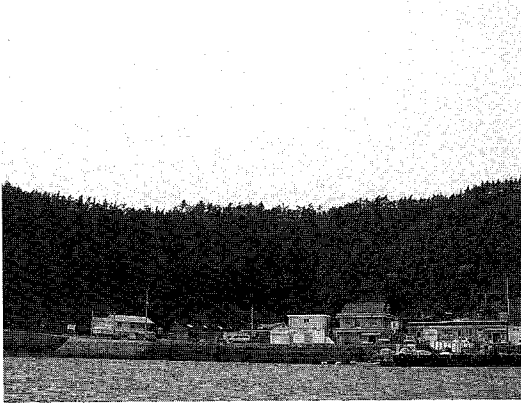


사진 13. 고운정이 있는 송치마을 뒷산 근경



사진 14. 고운정 원경



사진 15. 고운정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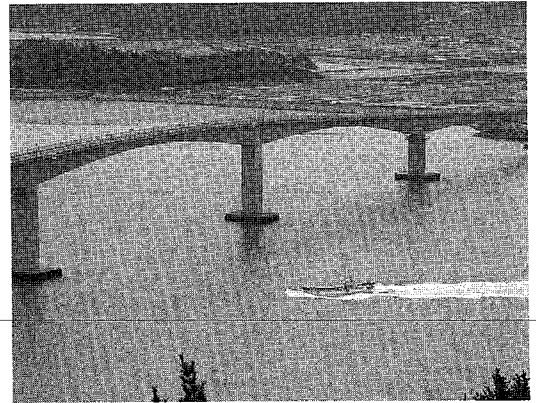


사진 16. 고운정에서 바라본 비금·도초 사이 바닷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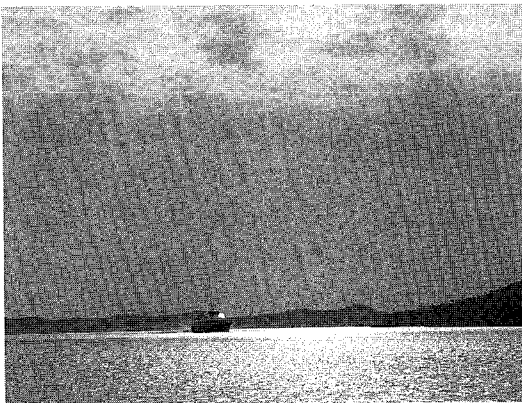


사진 17. 비금·도초 사이 바닷길



사진 18. 용소리Ⅱ 수습 연화문분청사기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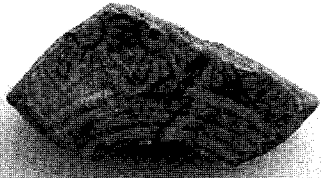


사진 19. 용소리 Ⅱ 수습 연화문분청사기편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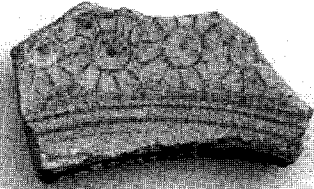


사진 20. 가산리 나배 수습 연화문분청사기편



사진 21. 비금, 도초, 사이의 바닷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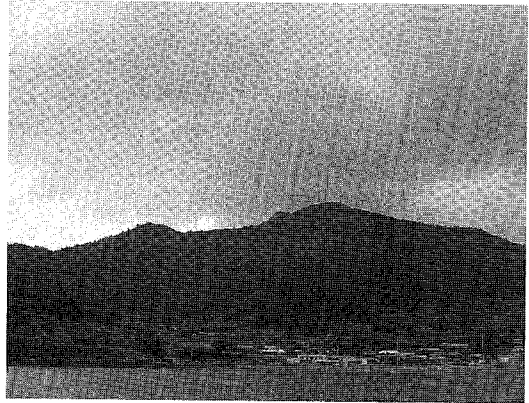


사진 22. 우이도 진리 상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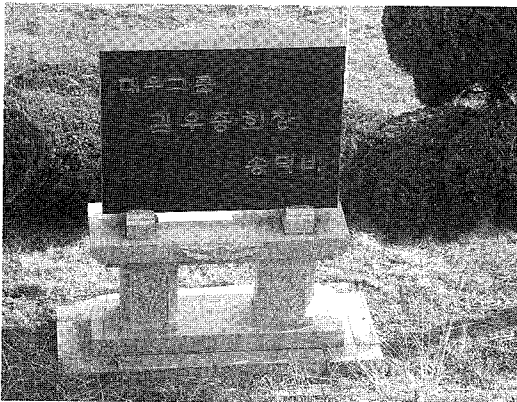


사진 23. 김우중충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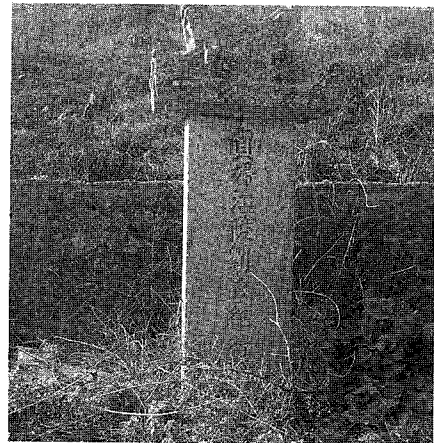


사진 24. 江陵劉氏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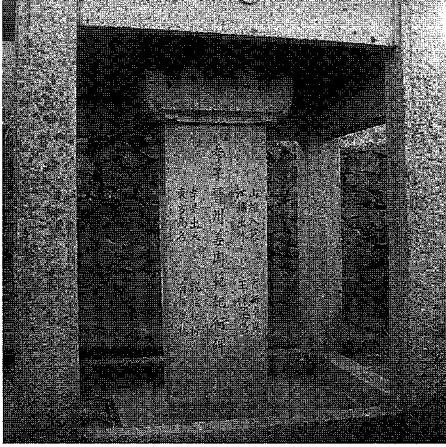


사진 25. 姜周範孝子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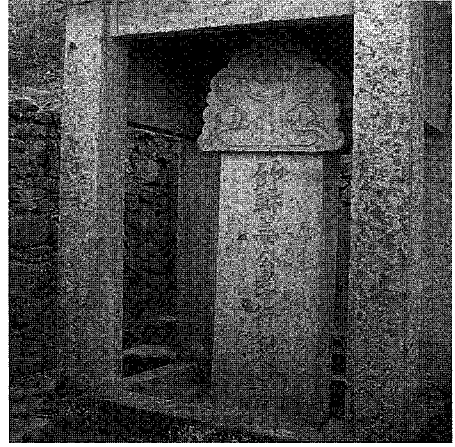


사진 26. 姜進秀紀念碑閣



사진 27. 黃成基記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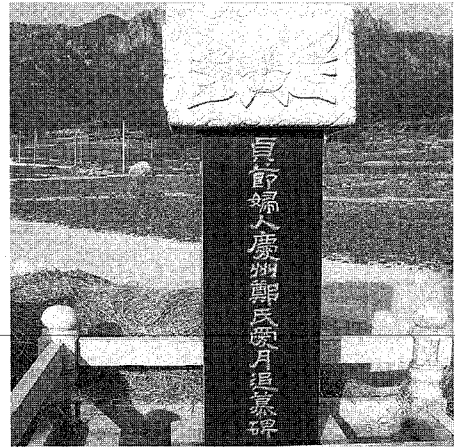


사진 28. 慶州鄭氏追慕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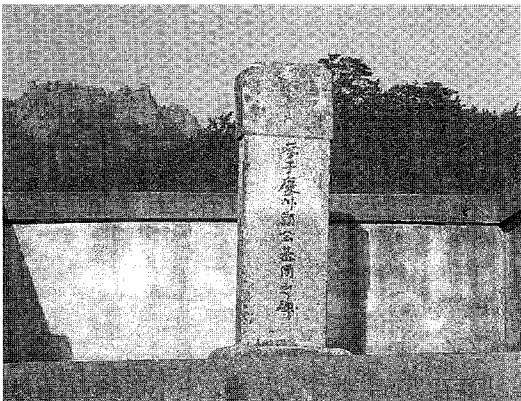


사진 29. 鄭基周孝子碑



사진 30. 姜明鉉紀念碑



사진 31. 劉孝子記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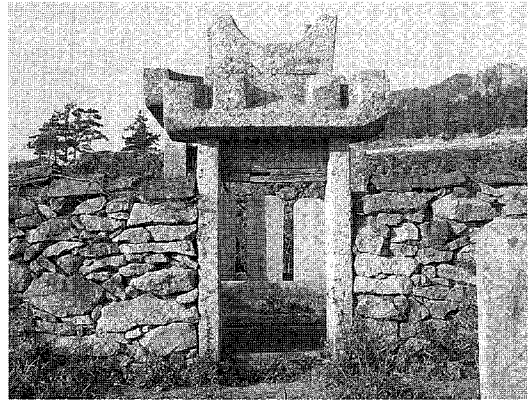


사진 32. 金玉光·金啓得·金達仁 孝子閣



사진 33. 朴斗植記行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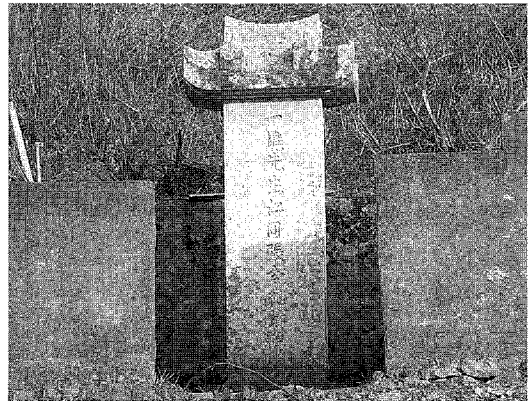


사진 34. 一樵先生紀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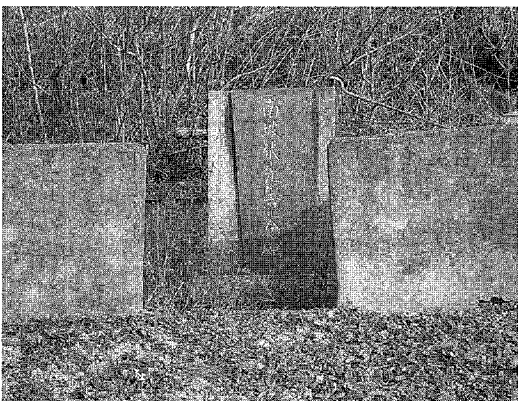


사진 35. 南坡先生紀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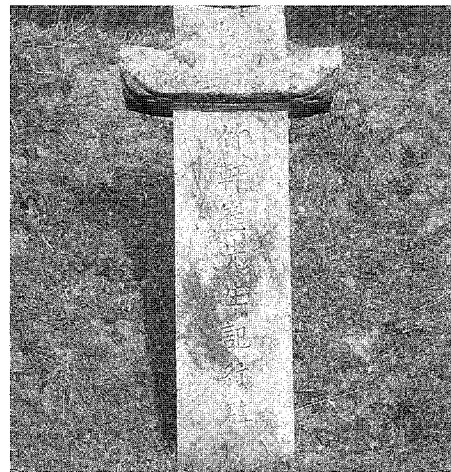


사진 36. 竹軒崔先生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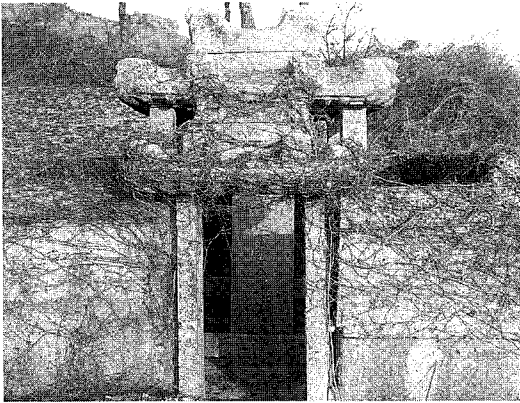


사진 37. 崔門勝紀蹟碑閣



사진 38. 完山李氏孝烈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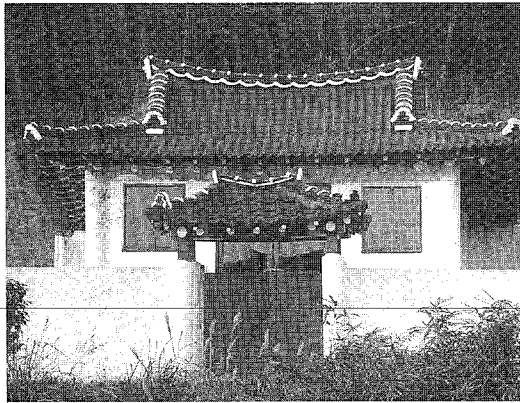


사진 39. 파평윤씨재각



사진 40. 密陽朴氏烈女閣



사진 41. 晉州姜氏烈行碑·全州李氏烈行碑



사진 42. 姜千季孝行碑



사진 43. 姜萬秀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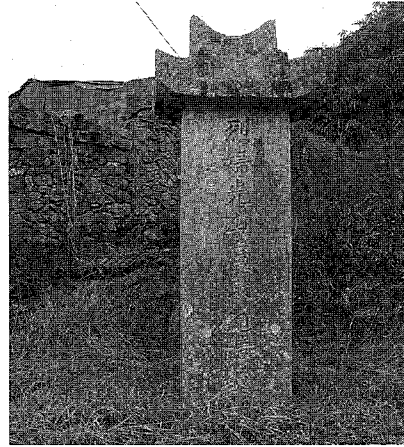


사진 44. 光山盧氏紀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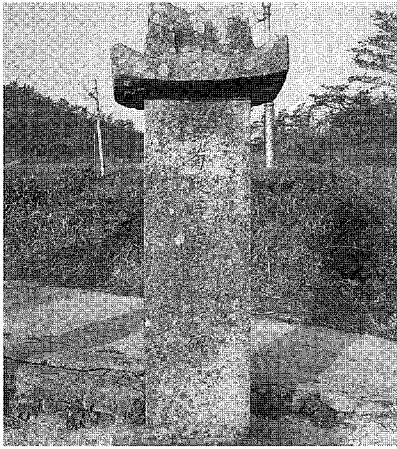


사진 45. 菊坡先生記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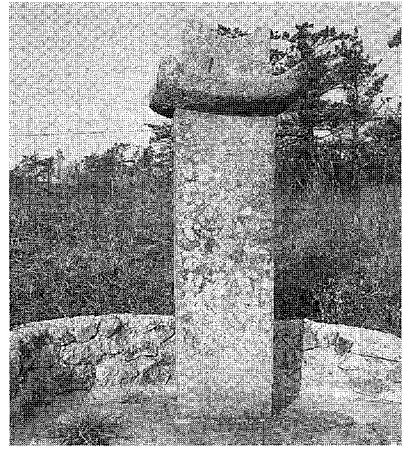


사진 46. 西岡先師紀行碑



사진 47. 黃丞憲孝行碑



사진 48-1. 邑洞碑石群①



사진 48-2. 邑洞碑石群②



사진 48-3. 邑洞碑石群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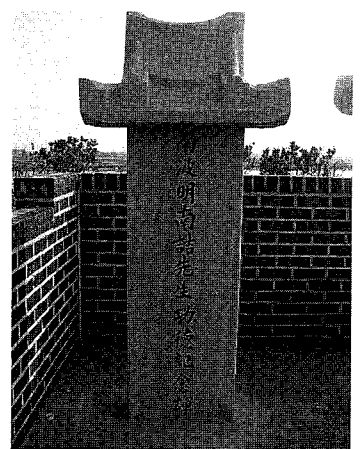


사진 48-4. 邑洞碑石群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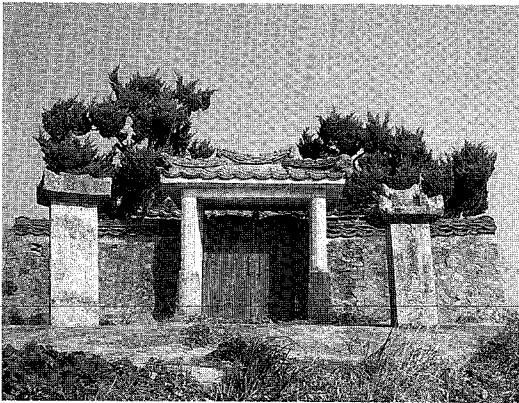


사진 49. 光山蘆氏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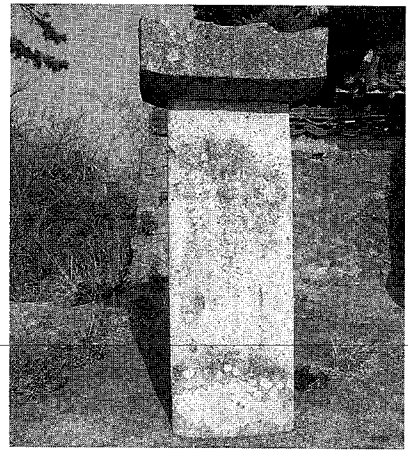


사진 50. 玄基奉紀念碑



사진 51. 小嶋先生記行碑



사진 52. 竹坡先生記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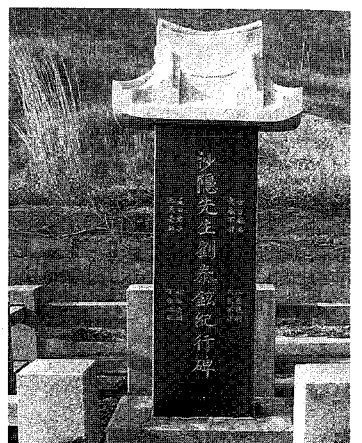


사진 53. 沙隱先生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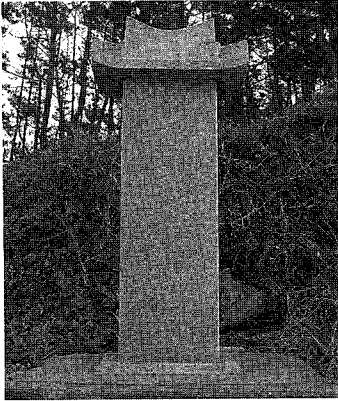


사진 54. 新塢先生記行碑



사진 55. 竹岡先生紀蹟碑



사진 56. 東岡先生記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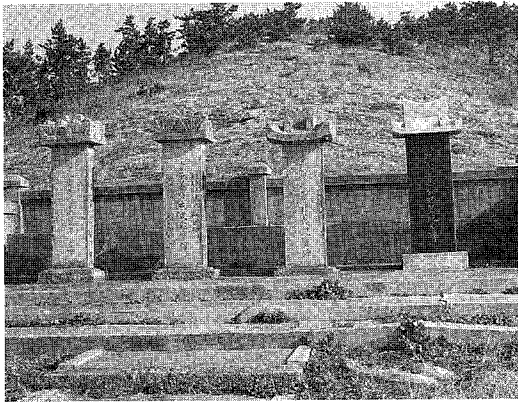


사진 57. 池洞 碑石群



사진 58. 密陽崔氏烈女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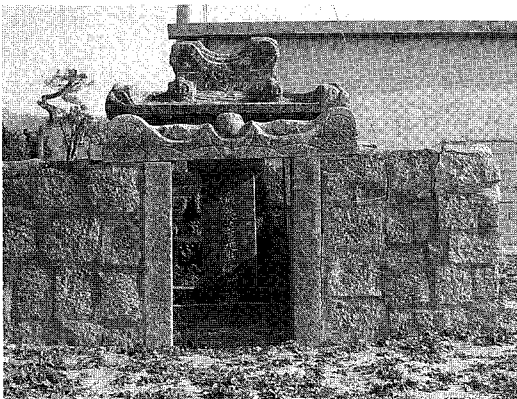


사진 59. 藕泉先生紀蹟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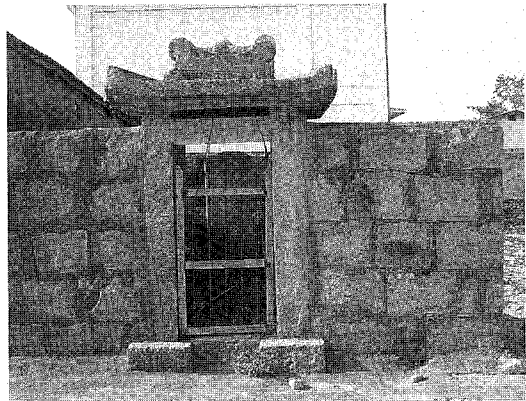


사진 60. 慶州鄭氏烈女閣

## IV. 민속문화자원

### 1. 민속문화자원 목록

〈표 1〉 비금면의 당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제보자, 참고문헌	사진	현황
1	내월리 내촌	①당제 (선왕제) ②거리제	①선왕신, 동자신 (동자상) ②잡신(마을입구)	음1/14	『다도해의 당제』 『신안군의 문화유적』		현행
2	내월리 월포	당제 (산신제)	산신령, 당할아버지, 쥐신 (산신당)	음1/14	『다도해의 당제』 『신안군의 문화유적』		2002년 중단
3	고막리	용왕신제	용왕신 (석단)	음1/15	『다도해의 당제』		기우제, 30여년 전
4	성치산	산상제성			『다도해의 당제』		중단

〈표 2〉 비금면의 갯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제보자, 참고문헌	사진	현황
1	송치	풍어제	용왕(선창)	정월	장영기, 김치자		6년전
2	신원리 원평	배서낭 배고사	배서낭	3월말~ 4월초	『신안군지』		현행

〈표 3〉 비금면의 굿, 연희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제보자	절차	참고문헌	음향	사진	현황
1	죽림리 상암	밤달애 남사당놀이	박서래 (여)외	①마당어우리는 놀이 ②주문가 ③거사사당놀이 ④매화타령	『신안군지』			전승
2	한산리	셋김굿 외	유점자 (여)	①안당 ②초가망석 ③손님굿 ④제석굿 ⑤뉘올리기 ⑥고풀이 ⑦셋김 ⑧길뉘음 ⑨거리굿	『신안군지』 『도서문화』 19집			현행

〈표 4〉 비금면의 장승·우실 목록

번호	마을	이름	기수	관련제의	제보자, 참고문헌	사진	현황
1	내월리 월포	대장군	1	산제 (정월보름)	『신안군의 문화유적』		마을수호
2	내월리 내촌	우실	1	없음			방풍, 마을수호
3	서산리	우실	1	없음			방풍, 마을수호

〈표 5〉 어로문화자원 목록

번호	제목	구술자	조사지역	조사일자	비고
1	꽃게잡이	조현규(남, 76)외	원평	2003. 12. 16	현지조사
2	병어잡이	조현규(남, 76)	원평	2003. 12. 16	"
3	부서잡이	조현규(남, 76)	원평	2003. 12. 16	"
4	기타 고기잡이	조현규(남, 76)	원평	2003. 12. 16	"
5	비금도의 냇도질	조현규(남, 76)	원평	2003. 12. 16	"
6	비금도의 갯벌어업	명수단(여, 65)	가산리	2003. 12. 16	"
7	제염업	장영기(남, 57)	송치	2000. 6. 22	"
8	송치파시	장영기(남, 57)	송치	2000. 6. 22	"
9	비금도의 선박	조현규(남, 76)	원평	2003. 12. 16	"

〈표 6〉 민요자원목록

번호	제목	구술자	조사지역	조사일자	비고
1	남사당소리-서장가		죽림 상암		신안군지
2	남사당소리-주문가		죽림 상암		신안군지
3	밤달애노래		죽림 상암		신안군지
4	논매는소리-어기더기	박효협(여, 1921)	죽림 상암	1989. 10. 24	현지조사
5	비금도강강술래	고연덕(여, 71)	비금 내촌	2001. 1. 26	도서문화19집

## 2. 민속문화자원 현황

### 1) 당제 · 갯제

#### (1) 비금면 내월리 월포 당제

##### ① 제당 구성 및 신격

월포마을은 비금면 소재지인 덕산리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4k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에 '山祭' 또는 '당제' 라 부르는 마을 제사를 지낸다. 제의는 마을 뒷산 상봉의 '산신당' 에서 지낸다. 산신당은 높이 116cm, 폭 193cm 크기의 원형 석단이다. 내부에는 '社神主 壇紀 4288年' (1955년)이라 새겨진 반반한 돌이 세워져 있으며 주위는 돌담으로 둘러져 있다. 이 곳 당신은 산신 · 당할머니 · 당할아버지 세 분이라고 알려져 있다. 산신당 아래쪽에는 쥐神을 모신 '쥐堂' 이 있고, 산의 아랫부분에는 제기를 보관하고, 제물을 장만하는 '神社堂' 이 있다. 산신당은 원래 초가였으나 30년 전 지금과 같은 시멘트 양철 지붕으로 개축하였다. 그리고 마을 앞 '사정거리' 에 '大將軍' 이라 명문이 새겨진 장승이 있다. 산신당에서 제사를 지낸 후 이 장승 앞에서 하당제를 지내는데, 이를 '장승제' 라고 한다.

##### ② 당제 준비

정월 열이튿날이 되면, 제관으로 뽑힌 2명의 주민이 3일간 산신당에 거주하며 제를 지내기 위한 정성을 드린다. 그 동안 당에는 제관 외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으며, 제관들은 당의 청소, 제물 장만 등의 준비를 한다.



내월리 월포 산신제

### ③ 당제 진행

정월 14일 밤 10시경, 제관은 메 3그릇, 술, 과일, 명태, 우족, 산채 등의 제물을 차리고, 헌작-재배-독축-소지의 순으로 제를 지낸다. 소지는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집에 한하여 가가호호 올리는데,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외지로 출타한 주민의 무병장수를 축원한다. 산제가 끝난 후 제관은 쥐당 바위틈에 제물 일부를 참종이로 싸서 넣어 주고, 쥐에게 한 해 농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축원하고 내려온다.

장승제에서는 우선 장승 앞에 짚을 깔고 메, 주, 과, 포 등의 제물을 진설한다. 장승제는 산신당에서의 제의처럼 복잡하지는 않다. 헌작-재배-구축의 간단한 순서다. 구축에서는 '마을에 재앙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원을 한다. 제관 외에는 아무도 당에 오를 수 없는 산제와는 달리 장승제에서는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 ④ 제후행사 및 전승현황

당제가 끝나면 매구를 치며 놀이판을 벌이고 논다. 초저녁 쇠가락을 맞추어보던 매구꾼들은 산제와 장승제가 시작되면 일시 매구를 중단했다가 제가 끝남과 동시에 다시 가락을 울리기 시작한다. 장승이 있는 사장에서 흥겹게 시작된 매국은 이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당밧이를 하는 것으로 계속된다.

####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신안군지』, 신안군, 2000, 462~463쪽〉

### (2)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당제와 거릿제

#### ① 제당 구성 및 신격

비금면 소재지인 덕산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4km쯤 되는 곳에 내촌마을이 자리잡고 있다. 동으로 외촌, 서로 산너머 서해 바다, 남쪽으로 전담지를 건너 내포와 월포, 북쪽으로 고서리 서산마을과 접해 있다. 마을 뒷쪽에 있는 선왕산(해발 255m)의 형태가 소쿠리처럼 생겼고 가장 안쪽에 마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동네 또는 내촌이라 부른다.

내촌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열나흘날 자정부터 정월 보름 새벽 2시까지 당제와 거릿제를 지낸다.

당제의 제신은 마을 뒷산의 이름과 같은 선왕신(서낭신)으로, 마을의 풍농과 평안, 객지에 나간 사람의 무사고 등을 기원한다. 선왕신의 영험은 당제를 정성껏 지내면 제관의 꿈에 여신이 나타나고 잘못 지내면 영똥한 잡신들이 나타나 이상한 징조를 보인다는 이야기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당제를 지낸 후에 입자 없이 떠도는 잡신들을 달래기 위해 거리제를 지낸다.

내촌 당제의 유래에 관한 전설이 전해 오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날, 아버지와 딸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 아버지가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그 딸은 선왕산에 올라가 기다리다 지쳐 끝내는 죽고 말았다. 그후 딸의 원혼이 울면서 마을을 돌아다녀 주민들이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 선왕신으로 모시고 당제를 지내게 되었다.

당제는 선왕산 중턱에 있는 동자상 앞에서, 그리고 거리제는 마을 입구 길에서 지낸다. 원래 당제는 선왕산 중턱 두 개의 바위 틈에서 지냈다. 그러다가 1947년 이 마을 유지인 유용덕씨가 이 곳 두 개의 바위 사이에 동자상을 세웠고 이 상이 당제의 신체가 되었다. 이 동자상은 높이 100cm, 둘레 64cm, 얼굴 길이 26cm에 머리에는 16cm 높이의 관을 쓰고 있다. 한편 왼손을 오른손 위로 하여 양손을 가슴 위에 얹고 있으며 미소를 머금은 넓적한 얼굴에 비취색의 구슬로 눈을 만들어 박아 놓았다. 동자상의 전면 기단부에는 이 상의 걸림연대와 「선왕산 신령지위」란 비문이 새겨져 있다. 제장 바로 밑에 맞배함석지붕으로 된 당집이 있다. 당집은 원래 기와지붕이었다가 낡아서 쓰러져 가던 것을 몇 년 전에 보수하면서 함석지붕을 얹었다. 당집 내부는 방 1칸, 부엌 1칸이 있고, 방에는 시령을 두어 제의 시에 사용하는 제기들을 정돈하여 놓았다.

## ② 당제 준비

근래에는 제일 10일 전에 이 마을의 토박이인 강길섭 씨가 생기복덕을 보아 제를 주관하는 제관 1명과 집사 1명을 선정한다. 이들은 생기복덕과 제운이 맞고, 집안에 상이나 산고가 없으며 개고기나 닭고기 등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들이다. 한편 남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제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 유상희씨는 객지 생활을 하기 전에 자원해서 제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그 후 객지에서 생활할 때 마음도 든든하고, 하고자했던 일들이 모두 잘 풀려 나갔다면 서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순탄함이 당제 제관을 한 덕택이라고 믿고 있다.

제일 전에 마을 이장은 목포에서 당제와 거리제에 사용할 제물로 쇠고기, 건명태, 콩나물, 과일, 송어, 낙지 등을 구입한다. 이때 세속적인 흥정으로 인한 부정을 막기 위해 값을 절대로 깎지 않는다. 제 비용은 마을 공동자금으로 충당한다. 1987년도에는 152,000원이 제 비용으로 소요되었다.

제관과 집사는 정월 열이튿날부터 제장에 올라 3일간 근신을 하면서 동자상 앞과 당집, 당샘을 청소한다. 그 후 이들은 당샘에서 목욕재계하고, 동이에 물을 떠다 동자상을 목욕시키며, 3일 동안 아침마다 청수를 떠다 그 앞에 바친다. 또한 당샘과 제장 입구 당집, 제관집에 금줄을 쳐서 잡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제관이 제장에서 근신할 동안 그의 부인은 자기집 마당에 짚을 깔고 물동이에 정화수를 담아 놓고 제장에 올라간 제관이 일을 원만하고 무사하게 수행하도록 기원한다.

정월 열나흘날 제관과 집사는 당샘에서 물을 길어다 제물을 조리한다. 준비되는 제물은 메, 과일, 산채, 콩나물, 쇠고기, 시루떡, 송어, 낙지, 건명태 등이다. 조리를 할 때 간장 이외의 양념은 일체 넣지 않는다. 한편 거리제용으로 범벅떡도 만들어 둔다.

### ③ 당제 진행

제물의 진설이 끝난 후, 제관은 목욕재계를 하고 한복으로 갈아 입는다. 당제는 제장 아래에서 농악대가 치는 걸궁소리와 함께 시작되는데, 〈분향-강신-독축-초헌-아헌-종헌-유식-사신-소지〉의 순서로 진행된다.

소지는 ‘불지’라고도 부르는데 희망한 사람들이 소지 종이를 구입해서 그 종이에 생년월일, 성명 등을 기입하고 이장을 시켜 제장으로 올려 보낸다. 마을 사람들은 소지 종이를 제장에 올려 보낼 때 김 등의 간단한 선물을 함께 보내 제관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한다. 제관은 피워놓은 화투불에서 한 장씩 소지를 올리면서 “몇 년 몇 월 몇 일생 아무개 소원 성취요”라고 구축을 한다. 소지가 잘 오르면 그 해 재수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조심해야만 그 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 한다.

거리제는 마을 입구 길가에서 지낸다. 짚을 깔고, 당제의 제물 조리 때에 따로 바련해 두었던 밥과 범벅떡 등을 창호지에 싸서 진설한다. 제는 〈진설-헌작-독축-헌식〉의 간단한 순서로 지낸다. 거리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감소고우 동서남북 오방 상오신 모든 잡신에게 고하나이다. 연년행사로 해가 바뀌어 차례를 드리면서 비읍니다. 우리 마을에 잠재하고 있는 잡귀신이라면은 임자없이 떠도는 귀신, 모든 잡귀신을 위하여 정성을 드려 차례를 올리오니 많이 흠향하시고 우리 마을에 아무 재앙없이 보내게 해주시길 비읍니다. 못 잡수셨다고 마시고 많이 흠향하시고 소거천리 하시라.

### ④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헌식에서 일부의 음식은 뿌리고 일부는 땅속에 묻는다. 2시간 가량 걸려 거리제가 끝나고 이어서 마당밧기가 벌어진다. <제관-이장-마을-유지-일반-가정>의 순으로 마당밧이를 한다. 오래 전에는 이 마을 주민 권금봉씨가 이 일대에서 명인으로 알려진 상쇠였으나 현재 작고했고 지금은 그의 조카인 권영준씨가 상쇠를 맡고 있다. 농악꾼들은 집집마다 우물, 부엌, 마루 등에서 굿을 친다. 이때 각 가정에서는 음식과 술 등을 대접한다.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신안군, 1987.>

(3) 비금도 고막리 용왕신제

① 제당 구성 및 신격

고막리는 일명 고막치라 하는데 48호 378명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고막리의 안산 중턱(일명 용머리) 해발 300m의 지점에 용왕신을 모시는 석단이 있다.

옛날에는 고을 현감이 와서 제를 지내고 큰 절을 하며 고을의 안녕을 발원하였다고 한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소의 피를 제당 주변에 뿌리고 “이 무서운 피를 씻어 달라”고 축원했다고 한다.

② 제의 준비

제주는 생기에 맞는 4인이 선출되며, 7일간의 치성을 한 다음 움막으로 당집을 짓고 제물을 장만한다. 4인의 제주 중 한 제주는 서산사 불당에 들어가 불공을 드리고 3인이 당제를 지낸다. 제물은 각호에서 각출한 성금으로 장만하며 祭米는 깨끗한 집에서 공출하도록 한다. 제물로 반드시 송아지를 잡는데 내장은 동민들이 나누어 먹고 쫄섬(쌀가마니처럼 만듦) 9개를 만들어 그 속에 젓밥을 한 그릇씩 담아 송아지 뱃속에 넣은 다음 일곱 매로 묶어 제상에 올린다.

용왕신과 산신에 올리는 제물에는 고춧가루, 담배, 술 등 자극성이 있는 것을 삼가고, 간장(소금)과 송아지 젓밥만을 진설한다. 당산에는 당샘이 셋이 있는데, 아래 당샘 물로는 목욕재개하며 중간 샘물로는 소를 잡고 밥을 짓는데 사용하고, 윗 샘물은 정화수로 사용한다.

③ 제의 진행

용제는 옛날에는 가뭄이 들 때 날을 잡아 제를 올렸는데 영험이 있어 근래에는 음력 정월 15일에 제를 올리며 마을에 우환이 있을 때 變祭로 날밤이 제를 올린다. 제주가 읽는 용제축문은 인근 섬인 우이도에 머물렀던 최치원 선생이 지은 제문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 ④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제가 끝나면 제물인 송아지는 서해안의 용머리 절벽에 던져 바다의 용왕신에게 바친다.

#### □ 참고문헌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 (4) 비금면 송치 풍어제

송치는 波市村이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당시까지만 해도 외지배들이 수백척 몰려 들고 술집과 색시들이 넘쳐났다고 한다. 이후 파시가 시들해지면 술집이 많이 줄어들고 대신 주민들이 고깃배를 부리거나 차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주민들이 기억하는 송치 풍어제는 19년 전부터 실시되었다. 당시 부녀회 주도로 배에 '징소리 내준다.'고 다녔는데, 그 때 제보자가 뱃긔를 주도했다고 한다. 당시 설 명절이라서 인천배, 충남배, 강화배, 군산배 등등 외지배들이 송치에 수십 척이 정박해 있었고, 명절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풍물이 어우러져 뱃긔까지 쳤다고 한다. 이틀 정도 뱃긔를 쳤는데, "용왕님네 이렇게 차린 제물 잘 드시고 들물에 한 배, 썰물에 한 배 잡아 주십쇼."이렇게 당골네처럼 행세하면서 축원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징, 팽파리 등을 치고, 김씨가 "들물에 한 배 썰물에 한 배 만선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빌면서 굿을 했다고 한다. 뱃긔를 친 다음에는 선주들 집을 돌며 마당밧이도 했다.



송치 풍어제 제보자

부녀회에서 하는 풍어굿은 풍물을 치며 축원하는 단순한 형태였지만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것이어서 신명이 넘쳤다고 한다. 풍어굿을 치는 시기는 대개 음력 정월 3일경이었고, 늦어지더라도 보름 이전에 대개 굿을 쳤다고 한다.

이렇게 정초에 풍어를 비는 굿을 한 후 몇 해 있다가 고깃배들이 고기를 많이 못 잡고 별이가 안

좋으니까 개인적으로 선창에다 용왕제를 지낸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7년 전에는 마을 차원에서 용왕제를 지내자고 하여서 인근 한산리에 사는 당골 유점자 씨를 불러 크게 굿을 하였다. 풍어제 하는 새벽에 동네 뒤 샘에 가서 깨끗한 사람이 정화수를 떠오고 방파제 앞에다 차일을 쳤다. 가운데에 용왕상을 크게 차리고, 집집마다 떡시루와 상을 하나씩 차려서 나오고, 상마다 촛불을 켜 놓았다. 상을 가져 나온 집이 20집 이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 배들도 오색기를 달고, 선주집 대문에도 기를 세웠다. 차일 안에는 배의 이름들을 적어서 걸어 놓고 굿을 했다. 5년 전에는 비금면 서산사의 스님을 불러 풍어제를 했다. 이때는 차일 밖에 뱃기를 달고 크게 제사를 모셨다고 한다. 이렇게 한 이후로는 풍어제를 지내지 못했다고 한다. 우선 경비가 많이 들고,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할 분위기가 잘 조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2000년 6월 20일 현지조사, 제보자:김처자(여, 56))

#### (5) 비금면 신원리 원평마을 뱃서낭 뱃고사 선기 기타

신원리는 면소재지에서 북으로 약 2km 떨어져 있으며, 동으로는 구림리, 서로는 고서리와 접하고 있다. 낮은 구릉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마을의 북쪽은 바다에 접해 있다. 신원리의 한 자연 마을인 원평마을은 총 64호에 287명(남 147, 여 140)이 살고 있다. 대부분의 호수가 모두 다소간의 농업을 하고 있고, 그 중 59호에서는 1~2명의 가족원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3호는 이 마을 해변에서 생선횃집, 잡화상 등의 상업을 하고 있다. 전답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은 쌀, 보리이며, 특작물로는 마늘과 양파를 들 수 있다. 어업현황을 살펴보면 원평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배는 모두 7척으로 이 중 4척은 비교적 규모가 큰 낭장망 어선들이고, 3척은 연승어업을 하는 작은 배이다. 이 배들은 양력 3월부터 10월까지 조업을 하며 그 후 겨울철에는 원해에서부터 강한 파도가 밀려와 조업이 어렵다. 어민들은 3~4월에 흑산도 근해에서, 5~7월에 칠팔도 근해에서 병어잡이를 하며, 8~10월에는 칠팔도와 원형부근에서 꽃게 서대 가자미 등을 잡는다. 특히 꽃게는 일본으로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곳은 어업 전진기지로 지정되어 1978년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 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번영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원평항은 상당히 쇠퇴한 것이다. 저인망을 갖춘 외지의 대형어선들이 원해에서 어종을 남획하기 전에는 이 근방이 활발한 어업 중심지여서 수백 척의 어선이 기항하면서 성대한 파시를 이루곤 했던 것이다. 현재는, 그 번성의 자취를 찾을 길 없고, 다만 배들이 연이어서, 갑판들만 밟고서 그곳까지 닿을 수 있었다는 말이 마치 전설처럼 남아 있다. 또한 잔해만 남은 술집 자리, 여인숙 자리 등이 과거

변성했던 시절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 ① 뱃서낭

뱃서낭이란 배를 보호해 주고 풍어를 도와주는 신으로서, 제보자 조씨와 문씨는 마을 당제의 당신과 같은 역할을 배에서는 뱃서낭이 해준다고 설명한다. 조사 당시 제보자 조규수씨의 배만 정박중이어서 그 배의 뱃서낭만 관찰할 수 있었다. 제보자 조씨의 배인 김영호의 뱃서낭은 작은 상자 속에 봉안되어 선장실 출입구 옆벽에 걸려 있다. 이 상자 안에는 삼색 형짚, 삼색실, 바늘이 들어있어 서낭의 신격이 여신임을 말해준다.

뱃서낭 신격의 성은 선주의 선몽으로 결정된다 한다. 제보자 조씨의 경우는 단지 꿈 속에 여자가 보였기 때문에 여신으로 결정했다 하고, 다른 제보자 문씨는 꿈에 어떤 부인이 나타나 자신을 서낭으로 모시라고 말하기에 그에 따라 여신의 뱃서낭을 모셨다고 말한다. 일단 배에 서낭을 모시고 나면, 항상 뱃서낭에 각별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인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을 먹든 먼저 뱃서낭 앞에 바쳤다가 먹으며, 작업 중 민어 등의 귀한 생선을 잡았을 때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고 반드시 뱃서낭에서 먼저 바쳐야 한다. 한편 선원 중 누군가가 '서낭이 우는' 소리를 들을 경우 출항을 않는다 한다. 만약 출어를 하면 큰 풍랑을 만나는 등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 ② 뱃고사

뱃고사에는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날을 받아 지내는 고사 등이 있다. 뱃고사는 반드시 밀물 때에 행하는데 그 이유는 그 때 행해야 물이 들어오듯 모든 만복이 들어차기 때문이라 한다.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날을 받아 지내는 의례는 따로이 '풍어제' 라는 이름이 따로 붙이기도 한다. 여느 때의 고사가 개별 가구에서 행하는 것인데 비해 '풍어제' 라는 이름이 따로 붙여져 있는 것이다. 제보자들은 풍어제를 여느 뱃고사와 종류가 다른 의례로 생각하지 않고 뱃고사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첫 출어의 의례인만큼 한해 동안의 풍성한 어획을 기원하기 위해 성대하게 치룬다. 여타의 뱃고사에서는 선주가 고사를 주관하는데 비해 풍어제에서는 단골을 데려다 의례를 주관케 한다. 우선 선주의 집에서 육류와 자기 배에서 잡은 귀한 생선, 그리고 매와 술 등의 제물을 마련한다. 생선은 말려서 찢 것, 혹은 날 것 그대로를 진설한다. 제물은 뱃서낭 앞, 기관실 앞, 이물에 진설된다. 제상을 모두 차린 후 배에는 모든 기를 달고, 무당이 모래사장으로부터 고사를 시작하고 배에 올라 고사를 계속 진행한다.

### ③ 선기

선기에는 삼색 또는 오색으로 된 천에 ‘축대푼어’, ‘대어’ 등의 글귀가 씌어 있다. 삼색 중 빨간색이 맨 위에 있고 검정색이 중간에 위치한다. 기는 홀수의 색깔, 홀수의 크기여야 하고 기들을 달 때에도 그 숫자를 홀수로 해야 한다. 기를 다는 것을 ‘호기한다’고 하는데, ‘호기하는’ 장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모든 기를 기관실 옆에 달면 만선을 알리는 표시가 된다. 한편 배의 연통에 기를 달면 기관고장을, 이물에 달면 기타의 사고를 알리는 표시가 된다.

### ④ 기타 -어업에 관련된 꿈-

제보자들은 자기들이 꾸는 꿈이 뱃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출어 전날이나 조업 중에는 항상 뱃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꿈을 자주 꾸는다고 한다. 제보자 문씨가 진술하는 사례는 그가 꿈의 영험에 관해 갖는 믿음의 일단을 말해준다.

문씨는 어느날 자기의 어선을 출어시키고 집에서 잠을 자다가 배가 장작을 가득 싣고 마을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마을로 들어온 배는 장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오래지 않아 물이 들어차 가라앉았다. 이 꿈을 꾸 후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실제로 조업이 끝나 들어온 자기 배는 부서가 가득 들어 찬 만선이었다 한다.

---

□ 참고문헌:이종철·조경만, “민속자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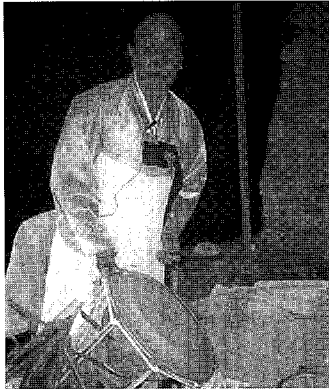
## 2) 굿과 연희

### (1) 굿

#### ① 유점자 무녀의 굿

비금면에는 세습무녀 유점자 씨가 거주하고 있다. 유씨는 비금면을 비롯해 인근 섬지역 및 목포 등지에서 활발하게 무업 활동을 하고 있다. 유씨가 주로 해온 굿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팍머리씻김굿(진씻김) : 초상이 났을 때 상가에서 하는 굿.
- 2) 소·대상씻김굿 : 소상이나 대상 때에 하는 굿.
- 3) 날받이씻김굿 :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점쟁이의 지시로 택일하여 하는 굿.



비금 씻김굿 중 〈손굿〉



씻김굿에 참여한 주민들

- 4) 초분 이장 때의 씻김굿 : 초분을 했다가 분장을 할 때 하는 굿.
- 5) 혼맞이굿 : 교통사고 등으로 사고사한 경우에 하는 굿.
- 6) 저승혼사굿 : 미혼으로 죽은 사람들끼리 영혼 결혼을 시키면서 하는 굿.
- 7) 혼건지기굿 :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져 올리면서 하는 굿.
- 8) 용왕굿 : 용왕신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비는 굿.
- 9) 호강굿 : 누가 죽거나 아파서 하는 굿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굿.
- 10) 성주굿 : 집을 새로 지었을 때 하는 굿.
- 11) 도신 : 정초에 새해의 운수를 비는 굿.
- 12) 지양풀이 : 애를 갖게 해달라고 또는 아기가 탈없이 잘 자라게 해달라고 비는 굿.

비금면의 당골 유점자 씨가 주축이 되어 연행했던 성주굿과 씻김굿의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주굿〉

○ 일자 : 2001년 11월 23일

○ 장소 : 비금면 신촌

○ 무녀 : 유점자, 명연님, 안복단

- 1) 안당(안복단), 2) 안당2(명연님), 3) 초가망석(유점자), 4) 손굿(명연님), 5) 제석굿(유점자), 6) 고틀이(유점자), 7) 퇴송(명연님)

〈씻김굿〉



비금 성주굿, 무녀 유점자



비금 성주굿



비금 성주굿, 손대를 들고 축원하는 무녀 유점자

- 일자 : 2000년 10월 9일-10일
- 장소 :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신교

- 1) 혼건지기
- 2) 집으로 이동
- 3) 초가망석1 (16:40-17:15, 무녀:유점자)
- 4) 초가망석2 (17:45-18:10 무녀:함종엽)
- 5) 제석굿(18:14~19:29, 무녀: 유점자)
- 6) 냇올리기(19:45~20:00, 무녀:유점자)
- 7) 고평이(20:02~20:43, 무녀:유점자)
- 8) 셋김(21:00~21:25)

9) 잔 올리기(21:36, 가족들이 망자상에 잔을 올리고 절함)

10) 길뒹임(21:54~22:31, 무녀:유점자)

11) 거리굿(22:31~22:35, 무녀:유점자)

## ② 비금면 당골판

비금도에는 전통적으로 당골판이 있어 세습무 활동에 물적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그것을 토대로 당골과 주민들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비금·도초에서는 당골판이 일정한 구역으로 구획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몇 개의 마을들을 합해 그것을 하나의 구역으로 정하고 그것을 특정 당골이 담당하는 식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밑줄친 마을은 담당 무당이 거주하던 마을이다.

### (2) 비금도 밤달애 남사당놀이

구역	담당 무	마을
동부	양관옥(남) 천씨(여)	당두, 광대, <u>용소</u> , 도고, 가산, 나배, 우산, 당산, 지동, 신유
중부	김씨(여)	수림, 구기, 용호, 자항, 신촌, 평림, 원평, 고막, 서산, <u>한산</u> , 망동, 덕내, 읍동, 상암
서부	양씨(여)	죽림, 립리, <u>죽치</u> , 외촌, 내촌, 월포, 내포, 대두, 수도, 송치, 원수치, 가어지

### ① 개념과 구성

밤달애는 장례식 전날밤 동네 사람들이 초상집에 모여 상주를 위로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노는 놀이다. 망자의 친구, 동민, 계원, 상두꾼들은 실의에 찬 상가에 모여 화톳불을 피우고 북·장고를 치면서 노래와 춤을 추고 고인의 행적을 더듬어 보기도 하며 밤샘을 한다. 그리고 상가에서는 이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놀이판(화투, 윷, 장기 등)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런 장례 풍속에는 공동체적 유대 의식이 깔려 있다. 밤달애놀이는 이런 기반 위에서 전승돼왔다.

‘밤달애’라는 말은 밤을 달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밤달애는 밤(夜)과 달래다의 고어인 달애의 복합어다. 망자와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노는 전통은 <隋書>고구려전(初經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逾之)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오랜 전통이라고 볼 때 밤달애는 역사적으로 연원이 오래된 놀이라고 할 수 있다.



밤달애 남사당놀이 연행 장면1

밤달애놀이는 장례를 축제적으로 치르는 전통이므로 다양한 놀이와 연희가 들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남사당노래는 일정한 형식과 구성을 취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남사당노래를 중심으로 그 구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사당놀이는 ① '마당어우르는 놀이' ② '주문가' ③ '거사·사당놀이' ④ '매화타령' ⑤잡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같은 순서로 부른다. 이들 노래들은 본래 소고춤을 동반한 놀이로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노래만 전승되고 있다. 가창방식은 각기 다르다. ①, ②는 선창자가 첫머리를 내면 나머지가 제창하는 방식으로 부르고, ③은 교환창 ④는 선후창 방식으로 부른다. 한편 ③, ④도 선창자가 앞부분을 부르면 나머지가 제창하는 식으로 하기도 한다. ⑤는 독창 또는 제창으로 부른다.

#### (ㄱ) 마당어우르는 놀이

이 놀이는 이름이 말하듯 연행 현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소고치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놀이다. 노래는 '12/8(J.=43)' 박으로 되어 있다. 경서도의 산타령에서도 소리를 시작하기 전에 판소고를 치는 것이 원래의 격식이어서 소고를 들고 일렬로 늘어서 앞뒤로 오가며 뒷소리를 받아 넘긴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소리판이 만들어지기 전의 절차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마당어우르는 노래



밤달애 남사당놀이 연행 장면 2

도 이런 기능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리경사 저리경사 똑떨어진 경사 / …… /

서울 서방님네 오셨다가 서운해 섭섭하여 / 막걸리 스푼일곱동우 들어막을거나 말거나 / 에화 매화로  
구나 / 잘했다 매화로구나

#### (ㄴ) 주문가

주문가는 이름에서 보듯이 주술적 기능과 상관있어 보인다. 노랫말에 나오는 '당산', '나무복방' 같은 말이나 달거리 형식으로 된 사설 구성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렇지만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 남사당놀이의 오락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제의적 사실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음악은 '12/8(J.=77)' 박과 '18/8' 박이 혼재해 있어 화려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앞도리도 당산 / 뒷도리도 당산 / 씨아시는 대방 / 물레는 궁글동 / 고물고물 고사공 / 이물이물 이사  
공 / 허릿대밑에 화장아야 / 물들어온다 배떡위라 / 헤 나무복방이로구나 / 정월 대보름날 / 액맥이  
연이 떴네 때 / 이월 한식날 / 수조구 대가리 떴네 때 / 삼월 삼짱날 / 연자새끼가 떴네 때 / 사월 초  
파일날 / 관등불이 떴네 때 / 오월 단오날 / 춘향이 추천이 떴네 때 / 유월 유두날 / 개떡 바꾸니 떴  
네 때 / 저렇게 등등실 / 높이만 떴고나 헤에야헤에

#### (ㄷ) 거사·사당놀이

거사·사당놀이는 거사와 사당으로 꾸민 두 패가 마주 보고 서서 다음처럼 교환창 방식으로 노래를 주고 받으며 소고춤을 추는 놀이다. 사당이 노래를 하면서 나오면 거사가 뒤로 물러서고, 거사가 소고 치고 노래하면서 나오면 사당이 물러 서면서 노는 놀이다. 이때 불리는 노래는 두 패가 주고 받는 교환창 방식으로 부르며, 앞 사설의 마지막 구절(굵은 글씨)을 받는 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항상 짝을 이룬다. 18/8(J.=77)박과 21/8박이 섞여 있으며, 마지막 구절(밑줄친 부분)은 21/8박이고, 나머지가 18/8박으로 되어 있어서 주고 받는 부분의 경계 표지가 된다. 남사당노래 중에서 이 노래의 사설이 가장 풍부한 편인데 다음처럼 짝을 이룬 사설이 20여곡 채록되어 있다.

나부작 나부작 소구 등거리 / 거사사당은 어따 두교야 / 저렇게 등등실 / 높이만 떴고나 에헤에야헤 /  
(받는 소리) 높이만 떴네 / 높이만 떴네 / 저렇게 등등실 / 높이만 떴고나 에헤에야헤

## (ㄹ) 매화타령

매화타령은, 후렴에 나오는 매화라는 말에서 따온 이름이다. 선후창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선입 후제창으로 많이 부르고 있다. 12/8(J.=80)박의 규칙박자로 되어 있다.

원수년의 감장시 / 오지나 말고서 같것이제 / 참새같은 시어머니 / 열쇠만 차고서 요분질간다 / 아이  
고 매화로구나 / 에야라 디야라 아해야 / 에헤이얼래/ 사랑도 매화로구나

## (ㄹ) 상여놀이 및 잡가

매화타령 후에 상여놀이가 있는데 상두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마당을 도는 놀이다. 잡가는 매화타령 이후의 여흥 노래로서 타령류의 여러 노래를 총칭한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의 남사당 노래는 아닌 셈이다. 개미타령, 다리타령, 신세타령, 단지타령, 시누타령, 이타령, 장모타령 등이 주로 불리는데 여흥의 목적에 걸맞게 해학과 과장된 상황 묘사 등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다.

## ② 남사당놀이의 수용 배경

신안을 비롯한 서남해 도서지역에 남사당패의 연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조선후기의 사회·문화적 활력과 관련 있다. 흔히 섬이라고 하면 고립되고 폐쇄된 곳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 특히 조선후기에 새롭게 조성된 도서지역의 활력은 도서민속의 역동적 전개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환경이 되었다. 유랑예인들은 떠돌이패의 속성상 돈벌이가 될 만한 곳을 찾아 다닌다. 어업 생산력이 늘어나고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도서와 포구에는 경제적 활력이 조성되어 유랑예인들이 찾아드는 조건이 성숙되었다.



남사당놀이 제보자 박서례 할머니

또한 마을 공동체의 물적 기반이 확대되고 공동체문화가 활성화되는 상황도 도서지역에 유랑문화가 유입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인근 섬인 도초면 고란리에서는 당제를 고을곳의 규모로 크게 연행했는데, 특히 매년 지내는 '소배랑' 과 달리 3년마다 크게 지내는 '대배랑' 때에는 인근 지역 사람들까지 수백명의 구경꾼과 각종 장사치가 모여들고 또 각 마을에서 견고(풍물굿)를 차려 와서 공연을 할 만큼 상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렇듯 큰 축제가 벌어지던 고란리 당굿 마당에는 다양한 곳놀이와 함께 남사당패의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듯 도서지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던 19세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남사당패의 수용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전승 실태

비금면에서 남사당놀이를 전승하고 있는 분들은, 상암마을의 박서례(여, 86), 황옥진(여, 85), 이소복(여, 80), 박효엽(여, 83) 외 마을 주민들이다. 본래 남사당놀이는, 6명 이상이 사당과 거사로 나눠 서로 마주 보고 늘어서서 앞으로 가고 뒤로 물러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식으로 연행된다. 거사는 농악 복색을 갖추고, 사당은 남정네들이 여자 옷을 입고 논다. 그리고 거사는 고깔을 쓰고 북이나 장구를 치고, 사당은 소고를 든다. 이처럼 놀이로서 전승되던 것이 현재는 노래 중심으로만 전승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인 예능 이외에 아리랑타령이나 유행가, 우스갯소리나 춤 등이 연행되기도 한다.

밤달애의 전통은 신안 일대에서 폭넓게 분포하고 있으나 예능성이 강한 남사당놀이[노래]는 비금면 죽림리 상암마을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이 예능을 지닌 분들은 대개 고령의 노인들이서 그 전승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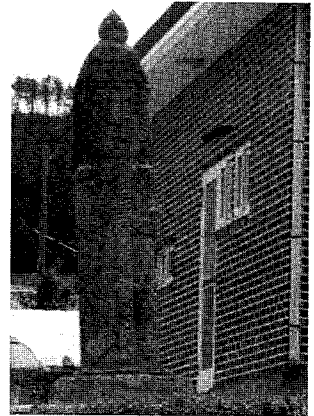
## 3) 장승·우실

### (1) 비금 월포 장승

#### ① 위치 및 형태

이 마을에는 농경지에 연접하여 길게 마을길이 나 있다. 마을 어귀에서 이 길을 따라 약 70여m 걷다 보면 '사장거리' 또는 '사장'이라 불리는 공터가 나오는데, 이 공터의 한쪽에 화강암을 깎아 세운 장승 1기가 있다. 장승 전면 기단에 '大將軍(대장군)'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주민들은 이 명칭 외에 '장석', '장성', '장군'이라고도 부른다.

대장군의 크기는 높이 298cm, 폭 60cm로 대형 장승이다.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1.5m의 장검을 거머 쥐고 눈을 위로 치켜 떠 앞의 '숭애봉'을 주시하고 있다. 동그란 꼭대기에 이마를 질끈 동여맨 투구는 양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크고 둥근 얼굴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눈에는 눈동자를 제외한 안면이 조작되어 있다. 투구의 앞 끝에서 바로 내려온 큰 코가 약각되어 있고 그 밑에 위·아래 입술이 음각된 입이 있다. 굳게 다물고 있는 입은 육중한 느낌을 더해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얇은 선각을 위주로 하였기에, 입체감이 덜한 느낌을 준다.



월포장승

## ② 유래 및 관련 전설

제작연대는 명문 기록(檀紀 四二八八年 乙未年, 1955년)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장승이 세워진 동기와 경위는 확실한 편이다. 건립 당시 풍수지리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던 전남군 씨의 풍수적 해석에 의해 세워지게 되었다. 1950년대 어느 해, 마을의 젊은이가 많이 사망하는 액운이 겹치자, 전남군 씨는 그 원인이 마을 앞쪽에 흉한 '범아재비' 형상을 하고 있는 선왕산 숭애봉의 세찬 기에 있다고 해석하고 그 기를 막아내는 방법으로 이 마을에 장승을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처음에는 목장승을 세웠다가 나중에 석장승으로 바뀌 세웠다고 한다. 장승의 재료가 된 돌은 선왕산에 있던 큰 바위를 떼어다가 썼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주민들은 이 장승이 그 이름처럼 대장군이기에 능히 앞산의 기를 꺾어 살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③ 관련 제의

장승과 관련된 의례로 '산제'가 있다. 월포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 자정에 '산제' 또는 '당제'라고 불리는 마을 제사를 거행한다. 산당에서 산제를 지낸 후, 장승 앞에서 하당제를 지내는데 이 제의를 '장승제'라고 부른다. 장승제는 산제의 절차처럼 복잡하지는 않다. 먼저 장승 앞에 짚을 깔고 메, 과, 포 등의 제물을 진설한 후, 헌작, 재배, 구축을 하는 간단한 순서로 진행한다. 구축은 '마을에 재앙이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원을 한다. 제관 외에는 아무도 당에 오를 수 없는 산제와는 달리 장승제에서는 주민 모두가 참석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 박물관·신안군, 1987, 244쪽.〉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65쪽.〉

#### (2) 내촌·금촌 우실

내월리 내촌에서 북쪽 해안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돌로 쌓은 우실이 있다. 그리고 고서리 금촌마을 뒤 금촌저수지 쪽에서 하누뎀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언덕에 우실이 있다. 두 우실 모두 석성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북풍 또는 북서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방풍의 기능이 있다.

#### 4) 어로문화자원

##### (1) 개요

비금도에서 행하는 고기잡이로는 우이도 앞바다에서의 꽃게잡이와 준치잡이를 들 수 있고 꽃게잡이가 끝난 후에는 병어잡이, 부세잡이로 이어진다. 꽃게잡이는 유채꽃 필 무렵이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음력 3월부터 시작하여 2개월 정도 조업을 한다. 주로 우이도 대섬 앞바다에서 조업한다. 일부사람들은 조도 안갈매, 박갈매까지 다니면서 어장을 했다. 꽃게잡이 배가 7-8톤이 되면 7-8명이 승선한다.

초살에는 간재미 잡이도 하는데, 이것은 연승으로 잡았다. 옛날에는 배가 작아서 소수가 다녔다. 간재미는 3월 중순까지 잡는데 날이 따뜻해지면 간재미가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업을 마친다. 간재미 연승이 없어지면서 꽃게잡이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구술자의 사례를 보면, 30살에 2년동안 염전 기술자로 다니다 32세부터 간재미 연승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소구바다(우이도 바다)에서 꽃게잡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투망 그물로는 병어잡이를 시작한다. 고기가 많이 사는 곳은 모래와 빨이 섞인 곳이다. 옛날에는 비금도 바닥이 깨끗해서 고기가 많았다고 한다. 소구바다에서 잡던 꽃게는 제주 동지나에서 올라오는 꽃게라고 말한다. 지금도 소구바다에서 꽃게가 나지만 양은 적은 편이다. 현재는 그물을 못올리게 하는데, 새우잡이 배가 닳을 박아버려서 그물을 버리니까, 어장을 뺏겨버린 셈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결국은 유자망을 하기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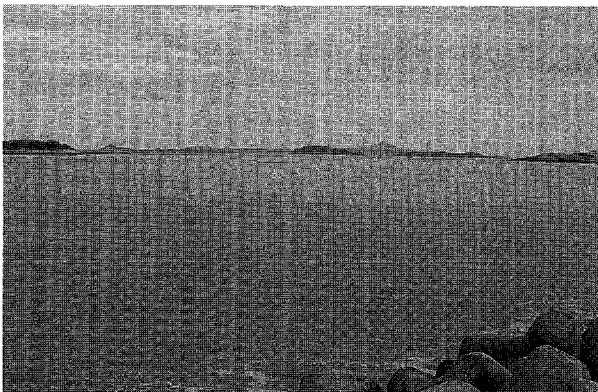
## (2) 꽃게잡이

꽃게잡이	조현규(남, 76)외	비금 원평	2003. 12. 16
------	-------------	-------	--------------

꽃게잡이 그물 코는 넓이가 8손가락 들어간다고 해서 여덜매기라고 부른다. 병어잡이 그물이 코가 줄어서 7손가락 들어가는 것과 대조된다. 꽃게잡이 그물은 흘림그물이다. 요즈음은 닻배기라는 그물로 작업을 한다. 닻을 박아서 그물 위쪽에는 '우끼' 를 채우고 아래에는 낚을 채운다. 그물이 자망처럼 서있기 때문에 조류를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지나가는 꽃게가 다 걸리게 된다. 비금도 조업과 관련있는 서해 칠팔도 근해 조수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간다. 그 조수에 따라 그물을 친다. 그물 중에서는 꽃게 그물이 제일 크다고 한다. 3월 꽃게잡이가 끝나면 병어잡이로 들어간다. 그 다음은 부세잡이로 들어간다.

꽃게잡이는 물살이 세야 좋다. 이곳 표현대로 물이 나가리를 많이 해야 잘 걸린다는 것이다. 닻배로 조업하는 경우에는 물때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유자망으로 그물을 흘릴때는 물론 물살이 세야 한다. 대개 사리때까지 조업할 수 있다. 물때로 말하면, 3물~8물까지 조업하는 셈이다.

꽃게잡이는 9월부터 시작한다. 지금은 다듬이로 쳐버린다. 한 틀에 300발씩 닻을 치고 고정시켜 잡는다. 꽃게는 그물에 걸려서 열흘이 지나도 살아있다. 그러면 쳐놓고 일 보다 그물만 보고 다시 내린다. 옛날에는 흘림그물로 했는데, 지금은 닻배로 한다. 요새는 그물이 인두사로 규격화되어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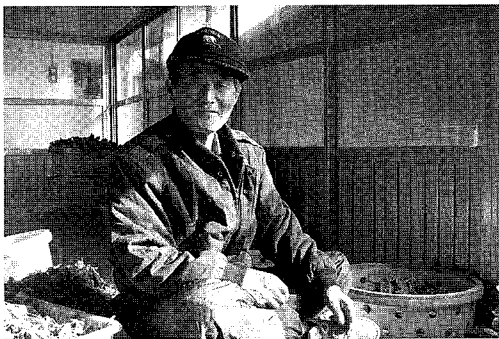
비금면 원평 앞바다

## (3) 병어잡이

병어잡이	조현규(남, 76)	비금 원평	2003.12.16
------	------------	-------	------------

병어잡이 그물도 유자망으로, 그물코가 7손가락 들어간다고 해서 일곱매기라고 한다. 병어잡이에  
 는 뜬그물 조업도 하고 깔아서 조업하기도 한다. 바닥에 그물을 깔아 조업하는 것을 땅가리 한다고  
 표현한다. 뜬그물 조업을 할려면 '우끼'를 채우고, 땅가리를 할려면 우끼를 채우지 않고 바닥에 깔  
 면 된다. 물론 조수 간만을 잘 봐서 그물을 놓아야 한다. 잘못 놓으면 그물이 멍치기 때문이다. 대개  
 썰물이 되는 시각에 그물을 놓게 된다. 그 시각이 되어야 병어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헌절  
 안팎의 시기가 되면 병어잡이가 끝난다. 옛날에는 이 시기가 되어도 병어가 잡혔는데, 지금은 잡히  
 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기가 되면 새벽에 고기가 물 위로 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때로는 무새물때 후 치등이  
 라는 곳에서 병어잡이가 성행했다. 옛날의 병어그물은 길어야 200발 정도였다. 가만히 물 흐름대로  
 흘러 놓으면 병어가 그물에 걸리는 소리가 파닥파닥하고 들린다고 한다. 병어는 밤에 자고 날 새면  
 서 일어난다고 한다. 새벽이 되면 병어가 일어나서 활동하다가 그물에 걸려 파닥파닥 뛰기 때문이  
 다. 근래에는 진도군 조도 사람들이 굵은 배를 새로 만들어서 이곳에 와서 병어잡이를 했다. 그래서  
 비금도 사람들과 고기잡이 경쟁을 치열하게 하기도 했다.



비금면 원평 조현규

#### (4) 부서잡이

부서잡이	조현규(남, 76)외	비금 원평	2003. 12. 1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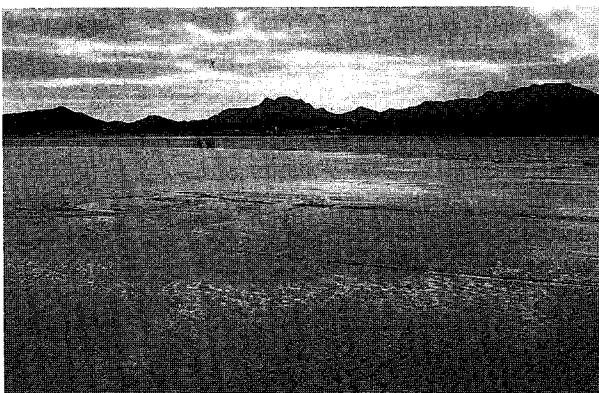
6월이 되면 부서잡이로 들어간다. 조업기간은 약 1달 정도다. 칠팔도 위 일곱아리 위에서 조업한  
 다. 이곳 표현대로 넷토질을 해서 땅가리를 한다. 옛날에는 뜬그물로 우끼를 띄워서 그물을 놓았지만  
 지금은 뜬그물은 못한다고 한다. 옛날의 윤선이 10척이라면 지금은 기계선이 100척이기 때문에 뜬  
 그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쿠류로 그물을 갈아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땅가리만 한다.

먼 바다에 나가서 땅가리를 하더라도 다섯망에 하나씩 망대를 세워 놓는다. 대체로 지금은 그물을 로라로 끌어 올리기 때문에 쉬운 편이다. 부서잡이는 좀 쌀쌀해야 시작된다. 물때로는 7~9물이 부서잡이 시기다. 따라서 부서는 물이 세야 잘 잡히는 셈이다. 부서는 제원도로 나가서도 조업한다. 이곳에서는 대개 13~14발 정도의 깊이에서 잡힌다. 알마도(안마도) 바깥쪽까지 나가거나 칠피등까지 나가기도 한다.

(5) 기타 비금도의 고기잡이

기타 고기잡이	조현규(남, 76)외	비금 원평	2003. 12. 16
---------	-------------	-------	--------------

간재미는 산짐사리에 잡힌다. 이곳 표현대로 사리에 물이 최고로 들었다 죽은 다음 다시 살아나는 때가 산짐사리다. 연승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세기 때문에 조업하지 못한다. 물이 세면 망이나 낚시를 던져도 줄기리 감겨버린다. 강달이도 많이 잡았다. 원평 앞 우세등에서 낭장망으로 잡았다. 낭장망으로 잡을 때는 그물 양쪽을 고정시켜놓고 '불깨미' 만 털어내면 된다. 일곱아리 위에서는 연승으로 홍어잡이도 했다. 초봄인 2월 한 달 홍어잡이를 하면 홍어가 물러가버린다고 한다. 현재 흑산에서는 공낚시로 홍어를 잡는다. 홍어 다니는 길에 낚시를 깔아 놓으면 몸에 걸려서 잡는 것이다. 옛날에는 미끼로 잡았다. 이때는 새우, 불락을 미끼로 쓴다. 이중에서 새우가 가장 좋은 미끼다. 옛날에는 병어그물에도 홍어가 걸리기도 했다. 원평이 어장으로는 좋은 곳이다. 이곳이 산란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굵은 준치가 잡혔다. 꽃게잡이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비금면 원평 갯벌

(6) 비금도의 넷도질

비금도의 넷도질	조현규(남, 76)외	비금 원평	2003. 12. 16
----------	-------------	-------	--------------

몽돌을 넷도라고 한다. 납으로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물이 싸더라도 수심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넷도질은 안개가 끼면 한다. 안개가 없으면 눈가늠으로 그물질을 한다. 넷도질은 병어잡이, 부서잡이에서 한다. 보통 17발에서 많이 한다. 30발에서 35발까지 나가서 하기도 한다. 칠팔도에서 흑산방면으로 나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 넷도질 할때는 몇발땅이다라고 표현한다. 압초지역에서는 물론 그물질을 하면 안된다. 그물이 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넷도질을 하는 것이다. 대개 17발 땅부터 30발 나갈 때까지 차근차근 넷도질을 하기 때문에 4~5번 정도 넷도질을 해야 어장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눈가늠은 쉽게 한다. 눈가늠은 섬과 섬 사이를 눈으로 건너어 보는 것으로, 경험에 비추어 바로 어장을 찾게 된다. 물론 기계장치를 이용한다.

비금도 갯벌은 서남쪽에 있다. 주로 강천, 상암, 읍동, 앞쪽의 바닷가를 말한다. 원평 방면은 하루 바람따지이기 때문에 갯벌이 없다. 따라서 원평에는 덩장이나 밭이 없다. 수심이 깊어서 마땅히 덩장 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비금도의 어업지로는 칠팔도 부근이 가장 좋은 어장이다. 옛날에는 소구바다가 좋았다고 한다. 아무리 안개가 있어도 넷도질을 하면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치등만 넘어가면 깊은 바다가 때문에 칠팔도 넘어간 위치에서 넷도질을 해야 어장을 찾을 수 있다. 간재미는 비금도 근해에서 잡기 때문에 넷도질 할 필요도 없다.

(7) 비금도의 갯벌어업

비금도의 갯벌어업	맹수단(여, 65)	비금 가산리	2003. 12. 16
-----------	------------	--------	--------------

비금도의 갯벌에서 주로 나는 것은 낙지와 화랑게다. 낙지는 여름에 많이 나고 게는 화랑게가 많으며 여름에서 가을에 많이 난다. 낙지는 연승으로도 조업하지만, 개펄에서 파서 어획하기도 한다.

날이 추워지면 낙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날이 조금 따뜻해지면 낙지 구멍이 달라진다. 파랗고 맑은 빨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낙지구멍인 <부룻>이다. 이 부룻과 물이 나오는 구멍사이를 파내려가면 낙지를 잡을 수 있다. 낙지는 여름에는 덮기 때문에 빨속 깊이 들어가 살고 날이 추워지면 수온이 차기 때문에 물 위로 나온다. 어떤 때는 낮물에 낙지가 나오기도 한다. 밤에는 화낙지를 잡았다. 밤에 물이 쓰면 햇불을 쓰고 바다 빨에 나가면 게 잡아먹기 위해 나온 낙지가 햇불을 보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통 낙지는 밤에만 활동한다. 낮에는 빨속에 들어가 있다. 고기들은 서로가 먹이 사슬이 있다. 낙지의 먹이는 게다.



비금면 가산리 갯벌

(8) 제염업

제염업	장영기(남, 57)	비금 송치	2000.6.22
-----	------------	-------	-----------

신안을 비롯한 서남해 도서지역에서 화염에서부터 시작한 천일염업이 성행했었다. 그러나 차차 염전이 폐쇄되어 갔고 일부 천일염전이 운영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염전들은 논으로 전환하거나, 새우를 비롯한 여러 어종의 양식장으로 전환되었다. 압해도에도 현재 두곳 정도가 소금생산을 유지하고 있다.

천일염전의 구조는 복잡하다. 각각의 염밭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기능도 다르다. 결정지 쪽에서부터 보면, 공판 1단, 공판 2단, 공판 3단, 쌀누태 2단, 누태 2단, 누태 3단, 누태 4단, 난치, 쌀난치, 난치 2단, 난치 3단, 난치 4단, 난치 5단, 저수지 순으로 이어진다. 면적은 결정지 쪽이 가장 작고 바닷물의 유입구 쪽이 크다. 면적으로 보면, 1단부터 3단까지는 100평, 공판은 150평, 누태 2단은 300평, 누태 3단은 350평, 쌀난치는 400평, 난치 4단은 550평 순으로 넓어진다. 물론 염전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염밭의 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곳의 순서가 일정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공판 1, 2, 3단은 소금이 만들어지는 결정지인데, 공판이 4개인 경우도 있다. 누태와 난치는 독이 이어서 있고, 고랑으로 바닷물이 유입된다. 저수지에서 물이 들어오면 난치 5단, 혹은 상난치로 들어가서 쌀난치로 보낸다. 쌀난치에 바닷물을 몇일 놔뒀다가 쌀누태, 2, 3, 4단으로 옮긴다.

쌀누대에서 소금 결정지인 공판으로 물을 내릴 때는 약 25도에서 26정도 염분이 함유되었을 때이다. 염도를 측정하는 것은 수은 계량기가 달린 막대를 쓴다. 이것을 염도계라고 한다. 공판에서 26도 이상 되면 안되고, 공판 3단으로 내려오면 거의 소금이 결정되어 있다. 소금이 되면 공판에 반복해서 물을 주어 소금이 생기도록 한다. 완전한 소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29도나 30도였을 때다. 1단하고 2단은 거의 같은 결정지라고 보면 된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해주가 필요하고 해주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자고가 필요하다. 곧 자고는 물이 옮겨지는 고랑이고, 해주는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이다. 자고를 통해 물을 이동시키고, 우천시 등 필요할 때 해수에 염수를 일시 저장한다. 3단에 해주는 한 개 있고, 공판에 해주가 2개 있다. 한판에 보통 소금이 20가마 정도 생산된다. 2002년 현재 도매가격으로 가마당 3천원이므로, 한판에 6만원의 생산을 하는 셈이다. 근래에는 염전 바닥을 타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바닷물을 건조시키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일은 13도 이상이 되면 “갈갈이”이가 생겨 곤란을 겪기도 한다. 갈갈이는 소금처럼 생겼지만, 소금생성을 방해하는 이물질이라고 보면 된다. 타일은 1980년 이후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누태 4단까지는 해주가 있는데, 난치는 해주가 없다. 물의 결정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누태 해주는 지붕, 곧 뚜경을 덮지만, 누태 4단 해주는 물의 결정력이 약하므로, 뚜경을 덮지 않아도 된다. 염전에 따라 난치가 4단짜리도 있고, 5단짜리도 있다. 끝난치에는 저수지에서 물이 들어오게 설계되어 있다. 저수지는 수문 등을 통하여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바닷물이 비로소 소금으로 결정될 기미를 보이면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한다. 염수를 저장하는 양은 계절과 기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봄에는 물을 얇게 저수하고, 여름에는 두껍게 저수한다. 겨울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즉, 염밭을 두르고 있는 판자의 높이는 대략 5cm인데, 염수를 많이 실 때는 5cm에서 얇게 실 때는 2cm 정도의 높이를 유지한다. 30도짜리 염수와 20도짜리 염수를 섞어서 재작업 하는 것을 ‘소금을 녹인다’라고 표현한다.

먼저 소금의 제작방법을 보면, 海水直煮法, 鹽田法, 再製鹽法, 天日鹽田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제염방법은 해수를 가마에 직접 넣고 연료를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해수직자법이다. 이후 소를 이용한 논갈이 기술과 제염도구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염전법으로 발전하였다. 염전법은 서해안 지역에서 이용된 제염법으로 소금의 원료인 해수의 염도를 높여 노동력과 연료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조수간만의 차이와 연안 지형과 지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수직자법과 염전법은 해수나 염전을 통해서 얻은 鹹水를 염분에 끓여 소금을 생산하는 煎熬鹽製로 1960년 무렵까지 이용된 제염방법이었다. 천일염전법이 국내에 처음 소개

된 것은 1907년이지만 보편적인 제염방법으로 확산된 것은 1940년대 말부터이며 한국전쟁이후 서남해안 지역에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전오염제는 소멸되었다.<sup>24)</sup>

제염방법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없는 동해안은 해수직자법이, 간만의 차이가 나는 서해안에서는 무제염전법이 이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남해와 동해에서는 유제염전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해수직자법은 옛날부터 이용되던 방식으로 해수중의 약 97%의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가장 단순하고 오래된 제염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른 설비를 갖추지 않고 제염장과 염가마를 축조해 해수를 떠다 염분에 붓고 연료와 시간을 들여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조선시대 전기에는 동해안의 전지역에서 이용하였던 방법이며, 함경남북도 일부에서는 일제시대까지 남아있었다. 이 방법은 막대한 연료가 소요되며, 염분마다 염분소유자와 고용인 2사람이 밤낮으로 교대해가며 24시간 작업을 해야 한다.

상포 백염의 예를 보면, 우선 염막이라고도 하고 벌막이라고도 하는 가열공간이 있어야 하고, 바닷물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갯벌이 있어야 한다. 염막은 주로 셋뚝이라고 부르는 빨언덕에 축조하여 바닷물이 들고나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한다. 셋뚝과 해안육지는 나무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장작과 식료품 등의 조달이 가능하게 한다. 염막의 구조는 흡사 참외막처럼 생겼다. 물론 규모는 훨씬 크다. 밑둥에는 큰솔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벌막의 지붕은 짚마람으로 덮어썩워 보온을 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매우 따뜻했다. 셋뚝은 소로 갈아서 만든다. 셋뚝의 폭은 대략 15m 정도이다. 셋뚝을 둥그렇게 만들고 나면, 다시 3m 높이의 원통으로 갯벌을 쌓아 올린다. 쌓아올린 갯벌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 꼭대기쯤 올라가면 직경이 40cm 가량 된다. 작업은 가래라고 하는 삽으로 한다. 원통형으로 생긴 셋뚝 주위에는 갯물을 받을 수 있는 고랑이 설치되어 있으며 호숫대라고 하는 연결호스가 있다. 이곳으로 솔에 들어갈 짚물이 이동된다. 호숫대의 길이는 대략 4~5m 정도이다. 소금물을 구울 솔은 쇠철판으로 만든다. 이 솔에 짚물을 넣고 끓이면 소금이 되는 것이다. 벌막이 셋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조시에도 벌막에는 물이 들지 않는다.

해방 전후한 시기에는 상포에 벌막이 4개가 있었다. 인부들을 고용하고 많은 장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때로 여러 사람들이 합자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보자의 표현에 의하면, 소가 빨을 갈아놓으면, 그 빨더미가 산더미처럼 컸다고

24) 김준, 2001, 학술진흥재단 중간보고자료.

한다. 이렇게 제작한 소금은 백염이라고 해서 고가에 판매가 되었다. 그러다가 차차 천일염으로 바뀌면서 염막의 소금제조는 사양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9) 비금도 송치 파시

송치파시	장영기(남, 57)	비금 송치	2000.6.22
------	------------	-------	-----------

송치 파시는 風船으로 고기잡이할 때 전성기였다고 한다. 제보자 장영기(남, 57) 씨가 부친을 따라 송치에 이사온 것은 11세 무렵이었다. 장씨 가족이 송치로 이사온 것도 파시와 관련 있다. 당시까지 파시가 서고 고깃배가 몰려 들던 때이므로 부친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해온 것이다. 장씨가 처음 와서 본 풍경은 포구에 풍선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그때는 밖에 나가면 길에서 돈을 주을 수 있을 정도로 흥청거렸다고 한다.

파시가 서면 여수 초도, 고흥 나로도, 장흥 등지에서 풍선들이 수백 척 들어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들 배가 들어올 때에는 주로 '강다리 파시'가 섰다. 장사꾼들은 해변에 막을 치고 장사를 했고, 또 잡아온 강다리로 기름을 짜고, 선원들은 가마솥에 그물을 삶고 장사진을 이뤘다고 한다. 기껏배들이 등장하면서 파시가 축소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풍선의 작업 물때는 사리 때다. 그래서 서무셋 날에 출어하여 열무셋 날까지 고기잡이를 하였다. 조금 무렵에 귀항해서는 배 밑바닥을 불로 그을리는 '연애'를 하고 그물을 삶아 말렸다. 목선은 정기적으로 '연애'를 하는데, '소'라고 하는 배가 불룩 튀어나온 벌레가 나무를 파먹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배 밑바닥을 불로 그을려야 한다. 그래서 솔가지와 솔에 불을 붙여 배 밑을 그을려 '소'를 제거하는 일을 했다. 또한 지금은 나일론 그물을 쓰지만 당시에는 명(무명) 그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솔에 '갈'을 넣고 삶았다. 이렇게 '갈솔'으로 삶아 말려야 그물이 끊어지지 않으므로 조금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이런 작업을 했다.

풍선으로 잡는 어종은 강다리, 아구, 갈치, 장대 등이다. 시기와 어종별로 볼 때 크게 두 번의 어장이 나누어진다. 먼저 4월부터 5월까지의 강다리 파시다. 어장은 주로 비금도 서북쪽에 위치한 칠발도 어장이다. 강다리가 끝나면 7월부터는 갈치어장이 형성되었다. 우이도 인근 어장에서 갈치가 많이 잡혔으므로 그곳에 고깃배들이 몰려들었다. 조금 무렵에 송치로 들어와 물품을 구입하거나 어구 손질들을 하였다. 또한 태풍이라도 불어오면 모든 배들이 포구로 피난해오기 때문에 송치 앞바다가 가득 찰 만큼 배가 정박했다.

칠발도와 우이도 어장 등에서 잡은 고기는 소금으로 절여 항구로 내다 팔았다. 당시에는 얼음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에 절이는 방법이 유일했다. 고기는 상선들이 고깃배로부터 직접 받아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객주와 거래를 하고 있는 배들의 경우에는 객주의 상고선에 고기를 넘기고 물품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풍선은 물때에 따라 서무셋날에 출어를 한다. 풍선배는 이렇게 출어할 때마다 고사를 지냈다. 결국 한달에 두 번씩 출어고사를 지냈던 것이다. 요즘에는 일년 중 첫 출어 때만 고사를 크게 지내지만 과거에는 매달 두 번씩 규칙적으로 뱃고사를 지냈다.

1965년 무렵부터는 기켓배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풍선 절반, 기켓배 절반 정도가 송치 파시에 드나들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풍선은 사라지고 기켓배만 들어왔다. 기켓배들은 강화 '꽁대기', 인천 안강망, 충남 안강망, 군산 안강망, 목포 안강망 배들이었다. 기켓배가 일반화된 이후에는 파시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지금도 파시의 흔적은 남아 있고, 태풍 예보 때에는 꽤 많은 배들이 들어오지만 과거만큼은 못하다고 한다.

(10) 비금도의 선박

비금도의 선박	조현규(남,76)	비금 원평	2003.12.16
---------	-----------	-------	------------

전통 韓船들이 운영되던 시기를 지나 일제 초기가 되면서 일본의 한국 어장 잠식과 더불어 한국에서 운영되던 선박들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것은 앞이 평평한 비우배에서 물살을 가르고 전진할 수 있는 일본식 싹판배로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 동안에 동력선을 수용하면서 그 활용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다. 특히 망어업의 발전에 따른 안강망 어업의 도입이나 또 그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일본식 어선의 도입은 전근대적 형식인 전통 한선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싹판배의 등장은 곧 전통 한선의 변화를 앞당기게 된다. 바람이나 물때를 거슬러도 운행이 용이한 배의 구조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동력선으로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농업에서 비닐하우스를 통한 계절 농사의 파괴에 비유될 만한 것이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업을 오로지 일본인들이 독점해 조선공업의 민족적 계승이 한때 단절되었던 적이 있었으며, 그 후 민족적 자생력 속에서 조선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결국, 전통 한선은 이렇게 비우배에서 싹판배로 변화해 가는데, 이 변화는 곧 자립적 어로발전에

대한 변화라기 보다는 외세에 의한 강압적 변화였기 때문에 서남해에 유유히 전승되어 내려오는 선박술과 어로기술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950년대 말 이렇게 전통적 어업을 영위하던 전통 한선들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게 되고, 완전한 동력선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자리돛을 달려면 돛줄을 당겨야 하는데, 무거워서 쉽게 당기지 못한다. 그럴 때는 힘센 사람이 물장구를 지고 잡아 다닌다. 그래야 무게가 나가서 자리돛을 올릴 수 있다. 돛이 세 개인데, 제일 앞돛은 이물돛이고 가운데가 허리돛, 그리고 뒤의 돛은 야가리다. 야가리는 바람맥이로서 방향을 잡아 주는 기능을 한다.

바람을 만나 표류한 일이 많다. 전복되지 않고 표류하는 방법이 있다. 5~7월에는 북쪽으로 표류하고 9~10월에는 제주나 추자도까지 떠내려간다. 풍선을 타고 갈치 잡으로 다녔는데, 하누바람을 만나서 표류했다. 표류하면 바람이 자서 어느 정도 배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떠내려 간다. 바람이 부는대로 배가 떠밀리면 너무 멀리까지 밀려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복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밀리도록 조치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가리줄을 푸는 것이다. 바람에 배가 밀리면 돛을 견고 노도 견고 키도 올린다. 그리고 바람 부는 쪽으로 뱃모리를 겨냥하고 밀려야 한다. 그리고 이물에 있는 나가리줄을 물에 풀어준다. 이를 뱃사람들은 '나가리줄을 찬다' 라고 말한다.

나가리줄은 어느 배든지 준비해 가지고 다니는 두꺼운 밧줄로 흔히 뱃사람들은 생명줄이라고 말한다. 배가 밀리면 뱃머리를 반드시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향한다. 바람이나 파도에 등을 보이거나 옆을 보이면 배가 지기 때문이다. 배가 지는 것은 파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바람과 맞서는 형태여야 한다. 이물에서 나가리줄을 차면 줄이 물 속에 길게 늘어지면서 잠기기도 또 해저 지면을 끌기 때문에 무거워서 배가 쉽게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의 롤링이 줄어들며 안정된다. 왜냐면 배가 파도를 타면서도 파도와 함께 움직이며 안정시켜 주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것은 나가리줄이 바다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걸려버리면 파선되기 때문이다. 또 바람이 심하면 나가리줄에 돌을 달아 띄우기도 한다. 그리고 어장질 하는 그물을 잘 엮어매고 양쪽을 줄로 묶어 배앞으로 떠넘긴다. 역시 나가리줄과 같은 기능을 하며 배가 바람의 방향과 달리 틀어지면 한쪽을 잡아당겨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파도가 세더라도 배가 들지 않고 파도를 타면서 돛방돛방 떠밀려 간다. 만일 나가리줄을 채우지 않으면 옆으로, 뒤로 돌아서 배가 침몰하고 사람도 죽는다. 나가리줄 채우는 것은 바람에 밀리면서도 지지 않는, 바람을 이기는 비결이다. 그물을 묶어서 바다에 띄우는 먼

배가 바람과 파도를 더 잘 이긴다. 지금의 안강망 어선도 반드시 나가리줄을 갖고 다닌다. 중선 배는 돌을 안채우고 줄만 이삼백발 준다. 나가리줄 하나면 바람과 파도에 퍼덕거리면 어디까지 밀려도 파선되지 않는다. 풍선시대나 기계배 시대나 모두 나가리줄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이 어부들의 생명줄이다. 돛대는 완전하게 묶어놨다 배질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면 풀어서 돛을 세운다. 그럴 경우에도 온돛을 달지 않고 앞돛만 조금 풀었다 바람 상태를 보아 가면 점차 돛폭을 늘린다.

바람에 밀려 아래로 내려가면 역풍을 타고 올라와야 하는데, 이때도 항해하는 방법이 있다. 풍선은 바람을 맞고 정면으로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바람을 이용하여 갈지자로 지그재그식으로 거슬러 올라온다. 옆바람에 지그재그로 하니 배에 물이 넘을 정도로 항진한다. 이때 바람과 조화를 잃으면 배가 넘어간다. 그러므로 그 정도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람을 이기려고 하면 배가 넘어간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바람을 풀어주라'고 표현한다.

풍선배 사공(선장)들은 오직 경험과 지식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다. 오늘날 기계배 선장들은 기계에 의지해서 레이더를 보고 일기예보 듣고 항해하기 때문에 오직 기계에만 의지한다. 풍선배 시절 사공들은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 항해했다. 밤이나 안개 낀 경우에도 다녀본 경험과 물길을 아는 지식으로 다닌다. 그러므로 풍선배 선장들은 항해해 본 바다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물을 놓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쇠(나침반)를 놓고 그 밑에 한 발정도 되는 실에 작은 돌을 달아서 물에 띄우면 실이 물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여 조류의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그물을 놓는다. 이때 띄우는 실을 물술이라고 한다. 썰물이 되었다 물이 느려지고 차츰차츰 물이 돌아서 다섯물쯤 되어서 들어오면 그때 물술의 방향을 보고 그물을 놓는다. 칫사공은 뒫도모에서 항상 조류를 보면서 물의 느리고 빠른 것을 측정하면서 그 시간을 잡는다. 이것을 '물상정을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공은 한번 출어하면 방안에서 잠을 못잔다. 물상정은 사공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날을 바다에서 보내면 눈병이 난다. 선주가 사공보기가 안타까우면 조기 상고선에게 안약을 구해오도록 부탁하기도 한다.

풍선배 노는 두가락이나 세 가락이다. 유자망인 경우 배 옆구리에 거는 노를 젓노라고 하고 고물에 거는 노를 하노라고 한다. 젓노는 한사람이, 하노는 두사람이 젓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노는 양쪽에서 젓지 못하고 나란히 서서 젓는다. 젓노는 배 돌아가는 방향을 조정한다. 일기를 관측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별이 물을 먹어 깜빡거리면 비가 올 것으로 짐작한다. 그리고 해뜨고 해지는 북새와 노을을 보고 바람을 짐작한다. 영리한 사공은 어장에 안 나간다. 그것을 모르면 어장 나가 태풍에

사람 죽는 일이 많다. 뱃사람들은 쓸개라는 무지개를 보고 일기를 예측한다. 쓸개란 무지개의 일종인데, 무지개는 둥그렇게 생기는데 쓸개란 것은 일부만 비쳐서 희멀겑게 보인다. 그러면 날이 크게 꺾을 것으로 예측한다. 쓸개가 보이면 반드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기 때문에 '위마 날긋히졌어 야' 하고 어장을 중지한다. 섬사람들은 웬만하면 삼일 청기는 볼 줄 안다. 또 하누바람을 보고 일기를 짐작한다. 하누바람이 불면 어장을 중지하고 배를 감춘다. 또 절거리(절기)에 따라 일기를 예측한다. 절거리를 보면 틀림없이 절거리에 따라 기상이 변한다. 그래서 '오늘은 먼 절거리께 날긋히졌다' 라고 예측하는데, 그 절거리가 되면 틀림없이 바람이 분다. 절거리는 옛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일기예보 달력이다. 그런데 절거리에는 전 삼일 후 삼일이 있다. 당일에는 변화가 없어도 전후 삼일에 꼭 바람이 분다.

비금도의 풍선배를 그리면 아래와 같다. 돛대 세 개를 세운 삼분바시(삼대전)를 많이 탔다. 돛대는 뒤로 갈수록 크다. 돛대 달고 귀선하면 보기에 좋았다. 고기를 잡으면 그날 그날 들어온다.

## 5) 설화

### (1). 삶터이야기

#### 1-1. 지명이야기

##### 1-1-1. 원평마을 원평리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1	2000.6	이준곤 외	문기주(남,74)외	원평리	『도서문화』제19집	지명설화

#### □ 개요

원평이란 지명이 '평평하고 굴곡이 없다.'는 지형의 생김새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유래 담이다.

##### 1-1-2. 수도리마을 고운정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2	2000.6	이준곤 외	강영복(남,70)	수도리 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설화

#### 1) 개요

고운정이란 샘은 수도마을 뒷산 목기미 수도산 정상에 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의 양이 줄지 않고 솟아오른다고 한다. 샘의 유래는 최고운 선생이 중국 사신으로 갈 때 이 산 정상에다가 봤다고 한다.

### 1-1-3. 수도마을 나룻구지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3	2000.6	이준곤 외	강영복(남,70)	수도리 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 개요

나룻구지는 도깨비나 귀신이 많이 출몰한다는 곳이다.

### 1-1-4. 가산마을 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4	2000.6	이준곤 외	양판남(남,76)	가산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 개요

산이 예쁘게 생겼다해서 가산이라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 1-1-5. 가산마을 떡볶이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5	2000.6	이준곤 외	양판남(남,76)	가산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 개요

비금도 형성과 관련된 지명전설이다. '홍단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빨래를 하다가 "떠온다 떡볶이산 떡산 떠 온다"고 했다. 그러자 한토막이 갈라져서 서울로 가버리고 한 토막은 여기로 앉아 비금이 되었다고 한다.

### 1-1-6. 나배마을 떡볶이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6	2000.6	이준곤 외	최윤희(남,80)	나배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떡피산이 떠올 때 ‘긱은 빨래’를 하다가 “떡피산 떼다 떡뭇산 떼다 떡피 떡산 떠 온다”고 하여 산이 주저 앉아 버렸다고 한다. 광주나 목포까지 갔더라면 더 명산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다.

1-1-7. 나배마을 덕산이 떡메산 된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7	2000.6	이준곤 외	조판남(남,76)	나산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떡피산을 옛날에는 ‘큰 덕자 피산자’ 덕산이라 했다. 옛날에 용소에 연방죽이 생길 때 용이 뚫고 나가자 이 떡피산이 그 용이 나가서 떡피산이 떠 다니니까 “떴다 떴다 떡피산 떴다” 그런데서 연유했다고 한다

1-1-8. 신유마을 뉘죽은여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8	2000.6	이준곤 외	김문식(남,76)	신유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누나와 처가 굴을 따러 갔는데 파도가 일어 처만 데려오고 누나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뉘 죽은 여’라고 부른다.

1-1-9. 도고리마을 떡메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9	2000.6	이준곤 외	이상근(남,79)	고도리 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떡메산에는 장군이 둔 바둑판이 있다고 한다. 떡메산이 그대로 앉았으면 서울이 비금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1-1-10. 죽치리마을 기림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10	2000.6	이준곤 외	최승정(남,60)	죽치리 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원래는 민등산이었는데 솔씨를 가져다 심어 소나무가 퍼지고 대나무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성질도 그 지형을 따라 간다고 죽치리 사람들의 성격은 대쪽 같다고 한다.

1-1-11. 죽치마을 마을유래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11	2000.6	이준곤 외	최순관(남,63)	죽치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옛날엔 '늑두발머리' 라고 했는데 일설에 의하면 산에 대가 많아 대 죽자를 써서 죽치라 했다 한다.

1-1-12. 내촌마을 선왕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12	2000.6	이준곤 외	강대주(남,74)	내촌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내촌마을에는 선왕산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들이 놀은 터라 해 선왕산이라 한다.

1-1-13. 용소마을 용소와 용혈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1-1-13	2000.6	이준곤 외	손정길(남,70)	용소마을	『도서문화』제19집	지명 설화

□ 개요

산봉우리에 용방죽이 있었는데 용이 용소에서 살다가 빠져나간 구멍 용혈이 있다. 여자가 굶은 빨래와 피빨래를 하다가 떡메산이 떠온다고 해서 부정이 타 용이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2) 내력 · 인물 이야기

2-1. 입도조 이야기

2-1-1. 용호마을 입도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2-1-1	2000.6	이준곤 외	김상용(남,73)	용호마을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비금의 입도조가 유씨네 선조라는 인물설화다.

2-1-2. 월포마을 입향조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2-1-2	2000.6	이준곤 외	김상용(남,73)	용호마을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월포마을은 150년 정도 되었다. 원래는 바다였는데 개간을 해서 땅 생겼다. 전주 이씨가 들어와 마을이 형성되게 되었다.

2-3. 효자 · 효녀 · 열녀이야기

2-3-1. 정씨 할매 열녀각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2-3-1	2000.6	이준곤 외	김귀옥(남,65)	학교리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학교 옆에 열녀비가 있는데 정씨 할머니 열녀비다. 할아버지가 배를 탔다가 실종이 되었는데 함운리라는 곳에 선산이 있는데 그 곳으로 시체가 떠밀려왔다. 그때 할머니가 그 시체에 입을 맞추고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래서 김씨 집안에서 열녀각을 세웠다.

2-3-2. 열녀 김도성 처 최씨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2-3-2	2000.6	이준곤 외	김정운(남,64)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김도성의 처 최씨가 18살에 남편이 죽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7년 간을 망에서 잠을 잤어고 관을 보듬고 초분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

2-3-3. 수도마을 5효자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2-3-3	2000.6	이준곤 외	강영복(남,78)	수도마을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효자암은 사람이 무릎을 꿇어앉은 그런 형상으로 있다. 부모가 죽자 묘 앞에 움막을 치고 시묘살이를 3년 동안했다는 이야기가 수도마을에 전해오고 있다.

2-3-4. 내촌마을 효자봉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2-3-4	2000.6	이준곤 외	강대주(남,74)	내촌마을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내촌마을에서는 5효자가 나왔다. 김씨네에서 3효자, 강씨네, 정씨네이다. 한 효자는 아버지가 생선을 묵고 싶다고 하면 겨울에도 나가서 생선을 구해오고, 한 사람은 3년 상을 빈소에서 시묘살이를 하는 등 효자들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다른 마을에 비해 내촌마을에서 효자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3) 생활이야기

3-2. 파시이야기

3-2-1. 원평 파시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3-2-1	2000.6	이준곤 외	조규대(남,64) 김광은(남,69)	원평마을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3월달부터서 어장이 시작되면 그 곳에 집터가 생긴다. 다음 철에 다시 집터를 찾아가고, 황서리, 강다리를 잡고 올라오는 조기를 잡기도 했는데 해방 이후 사라지고 말았다고 한다.

3-2-2. 송치 파시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3-2-2	2000.6	이준곤 외	이춘길(남,79)	송치마을	『도서문화』제19집	인물 설화

□ 개요

송치 파시는 4월에 시작되어 9월에 끝난다. 양력 5~6월 달에가 황서리인 강다리 파시가 서고, 3~4월 달 연평도로 조기를 잡으러 간다. 조기가 끝나면 내려오면서 병치, 갈치를 잡는데 송치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이 나왔다. 파시가 끝나면 철거해버리고 다른 곳에 서는 파시를 따라 갔다. 아가씨들이 많을 때는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이는 그 만큼 송치 파시가 성황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송치는 원래 솔치라고 했다.

### 3-4. 풍속이야기

#### 3-4-1. 용소마을 햇불싸움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3-4-1	2000.6	이준곤 외	손정길(남,70)	용소마을	『도서문화』제19집	풍속 설화

##### □ 개요

옛날에 '불저름'이라는 불싸움을 했다. 망(솔밭)으로 톱과 도끼를 가지고 가서 소나무를 꺾어 불을 피워 놓는다. 불이 오래도록 남아 있어야 이기게 된다. 불싸움에서 이기면 감기도 안 들고 농사도 잘된다고 해서 불저름을 했다.

#### 3-4-2. 밤다래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3-4-2	2000.6	이준곤 외	정막동(남,75) 황춘자(여,72)	용소마을	『도서문화』제19집	풍속 설화

##### □ 개요

마을에 초상이 나면 상조계를 중심으로 밤달애를 하는데 금고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노는 것을 말한다.

#### 3-4-3. 고도리마을 밤다래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3-4-3	2000.6	이준곤 외	강유정(남,76)	용소마을	『도서문화』제19집	풍속 설화

##### □ 개요

'다래'라는 것은 송장을 지킨다는 말이라고 한다. 모닥불을 피우고 송장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빙 둘러 앉아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하면서 밤새 지키는 것을 밤다래라 한다.

### (4) 초자연적 이야기

#### 4-1. 당 이야기

#### 4-1-1. 용소마을 당산제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4-1-1	2000.6	이준곤 외	정막동(남,75) 황춘자(여,72)	용소마을	『도서문화』제19집	당설화

##### □ 개요

60년 전 까지만 해도 당 앞을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무의식중에 지나갔다가 탈이 나면 앞에서 다시 빌고 했다. 정월보름이면 마을 전체가 모여 당제를 지냈다.

#### 4-1-2. 용머리 기우제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4-1-2	2000.6	이준곤 외	조대규(남,64) 문기주(남,74)	가산리	『도서문화』제19집	당설화

##### □ 개요

용머리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송아지를 잡았다.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샘을 파고 물이 나오면 목욕재계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 부정을 타면 안되기 때문에 금줄을 쳐서 굶은 것은 접근을 못하게 했다.

#### 4-1-3. 가산리마을 기우제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4-1-3	2000.6	이준곤 외	양관남(남,76)	가산리	『도서문화』제19집	당설화

##### □ 개요

기우제를 지낼 때 각 호마다 보리쌀을 한 되씩 건어 그 비용으로 기우제를 지냈다. 소를 잡아서 바다에 넣고 깨끗하게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 4-3. 도깨비이야기

##### 4-3-1. 신유마을 도깨비 잡은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4-3-1	2000.6	이준곤 외	김문식(남,76)	신유마을	『도서문화』제19집	도깨비 설화

□ 개요

영감이 친구들에게 도깨비불을 보고 도깨비를 잡아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가서 잡아 기둥에 묶어 두고 다음 날 아침에 봤는데 빗자루 몽둥이었다고 한다.

4-3-2. 신유마을 도깨비불 이야기

번호	조사일시	조사자	제보자	주소	출처	비고
4-3-2	2000.6	이준곤 외	김문식(남,76)	신유마을	『도서문화』제19집	도깨비 설화

□ 개요

설날 저녁 산에 올라가서 도깨비불을 보고 고기가 어디에서 많이 잡힐 것인지 점을 쳤다.

6) 민요자원

(1) 개요

비금도의 민요중에서 주목할 것은 강강술래다. 현재 수집된 강강술래 자료들은 문화재 출전 경향이 있는 강강술래와 그렇지 않은 강강술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후자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진도 해남 강강술래가 표준화된 강강술래로 인식되고 있다.

비금도 강강술래는 강강술래 분포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비문화재권의 강강술래에 속한다. 비금도 강강술래의 조사 연구는 한국 해양민속놀이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강강술래의 외연적, 내연적 의미확장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비문화재권 강강술래의 의미 복원이자 강강술래 연구영역의 확장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채록된 비금도의 민요 제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01 비금도 죽림 상암마을 밤달애 소리 1

- 남사당소리(서장가, 주문가, 밤달애노래, 매화타령)

102 비금도 죽림 상암마을 밤달애 소리 1 - 상여소리(계원들 소리)

103 비금도 죽림 상암마을 밤달애 소리 1- 잡가(개미타령, 다리타령, 신세타령, 단지타령,

시누타령, 이타령, 장모타령, 산풀베는노래)

104 비금도 죽림 상암마을 밤달애 소리 2

105 모찌는 소리 - 먼디요 소리

106 모심는 소리 - 사허뒤야

107 논매는 소리 1 - 에랑에절싸

108 논매는 소리 2 - 어기더기

109 논매는 소리 3 - 절래소리

110 도리깨질 소리 - 어여화야

111 들깨꼭지

112 미역따는 소리

113 아이 어르는 소리 - 딸타령

## (2) 비금도 강강술래의 분포권

### ① 비금도의 역사문화 집결지 동부권

동부권은 광대리(당두,광대), 용소리, 도고리, 가산리(가산,나배)와 지당리의 일부인 우산과 당산이다. 이 술래권은 비금도에서 주민들이 처음 살기 시작한 곳으로, 비금도의 역사자원과 고고학적 문화자원이 집중된 권역이다. 이 권역에 속한 8개 마을 청년들이 용소리 소재 비금 동초등학교에 모여서 강강술래를 했다. 이것은 가장 큰 마당인 학교 운동장이 권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부권은 지당리의 당산마을 뒷산인 마산을 경계로 하여 중부권과 구분된다. 지당리의 동부인 당산과 우산은 동부권 중심지와는 낮은 구릉지대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728년 이전의 지형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당산마을 뒷산을 경계로 가까이 등을 대고 있는 지동, 신유와 같은 술래권을 만들지 않고 보다 먼 거리에 있는 동부권으로 술래권을 엮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 13년 전까지 술래판이 유지된 것은 문화적 보수성이 강하여 전통적 문화인자들을 오래 보존했으며, 또 개발에 의한 변화를 적게 겪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점은 앞으로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② 교육 행정의 중심지이자 신개발지 중부권

중부권은 비금도의 교육·행정의 중심지로 비금도 술래권 중 가장 큰 판을 형성한다. 이 권역에 비

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면사무소가 있다. 그리고 서부권과는 기림산이 속한 선왕산 줄기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중부권에 속한 지당리(지동, 신유), 구림리(수림, 용호, 구기), 신원리(자항, 신촌, 평림), 고서리(고마막, 서산), 덕산리(한산, 망동, 덕대, 읍동), 죽림리 상암은 중앙초등학교(현재의 비금초등학교)에 모여서 강강술래를 했다.

중부권에는 두 개의 술래판이 존재했다. 제1의 큰 판은 중앙초등학교 마당이었고, 중부권에 예속된 제2 술래판이 대광초등학교 마당이였다. 즉, 큰 술래 판이 자항에 소재한 중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꾸며졌으며 소규모의 또 다른 술래판이 대광 초등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제2 술래판은 학교가 소재한 신유마을을 중심으로 지동, 신유, 수림, 용호 마을 등 낮은 구릉과 평야지대의 마을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부권과는 신유마을 뒷산을 경계로 하고, 또 중앙초등학교판도 역시 신촌의 뒷산을 경계로 한다.

중부권의 두 술래판 구도는 매우 흥미로운 관심거리다. 실제로 대광초등학교판은 낮은 구릉지를 매개로 서로 연결된 마을들의 술래판이지만 제1의 판이라고 보는 중앙초등학교 술래판은 172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덕산리 들판이 바다였기 때문에 바다를 경계로 하고 있어 한 술래판을 만들기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고서리와 덕산리가 바다를 경계로 서로 떨어진 지역이었지만 1728년부터 1909년 사이에 매립되어 육로로 연결된다. 덕산들은 1728년부터 1909년 사이에 매립되어 농지를 비롯해 대단위 유희토지가 확보된다. 그로 인해 대단위 부지가 소요되는 학교 건립과 관공서 건립이 가능해져 그 일대가 부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큰 술래판을 형성했고, 보다 오래 되었다고 판단되는 대광초등학교 술래판도 흡수한 비금도 중심 술래권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비금도 술래권은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의 3권역으로 구분된다. 비금도 술래권을 표로 그리면 <표 2>와 같다.

### ③ 중부권과 교류한 민속문화 집결지 서부권

서부권인 죽림리(임리, 죽치), 내월리(외촌, 내촌, 월포, 내포), 수대리(대두, 수도, 송치)는 죽치 마을에 소재한 비금 서초등학교에 모여서 강강술래를 했다.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중부권역으로 강강술래 원정을 가기도 하고, 중부권역에서 서부권역으로 원정을 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덕산리와 내월리를 경계짓는 선왕산 줄기를 넘거나 우회하여 권역 이동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서부권역 사람들은 서부강강술래 판이 제일 컸다고 말하고 있으며, 중부 사람들은 중부의 강강술래

판이 제일 컸다고 말하고 있다. 마을의 숫자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중부권역이 제일 큰 강강술래 판이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서부권은 밤달에 놀이를 비롯해 당제와 뱃고사를 지내는 등 민속문화가 왕성한 곳이다.

〈표 2〉 비금도 술래권 분류표

권역별	술래판 장소	참가마을	비고	우세순위
동부권	비금동초등학교 (용소마을소재)	광대리(당두)	13년 전까지(선인단의 40세까지) 강강술래를 했음. 용소, 도고마을이 비교적 큰 마을이어서 강강술래가 근래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임. 면담자: 박우자(여,45세,가산리) 선인단(여,53세,용소)	3
		용소리		
		도고리		
		가산리(나배)		
		지당리(우산·당산)		
중부권	중앙초등학교	대광 분교	30여년 전인 1970년까지 중앙초등학교에서 강강술래를 했음. 명길덕의 31세 된 작은아들을 낳고부터 중단됨. 서부 비금 서초등학교로 원정하기도 했음(이때는 대광초등학교 설립이전으로 판단됨) *동부, 서부의 강강술래 세력 우열은 진술자에 따라서 달라짐 면담자 : 천순예,(여,81세,원평) 문귀송(남,74세,원평) 김영준(남,71세,원평) 김정옥(여,64세,죽림리) 김길동(남,65세,죽림리) 명길덕(여,57세,고서리)	1  (대광 분교4)
		지당리(지동·신유)		
		수림·용호(구림리)		
		구기(구림리)		
		신원리(자항,신촌,평림)		
		고서리		
		덕산리		
죽림리(상암)				
서부권	비금서초등학교 (죽치마을소재)	죽림리(입리·죽치)	29년 전까지 강강술래를 했음. 중부권 중앙초등학교로 원정하기도 했음. 면담자 : 박일동(남,86세,내촌) 고연덕(여,71세, 내촌) 문양심(여,49세,죽림리)	2
		내월리		
		수대리		

(3) 비금도 민요 주요내용

남사당소리-서장가

남사당소리 - 서장가	죽림 상암	신안군지
-------------	-------	------

이리경사 / 특떨어진 경사 / 사당년 새끼 똥구멍에

술비배 영고(넣고) / 대장부 연장으로 용수만 박아라  
잘했다 매화로구나 / 서울 서방님네 오셨다가  
서운해 섭섭하여 / 막걸리 스물일곱동우  
들어막으구나 막그나 / 예화 매화로구나 / 잘했다 매화로구나

남사당소리-주문가

앞도리도 당산 / 뒷도리도 당산 / 씨야시는 대방 물레는 궁굴동  
고물 고물 고사공 이물 이물 이사공 / 허리때 밀이 화장하야  
물들어온다 배떡어라 / 해~ 나무 북방이로다/정월 대보름달  
앵매기 연이떴네 떠 / 이월 한식날 / 수조구 대가리가 떴네 떠  
사무얼 삼짓날 / 연자새끼가 떴네 떠 / 사월초파일날  
관등불이 떴네 떠 / 오월 단오날 / 춘향이 추천이 떴네 떠  
유월 유두날 / 개떡바구니 떴네 떠 / 저렇게 등덩실 높이만 떴고나  
헤에야헤에 / 높이만 떴네 높이만 떴네 / 저렇게 등덩실 높이만 떴고나  
헤에야헤야 / 높이만 떴네 높이만 떴네  
저렇게 등덩실 높이만 떴고나 / 헤에야헤야 /

---

밤달애노래

나부작 나부작 소구 등거리 / 거사사당은 다 어따 두고야  
저렇게 등덩실 높이만 떴고나 / 헤에야헤야  
높이만 떴네 높이만 떴네 / 저렇게 등덩실 높이만 떠  
헤에야헤야 / 어따 저놈의 가스낙년아  
머리만 굽적말고 밥차려라야 / 밥술에 이가 떨어져서  
굽실감실한고나 / 헤에야헤야 / 굽실감실한다 굽실감실한다  
밥술에 이가 떨어져서 / 굽실감실한고나 / 헤에야헤야  
놈의나 나무를 지나문 듯이 / 지게 목발데로 담어지고야  
저건네 뻔탈질로만 / 들고 도망간고나 / 헤에야헤야  
도망을 간다 도망을 간다 / 저건네 뻔탈질로만 / 들고 도망간고나  
헤에야헤야 / 어디로 가자고 소근네속작 / 어디로 가자고 지근네자근  
저건네 술폭 밀으로 / 잠자러 갈고나 / 헤에야헤야

잠자러 가세 잠자러 가세 / 저건네 술폭 밑으로  
 잠자러 갈고나 / 헤에야헤야 / 어디로 가자고 날 조르나  
 어디로 가자고 날 조르나야 / 서천에 개주로 개조로  
 술뱅장사 갈고나 / 헤에야헤야 / 술뱅장사 가세 술뱅장사 가세  
 서천에 개주 개주로 / 술뱅장사 갈고나 / 헤에야헤야  
 떠나려온다 떠나려온다 / 청천한 기리기 떠나려 온다야  
 청천한 기리기 떠나려 온고나 / 헤에야헤야  
 떠나려 온다 떠나려 온다 / 청천한 기리기 떠나려 온고나  
 헤에야헤야 / 온방에 돈방 뱅뱅에 도리 / 하느작 하느작 날실러 온다야  
 하느작 하느작 날실러 온고나 / 헤에야헤야  
 날실러 온다 날실러 온다 / 하느작 하느작 날실러 온고나  
 헤에야헤야 / 어따 저놈의 가스낙년아 / 어둠침침한 데 가지를 말어라  
 수모사 접저고리가 실룩살룩한고나 / 헤에야헤야  
 실룩살룩한다 실룩살룩한다 / 수모사 접저고리가  
 실룩살룩한고나 / 헤에야헤야 / 이리 둘러서 날속이고  
 저리 둘러서 날속이고야 / 머무리 둘러 둘러서 날속여 낸고나  
 헤에야헤야 / 날속여 낸다. 날속여 낸다 / 머무리 둘러 둘러서 날송여 낸고나  
 헤에야헤야 / 올똥에 볼똥 저남산 보아라 / 우리도 죽으면 저모냥 되노라  
 우리도 죽으면 저모냥 된고나 / 헤에야헤야 / 저모냥 된다 저모냥 된다  
 우리도 죽으면 저모냥 된고나 / 헤에야헤야 / 날잡어 가그라 날잡어 가그라  
 꾀삿테 똥챗아 날잡어 가그라 / 꾀삿테 똥챗아 날잡어 갈고나  
 헤에야헤야 / 뒷동산에 비사릿대는 / 꽃감에 꼬쟁이로 다들어 간다야  
 꽃감에 꼬쟁이로만 다들어 갈고나 / 헤에야헤야 / 다들어 간다 다들어 간다  
 꽃감에 꼬쟁이로만 다들어 갈고나 / 헤에야헤야 / 뒷동산에 박달나무  
 흥두께 방망이로 다들어 간다야 / 흥두께 방망이로만 다들어 갈고나  
 헤에야헤야 / 다들어 간다 다들어 간다 / 흥두께 방망이로만 다들어 갈고나  
 헤에야헤야 / 흥두께 방망이 팔자가 좋아 / 큰애기 손질로 다똥아 진다야  
 큰애기 손질로 다똥아 진고나 / 헤에야헤야 / 다 똥아진다 다 똥아진다  
 큰애기 손질로 다 똥아 진고나 / 헤에야헤야 / 한길 가운데 쪿갱이 녁쿨  
 한량에 발질로 다 똥아 진다야 / 한량에 발질로 다 똥아 진고나

헤에야헤야 / 다 닳아 진다 다 닳아 진다 / 한량에 발질로 다 닳아 진고나  
헤에야헤야 / 한길 가운데 정자나무 / 자동차 바람에 다 닳아 진다야  
자동차 바람에 다 닳아 진고나 / 헤에야헤야 / 다 닳아 진다 다 닳아 진다  
자동차 바람에 다 닳아 진고나 / 헤에야헤야 / 못하나것네 못하나것네  
참아도 서러워서 못하나것네야 / 참아도 서러워서 못하나것고나  
헤에야헤야 / 못하나것네 못하나것네 / 참아도 서러워서 못하나것고나 / 헤에야헤야

논매는소리2-어기더기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우리야 할매 늙어나 이야기 하믄 / 여망에 사재가 지아로 나지야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새내끼 백발은 쓸 디가 있어도 / 백발에 노인은 쓸 디가 없네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유자는 엮어도 한량 손에 놓고 / 호박은 고와도 풀섶발에 논다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이야שמ에 물몰라 히야이 하믄 / 하날에 임네가 지아로 나지야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홍들개 방망이 팔자가 좋아 / 큰애기 손질로 다 닳아진다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모시베 삼베 연엽이 숨씨 / 신선배 간장이 다 녹아난다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못하나 겹네 못하나 겹네 / 차마도 서러워서 못하나 겹네  
어기더기 봉문에 이야기였네 / 곰실곰실 니가 놀아나 나지야

비금도 강강술래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달가운데 노송나무 / 강~강 수월~래  
금도끼로 찍어내어 / 강~강 수월~래  
은도끼로 다듬어서 / 강~강 수월~래

초가삼간 집을지어 / 강~강 수월~래  
 양친부모 모셔다가 / 강~강 수월~래  
 천년만년 살고지고 / 강~강 수월~래  
 물팍 밑에다 골매 잃고서 / 골매 찾기가 난감하도다  
 비여리여리 비여리여리 /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비자 나무에 연이 걸려 갔네 / 머리 꼬지에 바늘 잃고서  
 바늘 찾기가 난감하도다 / 비여리여리 비여리여리  
 비자나무야 비자나무야 / 비자 나무에 연이 걸려 갔네

### 3. 민속문화자원의 활용방향

#### 1) 지표조사의 기본방향과 성과

##### (1) 자원화를 염두에 둔 지표조사

이번에 이루어진 지표조사는 기존의 작업과 큰 차별성이 있다. 기존 작업이 자료를 찾아 조사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사업에서는 자원화를 전제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 (2) 자원화를 위한 자료 정리·의미 부여

민속문화가 문화자원으로서 큰 가치가 있지만 그 자체가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자원화 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분류와 가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쓰임새에 걸맞는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그점을 특별하게 강조하여 기존 작업까지 망라한 연구를 수행했다.

문화콘텐츠와 DB화를 염두에 두고 항목 설정을 하고 자료를 정리했다. 자료마다 의미 있는 항목들을 설정하여 통일화된 체제로 정리해둠으로써 추후 본격적인 자원화가 진행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금도의 어로문화적 특성이라면, 낚시어업과 망어업 그리고 갯벌어로의 중간지대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신안군의 경우라할지라도 압해도의 갯벌어로지역과 흑산도의 깊은바다 어로지역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비금도의 경우, 압해도나 흑산도의 중간지대적 특성을 보여주

는 사례들이 나타난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다.

비금도 강강술래는 <고대 해양문화권의 보름제의 가무>에서 <남녀 짝짓기 가무의 시대>를 거쳐 <문화재 시대의 시련기>를 겪으면서 소멸하고 있다. 문화의 시대란 문화력의 확장을 의미하는 시대라고 볼 때 소외된 문화자원의 문화 생산력 회복도 이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이제 사이버 시대에 들어서 강강술래가 어떤 모습으로 재해석되어 부각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강강술래 조사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 (3) 새로운 자료의 발굴 및 확대

이번 지표조사를 통해 밤달애 남사당놀이의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주목하였다. 전승과정이나 수용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비금의 무당굿에 대해서 새로운 자료를 소개하고 정리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비금도의 초분

## 2) 활용방향

### (1) 지역적 특색 및 창조적 수용력을 강조한 활용

비금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금면의 민속문화자원을 소재로만 여기지 말고 원리와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밤달애에서 남사당놀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금면에 전승되고 있는 남사당놀이에는 창조적 문화 전승의 맥락이 담겨 있다. 그것을 주목하여 우리 시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는 원리로 되새길 필요가 있다. 남사당놀이는 공연을 통해 관광 자원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문화 창조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사당놀이의 문화적 가치를 정리해 필요가 있다.

첫째, 축제식 장례풍속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풍속은 흔히 알고 있는 유교식의 家禮 절차가 전부가 아니다. 엄격한 절차를 강조하는 가례가 상층에서 하층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민속적인 장례는 축제식으로 진행되는 장례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隋書〉 고구려전(初經哭泣 葬則鼓舞作樂 以途之)에서 보듯이 운상을 할 때 북을 치고 춤을 추는 모습이 고래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상가에서 노래와 춤을 추며 노는 밤달애는 이런 전통을 계승하는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밤달애놀이는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놀이와 웃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놀이다. 남사당노래에 性에 대한 사설이 많은 것도 이와 관련된다. 엄숙해야 된다고 여기는 초상집에서 이토록 솔직한 성정을 노래하는 것은 죽음을 관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민속적 사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장례를 현세적 삶과 연결지어 사고하는 민중적 현세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신안 비금도 밤달애는 민속문화의 지속적 전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공동체적 유대를 보여주는 장례민속이다.

밤달애는 마을 공동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민속이다. 신안 비금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는 지금도 초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상가에 모여 상주를 위로하기 위해 노래하고 춤을 추며 논다. 그리고 상두계·호상계의 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공동의 일로 간주하여 상가 일을 거두고 運喪을 한다. 이렇듯 공동 노동과 공동 놀이의 공동체적 유대 속에서 운상, 의례, 놀이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초상은 집안 단위의 일이지만 공동체적 유대가 강한 곳에서는 대개 마을 단위로 치러지는 게 일반적이다. 신안 밤달애는 이런 공동체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장례놀이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속의 창조적 수용 과정을 보여준다.

밤달애는 외래의 새로운 양식이 들어와 수용되고 정착되면서 전승되어왔다. 이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개방성 및 창조적 수용 태도와 관련이 있다. 밤달애에서 진행되는 남사당노래는 본래 유랑 예인 집단의 연희 종목이었으나 주민들이 밤달애라는 장례 공간에 수용하여 민속연희로 정착시킨 것이다. 떠돌이패의 연희를 자신들의 축제식 장례 전통에 끌어들이 정서적·놀이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민속의 변용과 재창조 원리를 담고 있으므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2) 권역적 전승양상 및 타분야와의 연계를 고려한 활용

비금면의 역사와 문화는 권역별 전승 양상을 보여준다. 이를 고려하여 다른 분야와 연결해서 활

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부권은 농사가 많고 유교적 유풍이나, 역사문화적 유적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당제나, 장승, 우실, 강강술래, 설화 등을 이런 문화적 특징과 연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내월리 내촌의 당제, 월포의 산제와 장승, 내촌의 우실 등을 역사 문화 유적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자·열녀와 관련된 설화가 대단히 많은데, 문화자원의 내력과 '이야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금을 '의미 있는' 곳으로 문화상품화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지명전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연자원과 생태체험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가 크다. 비금에는 지명과 관련된 각종 설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이것을 관광자원의 소재로 적극 활용해야한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내력이 있는 곳을 '의미 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3) 민속문화의 공연을 통한 관광상품화

죽림리 상암마을의 밤달애와 내촌의 강강술래는 공연화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토착적인 민속연회를 관광상품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있지만, 상시 공연장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우선 가능하다. 관광객들과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를 한다면 참여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오랜세월 동안 신안지역이 지녀온 남녀혼합가무로서의 강강술래의 특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런 문화적 역량들을 십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비금도 내촌강강술래에서 보이듯이 강강술래를 할 때 손수건을 주고받았던 관행은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비금도의 시금치와 어로문화적 특성을 손수건에 그려넣는다든가, 손수건 자체의 상품종류를 다양하게 시도하여 비금도 강강술래의 전통적인 맥락을 구현시킬 필요가 있다.

### (4) 해양민요로서의 비금도 민요 활용

서남해역 해양민요를 수집해 보면 서편인 서해안과 동편인 남해안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서해안에는 조기잡이노래 외에는 크게 부각된 노래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서편인 서해안 대부분이 갯벌지대로 어살어업에 주력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유명한 칠산 조기잡이 어장의 주력 부대들은 서해안 연안의 주민들이 아니라 진도 조도, 완도 청산도, 남해, 삼천포, 추자도 사람들이

다. 칠산 어장 연안의 어민들은 갯벌의 어살어업만으로도 자급자족에 충분했기 때문에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서해안의 도서 해양문화 조사연구에서 갯벌 중심의 연구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반해 동편인 남해안은 갯벌과 함께 어선어업이 발달하여 뱃노래가 많이 수집된다. 특히 멸치잡이노래가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뱃노래로는 거문도 뱃노래(멸치잡이노래), 광양 전어잡이노래, 가거도 뱃노래(멸치잡이노래), 조도 닻배노래(조기잡이노래), 위도 띠뱃노래(조기잡이노래), 등이 있다.

가장 흔하게 부르고 또 자료조사에서도 많이 수집된 것은 멸치잡이노래다. 멸치잡이노래는 흑산도를 경계로 서남해역의 동편인 남해안에 분포되어 있다. 조기잡이노래는 조도에서 영광, 위도 등 서편인 서해안에 분포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닻배노래이고 위도 띠뱃노래 중 술비소리가 조기잡이노래의 일부다. 전어잡이노래는 고흥군과 광양군에 분포되어 있어 멸치잡이노래와 유사한 분포권을 이룬다. 그러나 전어잡이노래의 분포는 더 확인해야 할 작업이다. 또 오징어타령, 게타령 등 어류에 관한 노래들이 수집되고 있다.

한편 서남해역에서 수집된 뱃노래 자료 중에는 일본 뱃노래의 영향을 받은 자료들이 많다. 분석적으로 보면 일본 뱃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경우, 설소리는 한국식으로, 받는소리는 일본식으로 결합시킨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은 여수시에서 완도군 사이에 주로 발견되고, 여수에서 많이 확인된다. 그 이유는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배를 타고 조업한 뱃사람들이 많고, 또 일본식 어구와 어법을 도입하면서 함께 수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기술도입이 일찍 이루어진 여수, 고흥, 완도에서 일본식 뱃노래가 많이 수집된다. 그리고 진도, 신안 등 서남부와 서해에서는 일본식 뱃노래가 수집되지 않았다. 이런 해역은 일본의 어구어법의 도입이나 기계배 도입이 늦어져서 뱃노래가 중단된 시기에 기술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5) 해양문화권 원무놀이의 원형질로서의 내촌강강술래

서남해 해양민요는 한국 해양문화를 노래 방식으로 형상화한 문화자원이다. 여기에는 뱃사람들의 꿈과 고난, 좌절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한국 민중문화의 핵심적 요소들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 조사 보고에서는 해양민요에 대한 상세한 조사연구가 실현되지 못했다. 앞으로 심화시켜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칠산어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뱃노래의 실상은 지금 알려진 조도 닻배노래와 위도 가래질소리에 국한되지 않고 상세한 조사를 수행하면 더욱 풍부한 민요자원들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칠산어장에 참여했던 삼천포, 남해, 청산도, 그리고 경기도의 여러 지역 민

요들이 통합적으로 연구되어질 때 칠산어장 뱃노래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멀치잡이 노래 또한 같은 실상이다. 이 조사에서는 상세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세조사연구를 위한 방향잡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또 어민들이 불렀던 어류에 대한 다양한 노래들이 있고, 또 갯벌어업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민요들이 그야말로 갯벌에 묻혀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조사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비금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불려졌던 강강술래를 보겠다. 강강술래의 사회사를 정리해 보면, 〈고대사회의 풍요제의 가무〉, 〈무정이 목격한 남녀 짝짓기 기능〉, 〈임진왜란 때 이순신장군에 의한 활용〉, 〈일제의 탄압과 저항을 담은 가무〉, 〈1965년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무대화〉, 〈여타 지역 강강술래의 소멸〉로 정리할 수 있다. 제의적 믿음이 중요시되던 해양문화 시대에 번영을 누리던 강강술래는 해안이 쇠퇴한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압박되어 양반마을에서는 여성전용 가무로 제한되어 그 저력을 숨기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만나 이순신장군을 통해 그 역량을 발휘한다. 일제시대에는 일제에 저항하는 가무로 부르다 금지당하였고, 한국전쟁 후 쇠퇴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보존되는 한편 무대 공연물로 재창조되었다. 그러나 문화재 시대에 소외된 대다수의 강강술래는 쇠퇴했다.

비금도 술래권은 기본적으로는 산이 술래판의 경계선을 긋고 있다. 산의 경계에 따라 강강술래 권역이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산을 경계로 하면서도 보다 큰 산이 경계를 이루는 중부와 서부는 서로 넘나드는 관계를 유지한 반면 보다 작은 산이 경계를 이루는 동부와 중부는 서로 넘나들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중부권역과 서부권역은 산을 경계로 하고 있지만 밭길을 걸어서 넘어 다니는 즉, 상호 원정하는 강강술래 판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를 당장 밝힐 수는 없지만 글쓴이의 생각으로는 마을간의 위계가 문화교류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부권에 속하는 마을들은 비금도의 개척기에 성립된 마을들로 비금도의 선사, 역사 유적이 모두 자리하고 있는 권역이다. 이는 마을 역사가 고대까지 소급됨을 증명하는 동시에 마을의 위계상 것들이다. 여기에 비해 중부와 서부지역은 주로 민속자료가 분포되어 있고 17세기 전후에 건설된 마을들로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했던 기층민들로 생각된다. 특히 중부권의 덕산 들판은 1728년부터 1909년 사이에 간척된 지역이어서 이 간척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하게 물산이 풍부해져 비금도의 경제력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강술래와 같은 민중 연희판이 집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강강술래는 서남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가장 신명나게 부르며 놀던 공동체 놀이다. 고달픈 삶의

일상을 매듭 지어주는 명절에 맞춰 풍요를 축원하고 신명을 발산하던 축제였다. 그래서 추석이 닥치면 높고픈 마음을 키우고, 옷을 준비하고, 이웃마을과 경쟁할 소리 연습도 하고, 보고픈 님에 대한 연정을 키웠다. 일상에서 이토록 기대를 갖고 같이 모여 노는 일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강강술래가 보다 각별한 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강강술래는 소망을 키우고 더불어 신명을 발산하는 공동체 놀이다. 이런 강강술래를 현행민속으로 재창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V. 주거문화자원

### 1. 주거문화자원 목록

#### 1) 주거개념

전통주택은 크게 나누어 주로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살던 집(民家)과, '양반'이라고 부르는 비교적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집(班家)으로 구별된다. 두 주택은 규모에서부터 세부모양까지 큰 차이가 있다.

民家란 하류계층이었던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이 살았던 집을 말한다. 과거 전통 사회에서는 현재와 달리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즉, 신분에 따라 지배계급인 상류계층과 피지배계급인 하급계층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 하류계층이었던 일반 백성들은 농업이나 어업, 공업 등 생산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여 살림을 꾸려 나갔다. 특히 많은 농민들은 양반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활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살림집인 주택도 그리 크지도 않았고 방이나 부엌 등도 꼭 필요한 수만 갖게 되었다.

전통민가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우리민족의 동질성이 있고 유무형의 다양한 전통 문화요소가 깃들여 있다.

이제 완형의 전통민가는 특별한 보존계획 하에 있는 특정 가옥(문화재 지정가옥 등)을 제외하고는 농어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과거의 주문화가 현대 주문화의 편리성에 밀려 더 이상 그 존재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없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1970년대 부터가 아닌가 한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본 과제가 추구하는 최종 조사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서민의 주거역사·문화 환경 정체성 확립
- ② 전통 주거를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주거역사 이론 정립 및 자료화
- ③ 지속 가능한 건축 공간, 형태, 건축 공동체 등을 찾아낸다.
- ④ 도서민의 정주환경을 역학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의 새로운 주의식 문화를 정립,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시한다. 이는 바로 문화자원화 개념과 연결된다.

## 2) 전통주거 조사

다음 <표 1>은 20C 중반 이전에 건립된 비금도의 전통주거 건립사례 목록이다. 이중 19C에 건립된 ①~④번 가옥은 필자가 1989년에 조사한 가옥인데 2003년 재 조사 확인결과 아쉽게도 모두 헐리고 터만 남아 있었다.

20C 초반에 건립된 가옥 중에는 고서리 서산마을 가옥이 많다. 이 마을은 18C 무렵부터 형성된 마을로 비금도 내에서 비교적 옛 가옥이 많고 마을 안 길 등도 옛 모습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

<표 1> 비금도 전통가옥 목록

순번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대	건물구성	비고
1	김남홍가옥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503(대두마을)	1800년대 中	안채	헐림
2	황현석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368(서산마을)	1856년	안채, 측간채	헐림
3	채용덕가옥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767(죽치마을)	1800년대 中	안채	헐림
4	황정채가옥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1147(월포마을)	1889년	안채	헐림
5	최형남가옥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19C 말	안채	
6	노정달가옥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내촌마을)	20C 초반	안채	
7	전순단가옥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월포마을)	20C 초반	안채	
8	공가 1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월포마을)	20C 초반	안채	
9	공가 2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월포마을)	20C 초반	안채	
10	김흥기가옥	신안군 비금면 도고리 2반 293	1940년대	안채	
11	박산훈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00(서산마을)	1900년대 초	안채, 헛간채	
12	문귀단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865(서산마을)	1920년대	안채, 측간채	
13	이별단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862(서산마을)	1920년대	안채, 측간채	
14	곽종윤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41(서산마을)	1925년경	안채, 사랑채	
15	이춘길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서산마을)	1925년	안채, 측간채	
16	공가 3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22(서산마을)	1930년대	안채, 헛간채	
17	황백철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04(서산마을)	1930년대	안채, 측간채, 헛간채	
18	황원달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81(서산마을)	1930년대	안채, 헛간채	
19	김계주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38(서산마을)	1936년	안채, 측간채	
20	김귀례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26(서산마을)	1940년대	안채, 측간채	
21	권오동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서산마을)	1940년대	안채, 측간채	
22	장춘자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서산마을)	1940년대	안채, 측간채	
23	황관술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37(서산마을)	1940년대	안채, 측간채	
24	유상윤가옥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17(서산마을)	1942년	안채, 측간채	
25	공가4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31(서산마을)	20C 초반	안채, 측간채	
26	공가5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08(서산마을)	20C 초반	안채, 측간채	

## 2. 주거문화자원 현황

### 1) 19세기경 주거

비금도 문화의 뿌리를 처음 생성케 한 실질적인 사람들은 조선 후기인 주로 17~18세기에 인근 내륙지방에서 이주해온 이른바 '入島祖'들이다. 즉 16세기 말 임진란 등 왜구의 침탈로 섬에 거주할 수가 없어 이 지역 대부분 섬들은 '空島' 상태가 됐는데 이로 인해 계속 이어져 온 섬의 문화가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고 현재의 문화는 임란이후 새로운 정착민에 의해 뿌리내린 것이다.

비금도내에서 현재 조선후기의 주거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몇몇 가옥은 그 건립시기가 19세기 경이다. 아쉽게도 그 이전에 건립된 가옥은 없다. 어쩌면 이 가옥들이 조선시대에 지어진 마지막 전통 가옥의 원형이 아닌가 한다.

이 시기에 지어진 가옥의 특징은 건물머리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모방' 순으로 구성된 '一자형' 홑집이다. 가옥에 따라 모방이 정지 전면 모퉁이에 오기도 한다. 즉 모퉁이의 자리에 있다 하여 명칭이 모방으로 붙여진 것이다. 이런 경우 모방의 출입은 정지 앞문쪽에 있는 문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가옥은 당시 소농가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대식구를 거느리지 않는 보편적인 가족구성의 집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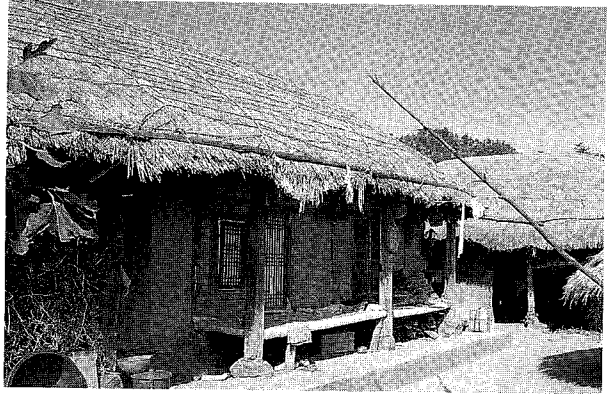
안채에 있는 '마래'는 서남해 섬집의 핵심공간으로 도서민의 생명력과 응집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실의 용도는 외형적으로 수장의 기능을 갖는다. 수장형태는 1년 알곡식이 크고 작은 항아리(독)에 담겨져 큰 독은 아래로, 작은 독은 그 위로하여 벽선에 따라 놓여진다. (큰 독은 중앙부 직경이 70cm, 높이가 100cm정도 되는 것도 있다.) 이와 각종 집안 살림도구(바구니, 상, 돛자리, 그릇 등)도 보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래는 한 가정의 정신적인 지주공간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보통 2~3대조까지의 신위를 모셔두고 제례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위는 정면 출입구 맞은편 벽 상부에 감실장을 만들어 설치하기도 하고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무상자를 선반에 올려놓은 경우도 있다. 이는 사



‘一자형’ 홑집

당을 별도로 건립할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형편에서 마래를 제사공간으로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다.

각 가옥의 대지내 건물의 배치형식은 일정한 유형으로 단순화 되어있다. 우선 건물구성을 살펴보면 가옥의 기본이 되고 있는 안채가 꼭 있고 이 외에 사랑채(행랑채)가 있다. 사랑채는 모든 가옥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가족구성



‘ㄱ자형’ 배치(좌-안채, 우-행랑채)

과 경제능력에 따라 건립되어 졌다. 사랑채의 건립 시기는 안채보다 늦게 나타난다. 기타 돈사와 헛간채가 가옥에 따라 건립되기도 한다. 또한 측간, 헛간, 잣간 등의 복합 용도로 꼭 건립되어지는 죽담구조의 측간채는 거의 모든 가옥에서 건립된다.

세부적인 배치형태는 마을이나 입지환경에 관계없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오직 안채만이 대지의 중앙 안쪽에 단독으로 건립된 ‘ㄱ자형’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채가 안채 전면의 좌측 내지는 우측에 독립으로 놓여져 안채와 함께 구성된 ‘ㄷ자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 외에 안채의 전면에 건물이 들어서는 ‘ㄷ자형’이나 또는 ‘ㄴ자형’, ‘ㄹ자형’의 건물 배치형식은 나타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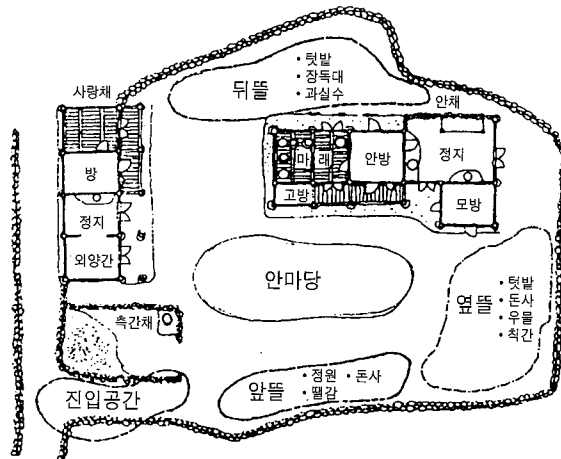


그림 1. 서남해 도서 전통가옥의 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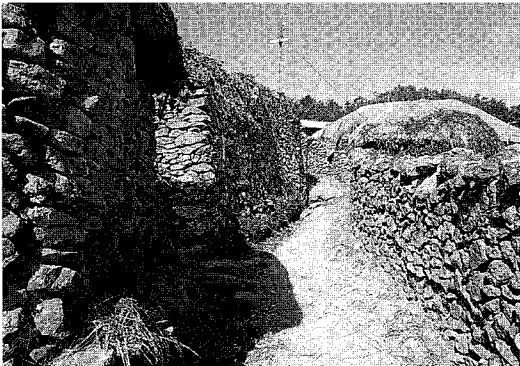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이 지역 다른 도서 및 전남 내륙지방에서도 거의 같다. 이러한 개방적인 ‘ㄱ자형’ 배치는 가옥이 전체적으로 밝고 또한 안마당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서지방 전통민가의 외부공간은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민가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양성은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일정하게 유형화 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넉넉하지 못한공간을 지혜롭게 활용한 가옥도 많다. 그 성격을 알아보면

첫째, 마을길에서 가옥내부로 들어오는 진입공간을 들 수 있는데 이곳 입구에는 대문이나 그 밖의 어떤 장치물 없이 바로 마을 안길에서 담장사이에 난 약 1.5m의 통로를 통하여 안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많은 가옥에서 앞마당이 바로 보이지 않게 입구의 담장을 변화 있게 처리하였다. 돈사나 축간도 이곳 주위에 배치된다.

둘째, 안마당으로 불리우는 안채 전면의 공간이다. 사랑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면과 한데 어울려져 형성된다. 기능은 다른 지방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땀감저장이나 텃밭, 화단조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쪽 모퉁이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한 두그루 심어지기도 한다.

셋째, 안채 후면의 뒤뜰이 있다. 이곳은 비록 넓지는 않으나 정지의 뒷문과 이어져 장독대, 우물 등이 설치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장독대 뒤쪽으로는 지형상 축대를 형성하여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또한 담장 가까이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심겨져 있다.



마을 안길과 돌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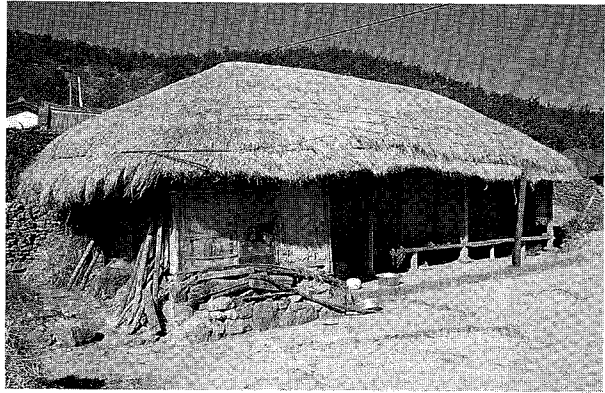
가옥입구

### ① 김남흥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 503(대두마을)

• 건축년도 : 1800년대 중반

수대리에서 최고의 고가로 전해지는 약 150년 가까이 된 가옥이다. 가옥이 위치한 대두마을은 45여호로 구성되어 있고 대두라는 지명은 마을의 산이 우뚝 솟아 사람의 頭狀形態를 하고 있다고 하여 大頭라 하였다고 한다. 부속채는 없고 현재 안채만이 辛坐乙向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건물주 위로는 안마당을 제외하고 텃밭이 꾸며져 있다.



김남홍가옥 안채

안채는 一자형 전후 퇴집으로 평면형식은 정지, 안방, 마래로 이어지고 정지 전면으로는 퇴대신에 별도의 한칸을 만들어 모방을 들인 이 지역의 전형적인 평면형태로 되어있다. 전퇴에는 텃마루가 시설되고 후퇴는 모두 각 실의 공간으로 넓혀져 있다. 마래의 바닥은 흙바닥으로서 이러한 구조는 본 가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민가에서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곳에 따라서는 살림이 나아지면 흙을 파내고 마루를 설치하는 가옥도 있다. 안방에는 굵은 장대로 시렁을 두곳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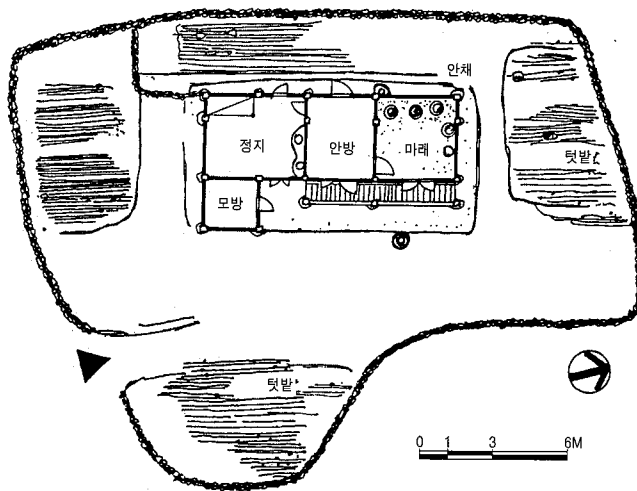


그림 2. 김남홍가옥 배치도

구조는 2고주5량가로서 초석은 막돌초석이며 기둥은 방주를 썼다. 도리는 납도리이나 전면의 중심도리만은 비교적 잘 다듬어진 굴도리를 썼다. 창호 중에는 안방의 봉창이 다른 가옥보다 비교적 크게 설치되어 있다(50×100cm).

본 가옥에서는 굵은 대나무를 이용하여 전·후면에 세운 굴뚝이 인상적이다(1989년 현황).

## ② 황현식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368(서산마을)
- 건축년도 : 1856년

지북산을 배경으로 경사진 지형에 형성된 서산마을은 비금면내에서 비교적 많은 전통민가가 현존하고 있는 오래된 마을이다. 초가와 돌담장, 그리고 경사지고 꼬불꼬불한 마을길(이곳에서는 “셀팍”이라고 부름)등 많은 옛 전통마을 요소들이 남아있다. 마을의 좌측편 낮은 곳에 자리한 황현식가옥도 이 마을내의 고가로 전해지고 있으며 건물로는 현재 안채와 측간채만 있다.

안채는 상량문(崇禎紀元後四記丙辰四月……) 확인결과 철종 7년(1856년)에 지어진 건물임이 밝혀졌다. 평면구성은 좌측으로부터 2칸 정지, 1칸 안방, 1칸 마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정지끝 전면으로는 전면 벽체 선에서부터 2m정도 돌출한 모방을 드렸다. 전면의 퇴에는 뒷마루를 설치하고 후퇴는 모두 각 실로 넓혀져 있다. 그리고 우측 단부로는 반칸 퇴를 더 내어 마래의 공간을 넓혔다.



황현식가옥 안채

구조는 막돌로 쌓은 낮은 기단위에 막돌초석을 놓고 방주를 세운 2고주5량가 형식이며 도리는 전면의 중심도리만 굴도리를 쓰고 나머지는 납도리를 사용하였다. 벽면은 흙벽이며 지붕은 초가지붕이다(1989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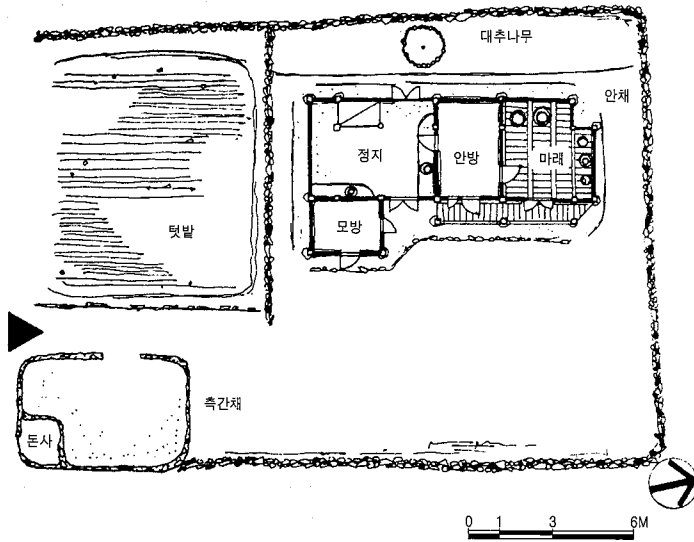


그림 3. 황현식가옥 배치도

### ③ 채용덕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767(죽치마을)
- 건축년도 : 1800년대 중반

확실한 건립년대는 알수 없으나 150여년된 가옥으로 추정되는 죽치마을의 최고 고가이다. 채용덕의 외조부도 본 가옥에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건물구성은 돌담장으로 둘러진 대지의 안쪽에 戌坐辰向으로 안채만이 자리하고 기타 부속건물은 없다.

안채의 평면구성은 다른 가옥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모방이 정지끝 전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측면으로 이어져 1칸을 형성하고 있고 그 전면 퇴에는 뒷마루까지 시설되어 있다. 모방 옆으로는 다시 죽담구조로 헛간이 증축되어 있다. 이 모방과 헛간은 시아버지가 후대에 증축한 것이라고 한다.



채용덕가옥 안채

정지 우측으로는 후퇴를 포함한 안방과 마래가 꾸며져 있으며 안방과 마래 앞쪽으로는 뒷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마래의 바닥은 김남홍씨 가옥과 같은 흙바닥 구조이다.

구조는 전후로 퇴를 둔 2고주5량 형식으로 기단은 커다란 막돌로 토단의 둘레를 마무리하였으며 초석은 덩벙주초를 쓰고 기둥은 네모기둥을 사용하였다. 도리는 전면의 주심도리만 굴도리이고 나머지는 납도리이며 퇴량은 흥예처럼 굽은 부재를 사용하였다. 벽체는 흙벽이며 지붕은 초가지붕이다.

본 가옥에서는 뒷뜰 담장밖으로 담장에 면하여 자연스럽게 파여진 우물이 특이하다(1989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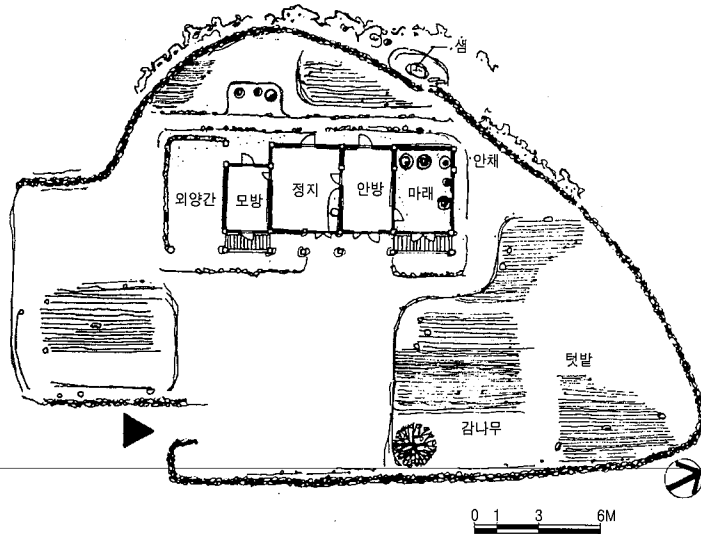


그림 4. 채용덕가옥 배치도

#### ④ 황정채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 1147(월포마을)
- 건축년도 : 1889년

안채와 측간채로만 구성된 가옥이다. 안채의 좌향은 丁坐癸向이며 측간채는 그 전면 좌측 입구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의 건립년도는 상량문에 “崇禎紀元後五〇大清光緒拾伍年己丑八月……”라고 되어 있어 1889년에 지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안채는 채용덕 가옥과 비슷한 유형의 평면으로 된 일자형 초가이다. 모방이 정지 좌측에 오고 정지 우측으로는 안방과 장마루를 간 마래를 차례로 배치하였다. 마래는 후퇴까지 넓혀져 있고 모방

후면으로는 정지와 이어진 안팎(보통 땀감 저장 등)이었다.그리고 그옆에는 2척정도 더 넓혀 증축되어 외양간과 외양정지로 이용되고 이용되고 있다.

기단은 현재 시멘트몰탈로 덮여져 있고 초석은 막돌을 썼으며 기둥은 13×13cm 크기의 네모기둥을 세웠다. 가구는 전후로 퇴를 둔 2고주5랑 구조이다. 도리는 납도리를 썼으나 전면의 퇴주위로만 굴도리를 썼다. 벽체는 심벽구조의 흙벽이다(1989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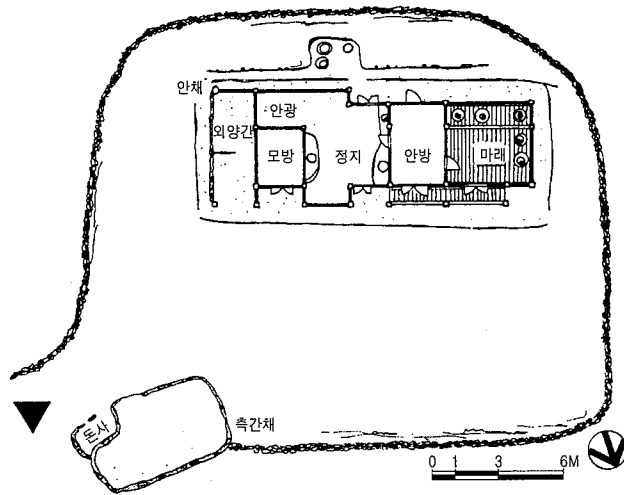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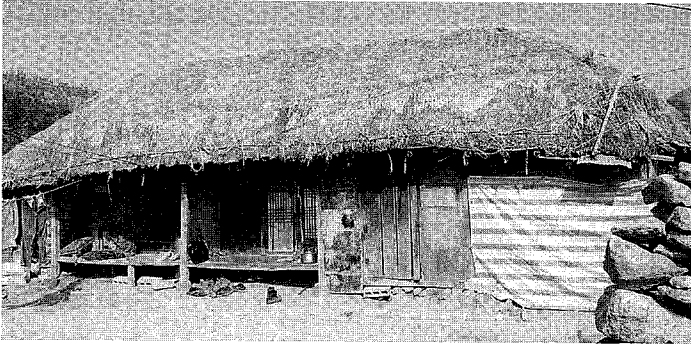
그림 5. 황정채가옥 배치도

### ⑤ 최형남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내촌마을)
- 건립년도 : 1800년대 후반

비금도내 현존하는 유일한 초가집으로 건립년도는 19C 후반으로 추정된다. 건립당시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방형의 대지에 안채만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채는 一자형 4칸 집으로 좌측으로부터 1칸씩 마래, 안방, 정지, 모방 순으로 꾸며져 있다. 정지는 모방 뒤편 까지 연결되어 있는 一자형으로 보통 모방 뒷쪽은 땀감 등을 놓는다. 마래 바닥은 흙바닥이며 마래와 안방 후면은 흙과 돌을 번갈아 쌓아 죽담 구조로 되어있다. 전면 퇴주는 높이가 192cm정도로 집 전체가 낮다. 도리는 직경 12cm 정도의 원형 통채를 썼다.



최형남가옥 안채



최형남가옥 안채 후면(죽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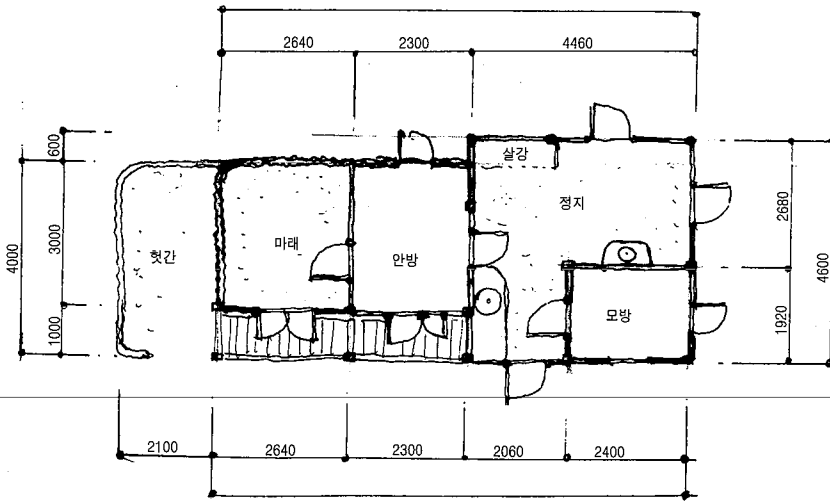


그림 6. 최형남가옥 평면도

## 2) 20세기 초~중 주거

20세기에 들어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간다. 또한 해방이후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지만 도서지방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1970년대까지는 제반 사회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옥구조 역시 19세기에 건립된 가옥들과 형태와 이용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 즉 목조가구식 구조, 초가지붕, 흙벽, 마래와 모방 등 전통의 연속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심지어는 6.25 이후인 1950, 60년대 가옥도 대부분 그 이전 시기의 가옥 구조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그림 7, 8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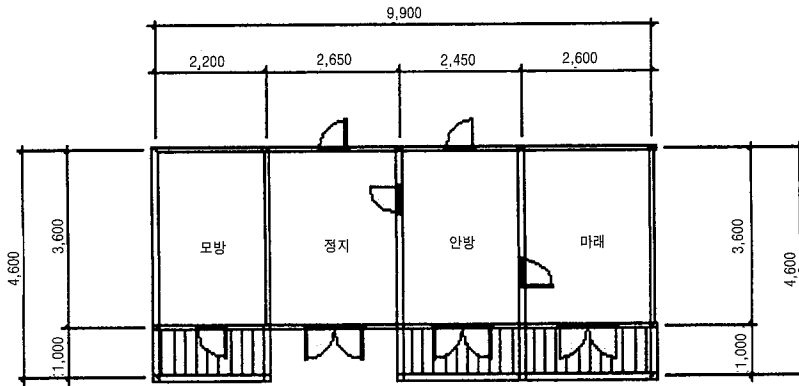


그림 7. 비금면 고서리 491번지 가옥 평면도

1955년도에 지은 가옥으로 옛 전통가옥 구조 그대로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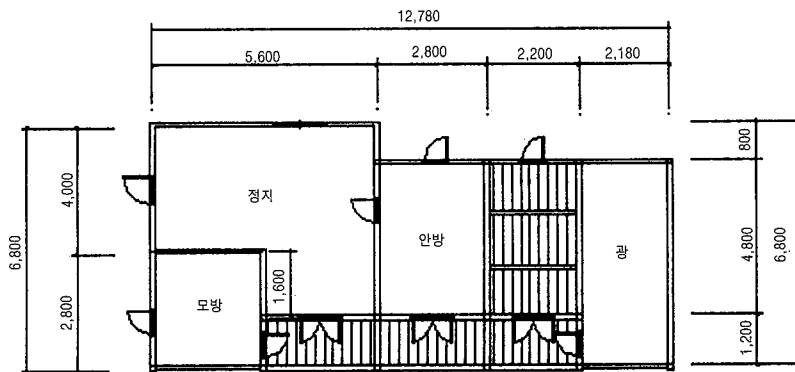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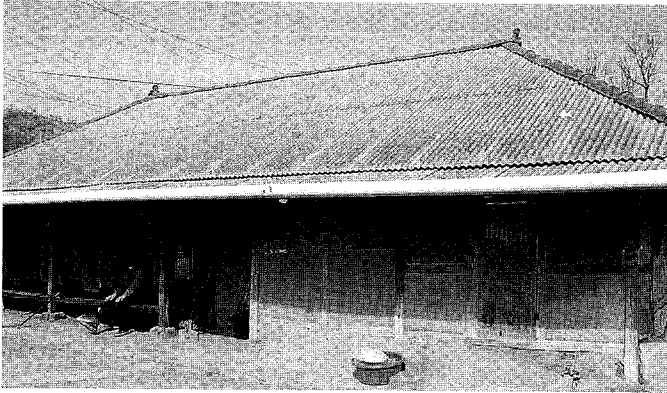
그림 8. 비금면 고서리 꼭씨 가옥 평면도

1955년도에 지은 가옥이다. 옛 전통가옥과 거의 같은 구조이나 다만 안방과 광사이에 대청을 추가로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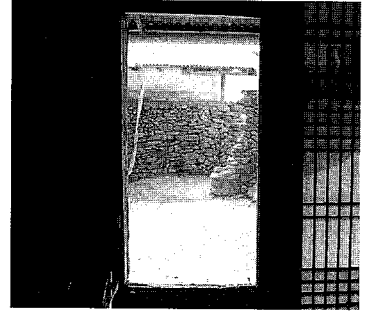
### ① 노정달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내촌마을)
- 건립년도 : 1900년대 초반

20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옥이다.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만 되어 있을뿐 원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대지 안쪽에 안채만이 있고 현재 80순 노모 혼자 거주하고 있다.



노정달가옥 안채



안방에서 봉창을 통해 바라본 미당

건물은 一 자형 5칸 집으로 평면구성은 좌로부터 마래, 안방, 정지, 모방 순으로 꾸며져 있다. 정지는 폭이 좁은 2칸이며 모방 뒤쪽으로는 정지 쪽에서 출입문을 둔 헛간을 두었다.

구조는 전면만 목구조이고 후면은 죽담구조로 되어있다. 전면 퇴주는 9cm×9cm 각에 높이는 200cm로 매우 가늘다. 마래는 흙바닥 구조로 되어 있다.

안방의 봉창크기는 45cm×90cm로 같은 마을 최형남 가옥과 같은 크긴데 이는 비교적 다른 민가보다 큰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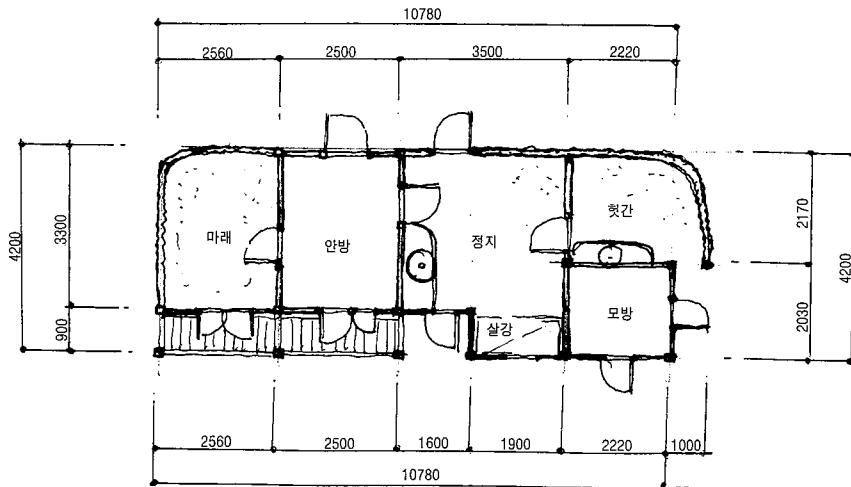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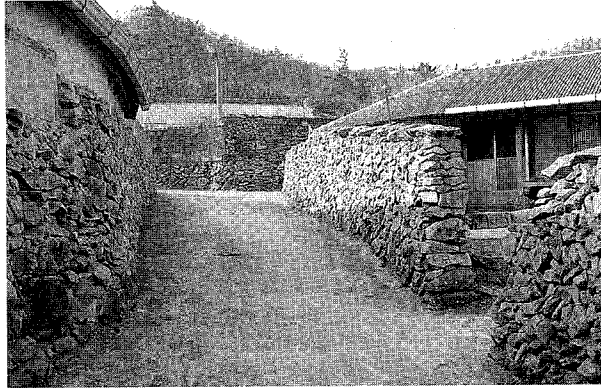
그림 9. 노정달가옥 평면도

## ② 전순단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월포마을)
- 건립년도 : 1900년대 초반

내월리 월포마을에는 비금도내에서 고서리 서산마을과 함께 비교적 전통 가옥이 여러채 남아있다. 또한 잘 축조된 돌담과, 마을 안 길도 상당부분이 옛 모습대로 보존되고 있다.

이 가옥은 20C 초반쯤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안채만이 있는 가옥이다. 평면은 신안 도서지역(흑산도 제외)의 전형적인 유형, 즉 모방이 건물



마을 안길과 전순단 가옥(우측)

물 전면선 보다 약간 돌출된 4칸 4실로 되어있다. (서산마을 문귀단 가옥 안채와 같음, 도면참조) 이러한 유형은 모방이 정지 측면으로 완전히 1칸을 잡고 들어서는 형태와 대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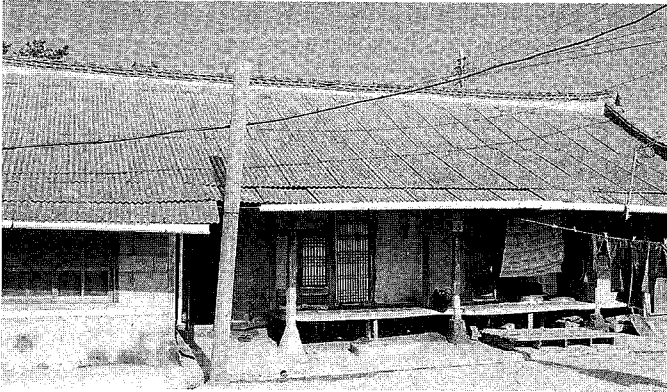
## ③ 공가1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내월리(월포마을)
- 건립년도 : 1900년대 초~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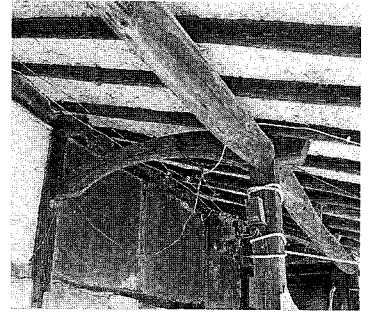
월포마을의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 빈집이다. 건립년도는 20세기 초에서 중반사이로 여겨진다. 안채는 4칸—자형 집으로 평면은 좌로부터 1칸씩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드러져 있다. 정지 쪽만 제외하고 전퇴에는 모두 뒷마루가 놓여있다. 같은마을 공가2(표1 목록 9번 가옥)도 좌우측 실 위치만 다를 뿐 같은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전순단 가옥과 달리 모방이 상당히 독립적이다 (서산마을 이춘길, 장춘자 가옥 도면 참조)

## ④ 김흥기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도고리 2번 293
- 건립년도 : 1940년대



김홍기가옥 안채



홍예처럼 굽은 안채퇴보

도고 마을 초입의 평탄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는 1940년대에 건립된 가옥이다. 넓은 마당이 앞쪽에 있고 현재 안채 좌측으로는 신축건물(조적조) 한 채가 들어서 있다.

평면은 우측으로부터 마채, 안방, 정지 순으로 꾸며져 있고 모방은 정지 전면에 두었다. 서산마을 문귀란 가옥과 같은 유형이다. 모방 뒤쪽 면은 건물 전면벽선보다 약간 정지 쪽으로 들어갔다. 마래 앞쪽에는 뒷마루 끝으로 반 칸 폭의 뒤주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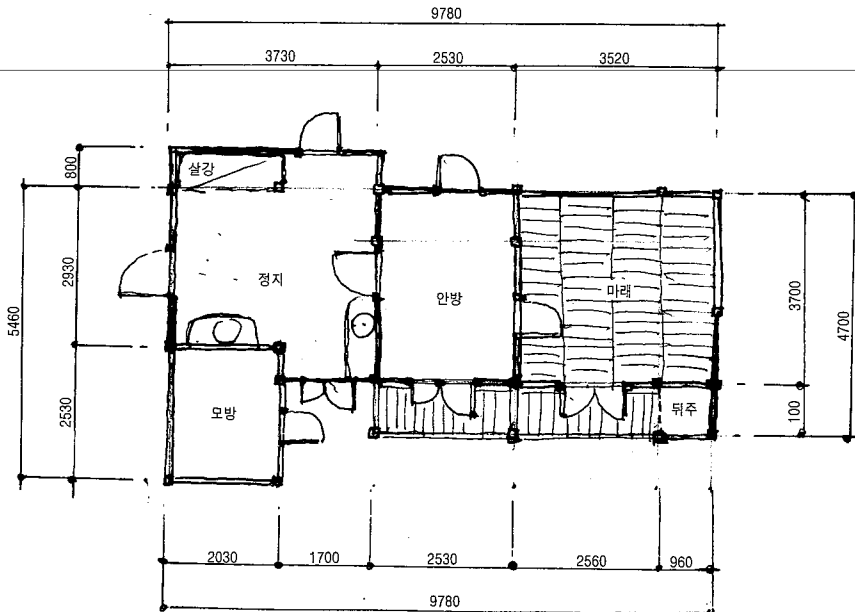


그림 10. 김홍기가옥 평면도

이 가옥도 45cm×80cm 크기의 비교적 큰 봉창을 안방 출입문(60cm×146cm) 옆에 두었다. 봉창은 방에서 큰문을 열어 앉고도 쉽게 밖의 동태를 살펴보기위한 창으로 서남해 도서지방 민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 ⑤ 광산훈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00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00년대 초

1900년대 초에 지어진 가옥으로 건립당시는 광산훈 할아버지의 증조부이신 광태련씨께서 생활했다. 현재는 11대째인 광산훈씨 부부만이 벼농사를 지으시며 거주하고 있다. 비금도 입도 후 현 터에서 대대로 거주했다.

乾坐 夷向으로 안채가 자리하고 있다. 규모는 전면 6칸으로 우측에 퇴를 두었고, 측면은 전퇴를 둔 1칸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측 퇴에는 툇마루를 설치하였는데 다른 가옥에서는 보기드문 사례이다. 외양간과 갓방이 모방 옆으로 1칸씩 더 드러져 있어 전체적으로 안채에 실이 6개로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는 옛 중농가 이상의 가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갓방과 외양간(헛간)이 서로 바뀌는 곳도 있다.

전체 구성은 안채와 측간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측에서 진입하고, 대문주변에는 우물과 측간채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앞마당에는 텃밭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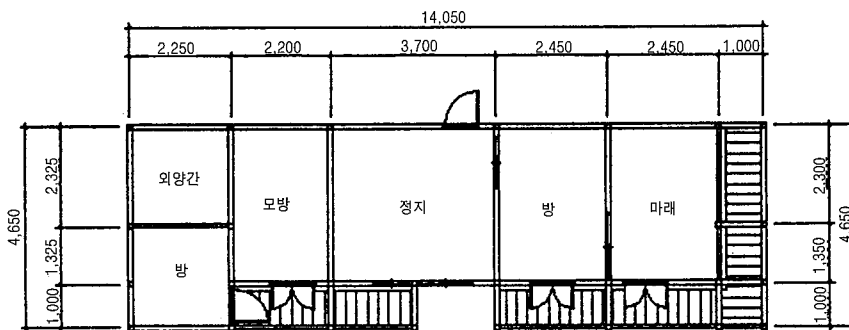


그림 11. 광산훈가옥 평면도

## ⑥ 문귀단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865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20년대

80십대 노모 혼자 거처하고 있는 이 가옥은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가옥이다.

실 배치는 좌측으로부터 정지 1칸 반, 안방 1칸, 마래 1칸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정지의 끝 칸 앞으로는 전퇴선 앞으로 약간 돌출되게 모방을 1칸 규모로 드렸다. 정지가 다른 실들에 비해 규모가 거의 2배에 달하지만 앞쪽의 모방으로 인해 출입구는 다소 협소하다.

측간채는 대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평면은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죽담구조로 되어있다. 건립당시는 할머니 부부와 5남 3녀가 생활했다. 마래에 있던 위패는 장남이 서울로 모셔가 현재는 없는 상태이지만, 예전에는 이 곳에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지붕개량후의 문귀단가옥 안채



초가지붕 당시의 문귀단가옥 안채



문귀단가옥 측간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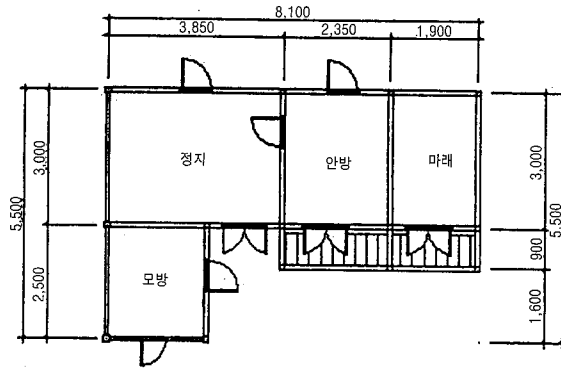


그림 12. 문귀단가옥 평면도

⑦ 이별단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862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20년대

이 가옥은 1920년대에 건립된 아직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가옥이다. 아직도 온돌바닥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을의 가장 윗 부분에 위치하여 마을 앞 농경지가 한눈에 보이는 등 전망이 좋다.

안채는 戌坐辰向으로 자리하고 있다. 실의 배치는 좌측으로부터 정지 2칸, 안방 1칸, 모방 1칸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정지의 끝칸 앞으로는 전퇴선 앞으로 약간 돌출되게 모방을 1칸 규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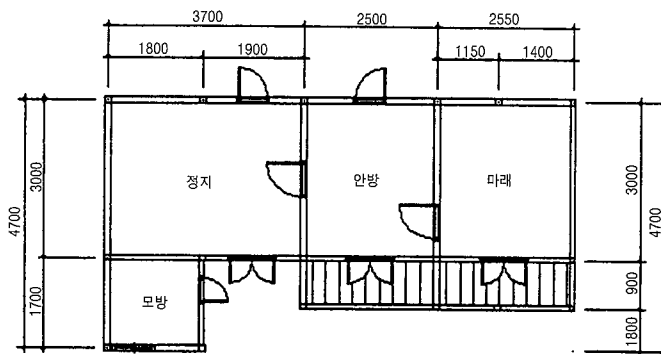


그림 13. 이별단가옥 평면도

드렸다. 2칸으로 된 정지칸은 다른칸 보다 폭이 좁다. 전퇴에는 뒷마루를 시설하였다. 다른 도서에 서도 보이는 전형적인 평면유형이다. 이 가옥에서는 모방의 크기가 1평 정도로 유난히 작다.

가옥의 진입은 동측이며, 그 바로 옆에 동그란 들담의 측간채가 있다. 앞쪽에 안마당에 있으면 좌측에 텃밭이 보인다.

### ⑧ 이춘길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89-2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25년

비금도 입도 150여년이 됐다는 경주이씨의 가옥이다. 이춘길씨(61)는 25세 때부터 목수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서산마을의 집수리나 신·개축을 채귀석씨라는 분과 함께 하고있다. 새마을 사업으로 지붕개량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한다.

안채는 辛坐 乙向으로 자리하고 있는 전면 4칸, 전퇴를 둔 측면 1칸 반 규모의 가옥이다. 실 배치는 모방, 정지, 안방, 마래가 나란히 한칸씩 배치되어 있다. 정지 앞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전퇴를 두었고, 그곳에 뒷마루를 시설하였다. 현재 안채 외에 측간채가 한 동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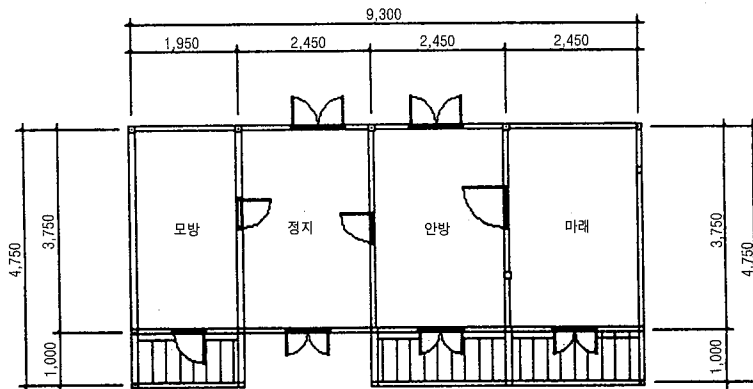


그림 14. 이춘길가옥 평면도

⑨ 황백철가옥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교서리 404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30년대

193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一자형 가옥이다.

안채의 구성이 이춘길 가옥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퇴간을 두고 좌측으로부터 모방, 정지, 안방, 마래의 순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전면으로는 정지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각 실의 규모가 정지를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다.

현재 노부부만이 생활하고 있다. 안방 봉창이 아직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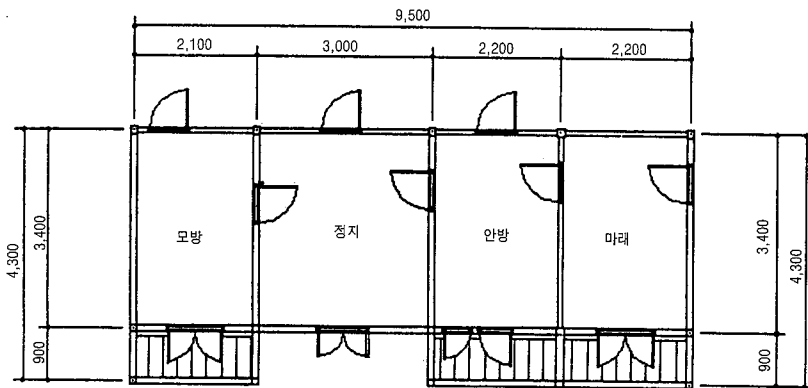


그림 15. 황백철가옥 평면도

⑩ 황원달가옥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교서리 481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30년대

1930년대 초가로 건립된 一자형 가옥이다. 건물은 안채와 헛간채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가옥 처럼 ‘ㄱ’자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안채와 평행하게 =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의 보기드문 배치 사례이다. 헛간채에 측간도 같이 있다.

안채는 전면 7칸, 측면 전퇴를 둔 1칸 반의 규모로 되어 있다. 실의 배치는 좌측으로부터 외양간 1칸, 모방 1칸, 정지 2칸, 안방 1칸, 방 1칸, 마래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양간은 건립이후에 새로 드러진 것이다. 이 가옥은 비교적 규모가 다른가옥보다 큰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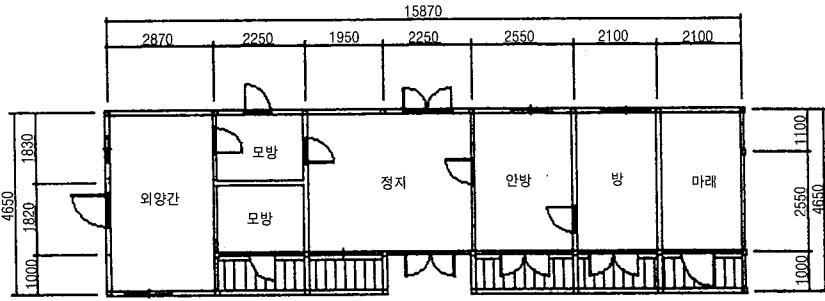


그림 16. 황원달가옥 평면도

⑪ 김계주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38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36년

1936년에 건립된 가장 보편적으로 서산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一자형 4칸형 가옥이다. 배산을 우선으로 하는 민가배치의 기본에 따라 동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퇴를 둔 일자형 집으로 평면구성은 남측으로부터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나란히 1칸씩 배치되어 있다.

이주당시의 가족은 김계주 할아버지 부부, 그리고 2남 3녀의 자녀가 생활했었지만, 현재는 김계주 할아버지 혼자 염전을 하시면서 생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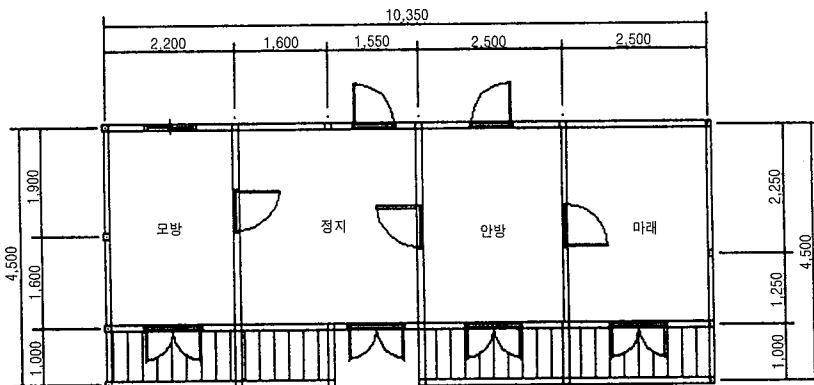


그림 17. 김계주가옥 평면도

⑫ 김귀례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426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40년대

정확한 건립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거주인의 설명에 의하면 40년대에 추가로 건립한 것이라고 한다. 안채의 실 배치는 좌측으로부터 모방 1칸, 정지 2칸, 안방 1칸, 마래 1칸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안방과 마래 앞에 퇴를 두었고, 정지 앞에는 한칸 정도만 퇴를 두어 마루를 시설하였다. 이 가옥에서는 정지 옆으로 상·하로 모방을 2개 둔 것이 특이하다.

모방이라는 작은방은 보편적으로 전남 서해지역(흑산도 지역 제외)에서는 정지 전면쪽에 위치한다. 안채의 좌측으로 측간채가 대문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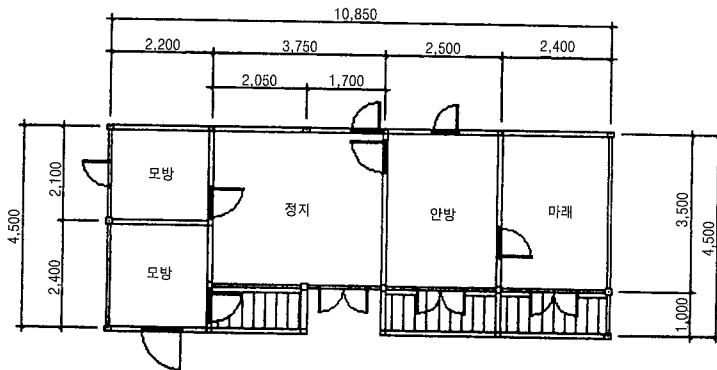


그림 18. 김귀례가옥 평면도

⑬ 장춘자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구등지(임시-4)
- 건립년도 : 1940년대

1940년대 추가로 건립된 이 민가는 전면 4칸, 측면은 전퇴를 둔 1칸 반의 규모로 각 공간들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퇴에는 툇마루를 시설하고 실의 배치는 좌측으로부터 모방, 정지, 안방, 마래 순으로 1칸씩 나란히 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서산마을에서 꽤 많이 보이는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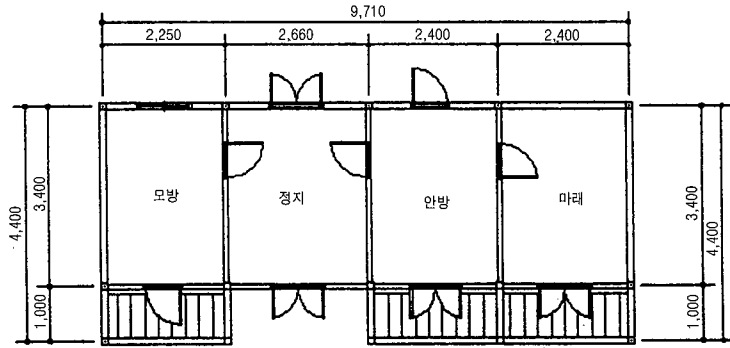


그림 19. 장춘자가옥 평면도

안채와 측간채가 ‘ㄱ’로 배치되어 있는데, 출입구와 측간채가 붙어 있지 않고 측간채는 안채의 우측에 위치해 있다. 현재 할머니 혼자 생활하고 있다.

⑭ 황판술가옥

- 소 재 지 : 신안군 비금면 교서리 437번지(서산마을)
- 건립년도 : 1940년대

1940년에 추가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옥이다. 안채는 一자형으로 실 구성은 좌측으로부터 모방 1칸, 정지 2칸, 안방 1칸, 마래 1칸 반으로 되어 있다. 전체 구성은 김귀례 가옥과 같으나 다른점이 있다면 마래의 크기가 다른 실들에 비해 커서 정지와 거의 같은 규모가 됐다.

이 곳에 현재 부부만 사는데, 이주당시(30년 전)에는부부와 1남 5녀의 자녀가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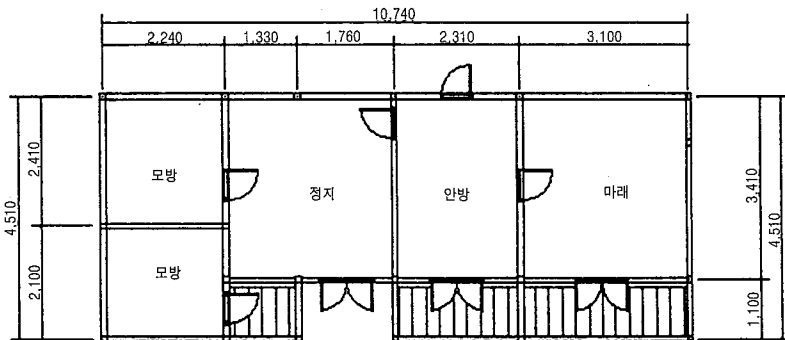


그림 20. 황판술가옥 평면도

인간의 의식 세계관이 얽힌 문화공간임을 보여준다.

최근의 신축가옥에서도 “마래”가 보여 주목된다. 특히 청산도와 약산도의 경우 많이 보인다. 아직도 곡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고 제사도 이곳에서 모신다고 한다. 아무리 현대식 개념의 주거라 해도 전통적 문화요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 문화의 연속성이 지켜지고 있는 셈이다.

### ㉠ 마당

민가의 건축적 구성요소는 단순히 안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안채는 저장과 거주, 그리고 종교적 사고까지 수용하고 있는 제일 비중이 큰 대상이다. 그러나 부속채나 마당 등도 한 가옥의 틀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아닐 수 없다.

도서지역 민가에서 마당은 내부공간 만큼 중요하다. 가족의 대소 행사장으로, 농수산물의 정리 및 건조, 또는 가족 휴식공간으로서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내륙 농촌지역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의식 조사에서 앞으로의 신축주거에서도 넓은 마당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마당은 도서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 ㉡ ‘퇴’ 공간

건축에서 퇴간은 몸채 앞 뒤, 또는 좌우에 본래 칸보다 좁게 달린 칸을 말한다. 이 퇴간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매개하는 중간적 성격의 공간으로 반 내부적 이면서도 반 외부적인 성격을 갖는다. 매개공간은 단순히 공간의 이웃함에 따른 시각적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적 측면에서의 뒤엉킴에 의해 유기적인 연계를 이룰 수 있다.

내륙과 마찬가지로 도서민가에서도 이 퇴공간은 마루가 놓여지는 전면의 ‘뒷마루’로 크게 조명된다. 앞 뒤, 좌우의 비어진 퇴에는 특히 외부에서 필요한 각종 생활도구가 손쉽게 놓여진다. 가옥에서 여유를 찾아볼 수 있는 퇴공간은 충분히 현대주거에서도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 ② 주거모델 개발

본 연구는 앞으로 도서지방에 새로운 살림집을 지을 때 어떤 유형의 집을 짓는 것이 이상적일까에 대한 건축적 답을 얻는 것이다. 그 이상적 집은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 같은 집도 아니고 커다란 꿈이 있는 집도 아니다.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주거는 아주 지극히 경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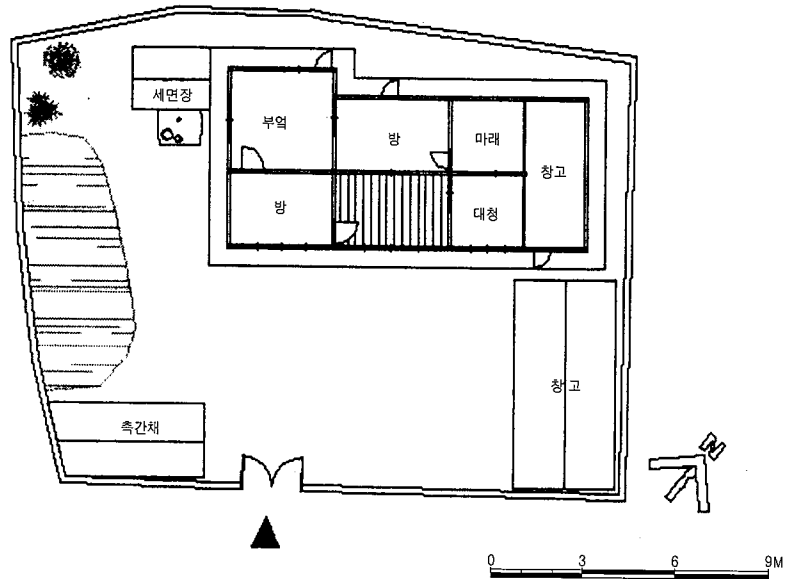


그림 23. 비금도 서산마을 493번지 가옥

1985년도에 옛집을 헐고 마을 목수가 새로 지었다. 겹집 형식으로 실들을 상·하로 배치했고 '마래'가 있다. 화장실을 안채에 두지 않았다. 전통가옥에서 현대식가옥의 형태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유형의 가옥이다. 같은 마을 광씨 가옥도 이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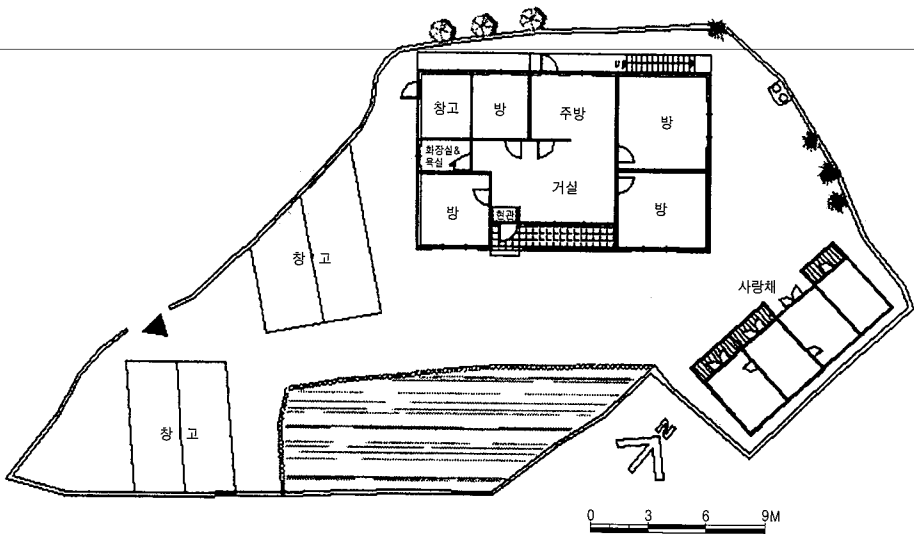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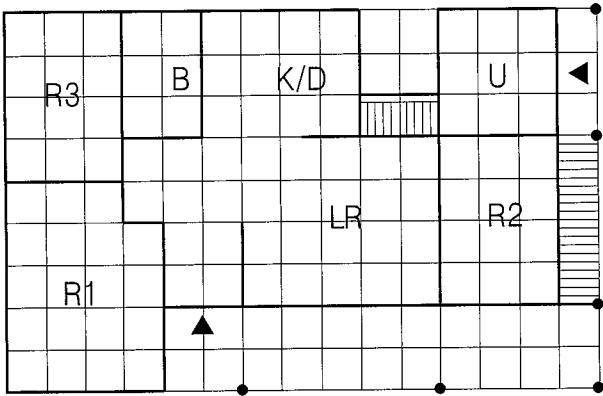


그림 24. 비금도 서산마을 김씨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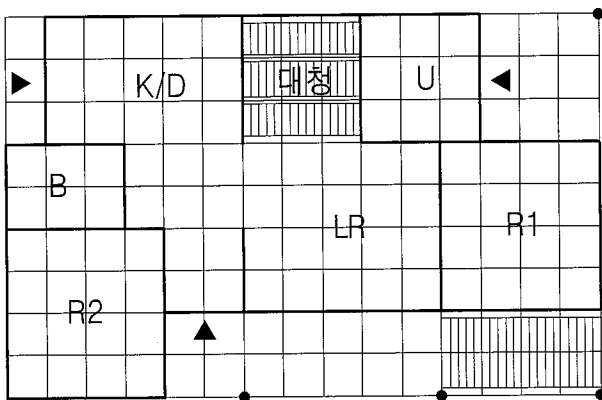
1985년에 옛집을 헐고 같은 자리에 안채를 지었다. 구조는 조적조 스라브 구조이며 외벽은 타일로 마감했다. 외부에서 출입하는 창고(옛 '마래' 개념 아님)가 있다. 화장실이 안채에 있으나 외부에서 출입을 할 수 없다.

• C-II형



- 넓은 전면 퇴간 설치(휴식 및 임시 수장)
- 거실, 다용도실, 부엌이 연결된 편리한 동선
- 밝은 거실과 주방/식당
- 측면 틈마루

• C-III형



- 본채내 작업공간(우측 후면)
- 대청설치-현대식 거실과 연계
- 대청과 고방, 대청과 부엌의 유기성
- 전면 퇴간의 넓은 '토방' 과 '틈마루' 개념 동시 도입
- 화장실 외부출입 가능

2) 관광자원화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많은 문화자원이 있다. 전통건축도 그 중의 하나다. 전통건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첫째, 감성가치를 제공 해 준다. 초가삼간집, 웅장한 궁궐 등 옛 집은 우리에게 옛 생각 등 감성을 유발 시킨다.

둘째, 역사적 가치이다.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사찰건축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주택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은 형체를 갖고 있는 살

아있는 역사교과서요, 역사현장이다.

셋째, 조형 예술사적 가치가 있다. 건축은 종합예술의 결정체로서 모든 각각의 형태와 요소는 기술적인, 조형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전통주거는 현대사회에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기능성과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거를 일상의 살림집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통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 ① 개별 전통가옥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1~2채 정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갖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지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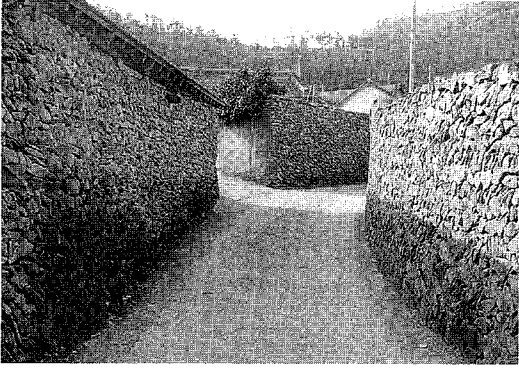
#### ② 집단 전통가옥의 복원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과 향수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벤트사업(영화촬영장, 민속공연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가능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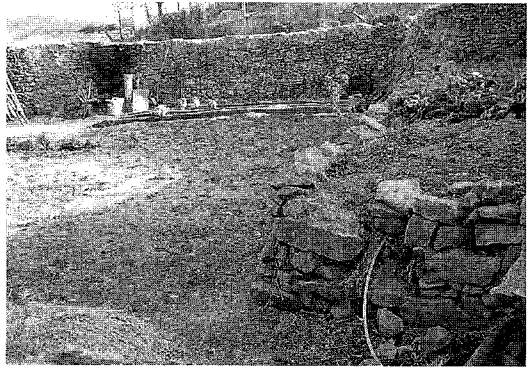
그 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내월리 월포마을과 고서리 서산마을이다. 두 마을은 아직도 돌담장과 마을 안길등 과거의 마을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전통가옥구조의 빈집도 많고 현재는 밭으로 되어 있는 옛 가옥터도 많다.



마을 안길(서산마을)



마을 안길(월포마을)



옛 가옥터(서산마을)

## 비금면 유적 현황

### 자연자원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고막 팽나무	고서리 고막부락	9	서남문대교	도초도~비금도
2	지당리 곰솔	지당리 지동마을	10	수림리염전	수림리 일원
3	원평사구식물군락	지당리 뒤희 해안사구	11	원평리시터	원평리 해안
4	성치산	광대리 성치산	12	칠발도늪시터	비금면 칠발도 일대
5	떡매산	덕산리 떡매산	13	명사십리해수욕장	원평리 해안
6	범아제비 바위	내월리 외촌	14	하누넬해수욕장	내월리 내촌마을 해안
7	용혈	용소리 용소	15	가는목해수욕장	내월리 내촌마을 해안
8	비금섬초	비금도 일원	16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비금도 서부 해안지역

### 선사유적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용소리 I 유물산포지	비금동초교 남쪽발일대	5	광대리 고분	광대리 광대마을
2	용소리 II 유물산포지	용소리 동부교회 주변	6	광대리 고분군	광대리 당두마을
3	용소리 III 유물산포지	용소리 사자석상 주변	7	도고리 유적	도고리 북 마을
4	가산리나배 유물산포지	가산리 나배마을	8	내월리 유물산포지	내월리 외촌마을

### 역사유적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김우중송덕비	수대리 송치	13	南坡先生紀念碑	죽림리 죽치
2	江陵劉氏紀行碑	수대리 대두	14	竹軒先生紀行碑	죽림리 죽치
3	姜周範孝子閣	내월리 월포	15	崔門勝紀蹟碑	죽림리 죽치
4	姜進秀紀念碑閣	내월리 월포	16	完山李氏烈女閣	죽림리 임리
5	黃成基記行碑	내월리 월포	17	과평윤씨재각	죽림리 임리
6	慶州鄭氏追慕碑	내월리 내촌	18	密陽朴氏烈女閣	죽림리 상암
7	鄭基周孝子碑	내월리 내촌	19	晉州姜氏烈行碑	죽림리 상암
8	姜明鉉紀念碑	내월리 내촌	20	全州李氏烈行碑	죽림리 상암
9	劉孝子記蹟碑	내월리 내촌	21	姜千秀孝行碑	덕산리 망동
10	金玉光·金啓得· 金達仁 孝子閣	내월리 내촌	22	姜萬秀紀行碑	덕산리 망동
11	松坡先生記行碑	내월리 외촌	23	光山盧氏紀蹟碑	덕산리 망동
12	一樵先生紀蹟碑	죽림리 죽치	24	菊坡先生記行碑	고서리 서산
			25	西岡先師紀行碑	고서리 서산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26	黃丞憲孝行碑	고서리 서산	36	池洞 碑石群	지당리 지동
27	邑洞 碑石群	덕산리 읍동	37	密陽崔氏烈女閣	용소리 용소
28	光山蘆氏碑閣	구림리 구기	38	藕泉先生紀蹟碑閣	용소리 용소
29	玄基奉紀念碑	구림리 구기	39	慶州鄭氏烈女閣	용소리 용소
30	小塢先生記行碑	구림리 구기	40	최치원선생 샘	수대리 송치
31	竹坡先生記行碑	구림리 용호	41	광대리 고분군	광대리
32	沙隱先生紀行碑	구림리 수림	42	광대리 성치산성	광대리 성치산
33	新塢先生記行碑	신원리 자항	43	용소리 및 가산리 나배마을 출토자기	용소리·가산리
34	竹岡先生紀蹟碑	신원리 자항			
35	東岡先生記行碑	신원리 자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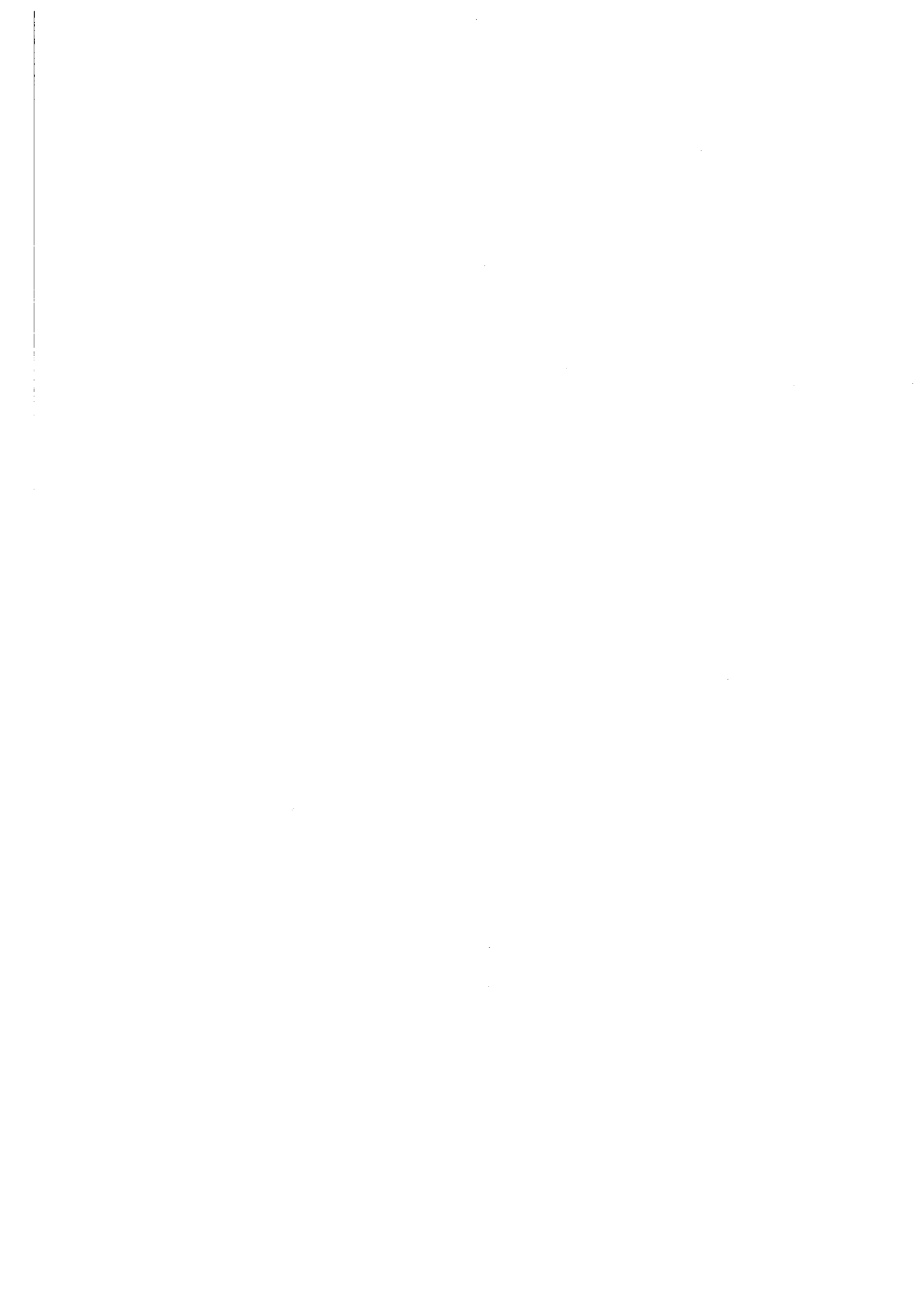
민속문화자원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성치산	산상제성	8	내월리 내촌	당제(선왕제)
2	신원리 원평	뱃서낭·뱃고사	9	내월리 내촌	강강술래
3	고막리	용왕신제	10	죽림리 상암	남사당소리·밤달애노래
4	고서리 금천	우실	11	죽림리 상암	밤달애 남사당놀이
5	고서리 서산	우실	12	내월리 월포	당제(산신제)
6	한산리	셋김굿, 성주굿	13	내월리 월포	대장군(장성)
7	내월리 내촌	우실	14	수대리 송치	풍어제

주거문화자원 목록(○)

번호	자원명	위 치	번호	자원명	위 치
1	김남홍가옥	수대리 503(대두마을)	14	곽중운가옥	고서리 441(서산마을)
2	황현식가옥	고서리 368(서산마을)	15	이춘길가옥	고서리(서산마을)
3	채용덕가옥	죽림리 767(죽치마을)	16	공가3	고서리 422(서산마을)
4	황정채가옥	내월리 1147(월포마을)	17	황백철가옥	고서리 404(서산마을)
5	최형남가옥	내월리(내촌마을)	18	황원달가옥	고서리 481(서산마을)
6	노정달가옥	내월리(내촌마을)	19	김계주가옥	고서리 438(서산마을)
7	전순단가옥	내월리(월포마을)	20	김귀례가옥	고서리 426(서산마을)
8	공가1	내월리(월포마을)	21	권오동가옥	고서리(서산마을)
9	공가2	내월리(월포마을)	22	장춘자가옥	고서리(서산마을)
10	김홍기가옥	도고리 2반 293	23	황판술가옥	고서리 437(서산마을)
11	곽산훈가옥	고서리 400(서산마을)	24	유상운가옥	고서리 417(서산마을)
12	문귀단가옥	고서리 865(서산마을)	25	공가4	고서리 431(서산마을)
13	이별단가옥	고서리 862(서산마을)	26	공가5	고서리 408(서산마을)





2부

문화유적 자원화 방안

新安



## 1. 머리말

### (1) 사람은 어떤 이유로 관광여행을 하는가?

- 사람이 관광여행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음
- 첫째, 자신의 일상생활권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을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위해.
- 둘째, 일상생활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 받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 셋째, 견문을 넓힘으로써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 (2) 문화유적의 자원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차별화 된 자원화
- 관광객은 자신이 방문한 여행지에서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 따라서 문화유적의 자원화는 이러한 관광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추진함.
- 모든 지역의 자연과 문화유적은 나름대로의 차별화 된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문화유적의 자원화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사람들은 차별화 된 특성이 없는 관광지를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별히 찾지도 않음.
- 신안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도서로만 구성된 자치단체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전통 문화 마을을 조성하여 어촌 체험공간으로 제공함.
- 감동이나 마음의 위안을 주는 자원화
-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 받기 위해 여행을 하므로 문화유적의 자원화는 여행객에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감동적인 사연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주요 테마로 활용함.
- 여행객이 불편함이 없이 답사여행을 할 수 있도록 유적지 주변환경, 유적지 안내판,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함.
- 외지 여행객이 고향에 온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자원화

- 역사·문화적으로 의미가 큰 유적, 설화, 민속 등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원화를 추진함. 고인돌 옆에 움집을 짓고 석기를 제작해볼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문화유산의 파괴현장을 잘 보존하여 문화재보호를 위한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함.
-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기념품, 우편엽서, 컴퓨터게임, TV 드라마 등을 제작·판매함.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자원화

- 지역 문화유산의 자원화는 관광객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는가의 여부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얼마만한 경제적 이익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는가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평가됨.
- 지역문화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므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 및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
- 지역주민들에게 '버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특산품 및 문화유산을 관광기념품으로 적극 개발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판매 및 민박 등을 활성화시킴.
- 문화유적의 자원화를 통해 문화적 소외지역인 도서지방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터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음.
-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을 관광 매력물로 적극 개발하고, 전통 농·어업에 관광산업을 접목하여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임.

(3) 문화유적의 자원화 여건

○ 불리한 여건

- 신안군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송·원대유물매장해역, 홍도천연보호구역, 칠발도해조류번식지, 구굴도해조류번식지 등 총 4건에 불과함.

- 신안군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도서인 관계로 교통이 크게 불편하고, 주요 관광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함. 아직도 신안군 관광의 대부분은 '바람'이 결정함.
- 소규모 도서인 관계로 관광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투자비용은 많이 소요되는 반면, 적정 규모의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움. 관광수요가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어 관광사업의 투자효율성이 크게 떨어짐.
- 급속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문화유적을 보존·관리하고 자원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유리한 여건

- 육지지역과 전혀 다른 자연·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어 색다른 것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 최고품질의 수산물, 어촌의 색다른 경관과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음.
- 도서지방은 민속문화의 보고로 다양한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음. 예로서 도서지방에는 수많은 당집과 당숲이 남아있음.
-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난대수종(상록활엽수)의 생태경관을 경험할 수 있음.

#### (4) 문화유적의 보존상황 및 보존방향

##### ○ 도서지방은 문화유적의 파괴현장

- 도서지방의 경우 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귀중한 문화재가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음. 수십 기의 고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수백 기의 고인돌은 제방을 쌓는데 사용되어버림.
- 도서지방은 육지지역에 비해 문화유적의 보존 및 관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나, 그 활용도는 훨씬 떨어짐.
- 도서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여 민속문화의 대부분은 조만간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음.

○ 문화유적의 보존방향

- 도서지방의 문화유산은 섬이라는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을 함께 보존하는 지혜가 필요함. 예로서 남해 도서지방의 독특한 난대수종으로 이루어진 '당숲'을 잘 보존하는 것은 당산신앙의 전승·보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함.
- 도서지방의 문화유산은 그 보존·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미 상당부분 훼손되어 원상태로의 복원이 어려운 유물이나 훼손될 처지에 놓인 유물은 한 곳에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함.
- 문화유적의 훼손된 부분은 최대한 원형대로 복원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문화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문화유적을 보전하는 지름길이기도 함.

(5) 무엇을 어떻게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할 것인가?

○ 고유의 지역성을 갖는 것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

- 관광객은 자기가 여행한 관광지를 오래도록 기억하며,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관광기념품을 구입함. 여행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관광활동의 커다란 한 부분임.
- 따라서 오직 해당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고, 그 기념품은 해당 관광지에서만 판매하여야 함.
- 단지 귀하고 고급스러운 것보다는 역사·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선발하여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함. 전해오는 설화에 등장하는 피리를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음.

○ 상품성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 관광기념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지역적 특성이 분명한 상품, 가볍고 휴대에 편리한 상품,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상품, 견고하고 실용적인 상품,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상품을 들 수 있음.
- 흑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흑산홍어'이지만 일반 관광객이 기념품으로 구입해 가기는 쉽지 않음. 흑산 홍어를 소량으로 진공 포장할 경우 관광기념품으로 손색이 없

을 것임.

- 문화유산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때는 자세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거기에 담긴 사연과 의미를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6) 홍보 및 이미지 개발

### ○ 차별화 된 홍보전략 수립

- 신안군은 지리적 특성상 도서로만 구성된 자치단체이고, 각 도서는 나름대로 차별화 된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여타 지역과는 다른 차별화 된 홍보 및 지역이미지 개발전략을 추진해야 함.
- 섬 지방이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규모 관광지의 모습과 고즈넉한 신안군 섬의 해변 휴양지를 상호간에 비교하여 제시하며, “당신은 어디로 휴가를 떠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함.
- 관광홍보에 있어서 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함. 즉, 설화나 문화유적에 깃든 사연을 컴퓨터게임으로 개발하거나 사이버 당(堂)을 짓거나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 ○ 문화유적 자원화의 모범 사례지역으로 개발

- 신안군을 지역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훌륭히 활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지역으로 개발함. 이를 통해 홍보효과와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음.
- 개별 여행객들이 쉽게 유적지를 찾아와 둘러볼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으로 문화유적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에 지역의 문화유적에 대해 안내·설명을 해줄 수 있는 안내도우미의 연락처를 명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문화관광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문화유산 해설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 마을의 문화유적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곳에는 정자를 설치하고 정자나무를 심어 이 곳을 ‘문화의 쉼터’로 개발해 나갈.

## 2. 자원의 특성과 의미

- 다양하고 아름다운 해변과 전통민속이 함께 하는 가장 섬다운 섬
  - 비금도는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5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며, 다양한 경관과 문화가 존재하여 섬이라는 곳을 느끼고 돌아오기에 매우 적합한 곳임.
  - 비금도는 갯벌과, 모래해변 그리고 해식애가 고루 잘 발달된 지역으로 다양한 해양 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인 도서임.
  - 비금도는 마을 돌담과 도서지방 특유의 민속 그리고 섬마을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갯벌과 염전이 한데 어우러진 곳으로 도서문화 체험의 이상적인 장소임.
  - 비금도는 원래 1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조선 중기부터 주민들이 간척을 시작하여 갯벌을 농지(1,600여 ha)와 염전(720여 ha)으로 전환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섬의 모습을 갖게 되었음.
  - 따라서 비금도는 섬이면서도 농지가 넓고, 염전이 발달하여 일찍부터 국내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가 되었음.
  - 비금도는 다른 도서지역과 달리 유교적 전통 분위기가 매우 강한 지역특성을 갖고 있음. 이는 아마도 천일염 생산으로 인한 부의 축적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3. 자원화의 기본방향

- 해변휴양과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청소년 캠프공간과 체류형 도서관광 명소로 개발
  - 비금도에는 전통적인 섬마을 분위기가 살아있고, 도서지방의 민속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전통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도서문화 체험공간으로 개발함.
  - 비금도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해안경관(갯벌, 모래해변, 해식애)을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연적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해변휴양 및 해양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함.
  - 비금도는 소금생산으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곳이므로 소금생산과 관련한 문화적 유산과 유적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함. 이를 위해 관련 유적을 보존하고 정비함.

- 천일염, 시금치, 그리고 기능성 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함초 등 지역특산물을 관광기념품으로 적극 개발함.

#### 4. 자원화 계획

##### 1) 핵심복합사업

###### (1) 섬문화 체험공간 조성: 내월리 일원

######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내월리는 들담길과 다양한 생활관련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가장 이상적인 전통 문화마을 조성 후보지

- 일반적으로 도서지방은 유교문화의 전통이나 문중조직이 강하지 않으나 비금도의 내월리에는 수많은 효자각, 열녀각, 사우(영당), 기행비 등이 길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특이한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내월리의 월포마을과 내촌마을은 유교문화와 민속신앙(당제)이 한데 어우러져 있어 가장 주목되는 곳임. 그 중에서도 내촌마을은 5효자(김씨네 3효자, 강씨네, 정씨네)가 나온 '효자마을'로 알려져 있음.

- 이 곳은 당터(내월리 내촌), 산신각(월포), 대장승, 효자각(3기의 비석), 토속적인 들담 등이 존재하여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음. 특히 섬 지역의 효열각은 목재건축보다는 해풍을 고려하여 석축 건물로 형성되어 있음.

- 내월리의 산능선에는 '우실'과 '일본군 포대'가 있고, 그 너머는 비금도에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늘섬 해식애와 해수욕장이 위치함.

○ 내월리 석장승

- 大將軍이란 명문이 새겨진 월포마을의 석장승은 높이 298cm, 폭 60cm로 대형 장승임.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1.5m의 장검을 거머쥐고 눈을 위로 치켜 떠 전방의 '승애봉'을 주시하고 있음.

- 이 마을 주민 전남균씨가 마을 앞쪽에 흉한 '범아재비' 형상을 하고 있는 선왕산(해발 225m) 숭애봉의 세찬 기운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잦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해 1955년에 선왕산의 바위를 떼어다 커다란 석장승을 세움.
- 마을 주민들은 매년 정월 보름에 上堂에서 상당제를 모신 후 下堂인 석장승에게 마을의 재앙이 없도록 기원하며 장승제를 지냄. 이 장승이 그 이름처럼 대장군이기 때문에 능히 앞산의 세찬 기를 꺾어 살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음.
- 흥미로운 것은 투구를 쓰고 있는 이 대장군의 모습이 일제시대 이 곳에 주둔했던 일본 군인들이 쓰고 다니던 투구를 본 따 조각되었다는 점임.

#### ○ 내월리 우실과 일본군 砲臺

- 우실은 내월리 마을 주민들이 하늘에서 불어오는 재내기 바람(재 넘어서 부는 바람)으로 인한 농사의 피해를 막고, 종교적 차원에서 마을을 보호하는 액막이용 울타리로 쌓은 돌담임.
- 또한 내월리 일대의 산 능선을 따라 일제시대에 구축된 총 7기의 포좌대 터와 대포알 저장 터, 그리고 산 능선을 따라 말을 타고 다니던 길이 존재함. 내촌마을은 한때 일본군이 주둔하였던 곳임.

#### ○ 내촌마을의 강강술래는 도서지방 특유의 민속놀이

- 비금도를 비롯한 도서지방의 강강술래는 육지와 달리 남녀가 함께 가무를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여러 마을의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녀가 모여 다소 격렬한 몸짓으로 강강술래를 하는데, 곳에 따라서는 남자보다도 여성이 더 적극성을 띠기도 함.
- 도서지방의 강강술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만남의 행사 역할을 하였음. 이는 관광객들(특히 신혼부부 등)이 매우 흥미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임.
- 비금도 내촌마을의 강강술래에서는 여성이 더욱 적극성을 띠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강강술래 도중 관심의 징표로 손수건을 건네주기도 함. 이 손수건에는 남자의 이름, 여자의 이름, 그리고 사랑을 상징하는 문양을 수놓기도 함.

#### ○ 하늘님 해수욕장

- 내촌마을에서 우실이 있는 산 능선 너머로는 비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하누뎀 해수욕장' (길이 1km, 폭 50m)과 하누뎀 해식애의 절경으로 연결됨.
- 하누뎀해수욕장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칠발도(천연기념물 332호)와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관을 이룸.

## ② 주요 사업내용

### ○ 내월리 일원에 전통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킴

- 내월리 월포마을과 내촌마을을 '전통 문화마을로 조성' 하여, 관광객들이 민박을 하며 문화유적 답사와 등산 및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함.
- 현재의 문화경관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고, 마을의 돌담길을 복원·정비하며, 가옥의 지붕을 내구성이 강하고 전통미가 있는 갈대지붕으로 바꿈. 한편 마을 길은 시멘트 포장에서 자연석 포장으로 바꿈.
- 각종 효행비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마을로의 진입로를 '효행의 길'로 명명하고 문화유산의 주변을 정비함.
- 내월리 석장승은 모형으로 제작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함.

### ○ 전통민가 체험공간 조성

- 전통 건축은 지어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임.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전통가옥은 그 기능성과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었음.
- 한편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통가옥은 특별한 체험과 과거의 향수를 원하는 관광객에게 귀중한 체험공간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도서지방의 다양한 전통가옥을 복원하여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민박)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영화촬영장과 민속공연장 등으로 활용함.
- 도서지방의 전통민가는 그 규모가 아주 작아 안방과 모방의 크기가 각각 2.2평과 1.6평 정도에 불과함. 특히 모방의 경우는 결혼한 아들부부가 거처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신혼부부 체험실' 등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 전통민가 체험공간으로 활용함.

○ 강강술래 등 민속공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내촌마을의 강강술래는 남녀를 불문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울려 춤을 출 수 있는 놀이  
이므로 비금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문화체험행사 목록에 반드시 포함시킴.
- 강강술래 도중 사랑하는 이성에게 몰래 건네는 수놓은 손수건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여 판  
매함.
- 손수건을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증을 거쳐 문화상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함.

○ 하누넝 해수욕장을 청소년 캠프공간으로 활용

- 하누넝 해수욕장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관광시설의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  
으나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캠프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편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산책로 조성

- 내촌마을(전통 문화마을 예정지)에서 우실과 일본군포대가 있는 마을 산등성, 그리고 하누넝  
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환상적인 산책로로 조성함으로써 이들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서로  
연계되는 연계관광지로 개발함.

(2) 이벤트 공간의 조성 : 명사십리해수욕장~시조염전 연계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최적의 자연적 조건을 갖춘 해변

-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길이 4km, 폭 150m(간조 시)의 모래해변으로 차량은 물론 비행기의 이착  
륙이 가능할 정도로 단단하고 경사가 완만함. 따라서 모래해변에 다양한 스포츠행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청소년 캠프공간으로 비금도를 활용하는 경우, 목포에서 1시간 정도의 배를 타고 도착할 수 있  
기 때문에 접근성에서 큰 부담이 없음

- 모래해변과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수욕장 뒤편의 사구에 방사림이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해수욕장의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의 낙조는 주변의 섬들과 어울려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함.

○ 비금도 시조염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염 생산지

- 현재의 비금도는 갯벌로 연결되는 인근의 여러 섬을 연결시켜 간척한 결과로 생겨난 인공 도서인 관계로 지형적 여건이 좋아 일찍부터 천일염 생산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음.
- 비금도에는 우리 나라(남한)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했던 곳으로 관련 유적인 '시조염전(구립염전)'이 지금도 남아있음.
- 우리 나라 전통의 소금생산방식이었던 '화염'의 생산 기능을 보유한 주민들이 생존해 있어 재현이 가능함.
- 갯벌 천일염은 성인병 치유에 효과적이란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화염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김치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부 염전지역에는 고니, 왜가리, 흰뺨오리 등 세계적 희귀조수가 날아들고 있음.

② 주요 사업내용

○ 명사십리해수욕장을 활동형 이벤트행사공간으로 조성

-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겨울바다 뛰어들기, 연날리기 대회, 해변오토바이 경주, 해변 강강술래, 갯장어 낚시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사장으로 활용함.
-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이 곳을 주요 행사장으로 활용함. 명사십리해수욕장은 특히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진입로를 정비하여 해수욕장으로의 접근을 수월하게 함.
- 인공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자연적 분위기의 해수욕장으로 운영함. 이를 위해 각종 편의 시설물은 사구 뒤편에 설치하고, 중간에 나무를 식재하여 해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 사구지역에 해당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구식물을 식재하고 그 뒤편에는 해송 등으로 방사림을 조성하여 모래해변을 보호하고 그늘을 만들어 관광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시조염전을 중심으로 소금 전시공간과 염생식물 학습장 등 조성

- 전통적인 염전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시조염전인 1·2호 염전을 중심으로 수차(水車) 등을 설치하고, 천일염 및 화염의 생산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함.
- 우선적으로 표지석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함.
- 그러나 현재 하의도에 소금전시관 건립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를 막는 차원에서 소금생산과 관련된 각종 도구(수리차, 감고, 물꼬마치, 뽕메 등)를 마을회관이나 노인당 또는 폐교 등에 전시하여 토속적인 분위기에서 관람토록 함.
- 다양한 종류의 소금(화염 등을 포함) 생산과정을 재현하고,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함유된 고품질의 소금을 기념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함.

○ 염생식물 학습장 운영 및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 비금도의 폐 염전이나 수로 부근에서는 갈대, 함초, 해홍나물 등 염생식물 군락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 염생식물 학습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캠프공간으로서 다양한 요소를 확보함.
- 폐염전을 활용한 대하양식장(상암마을 앞)과 염전 내에서의 대하잡기 및 모시조개 채취 등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 명사십리해수욕장과 시조염전간 연결도로 개선

2) 개별 사업

(1) 함초(통통마디)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함초는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능성 식품

- 함초는 우리 나라 서남해안의 갯벌이나 염전 주위에 무리 지어 자라는 명아주과에 딸린 한해살이풀임. 우리말로로는 줄기가 통통하고 마디마다 튀어나온 풀이라 하여 '통통마디'라 부름.
- 함초는 10~30cm 정도 자라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줄기가 진한 녹색이다가 가을이 되면 빨간

색으로 변함. 선인장처럼 잎과 가지의 구분이 없고, 8~9월에 꽃이 피어 10월에 납작하고 둥근 열매가 열림.

- 함초는 흙 속에 스며든 바닷물을 흡수하여 광합성작용으로 수분은 증발시키고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 칼슘, 요드, 나트륨, 마그네슘, 철, 인 등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90여 가지의 미네랄과 효소만을 몸 속에 농축하여 저장함. 따라서 함초는 지구상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는 식물로 알려짐.
- 함초에는 칼슘은 우유의 7배, 철은 김이나 다시마의 40배, 칼륨은 굴의 3배나 포함되어 있으며, 양질의 식이섬유가 함초 성분의 50%나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함초는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식품이자 의약품이며 조미료라고 할 수 있음.

## ② 자원화 방안

### ○ 함초를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함

- 함초를 다양한 기능성식품, 비금(또는 신안)의 별미 음식 등으로 개발하고, 함초 자생지를 생태체험관광지로 이용함.
- 함초는 우리 나라에서는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몹시 귀하게 여기는 식물로, 일본에서는 1921년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음. 프랑스에서는 함초의 어린줄기를 샐러드로 만들어 먹는데 웬만한 사람은 구경하기도 힘들다고 함.
- 함초는 일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기는 하나,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재배조건이 좋은 비금도 등에서 채취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신안군은 넓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 폐기된 염전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 함초를 재배하여 각종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한다면 국내의 시장에서 크게 호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함초는 캔음료, 기능성 미용비누, 치약, 향수 등으로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말, 캡슐, 정, 환, 액즙 형태의 건강식으로 개발되고 있음.
- 함초를 이용해 개발한 요리로는 함초비빔밥, 함초냉면, 함초국수, 함초김밥, 함초쌈, 함초죽, 함초냉채, 함초무침, 함초소금, 함초김, 함초튀김, 함초빈대떡, 동동주, 함초물김치, 함초두부, 함초샐러리 등 수십 가지에 달함.

## 합초에 대한 추가설명

- 합초는 식물학적으로 고생식물(원시식물)의 형태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은행나무나 소철과 같은 화석식물에 해당함.
- 중국의 神農本草經에서는 맛이 몹시 짜다고 하여 鹹草 또는 鹽草라 하였고, 몹시 희귀하고 신령스러운 풀이라 하여 神草라고 부름. 일본의 大和本草에서는 합초를 불로장수의 풀로 염초, 福草, 三枝라고 소개함.
- 합초는 숙변과 변비, 비만증,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각종 암, 면역기능 강화, 심한 피로, 축농증, 신장염, 관절염, 기관지천식, 피부미용 등에 뛰어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한편 합초의 효능은 중국 周나라 때부터 알려졌으며, 황제가 합초를 하늘에 바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周禮에 나옴.
- 합초는 담수의 유입이 없고 해수에 잠기는 곳이면서 물이 많이 차지 않는 곳이어야 하고, 또한 부유성이 강한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서는 파랑작용이 거의 없는 안정된 곳에서 잘 자람.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면이 안정되면서도 염도가 높은 폐염전이 합초 재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음.

### (2) '최치원의 샘' 과 松峙 파시

####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 여러 섬 지방의 최치원 관련 유적은 옛 한·중 항로의 궤적

- 비금도 최남단의 수대리 송치마을 뒷산(해발 95m)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향해 도중 식수를 구했다는 孤雲井이라는 우물터가 남아 있음.
- 비금도 인근의 우이도에도 최치원과 관련된 설화가 전해오고 있는데, 최치원은 심한 가뭄 때 비를 내리게 해주었고, 상산봉에서 바위에 바둑판을 그려 바둑을 두었으며, 제사 때 사용했던 철마와 은접시를 남겼다고 함.
- 이 곳은 본래 官廳島라 불리는 조그만 섬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본 섬과 연결되어 지금은 관청동이라 불리고 있는데, 이 이름은 최치원이 이 곳에 앞으로 관청이 들어설 곳이라고 예언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함.

- 최치원은 9세기 후반에 唐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인물로 고운정 설화는 이 곳이 당시 중요한 국제 해상항로의 경유지라는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임.
- 이중환의 『택리지』에 기록된 사실과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중국으로 가는 바닷길은 영암군 구림마을(혹은 월남마을)이나 화원반도의 唐浦 장산도 비금도 우이도 흑산도 홍의도(홍도) 가가도(가거도, 소흑산도) 중국 태주 台州 寧波縣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 송치마을은 일제 말 황금 조기어장이 형성될 당시 파시가 섰던 곳으로 지금도 파시골목이 잘 보존되고 있음.
- 송치파시는 두 개의 좁은 길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해안을 따라서는 선구점과 다방 등이 위치하였고, 뒷골목에는 여관, 민박집, 술집 등이 위치하였음.

## ② 자원화 방안

### ○ '최치원의 바닷길' 을 따라가는 관광코스 및 요트대회 개최

- 중국과의 수교 ○○년을 기념하여 과거 황해 횡단항로를 따라 무동력선(황포 돛단배 등)으로 항해하는 행사를 개최함. 이 때 고운정 등과 같은 관련 유적지에서 마을 주민과 함께 제사를 지내는 등의 관련행사를 개최함.
- 황해 횡단항로를 따라 다도해를 여행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섬 문화 답사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함.
- 황해 횡단항로를 따라 요트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대회로 육성해 나감.
- 송치파시를 복원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영화 촬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모형 풍선배(전통 한선)를 제작하여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함. 이 때 신안의 뱃노래 등이 풍선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제작함. 비금면 읍동에는 모형 풍선배를 제작하는 기능을 가진 조봉식 옹이 아직 살아 계심.

## (3) 城峙山城과 광대리 고분군

### ① 자원의 개요 및 가치

- 성치산성은 고대 주요 항로를 지키기 위한 해안 군사요새
- 성치산성은 고대의 주요 항로 중의 하나였던 '자은도-안좌도-장산도' 와 '비금도-도초도-하의

도-신의도' 사이의 해로 및 중간 기착 항구를 감시·보호하기 위해 축조됨.

- 성치산성은 백제시대에 始築된 태피식 석성으로 성벽의 길이는 약 200m 정도이고, 성 내에 건물지와 우물지로 추정되는 유적이 존재함.
- 산성 아래에 위치한 광대리 당두마을은 비금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이 일대에는 백제 석실분 등 40여기의 고분이 존재하였음.
- 성치산과 광대리 일원은 인근의 토축성(토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산성-백제 석실분-토성으로 이어지는 고대 군사적 요충지였을 것으로 판단됨.
- 산성의 인근 바위에는 길이 8m, 높이 3m, 너비 5m 내외의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 주민들은 이 바위 구멍을 龍沼마을의 '용 전설' 과 연관시켜 '용구멍' 이라 부르고 있음.
- 성치산성에 오르면, 동으로는 자은도-암태도-팔금도-안좌도가 에워싸고 있고, 서쪽으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바다경관과 일몰의 풍광이 환상적임.

## ② 자원화 방안

### ○ 성치산성의 정비와 고분군의 복원

- 성치산성은 광대리 고분군과 인근의 토성 등과 연계되어 고대 해로를 감시·보호하는 해양 요새의 중요한 유적이므로 산성과 관련시설을 복원함.
- 성치산성을 오르는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성 답사를 겸한 등산과 다도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함.
- 광대리 당두마을 일원에 분포해 있던 백제 석실분은 복원하여 해양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

## 5. 관광기념품 및 문화콘텐츠 개발

- 사람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영역을 갖고, 그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경계표시를 하는 본능을 갖고 있음.
-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신이 새로운 영역(여행지)을 차지했음(여행했

음)을 증명하는 증거품을 남기고자 하는 본능의 또 다른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사람들은 자기가 여행한 지역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관광기념품을 구입하며, 관광기념품의 구입은 관광활동의 커다란 한 부분을 차지함.
- 비금면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개발 가능한 문화유산과 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1) 관광기념품

- 내월리 월포마을의 석장승을 액막이 수호신의 의미를 부여하여 기념품으로 개발함.
- 전통 문화마을의 民家와 전통 韓船의 모형을 제작하여 기념품으로 판매
- 내촌마을의 강강술래에서는 여성이 사랑의 징표로 남자에게 전해주던 '수놓은 손수건'을 기념품으로 개발함.
- 함초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과 기능성 소금(활염 등)을 기념품으로 개발함.

### 2) 문화콘텐츠

- 죽림리 상암마을의 '밤달애 남사당놀이'의 장면을 CD 등에 담아 문화상품으로 판매.
- 비금도 강강술래의 장면을 CD 등에 담아 문화상품으로 판매.





비금도 명사십리 자원현황도





비금도 명사십리 기본계획도





비금도 하누님 자원현황도



# 섬 문화 체험 공간 조성사업



비금도 하누넵 기본계획도



□ 참여진

- 책임연구원    고석규(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교수, 도서문화연구소장)  
                  이종화(목포대 정경학부 도시및지역개발학전공 교수, 임해지역개발연구소장)
- 공동연구원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김지민(목포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건축학전공 교수)  
                  강봉룡(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역사학전공 교수)  
                  이헌중(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고고학전공 교수)  
                  홍석준(목포대 역사문화학부 문화인류학전공 교수)  
                  이덕안(초당대 관광학과 교수)  
                  문병채(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GIS전공)  
                  이경엽(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민속학전공)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전공)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2 - 비금면편 -

2003년 12월 발행

발행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인쇄 : 도서출판 무 들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98-16  
          전화 062-226-2559  
          1994년 4월 2일 등록 제 150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Tel:061-450-2952 Fax:061-453-2958  
<http://islands.mokpo.ac.kr>

신안군청  
전남 목포시 북교동 178-1  
Tel:061-243-2171 Fax:061-240-8000  
<http://sinan.go.kr>

